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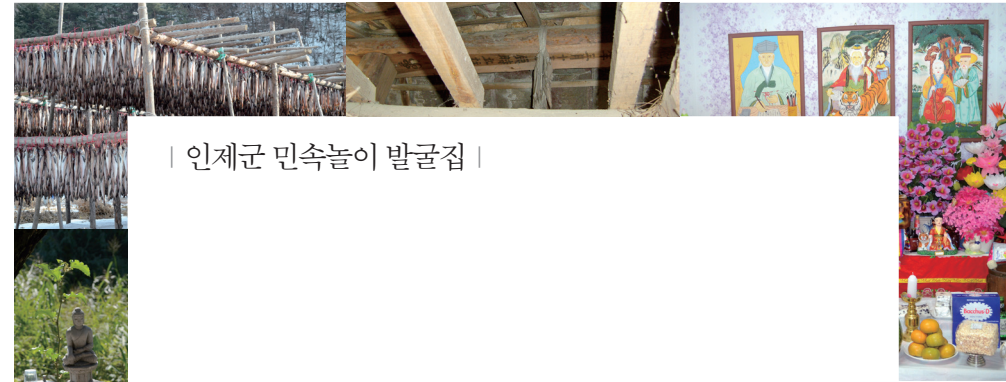
| 인제군 민속놀이 발굴집 |

인제 민속놀이

이 학 주



인제문화원



| 인제군 민속놀이 발굴집 |

인제 민속놀이

이 학 주



인제문화원


이 학 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에서 출생했다. 현재 춘천시 후평동에서 살고 있다. 대학은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녔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2000.2)를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강의하고 있다. KBS춘천라디오에서 2010년 4월부터 2017년까지 <강원로드>를 800회 방송했다.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다.

| 인제군 민속놀이 발굴집 |

인제 민속놀이



인제 민속놀이

초판인쇄 2018년 6월 10일

초판발행 2018년 6월 15일

펴 낸 이 남덕우

저 자 이학주

기획인 백창현

펴 낸 곳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전화 (033)461-6678 / 팩스 (033)461-0220

편집·인쇄 도서출판 산책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дук길 23

전화 (033)254-8912

ISBN 979-11-964062-0-2

※ 이 책은 인제군청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인제 민속놀이



발간사

한(恨)과 흥(興)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인제의 산과 내와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한껏 봄날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만춘(晩春)의 정취라 할까요. 언제나 맞이하는 인제의 봄 풍경이지만 저에게는 무척 새롭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청춘을 보는 것 같아서 지요.

이런 봄날의 정경은 얼마 있으면 신록이 무성한 여름날에 자리를 양보하겠지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인제의 계절은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디 봄, 여름뿐인가요. 산이 많은 인제의 가을은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유난히 오랜 겨울은 또 하나의 하얀 풍광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인제의 계절은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형형색색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인제의 사계절이 천변만화를 보여주듯, 우리 민족은 두 개의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恨)과 흥(興)이지요. 오죽했으면 냉가슴을 앓다가 웅어리가 저서 현대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화병(火病)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판을 깔아놓으면 언제 화병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흥을 자아냅니다. 노랫가락이 절로 나오고, 어깨춤이 바로 나옵니다.

인제의 민속놀이도 이와 같습니다. 고된 일에 찌들어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다가도 농악이 울리면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춤추고 노래하지요. 인제의 사계 중 겨울은 몹시 깁니다. 그렇듯 인제인의 삶은 다른 지역보다도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인은 긴 겨울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제인의 마음은 봄날처럼 언제나 따뜻하니까요. 바로 흥으로 한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인제의 민속놀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제인의 한을 풀어내서 흥겨운 마당을 만들고자, 이번에 인제 민속놀이를 발굴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놀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몇 개만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문헌을 뒤지고 현장을 찾고 연구를 하느라 애를 쓴 이학주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5월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서문

인제사람들의 참 아름다운 심성

인제를 왜 ‘하늘내린 인제’라고 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인제 곳곳을 다니면서 인제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선녀이며 천사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여름 일터에서 땀별을 받아 줄줄 땀을 흘리면서도 낮선 이방인을 정말 반갑게 맞이합니다. 처음 만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인제 만났잖아.’라는 표정을 얼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낮익은 이웃으로 보아주더라고요.

그 때문에 인제 어디를 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행여 점심밥을 굶었을 때는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 주기도 하지요. 이런 정은 인제인의 심성에서 비롯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로 똘똘 뭉친 마음 말입니다. 나보다는 먼저 이웃을 챙기지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이웃과 나눠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제인의 참 아름다운 심성은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닐 겁니다.

인제 민속놀이를 발굴하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놀이와 잔치마당에서는 더더욱 신명 났으니까요. 신바람 나서 옛 추억을 되살리고,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일도 재미가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고된 노동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은 참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인제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놀이를 발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허여되지 않아서 열넷 이야

기에서 마쳤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더 좋은 놀이를 발굴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남덕우 인제문화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마음 써 주시고 포근하게 정으로 대해 주시는 백창현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제보를 아끼지 않으신 인제사람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문래산인(文來山人) 이학주 쓰다



목 차

contents

발간사

서 문

제1장	인제인의 민속놀이 형성기반	11
1	인제의 자연과 역사적 특징	13
2	인제인의 민속사 원천	16
제2장	인제인의 기존 민속놀이	19
1	기존의 민속놀이	21
2	민속놀이 발굴의 가능성	23
제3장	인제인의 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기준	25
1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	27
2	민속놀이 발굴의 기준	31
3	민속놀이의 정의 및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	35

제4장 인제인의 민속놀이 발굴 실제 39

1 정자리 풀 썬는 소리 41

2 김부리 김부왕 단오놀이 53

3 서화리 용늪기우제 82

4 넷강 천렵 화전놀이 110

5 방태산 개인약수치성놀이 131

6 상남리 방아다리마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168

7 용대리 황태덕장 생업민속놀이 191

8 현리 박대감제민속놀이 212

9 기린면 권진사의 이상향놀이 237

10 진동리 고기진상놀이 247

11 정자리 서낭굿 252

12 현리 백동수의 무예도보통지 267

13 설악산마장터 시장놀이 275

14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 285

부록 머슴날 놀이를 통해 본 민속놀이 발굴의 방법 297

제 1 장

인제인의
민속놀이 형성기반



인제인의 민속놀이 형성기반

1 인제의 자연과 역사적 특징

인제군은 우리나라에서 인제군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먼저 영동과 영서의 중간 위치에 있어서 두 지역의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그 때문에 현재 홍천군 내면 지역은 한때 인제군에 속해 있었는데, 강릉시에 속한 적도 있었다. 재만 넘으면 고성으로 갈 수도 있었고, 현재 속초인 양양지역으로도 갈 수 있었다. 또 강릉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다. 동해안에서 나는 산물이 곧바로 선질꾼과 보부상에 의해서 인제로 들어오고, 또 인제에서 나는 농산물은 동해안으로 팔려가서 소금과 어물을 맞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용대리의 황태가 유명하게 된 원인도 진부령만 넘으면 명태의 고장 고성과 바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가까운 길은 간령을 넘는 길이였다. 소간령과 대간령을 사이에 두고 마장터라는 물물교환 시장이 열릴 정도로 두 지역은 빈번한 교류를 하였다. 오죽 두 지역의 교역이 잘 이뤄졌으면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팽자나무거리에는 무곡보부상들의 검문소가 있었다고 한다. 설악산 중간의 마장터에는 마을이 생기고 주막에 술을 대기 위해서 양조장이 생길 정도였다니 그 실상을 알만 하다.

게다가 설악산의 산적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용대리의 아니오니골짜기는 산적이 살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을 잡아 일을 시켜서 한 번 가면 ‘아니 온다’고 해서 아예 그곳 지명이 아니오니로 되었다. 설악산, 구룡령, 미시령, 한계령 등에는 이런 이야기가 술하게 많다. 그 때문에 한계산의 경우 한계산성에서 마의태자가 고향 경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도 하고, 기린의 박 대감은 동해까지 가서 왜구를 무찔렀다고 한다.

인제는 산과 강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설악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설악을 비롯하여, 방태산 등 아주 많은 산들이 즐비하다. 무려 산림면적이 87%에 달하며, 농경면적은 4.6%에 불과하다. 전체 크기는 서울에 비해 3배나 큰 면적이다.

산이 많으면 원래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계곡이 깊어 물이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명산을 찾아든 스님과 선비들이 줄을 이었다. 내설악을 찾아 글을 남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글을 모아 커다란 책을 낼 정도이다. 이 중에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이나 김창흡(1653~1722)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대부분의 선비들이 이들 때문에 내설악을 찾았다. 이 가운데 정필달이 한계사에 들렀다가 지은 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왜 당시 선비들이 설악산을 찾았는지를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한계사(題寒溪寺)〉 - 정필달(鄭必達, 1611~1693)

(在麟蹄東北三十里 山水之勝甲於嶺西 新羅太子不忍國亡 入此倚巖爲屋 金先生時習隱居于此洞 又有飛仙書一絕于絕壁云 “生先檀帝戊辰歲, 眼及箕王號馬韓, 留與永郎游水府, 又牽春酒滯人間.” 至今傳爲古蹟)

한계사에 제하다.(절은 인제 동북쪽 30리에 있다. 산수의 뛰어난 풍경은 영서에서 으뜸이다. 신라태자가 나라가 망한 것을 잊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와 바위에 집을 지었다. 김시습이 이 골짜기에 거처하였다. 또 비선대에 절구 하나를 절벽에 새겨놓았는데, “단군 무진년을 앞서 났고, 보기는 기자가 마한을 일컫던 때에 미치도다. 우연히 영랑과 더불어 수부에 노닐다가, 또 봄 술에 끌려 인간 세상에 머물도다.” 지금도 전해져 옛 고적이 되었다.)

雪嶽高臨大海觀 설악산 높게 큰 바다
靑天萬仞玉巖岈 푸른 하늘 위로 만 길 옥빛 산 솟아 있다
巖泉森森嵐光濕 바위의 샘물은 졸졸 흘러 산 빛을 적시고
松洞陰陰日色單 소나무 골짜기는 그늘져 태양빛도 외롭다
寂寞前朝還廢堞 적막한 앞 시대 왕조는 도리어 무너진 성첩
淸寒遺躅自空壇 김시습 남긴 자취는 텅 빈 제단으로 남아있다
人間春盡書安在 인간세계 봄은 다 했는데 글은 어디에 있는가
欲往尋之思羽翰 가서 찾고자 하니 신선을 떠 올린다.

(『2012설악산학술용역보고서』)

시(詩) 설명에 있듯이 단군, 기자, 영랑, 마의태자, 김시습 등 아주 중요한 신선 이

야기와 역사적 사실까지 모두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이곳 내설악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봉정암을 비롯하여 백담사, 영시암, 오세암, 한계사 등 아주 유명한 사찰이 많았다. 특히 봉점암의 답돌이와 영시암의 애화는 우리의 불교신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고 있으며, 호랑이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해 볼 사건이다. 오세암에 얹힌 슬프고도 신기한 이야기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으로서 아주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이는 나아가 봉정암 답돌이의 경우는 민속적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다.

또 방태산의 개인약수나 용늪에 얹힌 사연은 기우제와 약수제 등을 활용하여 민속 놀이로 만들 좋은 자료이다. 이 지역의 이야기는 비교적 많은 자료가 채록되어 있으므로 지금 당장 활용해도 손색이 없다.

인제에는 산이 많은 반면 물도 많다. 소양강, 인북천, 미륵천, 내린천, 서화천 등이 있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인제가 산이 많고 물이 많다가 보니 물과 관련한 삶의 흔적도 상당히 많았다. 물에서 고기를 잡아 생업을 잇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사람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강가에 나가 천렵을 하다가, 먹을 감는 일도 다반사였다. 생업과 놀이가 어울려서 또 다른 강민속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어부가 늘기도 하고 겨울축제인 빙어축제도 열리게 되었다. 산에는 나무가 좋은 것이 많고 강이 발달해 있다 보니 뗏목도 만들어서 서울로 나무를 날랐고, 거꾸로 한강을 거슬러 소금배가 오기도 했다. 합강정에서 강원도의 모든 현령들이 모여 합강제를 지낸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인제는 38선을 사이에 두고 있던 특별한 군이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곳이다. 남과 북의 정치를 모두 접하고 수복이 된 곳이다.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북한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오랜 전통이 담긴 고유의 민속을 모두 상실하였다. 그러나 수복이 되자 사람들은 예전의 민속을 고스란히 복구하였다. 인제인의 기억 속에는 8년 전 함께 했던 삶이 잊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지금껏 인제사람들이 누천 년 살아오면서 축적해 온 삶의 근간이 남아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의 근본은 속일 수 없다고 했던가. 이처럼 인제인은 오랜 전통을 지키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인제를 가꾸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인제는 오랜 역사를 누리면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지금까지 이어온 아름다운 고장이다.

2 인제인의 민속사 원천

인제인의 성격은 『관동지』(1830?)와 『인제읍지』(1843)에 의하면 “淳朴生業耕作(순박생업경작)”하다고 하였다. 곧, 사람들의 인심이 순박하고 생업은 농사를 주로 하는 경작에 종사한다는 뜻이다. 산이나 강에 가서 사냥을 해서 살 수도 있으나 논밭을 일궈 농사를 짓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강원도지』(1940)에는 “俗常勤儉 務奉公獎教育(속상근검 무봉공장교육)”라 해서, 항상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공무를 받들어 힘쓰며 교육을 장려하는 풍속이 있다고 했다. 인제사람들의 품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제군사』(1996)에는 위의 내용을 들어 “군민의 성격은 대체로 기품이 고상하고 순박하며, 인정이 많고 도의에 투철하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단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는 투쟁적이지 못하고 생존경쟁에 활발히 적응치 못하여 진취성이 부족한 점과 전통적인 농촌서민으로 추종적인 성격이 있는 듯한 점이 흠이라면 흠이라 하겠다.

또 전해오는 말로는 인제사람들을 ‘岩下老佛(암하노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뜻을 해석함에 따라 다른 뉘앙스를 갖는 말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부터 인제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토착민에 대한 표현이었으나, 전쟁을 치른 이후 외지민이 절반을 차지하는 현재는 지역민의 성격을 꼭 집어 말할 수 없다.(『인제군사』, 125쪽)

물론 투쟁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순종적인 것에 비해서 꼭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도 주변 환경이 변하면 얼마든지 성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암하노불은 쉽게 번역하면 바위 아래 늙은 부처라는 뜻이다. 이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삶에 도를 통한 이를 일컫는 말이라 하겠다. 노불은 애써 동분서주하지 않더라도 모두 알고 있고 힘들이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고수이다. 늙어 힘없는 모습이 아니다. 그랬다면 부처라 일컫지 않고, 노인(老人)정도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은 인제인의 삶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 정사에 기록해 둔 사실은 아니지만 마의태자의 경우 신라를 다시 찾겠다고 인제에서 병사를 훈련시킨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인제인이 투쟁적이고 진취적이

었나를 볼 수 있다. 기린면에서 마을제사를 받던 고려시대 인물 박 대감의 경우도 왜구를 쳐부수던 인물이었고, 역시 조선조 무인이었던 백동수도 비록 인제에서 8년만 기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무예지인 『무예도보통지』를 인제에서 썼다.

한편 인제인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을 최고의 마을로 생각하고 있었다. 향토애가 대단하기도 했지만, 그런 향토애는 인제를 일컫는 지명에도 담겨 있다. 이에 필자는 일찍이 인제의 지명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인제군의 명칭은 오족현(烏足縣)·저족현(猪足縣)·희제(狶蹄)·오사회(烏斯回)·인제현(麟蹄縣) 등으로 불려왔다. 이는 대부분 멧돼지 발굽, 까마귀 발, 기린 발굽 등으로 풀이된다. 모두 동물의 발과 관련되어 있다. 왜 이런 지명이 있었을까? 그것은 인제의 형상이 그렇게 생겨서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영소(靈昭)와 서성현(瑞城縣)이라는 지명도 얻게 된다. 이는 신령스럽고 상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제의 인(麟)자는 기린이다. 이 기린은 과거에 신비스런 동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인식했던 동물이다. 그래서 요즘 인제의 별칭으로 “하늘 내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게다가 까마귀는 일찍이 신화(神話) 새로 하늘에 닿는 신비로운 새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고조선과 고구려에서 삼족오(三足鳥)를 그려 표상으로 삼았던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렇다면 인제의 지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곧, 동물의 형상이 하나요, 하늘과 관련이 있는 신령스럽고 상서롭다는 이미지가 그 하나이다. 이는 곧, 하늘에 제사를 지낸 흔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은 찾을 수 없어 확고하게 증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곧, 멧돼지와 같은 동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희생물이고, 까마귀는 그 매개자이며, 기린은 하늘에서 내려온 상서롭고 신령스런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카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곳으로 본 것이다. 하늘의 신성이 인제 땅에 내린 신의 땅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하늘내린 땅’이란 표현이 이뤄진 것이라. 하늘내린 땅은 하늘이 내려 준 땅이 아니라, 하늘이 인제 땅에 내려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인제는 곧 하늘과 같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달리 말해 ‘인제는 하늘과 같이 이상향’이라는 의미로 봐야한다. 인제가 하늘처럼 통치를 한다면 문제가 많다. 그러니 하늘과 같은 극락(極樂)이라는 의미이다. 하늘처럼 온갖 근심걱정을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현생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지상최고의 복지(福祉)라는 뜻이다.

이 때문일까? 인제를 다녀보면 정말 순박하고 풍요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비록 현재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은 마을단위로 행하는 동제에서 잘 나타났다. 필자는 지난 2009년 인제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동제를 조사했다.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저녁 9시가 넘어 산으로 올라 동제를 조사하고 집으로 갈 때도 있었다. 그 결과물이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으로 나왔다. 이때 마을신앙을 조사하면서 인제사람들이 인제를 가꾸고자 하는 정말 착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인제군이 서로 도와가면서 마을을 가꾸어가는 원동력이 그런 배려와 사랑으로 똘똘 뭉친 착한 마음에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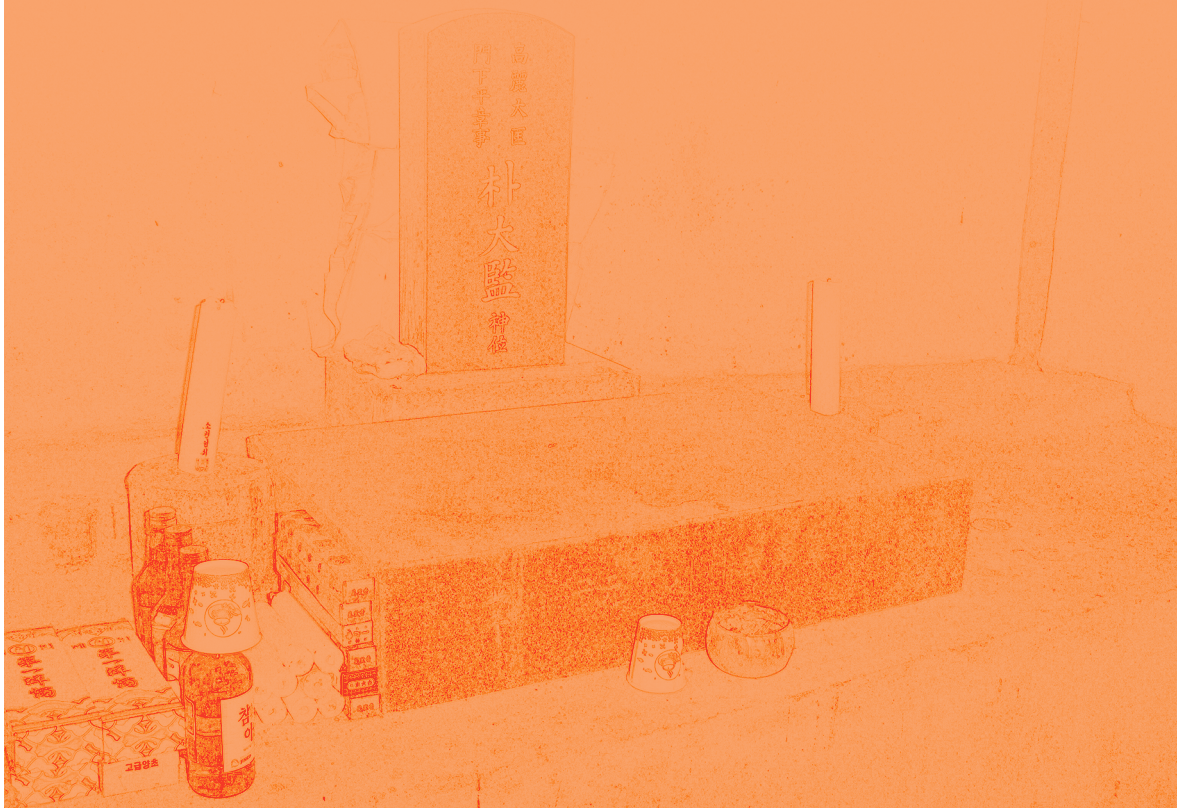
동제(洞祭)는 마을사람들이 함께 하는 마을 가꾸기의 제의이다. 마을의 의식(儀式)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제비를 마련하고 제각을 짓고 금기를 하고 제물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낸다. 제당까지 길이 멀어 힘들어도 새벽 같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도가로 선정되면 며칠 씩 금기하면서 힘든 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다. 모두 자신의 복락보다도 마을사람들의 복락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에서 온 것이다.

인제사람들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세시풍속에도 정말 적극적이다. 추운겨울이라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으면 정말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힘든 데도 불구하고 부평리 빙어축제나 용대리 송어축제와 황태축제 때 모두들 열성과 적극성이 대단하다. 이를 어떻게 볼까. 결국 인제인의 근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제인은 이런 여러 조건 하에서 삶의 틀을 다져왔다. 바로 인제인의 민속적 틀이며, 인제 민속사를 이끌어 온 힘이다.

제2장

인제인의 기존 민속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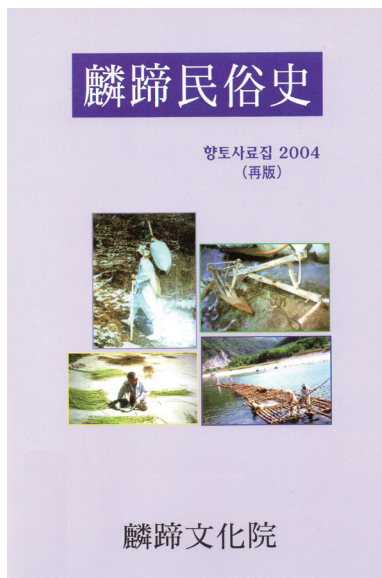


인제인의 기존 민속놀이

1 기존의 민속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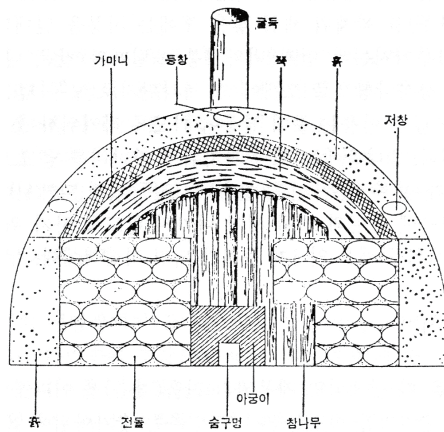
인제지역의 민속놀이는 일찍이 인제사람들에 의해서 잘 전승해 왔다. 그리고 이미 세월이 흘러 사라진 민속은 고증에 의해서 새로 발굴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그 실체를 다시 드러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제의 민속놀이는 인제만의 특성을 잘 부각하여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인제문화원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인제민속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이만철 인제문화원 부원장은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벼 찾아낸 주옥같은 인제민속을 연구하고 재연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정말 인제에만 있는 독특하고 멋진 민속놀이를 만들어냈다. 이를 2004년 인제 향토사료집으로 『麟蹄民俗史(인제민속사)』라는 제목으로 인제문화원에서 펴냈다. 이 책은 인제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를 담고 있다. 책에 담은 내용은 <망대세우기>만 유일하게 세시풍속이고, 모두 생업민속이다. 세월이 조금만 더 흐르면 더 이상 알 수 없는 생업민속이 담겨있어 더 가치가 있다. 게다가 책을 펴



인제 민속놀이를 담은 『인제민속사』의 표지

내면서 그림과 사진을 넣어서 생동감이 넘치게 만들었다는 데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글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을 그림을 그려 넣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생업민속이 진행되는 과정을 발굴하여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숯굽기〉의 숯가마구조를 그린 그림

이처럼 이만철 부원장이 찾아낸 인제민속은 생업민속으로, 생활 속에서 전승된 민속을 놀이로 만들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곧, 〈인제 뗏목〉, 〈심마니〉, 〈숯 굽기〉, 〈갈이남 박 만들기〉, 〈군량동 채독 만들기〉, 〈대장간〉, 〈바지계 선질꾼〉, 〈다릿골 무쇠점간〉이 그것이다. 이런 생업민속은 지리적 속성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에서만 전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바지계 선질꾼이라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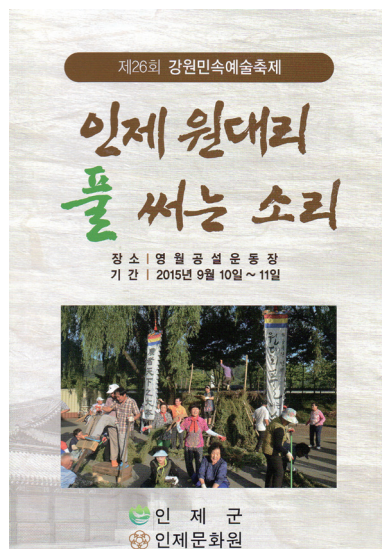
인제의 선질꾼은 양양에서 소금을 지고 구룡령을 넘어 왔는데, 이는 양양이라는 바다를 접한 지역의 산물이라는 특수성과 구룡령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인제라는 지리적 특성이 함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생업민속은 생업의 도구와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겼다가 곧 없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민요나 설화처럼 한 번 녹음이 나 녹화를 통해 기록을 해두면 또 다른 가창자나 이야기꾼이 나와서 영원히 전승하는 것과는 다르다. 생업은 먹고 사는 필요성에 의해서만 전승이 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2015년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제 26회에 출품한 작품도 〈인제 원대리 풀 썬는 소리〉라 하여 생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풀을 썬 때 부르는 민요인 〈풀 썬는 소리〉를 찾아 출품하였다. 소리를 새로 발굴하여 출품하였다는 자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소리 자체도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연출을 잘 하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모두 좋은데, 풀 썬는 생업과 전혀 상관없는 제의를 넣었다. 물론 산에 가서 풀을 베어 오기 때문에 산신령의 주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제사나 고사와는 별개의 행위임을 모두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민요가락을 전문으로 하는 민요가수가 소리를 지도했다. 농부들이 부르는 소리와 민요가수가 부르는 소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 소리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민요이지만 토박이가 부르는 민요는 세련되지는 못해도 진한 토속적인 맛이 풍긴다. 그러나 민요가수가 부르는 민요는 전문가의 색깔이 풍겨서 토속적인 맛을 잃게 된다. 민속경연대회에서 요구하는 원래의 의도를 훼손한 것이다.

아무튼 인제에는 그동안 연행한 민속놀이는 대부분 생업민속 중심으로 행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인제 원대리 풀 썰는 소리〉 팸플릿

2 민속놀이 발굴의 가능성

인제는 한 마디로 민속의 고장이다. 아울러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아직도 민속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다. 비록 어떤 곳은 농촌의 면모를 상실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 했으나 거기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향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게다가 예전에 사용하던 농기구며 집안의 살림살이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속신앙의 경우도 간혹 없어지기는 했으나 아직 전승이 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여러 곳에서 예전과 똑 같은 모습이다. 다만 그 전승의 형태는 세월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하기도 한다. 남면 정자리는 2016년 현재 무려 5곳에서 마을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반별로 모두 지내고, 아랫말의 4반은 산신제와 거리제까지 지내고 있다. 게다가 셋말의 서낭제는 곳의 형태로 바뀌어서 하루 종일 굿을 하면서 무당과 동네사람이 함께 하면서 제의를 행하고 있었다.

세시풍속도 비교적 정월대보름을 중심으로 잘 전승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모여 행하던 달맞이는 마을단위로 행하고 있으며, 역시 아이들이 모여 행하던 쥐불놀이도 마을행사의 일환으로 남아 있었다. 냇강마을은 마을에서 농악대를 조직하여 놀고 있

었으며, 상남의 방아다리마을은 마을회관 앞에서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아침에는 산에 올라 마을제사를 행하고, 낮에는 마을잔치를 열고, 저녁이면 달집을 태우면서 축제를 열고 있었다.

민요는 개별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는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전문 가창자의 지도로 배우기도 하였다. 물론 전문 가창자인 민요가수가 노래를 전수하다 보니 인제의 토속적인 민요가 변질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인제는 특히 생업민속이 잘 보전되어 있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인제인의 기억을 더듬어 그대로 전승이 가능하다. 뗏목, 솟가마, 화전, 선질꾼처럼 아주 독특한 형태의 생업민속도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고기잡이 등과 같은 흔한 생업민속도 얼마든지 채록할 수 있고 또 다듬어서 민속놀이로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일생의례에서도 인제만의 독특한 자료는 쉽게 발견되지 않지만 옆 동네에서 흔히 하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은 채록이 가능하다. 게다가 서당속 등이나 마의태자와 백동수와 만해가 머물렀던 백담사 등의 생활과 관련한 자료는 아주 독특하다. 내 설악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민속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제에는 더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속예술로 가꿀 자료들이 술하게 많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채록하고 원형을 살려 민속놀이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 때문에 시나리오작가는 여러 차례 제보자를 찾아서 잊힌 기억을 되살려 채록하고, 현장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 돼야 현지인들의 속내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연출가를 비롯한 관계자가 모두 행해야 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연출가의 자질이다. 연출가들이 대부분 현대적인 극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 예전의 민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화려하고 박진감 있게 마당극을 꾸미기는 해도 전통적인 맛을 상실하여 변질시키고 있다. 민속예술대회를 열어 경연을 하는 것은 전통의 보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여 우리 선조들의 삶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끄럽고 화려하게만 하고 심사위원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3장

인제인의 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기준



인제인의 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기준

1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

- ㉠ 전통성
- ㉡ 지역성
- ㉢ 향유성
- ㉣ 시공세계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민속놀이는 놀이에만 국한하지는 않는다. 이는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는 모든 민속을 의미한다. 이때 민요든, 놀이든, 세시풍속이든, 민속신앙이든 모두 놀이의 형태를 띠고 마당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속놀이로 통칭한다. 민속경연대회는 놀이의 형태로 마당극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축제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명석 깔아놓은 마당에서 한바탕 준비해 온 재주를 펼치는 연희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민속놀이로 보면 된다.

일찍이 평창군에서는 『평창군의 민속놀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곳에 의하면 민속놀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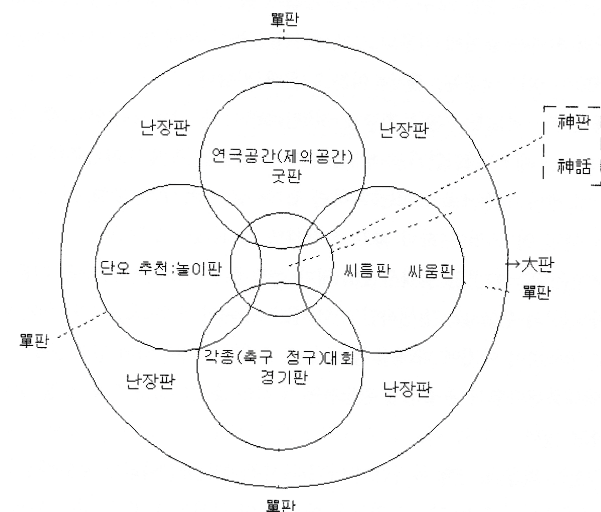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놀이는 오늘날의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오락(Pastime)과 즐기 위한 오락(Amusement)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속놀이라는 개념 속에서 싸움(Game)을 뜻하는 경쟁의식을 비롯해서 흥을 뜻하는 유희성, 즐거움을 나타내는 오락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으로 숨어 있기 때문이다.

놀이는 종교적 행식(行式)이나 세시풍속에서 출발한다.¹

이처럼 민속놀이는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 민속놀이는 민속예술경연대회의 개념에서 진행한다.

그런데 민속예술경연대회 아니, 민속놀이는 모두 판놀이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판은 놀이판으로 마당과 같은 개념이다. 이 판놀이는 판소리의 판놀음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판소리의 판놀음은 소리를 가창하기 위한 판인데 비해, 민속놀이의 판은 실상 제의에서 비롯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원시종합예술이나 파종제 및 추수감사제와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이런 행사는 모두 제의라는 집단적인 놀이의 형태에서 비롯하였다. 곧, 국가나 마을을 관장하는 신께 제의를 지내면서 신을 강림시켜 신을 즐겁게 대접하여 올려 보냄으로써 인간의 복락과 풍요 및 안녕을 기원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 때문에 질편하게 난장을 열고 놀이를 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하면서 놀이로 만든 것이다. 물론 일생의례의 몇몇 놀이는 예외일 수 있다. 하지만,



강릉단오제 놀이판(김선풍)

¹ 김선풍 · 장정룡 · 김경남, 『평창군의 민속놀이』, 평창군, 2005, 7쪽.

그 경우도 신께 자식을 기원하고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신께 기원하는 면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신께 기원을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벌이는 축제의 판이 곧 판놀이의 형태로 남아 있다. 다만 축제와 같이 종합적인 예술을 할 수 없기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그 중의 일부를 떼어서 판놀이의 형태로 공연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굿놀이판²이 형성되는 것이다.

강릉단오제의 경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국사성황신인 범일국사 신과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인 정 씨녀를 합위시켜 남대천 굿판에 모셔놓고 강릉의 안녕과 풍요 및 복락을 위해서 제의를 행하는 세시풍속이면서 민속신앙이다. 이때 성황신을 모신 제당에서는 강릉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장이 매일 조전제를 비롯하여 각종 제를 지내고,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강릉시민들과 함께 판을 벌린다. 강릉단오판은 굿을 하는 제당을 중심으로 각종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³

그림에서 보면 단오판이라는 큰 판에 각종 단판이 어울려 단오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오판에서 보듯이 놀이판은 큰 마당에서 제의를 행하고 한 바탕 신나게 노는 신바람 나는 놀이판이다. 이 때문에 “한국적 축제의 판은 둥근 원의 철학이었고 그 속에서의 문화였다.”⁴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은 태극의 원형적 판구조를 띤다고 한다. 태극(太極)의 판구조는 『주역』에서 볼 수 있는데, 음양이라는 양의(兩儀)로 발전하기 위한 카오스의 춤사위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둥근 원 속에서 카오스의 춤사위를 벌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선풍은 우리나라의 놀이판은 태극의 판구조를 띤다고 하면서 태극의 원 속에서는 판타지(Fantasy; Paidia)와 규칙(Rule; Ludus)이 어울려 돌고 있다고 했다.⁵ 곧 양의를 낳기 위해서 환상과 질서가 어울려 혼돈의 세계를 만들어 춤사위를 벌이고 있음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런 행위는 변화(變化)와 생성(生成)을 축으로 하는 『주역』을 바탕으로 했음으로 볼 때, 축제와 민속놀이의 판은 인간의 삶이 더 나은 세계가 되기를 기원한 제의적인 판놀음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세계를 꿈꾸는 인간의 신바람 나는 춤사위를 놀이판으

2 위의 책, 13쪽.

3 위의 책, 15쪽.

4 위의 책, 17쪽.

5 위의 책, 18쪽.

로 만들어서 행한 의식이 민속놀이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민속놀이의 놀이적 성격을 반추해 볼 때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은 ㉠ 전통성 ㉡ 지역성 ㉢ 향유성 ㉣ 시공세계라는 적어도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곧 이 네 가지의 특성은 함유하고 있어야 민속놀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전통성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생활의 일부로써 행해온 민속이 지금까지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지금까지 전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고층에 의해서 발굴할 수 있는 민속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 다음 지역성은 인제면 인제, 강원도면 강원도, 한국이면 한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띠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지역의 고유성을 말한다. 그 다음 향유성은 그런 민속을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유하지 않으면 전통성도 지역성도 없음을 뜻한다. 시공세계는 민속놀이를 시공세계로 엮어내기이다. 세공세계(時空世界)는 3차원의 시공에 4차원의 시간을 더한 시공의 연속체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삶에 조상들의 삶을 덧입혀 마당놀이로 만드는 작업이다. 사실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요즘 단절되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삶이 바뀐 탓이다. 간혹 민속신앙의 경우나 세시풍속의 경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그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행위에 따른 절실성도 상당부분 상실되었다. 이 때문에 민속놀이로 만들어 공연을 할 때는 옛날 진정하게 절실성을 가졌던 시절을 현재시공으로 가져와야 한다. 현재시공으로 가져와서 재현을 하는 민속놀이여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에 그때의 시간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시공세계를 만들어 마당놀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속놀이의 특성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제인의 신명이 담긴 민속놀이로 만들려면 태극의 카오스 속에서 춤사위를 행하여 음양을 낳듯이 놀이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자가 위에서 말한 네 가지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2 민속놀이 발굴의 기준

- ㉠ 원형보전
- ㉡ 공동체의식 반영
- ㉢ 예술성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는 민속놀이는 민중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이다. 그것도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성과 지역의 고유성이 담긴 내용을 주로 다룬다. 그 때문에 민속놀이는 원형이 잘 보전되어야 하고, 공동체적인 의식이 반영되어야 하며, 연회를 행하기 때문에 예술성도 가미되어야 한다. 이 원형보전, 공동체적 의식의 반영, 예술성은 어쩌면 민속놀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일 수 있다. 이 조건은 민속의 원형을 현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민속경연대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조건 옛것을 발굴해서 연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민속놀이를 통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을 보전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혼자서 이뤄질 수 없으므로 마을 또는 사회와 국가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왜냐면 민속은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의 독특한 삶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하며 공동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풍속이어야 한다.

가령, 집집이 지내는 가정신앙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삼신신앙이나 터줏신앙 및 텃고사 등의 가정신앙은 그 가정에서만 지내는 신앙이지만, 그런 신앙이 마을사람들이 모든 가정에서 행하고 있다면 이는 마을공동의 의식을 반영한 민속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경연대회에 나가서 연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해야만 한다. 벌써 그런 단계라면 이는 행위예술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 때문에 경연대회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성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런 예술성은 되도록 세련되지 않고 투박한 토속성을 띠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이곳에서 주장하는 민속놀이 발굴의 세 가지 기준은 심사자들이 요구하는 심사기준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사람 중에 이기원 강원도문화재위원이 있다. 이기원 씨는 제11회 강원도민속경연대회를 보고 자신의 소감과 민속경연대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썼다. 바람직한 민속놀이 발굴을 위해서 좀 길지만 참고자료로 이를 여기 옮겨 본다.

대중속 祝祭로 승화 아쉬워

실제전승놀이 민요 무용발굴 작품화 바람직

관객유치에 소홀했던 아쉬움

서양음악의 각종 연주회를 비롯하여 여러 극단의 공연 등 서양풍의 공연예술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것인 국악이나 민속음악 민속극 등 전통예술 공연은 흔치 않은 것이 요즘 공연 예술계의 현실이다. 특히 지방에서 민속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강원도청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는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경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민속예술에 참여케 하고 또 이를 음미해 볼 수 있게 하는 뜻 깊은 행사다.

지난 9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실직국의 옛 도읍 삼척시의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제1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민속예술의 발굴 보존이라는 이 대회의 개최 목적에 못지않게 민속예술의 대중과의 교감 기회제공이라는 의의도 큰 행사였다.

이번 대회는 도내의 각 시·군이 출연시킨 25개 민속예술단 1,46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민속예술의 한마당 큰잔치에는 틀림없다.

경연에 참여한 21개 민속예술단이 선보인 작품 중에는 삼척시의 ‘오금잠(烏金蠶)놀이’ 등 민속놀이 뿐 아니라 양구군의 ‘바랑굴 농요’ 등 민요 부문에서도 새로 발굴된 소재의 작품을 내놓아 민속예술의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성과가 적지 않은 대회였다.

그러나 민속예술을 대중과 어우러지게 하는 데는 이번 대회 역시 미흡했다. 주최측은 경연 행사라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관객의 유치에는 소홀해 모처럼 갖는 민속예술의 잔치를 주최자와 연희자만이 참여하는 집안굿으로 끝나게 했다. 대중의 참여와 공감 없이 민속예술의 전승을 아무리 외쳐 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연희자와 관객이 어우러져 우리의 가락과 멋에 흥을 돋울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민속예술의 동참자를 넓히는 데도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다.

경연의 출연작품은 모두 21개 작품 중 민속놀이가 그 절반을 넘는 12개 작품이었으며 민요 농악이 각각4개 출연단 그리고 민속무용이 한 개 작품이다. 가장 많이 출연한 민속놀이부문 12개 작품 중 춘천시의 ‘차전놀이’ 철원군의 ‘농기싸움’ 동해시의 ‘원님 답교놀이’를 제쳐 놓으면 순수한 의미의 민속놀이는 거의 없다. 이밖에는 사라졌거나 사라져가는 생활 습속을 재현한 작품이 전부여서 이것을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들이다.

의상, 소품고증 철저해야

새로 발굴돼 관심을 끌었던 삼척시의 ‘오금잠놀이’ 역시 옛 마을의 제사를 다시 구성하여 놀이로 내놓은 생활습속을 재현한 작품이다.

‘東國輿地勝覽’ 삼척도호부 풍속 조항에

‘오금잠에 제사를 한다. 고을 사람이 비녀를 작은 함에 담아 관아 동쪽 모퉁이 나무 밑에 감추었다가 단오에 끄집어내고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낸 다음 이튿날 다시 감춘다’는 기록이 ‘오금잠놀이’의 문헌적 뒷받침이다.

삼척시의 ‘오금잠놀이’는 문헌적인 근거도 확실하고 작품의 구성이나 연출의 기법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을 종합최우수상에 천거하는 심사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

‘오금잠놀이’가 새로 발굴 재현된 민속놀이로서 주목 받으면서도 종합최우수상을 받지 못한 것은 민속놀이 부문에 출연되는 작품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라 봐야한다.

민속놀이는 천편일률적으로 도열입장에 이어 첫째 마당이 전통제사 둘째 마당이 습속의 재현 셋째 마당이 흥겨운 잔치 순서의 구성형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근원적으로 그것이 민속놀이가 아니라 습속의 재현이므로 놀이로 승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거기에서 놀이로서의 흥과 신명을 불어넣는데도 한계가 있다. 또 이미 전승이 끊어진 민속을 재현하는 데는 자칫 잘못하면 민속을 조작하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옛생활 모습을 재현하여 출연하는 성향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전승되는 놀이 민요 또는 무용 등을 발굴하여 작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경연에 나선 민속놀이의 연출상의 일반적인 흠은 놀이마당과 마당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연희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조연이나 부수행위가 너무 두드러져 주연의 역할이나 주제의 표현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등장과 퇴장의 방식, 일사불란한 연희자의 동작은 민속적인 놀이의 속성과 너무 거리가 멀다. 무질서하듯하면서 자연스러운 속에서 가락에 흥이 저절로 나고 이 흥이 동작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장 민속적인 율동이자 동작의 흐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의상이나 소품을 잡다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선택 배치해야 한다는 것도 첨언한다. 또 인물을 설정하는데 주제와는 거리가 먼 각설이나 거지를 출연시키는 것도 지양해야겠다. 각설이나 거지의 어릿광대짓이 관객의 흥미를 끌 것이라는 발상에서 내세우는 모양이나 유교적 제레마당에도 이들이 설치게 하는 것은 생활상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나 작품성을 높이는 효과면에서도 결코 도움을 못 준다.

전승작업 미흡 안타까워

작품으로서 공연되는 민속놀이는 극적요소와 가락 춤 등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다가 순수 창작활동이 아니라 민속의 재현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출자와 민속학자 민속예술인이 공동작업을 해야만 비로소 작품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 어떤 민속예술단은 민속놀이가 많은 인원의 연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급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는 학생들의 정서나 몸짓은 민속에 접근하는데 한 세대의 감각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고한다. 연희자들은 이를 테면 구세대를 선택하여야만 훨씬 자연스럽다.

특히 민속놀이를 민속예술로 탈바꿈시키고 정기를 넣는 구실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가락이 들어가야만 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많이 연구돼야겠다.

민속예술경연대회가 11회에 이르는 동안 민속무용 부문에 출연한 첫 번째 작품이 속초시의 ‘설악산 산신맞이 놀이굿’이 아닌가 한다. 춤사위의 철저한 고증과 근거를 알 수 없는 의상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겠으나 민속무용에 대한 관심은 높이살만 했다. 민속무용의 발굴과 이의 전승은 우리 고장 민속예술계의 한 과제라 하겠다. 영동의 농악 영서지방의 민요 각 시군의 민속놀이도 향토적인 특성이 잘 살아있어 향토의 민속예술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민속무용 부문에서는 아직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굿의 춤사위도 잘 가다듬고 정리해서 민속무용의 한 분야로 전승하는 작업도 권하고 싶다.

경연대회장에서 매년 느끼는 일이지만 영의 동쪽과 서쪽을 가릴 것 없이 예부터 불려지던 농요는 그 구성진 소리로 청중을 사로잡는다. 명주군의 ‘학산농요’가 그렇고 횡성군의 ‘우밀 두레농요’는 듣는 사람을 애꿎게 한다. 명주군 학산과 횡성군 정금의 민요는 소리가 잘 다듬어졌고 어우러지는 연희자의 흥과 춤사위도 나무랄 데 없이 매끈하다.

아쉬운 것은 몇몇 고회의 소리꾼에 의해 면면이 전승되는 우리 고장의 민요가 이들의 소리가 끊어지면 곧 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민요의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 등 당국의 관심이 있어야겠다.

양구군의 ‘바랑골 농요’가 종합최우수작으로 뽑힌 것도 소멸되어 가는 민요를 전승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민속예술의 새로운 소리를 찾는 일에 게을리 해서도 안 되겠지만 기왕에 출품했던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가다듬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전승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의 정서에 가장 걸맞는 것이 민속예술이라는 확신을 갖고 민속예술을 대중 속에 심는 노력이 계속돼야겠다.⁶

인용의 내용이 좀 길지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원형을 보전하는 것이다. 비록 세련되고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을 잘 이어가서 우리의 전통을 원형 그대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민속놀이, 민요, 세시풍속, 민속신앙, 민속무용 할 것 없이 원형보전은 물론이고, 그런 예술 속에 담긴 공동체의 의식을 충분히 반영해 내고, 아울러 어차피 연회이기 때문에 예술성도 가미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3 민속놀이의 정의 및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1) 민속놀이란

민속놀이는 민중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희망을 주고, 기원을 하는 아주 건전한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다. 이 때문에 민속놀이가 많이 전승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개인 놀이는 개인의 오락이나 기원 등을 주로 나타내고, 집단 놀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단체나 마을 공동체가 단합을 다지면서 공동의 기원을 한다. 이는 개인, 가정, 마을, 시군 등의 단위에 맞는 놀이를 통해 공통의 삶의 기반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구가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2) 민속놀이의 유형

일반적으로 민속놀이는 세시놀이, 연중놀이, 집단기원놀이가 있다.

(1) 세시놀이

세시놀이는 오락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농사와 관련된 것이 많다. 이는 농사가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

6 이기원, <제11회 도민속경연대회를 마치고, 대중속 祝祭로 승화 아쉬워>, 『月刊 太白』77, 강원일보사, 1993.11, 86~9쪽.

사는 24절기를 중심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세시풍속과 밀접하였다. 또 개인의 기원과 안전을 바라면서 하는 놀이도 세시놀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세시놀이에는 정초에 하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이 있고, 정월대보름에 하는 달맞이, 어부식(魚飮食), 석전(石戰), 다리밟기, 농악대놀이, 걸립, 보리점치기 등이 있으며, 쯔생이 날에 하는 쯔생이보기, 단오 무렵에 하는 그네뛰기, 씨름, 화전놀이 등등이 있다. 이런 놀이는 일 년 내내 세시마다 그에 맞게 이어졌다.

(2) 연중놀이

연중놀이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놀이로 세시적인 의미를 두지 않는 놀이이다. 아이들이 노는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자치기, 공기놀이, 고누, 술래잡기, 땅따먹기, 장치기 등이 있으며, 어른들 놀이로는 바둑, 장기, 마작, 골패, 화투 등이 있다.

(3) 집단기원놀이

집단기원놀이는 원래 제천행사(祭天行事)나 서낭제, 산신제를 지내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축제(祝祭)의 형태를 띠면서 신바람이 나고 부귀복락(富貴福樂)을 기원하는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봄에는 농사의 풍년과 무사고를 기원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등으로 놀이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행해진 기줄놀이(줄다리기)는 집단기원놀이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나라에서 전통놀이 및 민속을 계승하고자 행한 전국민속예술대회로 인하여 지역별로 새로운 집단놀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 대회는 각 도별로 경연대회를 열게 했으며, 각 시군별로도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갖게 되었다.

3) 민속경연대회

(1) 취지 및 역사

전국민속예술을 발굴해서 전승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1958년 정부수립 10주년 기념 축하행사를 겸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1959년 1960년 두 해를 거른 뒤에 1961년부터 공보부(국정홍보처)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대회 명칭을 바꾸었다. 1967년부터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순회개

최하고 있다. 출연종목은 농악,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 민속극, 제의, 생업 등이 다. 참가자격은 연회를 생업으로 하지 않는 순수 민간신분의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30분 이내의 시간 동안 연회 할 수 있다. 대회를 통해 2013년까지 250종목이 발굴 연회되었으며, 그 중 34종목은 중요무형문화재로, 20종목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2) 성격에 따른 민속경연대회의 유형

① 농악 ② 민요 ③ 놀이 ④ 제의 ⑤ 세시 ⑥ 생업 ⑦ 역사 ⑧ 의식주 ⑨ 신앙 등

(3) 규모에 따른 민속경연대회의 유형

① 전국민속경연대회
② 지역민속경연대회 - 강원도 대표, 시군대표

4)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춘천시: 풍물놀이(석사농악놀이, 금병어머니농악, 우두풍물놀이), 신앙제의놀이(신용연용신제, 발치리거리제, 제궁동산제거북놀이), 역사재현놀이(봉의산축성놀이, 춘천의병행렬, 우두산소슬피놀이, 장절공도이장가놀이), 전통풍속놀이(외바퀴수레싸움놀이, 호미씻이놀이, 통지계선질꾼놀이, 석과령주막놀이, 원아리(천전리)집짓기놀이, 기줄싸움놀이), 민요(샘밭 장타령 놀이) 등

▷원주시: 오리현농악, 지신밟기와 햇불놀이, 풍년맞이 기줄당기기, 원주상원놀이, 음무현 닛풀이, 꼬뚜레, 매지지경다지기, 논매기와 두레싸움, 논매기와 호미씻이, 터다지기와 성주풀이, 백중놀이, 매지대동제놀이 등

▷강릉시: 줌상날 억지다리뺨기놀이, 강문 진또배기, 관노가면회, 강릉농악, 강릉단오굿, 강릉용물달기, 학산오독떼기, 하평답교농악, 학산농사풀이, 학산봇물싸움놀이, 신령산 고비 고사리꺾기 등

▷동해시: 영등놀이, 질먹기놀이, 고주목나르기, 망상동 골안농악, 고청제 햇불놀이, 보역사놀이, 해신제 뗏불놀이, 뒤뜰제 걸입패놀이, 샘실우물굿농악, 선돌말이, 원님답교놀이 등

▷태백시: 갈풀썰이, 지게싸움놀이, 외나무다리놓기, 사시랭이, 뗏돼지사냥놀이 등

- ▷속초시: 속초뱃소리, 용왕수살굿, 만천동 나룻배싸움, 물치용왕굿용떡놀이, 설악 산신맛이 놀이굿 등
- ▷삼척시: 삼척기줄다리기, 오금잠놀이, 축성놀이, 너와집 짓기, 척주동해비 입석놀이, 무쇠판장부리, 실질국 철쭉놀이, 삼척메나리, 토염놀이, 살대세우기, 학산뽕물풀이, 학산농요 등
- ▷홍천군: 홍천 물통방아놀이, 연자매놀이, 팔봉산당굿, 석전다리농기, 청실홍실, 토방집짓기, 메물농사놀이, 옷범골장승깎기 등
- ▷횡성군: 횡성화다지소리, 우밀어러리타령, 정금두레농요, 우밀점음기굽기, 정금육레놀이, 우밀연자매소리 등
- ▷영월군: 주천쌍다리놀이, 툴줄다리기, 서면광전농악, 안도내를 방아타령, 영월쌍용놀이, 영월농마을 도깨비놀이, 지계행상놀이, 영월읍문산농악 등
- ▷평창군: 백옥포농악, 농사놀이, 황병산사냥놀이, 대방놀이, 평창아리랑, 월정사답놀이, 방림 성황굿, 방림삼굿놀이, 덩골성황제 등
- ▷정선군: 정선아리랑, 지계춤박장단놀이, 정선삼베길썩놀이, 정선토방집짓기놀이, 풍년난가리놀이, 정선정읽기 등
- ▷철원군: 김화지등농요, 토성농악, 철원화전농요, 철원거화대령, 김화성황제, 농기싸움놀이, 머슴날놀이, 토성 풍년난가리놀이 등
- ▷화천군: 나무꾼 농목장치기놀이, 화천지계행상놀이, 중상거줄싸움, 머슴명절놀이, 냉정지소금배오는날 등
- ▷양구군: 양구바랑골농요, 돌산령지계놀이, 발갈이놀이, 양구가창골베틀놀이, 동두보제 등
- ▷인제군: 숲둔골숯굽기, 인제뗏목놀이, 갈이남박만들기, 인제심메마니, 개운동배모으기, 군량동 채독만들기, 승냥간베림질, 바지계선질꾼 등
- ▷고성군: 평파돌다리농기, 반바우후리질소리, 삼포지정다지기, 순포마을풍요놀이, 거진어신제, 삼포혼인잔치, 맥촌보리태타작놀이, 애기미 용왕 줄다리기 굿놀이 등
- ▷양양군: 양양패다리농기, 양양탁장사놀이, 귀애과기놀이, 상복골농요, 복골지계가리싸움, 양양잔교농악, 양양입암농요, 옥달계놀음, 질먹기 등

제4장

인제인의 민속놀이 발굴 실제



인제인의 민속놀이 발굴 실제

1 정자리 풀 썬는 소리

■ 놀이의 원형

인제 정자리 〈풀 썬는 소리〉는 생업현장에서 불리지던 소리이다. 당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정자리는 인근의 김부리 갑둔리와 함께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고립된 지역이었다. 장이 서는 신남리까지 걸어서 가려면 정자리고개를 넘고 소치리를 지나 노가지재를 넘어야 했다. 얼마나 힘든 고개이면 무릎이 녹아난다고 해서 노가지재라고 했을까? 이렇게 도회지와는 먼 거리에 있던 마을이라 비교적 최근까지 농촌마을의 실상을 유지해 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을공동체로 인해 유지할 수 있었던 공동의 행사였다. 울력이나 농목, 일생의례 등에 있어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농목은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을 행하였다. 봄에는 농사철을 대비해서 땀감을 마련하는 마을공동의 나무하기 행사였으며, 가을에는 겨울철의 추위를 대비한 나무하기 행사였다.

이런 농목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는 산과 들에 있는 풀을 활용한 생업활동이 많이 이뤄졌다. 풀은 김매기처럼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제거하는 작업도 진행되었지만, 풀을 베어 들어 곡식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었다. 이 때문에 풀과 관련한 농촌의 일은 고되었다. 김매기를 끝내고 호미씻이나 질머기를 하며 놀이를 행했던 행사도 그런 고단함을 잊기 위함이었다.

김을 매고 풀을 베며 고단함을 덜기 위해서 행한 것이 마을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었다. 두레, 짝집, 농목, 주춧풀, 농목, 품앗이 등은 모두 이런 공동의 농촌생

활을 반영하는 단어이다.

정자리에서는 풀과 관련해서 많은 행사가 있었다. 주춧풀, 갈풀, 짐풀 등은 모두 풀 베는 일과 관련된 단어이다. 이런 일을 할 때 역시 혼자서 하기 보다는 함께 일을 했다. 소를 먹이기 위해 산에 풀을 베어 놓고 저 나를 때도 울력을 했는데, 이를 주춧풀 울력이라 했다.

〈주춧풀 마련하기, 울력〉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조사료가 따로 없었다. 지금처럼 곡물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높은 산에다가 풀을 베어서 말린다. 풀을 베어서 단을 묶어 놓으면 처서가 지나 가보면 풀이 바싹 마른다.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울력을 해서 지게에 저서 소를 먹인다. 이것을 주춧풀이라 했다.

산에 올라가서 칠냉쿨이라든가, 소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풀을 베어서 몇 단씩 나무에다가도 가려놓고 한다. 그래 놓고 겨울에 가서 저 오는 것이다. 혼자 가서 매일 저 오면 힘드니까 여럿이 가서 저 오는 것이다.

그래 오늘은 누구네 꺼 저온다. 내일은 누구네 꺼 저온다. 그렇게 날을 받으면 그 집에서 막걸리도 하고, 막국수도 마련하고, 떡도 해놓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풀을 저오면 먹고 놀다가, 그 다음날은 다른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랬다.

풀을 베는 것은 집집이 가서 한다. 풀이 많은 곳을 찾아 각자 산에 가서 미리 풀을 베어 단을 묶어 잘 마를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가려 놓는 것이다. (제보자: 장근성(남, 63) 정자리 1반. 2016.8.3.)

이처럼 정자리 마을에서 풀을 활용한 생업활동은 공동의 행사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을에 풀을 베어 쌓아두었다가 외양간에 깔아주고 소가 밟고 똥과 오줌으로 짓이겨 놓으면 거름으로 사용하던 풀베기가 있었다. 이것은 어찌면 강원도 전역에서 행해지던 풀베기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풀 썬 소리〉는 산간지방에서는 흔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비료가 원활히 공급되면서 사라진 생업활동이 되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진 풀 썬 행위와 소리를 정자리에서는 몇몇 토박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낮에는 산에 가서 풀을 베서 마당에 쌓고, 마당 한 가득 쌓아올린 풀을 저녁 무렵이면 작두를 설치하고 썬다. 썬 풀은 가리를 만들어서 높다랗게 쌓아 비가 안 새게 지붕을 해서 엮어 놓는다. 이때 막걸리며 각종 음식을 해서 먹고, 썬 풀 위에 명석을 깔고 씨름도 하며 놀이를 함께 했다. 이런 놀이는 공

동체의 유대를 이어가고,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를 풀 수도 있어 해를 거듭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쌓아올린 풀은 겨울 내내 삼태기로 퍼다 외양간에 깔아주었다.

■ 마을 소개

정자리는 인제군 남면에서 가장 오지 마을 중 하나였다. 정자리에는 옛날 정자막(亭子幕)이 있어서 정자리가 되었다. 정자막은 사람이 쉬어가는 주막이었다. 산에 산적이 많아서 혼자 가면 물건도 빼앗기고 목숨도 위험하므로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가기위해서였다.

정자리는 약 30여 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은 6.25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바로 마을 뒤로 난 산으로 38선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자리에는 경찰서가 들어와 있었으며, 양조장이 운영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려들었다. 전쟁 중에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결사대 및 청방이 조직되어 중공군과 인민군을 상대로 싸워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38선이 지나가는 기령골 수리봉에 올라가면 얼마 전까지도 해골이 뒤엉켜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화전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백여 호가 넘는 주민이 살고 있을 정도로 꽤나 컸다.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정자초등학교는 2016년에 완전히 헐렸다. 마을이 이렇게 변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을의 일부가 군부대지역으로 편입되면서부터이다. 마을사람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은 보류되었으나 마을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지는 불운을 낳았다. 고향을 지키겠다는 측과 땅을 팔아 목돈을 챙겨 도회지로 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뉜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주로 채소와 산나물, 그리고 약초 등을 경작한다. 정자리의 표고가 채소 농사를 하기에 적절한 탓이다.

마을길이 뚫리기 전에는 마을 인심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음식을 해서 서로 먹으러 오라고 했고, 뭉든 단합이 잘 되고 하였다. 도로가 뚫리고 자동차로 시내까지 생뎡 다닐 수 있게 되자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 비해서 아직도 옛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은 1개리 4개 반인데, 마을제사가 5곳에서 지내고 있다.

■ 놀이의 유래

풀을 베서 생활에 이용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는 언제부터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경과 가축 및 목축업을 시작한 이래로 풀은 인간과 밀접한 생활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무와 풀 및 꽃 등 식물에서 음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죽이며 난방 등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풀을 베서 작두로 썰어 가축의 깔개로 사용하고, 가축의 배설물을 섞어 거름으로 만든 유래도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이다. 비료가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갈풀과 짐풀을 베어야 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정자리에서 행한 주춧돌도 소를 먹이기 위한 사료의 구실을 했다.

풀을 베어 썰어서 가려놓았다가 겨우내 외양간에 깔아 소의 똥오줌을 비벼 거름으로 만들면 최고의 비료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유용한 작업이었다. 그 때문에 늦여름이면 동네에서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풀을 베고 썰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가려 놓았다.

이때 여러 집에서 돌아가면서 함께 품앗이로 풀을 베어 힘든 일의 고통을 덜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 공동의 작업장이 이뤄졌다. 낮 동안 풀을 베어 마당에 산더미 같이 쌓아두었다가 그 풀을 작두로 다 썰어야 했다. 어떨 때는 작두가 두서너 개 설치되기도 했다.

힘찬 작두소리와 함께 풀을 메기는 사람이 아름에 짝 찬 풀을 작두에 들이밀면서 풀을 보고 소리를 하였다. 이때 풀을 메기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와 작두를 밟는 사람이 지른 소리가 어울려 소리가 있는 놀이마당으로 현장은 변했다.

정자리의 <풀 썬는 소리>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전승이 되었다. 지금은 직접 풀을 썬는 집이 없어서 <풀 썬는 소리>의 전통은 맥이 끊겼다. 행여나 풀을 썰어도 카터기가 대신하기 때문이다. 전기의 힘으로 돌리는 카터기는 <풀 썬는 소리>라는 우리의 전통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3,40년 전에 행해졌던 <풀 썬는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 당시의 현장을 기억하고 소리도 기억하고 있었다.

■ 놀이의 특색

정자리의 〈풀 썬는 소리〉는 정자리만의 고유성을 띠고 있다. 옆 동네 기린면에서 행해지던 풀을 썬 때 씨름을 하던 풍습과 김부리와 정자리와 갑둔리에서 행해지던 떡을 해서 먹고 막걸리를 담가 먹으면서 흥겹게 행하던 작은 잔치가 결부되어 있다. 〈풀 썬는 소리〉가 중심이 되어 생업과 소리와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정자리의 〈풀 썬는 소리〉는 상당히 강력하게 불리진다. 목청도 높을 뿐 더러 흥겨움이 함께 한다. 풀을 한 아름 안고 메기면서 나무의 종류에 따라 소리를 지르면서 사설을 읊으면 작두질을 하는 사람은 메기는 소리에 따라 힘의 강약을 조절한다. 작두질을 하는 사람이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작두질에 힘이 많이 들뿐더러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자리 〈풀 썬는 소리〉는 행위와 나무의 종류와 사설이 함께 결부되어 나타난다. 아울러 썬 풀을 깔고 씨름을 하는 놀이적 기능과 떡과 막걸리를 먹으면서 남녀노소 함께 하는 잔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 무대

집 마당

풀 더미가 쌓여 있고, 음식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각자 역할에 따른 위치에 있음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30명

소 품: 작두, 풀더미, 풀가리, 지게, 삼태기, 명석, 떡시루, 막걸리, 농악기

앞소리꾼: 심덕용(남, 63) 정자리 고향, 신남리 거주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풀 썬기 준비

- 〈정자리 풀 썬는 소리〉라는 소리제목을 쓴 깃발을 앞세워 무대에 입장을 한다.
- 입장을 할 때는 대열을 맞추지 말고 아주 자유롭고 신나게 한다. 이는 풀을 베어 지고 오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신나는 농악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각자 소품을 가지고 소리깃발을 따라 들어간다.
- 특히 풀을 지게에 지고 오는 모습을 부각시켜 연출을 한다.
- 입장을 하면 바로 소품을 제자리에 놓아 풀 썬는 준비를 한다.

둘째마당 ⇒ 풀 썰기, 풀 썬는 소리

- 작두꾼은 작두에 오르고, 풀을 메기는 사람은 풀을 한 아름 안고 작두에 놓으면서 소리를 한다.
- 풀을 나르고, 가리에 쌓는 사람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을 진행한다.
- 소리가 위주이며, 행위는 부수적인 것이나, 보여주는 행위도 중요함으로 전통적인 풀 썬는 행위를 잘 살려 진행을 해야 한다.

셋째마당 ⇒ 멍석 위에서 씨름, 음식 먹으며 놀기

- 풀 썰기가 끝나고, 썰어 둔 풀 위에 멍석을 깔고 씨름을 한다.
- 반면 또 다른 위치에서는 먹고 마시며 흥겨워 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 이때는 풀 썬는 소리가 아닌 뗏목아리랑이나 정자리에서 불렀던 소리를 노래한다.
- 일을 마치고 뒤통이를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일상적인 잔치의 형태를 보여주면 된다.

넷째마당 ⇒ 퇴장

- 모든 소리와 놀이가 끝나고 무대에서 퇴장한다.
- 출연자는 각자 소품을 챙기고 퇴장을 한 후, 다시 무대에 들어와서 어질러진 마당을 청소하고 정리를 한다.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소리꾼, 작두꾼, 지게꾼, 가리꾼, 풀중, 음식담당, 농악대, 깃발 등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풀베기와 풀 썬는 소리〉

풀을 썰 때는 작두로 썬다. 그때 풀을 메길 때 나무가 큰 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부

드러운 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거를 메기는 사람이 소리를 준다. 그때 소리는 “어라어라 우라리오.”라는 후렴을 하면서, 가령 피나무 같은 경우는 연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하려고 “피나왔다 피나무 어라어라 우라리오” 그리고 뽕나무는 “방귀 폼다 뽕나무 어라어라 우라리오”라고 했다. 이렇게 나무마다 그 특징을 살려 소리를 준다. 소나무도 있고 갈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밝은 사람이 두 명인데 부드러운 것 들어갈 때 세계 콧 밍이면 다리가 푹 꺼지니까. 부드러운 것 들어갈 때는 “다 썩었다…” 뭐 그렇게 하지요. 개암나무는 “오고라뽕썩 개암나무”라 하던가.

그렇게 풀을 썰다가 풀이 많이 쌓이면 그 위에 멍석을 깔아 놓고 그곳에서 모여 씨름도 뜨곤 하였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한데도 또 그렇게 놀았다. 그러면서 막 걸리도 한 잔씩 먹고 재미있게 일을 했다.

풀은 가을풀인데, 처서 지나서 가을철에 벤다. 그렇게 풀을 해서 썰어 쌓아놓으면 풀이 벌겍게 뜬다. 벌겍게 뜨면 그 자체로 균이 생겨 발효가 되어 소에게 면역력을 길러준다. 그러면 독특한 냄새가 난다. 발효가 돼서 벌겍게 뜨면 겨울에 쇠스랑으로 찍어내어 삼태기에 담아 마구간에 깎는다. 몇 삼태기 해서 마구간 아래 퍼서 깔아주면 소가 그 위에 똥오줌을 싸고 짓이겨 거름을 만든다. 풀을 깔아주면 소가 좋아한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소가 병도 없이 잘 크다. 그 거름을 밭과 논에 저 날라 퍼서 곡식을 길렀다. 옛날에는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었지만 거름을 퍼서 곡식을 기르면 잘 컸다.

나무의 종류는 개암나무, 참나무, 피나무, 뽕나무, 구수맹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사시나무, 신타나무, 쫄레나무, 가시나무, 살구나무, 소나무, 장재넝쿨 등을 모두 사설을 넣어 불렀다.

(제보자: 장근성(남, 63) 정자리 1반. 2016.8.3.)

큰 나무가 들어갈 때 “어라 우라리오”라고 한다. 풀 썬는 소리는 풀을 썰면서 해야지. 그냥 나오나. 풀을 썰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하면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 다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 하도 오래돼서 나도 잘 모르겠네. 20대 때 한 건데. 풀을 안 한지 40년 됐는데 뭐. 그러면 그걸 적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는 몇 가지를 아나 뭐. 그래도 풀을 썰면 저절로 나올 건데.

그게 나무가 여러 가지잖아요. 나무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도도독 개암나무, 벌벌 떠는 사시나무, 목상의 노리개 소나무, 여자 방구 뽕나무, 잔치가 났구나 국수나무, 대장의 망치자루 물푸레나무, 기어가는 구나 느릅나무, 무당의 신에 신타나무, 너하

고 나하고 살구나무, 부자 났구나 장자녕쿨.

그런데 이게 하는 소리가 있거든.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오겠는데. 왜냐면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 일을 하면서 나오지. 그냥은 안 나와. 그리고 나무를 보면서 이게 소리가 나가는 거거든. 이게 그냥은 안 돼요. 그렇게 소리를 하면서 나가다가 지게 작대기만한 나무가 들어가면 “에라 우라리아”라고 소리를 지르면, ‘우라리아’는 힘을 주라는 거거든요. 큰 게 들어가니까 힘을 줘서 콧 땀아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걸 하면서 해야지 그냥은 안 돼요.

에라 우라리아
오독또독 개금나무
밤을 넘어 밤나무
강을 질러서 길이나무
방구 뿔구나 뿔나무
잔치집에 국수나무
대장에 물푸레나무
기어간다 느릅나무
벌벌 떠는 사시나무
무당의 신이 올라 신탁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모국 싸개 노리개
부자 났구나 장자녕쿨

~~~~~

이렇게 하면서 사이사이에 후렴이 들어가야 돼요. 어찌 됐던 실제 하면서 해야 흥이 나서 하지 그냥 하면 잘 안 돼. 발가는 소리도 갑작스레 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를 몰면서 해야 제대로 나오지.

끝에 여기는 안 하는데, 기린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퇴비할 때 다 썰고 나서는 퇴비 위에 멍석을 펴놓고 씨름을 하곤 해요.

여기는 씨름을 안 하고. 여기 풀 썬는 소리 풀을 썰면서 하면 정말 흥겨워요. 사람이 많으니까. “에라 우라리오”하면 작두를 짚는 사람이 “으쌔”하면서 땀 뻘뻘 흘리죠. 작두하는 사람은 다른 소리는 내지 않는데, 우라리오라는 소리를 내면 큰 나무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메기는 사람이 우라리오 하면 받는 사람은 힘을 있는 대로 주



라는 소리기 때문에 ‘으쌔’하면서 작두를 세게 밟아요. “쌔웠고라리오” 그러면 이거는 물렁하다 그러니 얇게 밟아라. 그러니까 나무 들어갈 때마다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사실상 그냥 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노래를 하면서 풀을 썬다는 사람이 무슨 나무가 들어간다 무슨 나무가 들어간다고 알려 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큰 나무가 들어가면 우라리오라 하면서 힘을 주라는 소리고, 싸 위고라리오하면 힘을 덜 주라는 소리고 그런 거지요. 후렴은 없어요. 그냥 나무만 불러줬지. 그런데 실제로 풀 썬는 현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지요. 그런데 벌써 이게 이삼십년 전이라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우리 나이 되는 사람은 알거야.

발가는 소리도 소로다 발을 갈면서 해야지. 앉아서 해라니 돼. 사람이 끌어도 끌면서 해야지. 이거는 움직이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안 돼.

그러니 그때 집 다질 때 지경소리 같은 경우도 지경을 다지면서 해야지 흥이 나면서 땅을 집터를 다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저는 지경다지기는 못해요. 그전에 여기 범용 아버지가 했는데 지금 그 양반 돌아가시고. 그 지경다지기는 소리가 달라요. 상여소리도 다르고요. 그런데 지경다지기는 어디서 따온 건지 모르겠어, 상여소리는 회심곡을 탄 것이거든요.

나도 어렸을 때 집터 다지는 거 보고 지경다지기 하는 거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 지으면서 지경다지기 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지경은 돌맹이로 했어요. 큰 돌맹이로 해서 여덟 줄을 매 가지고 잡아 탕기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하지요. 옛날에 통나무는 가볍다고 그래가지고 돌맹이로 했어요. 여기는 큰 돌맹이로요. (제보자: 심덕용(남, 63)2016.8.3.)

### 〈인제 원대리 풀 썬는 소리〉

이 작품은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품했던 민요부문 민속놀이이다. 2015년 9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영월공설운동장에서 강원도 18시군이 함께 모여 연회를 했던 작품 중 하나이다. 원대리는 정자리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나오는 마을이다. 실제 필자가 조사를 해보니, 원대리와 정자리의 풀 썬는 소리는 다르지 않고, 거의 같았다. 가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정도로 보면 된다. 다만 노래 앞 부분에서 신령님께 제의를 행하는 장면이 더 들어가 있을 뿐이다. 풀을 썰 때 신령님께 고사를 행한다는 것은 좀 난해하게 받아들여진다. 산에 가서 산판을 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거나, 별초를 하거나 할 때는 신신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거나, 사고가 없게 해달라

거나, 산을 파헤치니 놀라지 마시라고 제를 올리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이 원대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정자리의 옆 동네 원대리의 〈풀 썬는 소리〉는 정자리의 〈풀 썬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에 그 특색과 소리를 옮겨 본다.

고 증 인: 심홍규(남, 81), 원대리 21번지.

출연지도: 오일주(부평초등학교 교장)

소리지도: 장은숙(강원소리진흥회 인제지부장)

조 사: 한승운(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출연인원: 53명(주인, 선소리, 디딤꾼, 풀멕이꾼, 풀꾼, 풀갈이꾼, 아낙, 농악, 기수)

### 인제 풀 썬는 소리 특색

퇴비를 만드는 시기는 갈을 꺾은 다음 풀씨가 앓기 전 처서 무렵에 풀을 했다. 강원도에서 ‘풀을 한다’고 할 때는 갈을 말한다. 전자를 ‘재풀’이라고 하고, 후자는 ‘큰 풀’이라고 한다. 재풀은 ‘진풀’, ‘김장풀’, ‘감자풀’, ‘썰풀’이라고도 했고, 큰풀은 ‘갈 풀’, ‘거름풀’, ‘마구풀’, ‘퇴비풀’, ‘센풀’, ‘뺨이풀’ 등이라고도 했다.

큰풀은 처서 전인 8월경에 품앗이로 풀을 했다. 품앗이는 마을 남자들이 모여 순 번을 정했다. 풀꾼들은 산에 올라가 부드러운 풀은 물론이고 잎이 달린 나무까지 잘라 왔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란 연한 풀만이 아니라 나무까지 의미한다. 풀을 해 온 다음, 이를 거리 작두로 썰어 풀 가리를 만들어 쌓아 둔다. 거리 작두는 쌍작두라고도 하는데, 작두날은 하나지만 두 사람이 작두를 밟는다. 혼자 밟으면 굵은 나무는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둘이 힘을 주어 밟는다.

품앗이는 일곱 명 내지 여덟 명이 어울려 한다. 풀을 작두에 멕이는 사람이 한 명, 멕이는 사람과 마주 앉아 멕이는 사람에게 풀을 뇌주는 사람 한 명, 풀꾼들이 저 온 풀짐을 풀러 풀을 뇌주는 사람에게 풀을 대주는 사람이 한 명, 작두를 밟는 사람이 두 명, 작두에서 나오는 풀을 처내는 사람이 한 명, 처낸 풀을 풀 가리에 쌓아 올리는 사람이 한 명 또는 두 명이었는데, 이들을 ‘한 작두꾼’ 또는 ‘가진 작두꾼’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풀을 멕이는 사람과 풀을 뇌주는 사람이 ‘풀 썬는 소리’를 했다.

**풀 썬는 소리(선소리: 김종식, 남, 70)**

유세차 남산부족 해동조선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올시다~. 우리 풀꾼들이 오늘 풀을 베어 거름 퇴비를 만들고자 하오니 동서남북 어딜 가나 사방팔방 어딜 가나 산신님이나 지신님께 축원발원이올시다~ 감응하옵소서

한 번 썰어 퇴비하고, 두 번 썰어 거름하니, 오곡이 풍년일세  
아홉 해 흉년이 다 지나가고, 십년 대풍 돌아를 왔네  
신농씨에 본을 받아 쌍 작두를 차려놓고  
작두는 계절작두 다리는 무쇠다리  
노천 우리리 쏘아 벌 때 산천초목도 이름이 있는데  
장생불사 고로쇠나무 천년만년 주목나무  
왔다갔다 기둥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엮어졌다 얹나무요 자빠졌다 잣나무세  
사탕 물어 다래나무 벌벌 떠는 사시나무  
칼로 찢러 피나무라  
마곳간에 소나무요 송아지 낳다 소태나무  
양지짜 보 소리요 웅달짜 물갈리로다  
일시도 마음 놓지마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름드리 들어간다 메기기도 잘 메기고 딛기도 잘 딛는다  
혼인대사 국수대요 막중대사 떡갈나무  
아닌 밤 중 밤나무요 한 다리 절뚝 전나무요  
위리 불러 개똥나무 정자 좋아 느티나무

여러분들 풀꾼님네 이참 저참 새참인데  
열무김치 오조 밥에 막걸리 한 잔 하고 하세  
막걸리 한 잔 들고 하세, 막걸리 한 잔 먹고 하세  
감자전이 안주를 막고 올챙이묵이 배를 채우니  
우라리가 들어와도 눈만 끔찍 찢라지고  
노천이가 들어와도 입만 실쭙 뿜어진다

무름찬 노천이요 엄불 덩불 칩덩굴이요  
띠کم 때کم 가시덩굴 땡땡이 쑥땡이요

지렁이 갈비대로다 둥둥올려라 북 나무요  
 방귀 뀴었다 뽕나무라 천식 고뿔 가래나무  
 아기 채워 자장나무 잘도 잔다 잣나무라  
 어깨너머 등나무요 어사났다 광대싸리  
 마당 쓸어 쪼록싸리 양양강릉 꽃감꽃이  
 참싸리로구나 참 싸리요  
 일시도 마음 놓지마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아름다리 들어간다 메기기도 잘 메기고 딛기도 잘 딛는다  
 십리바깥 스무나무 온다고 옷나무요  
 간다고 갈풀이라 초상났다 향나무요  
 제사 꽃감 대추나무 우라리요 우라리아  
 우다닥 똑딱 개금나무 박달 똑딱 홍두깨나무  
 들었다 났다 둘충나무 시내강변 갈다리라  
 풀더미가 태산이니 광문이 열렸구나

풀꾼들은 지계를 지고 소리꾼은 소리를 주니  
 디딜꾼은 신이나니 빈작두를 들었다 났다  
 쇠스랑 걸인대가 춤을 춘다  
 풀더미가 태산이니 광문이 열렸구나  
 열씨구 좋다 풍년이요, 절씨구 좋다 풍년일세  
 이리보아도 풍년이요, 저리보아도 풍년이로세~  
 올해도 대풍이요

풀꾼들은 지계를 지고 소리꾼은 소리를 주니  
 디딜꾼은 신이 나서 빈 작두만 들었다 놓고  
 거린데 쇠스랑 춤을 추니 풀가리만 커지는 구나  
 오늘날은 이집이 하고 내일날은 저집이 하니  
 집집마다 풍년이요 동네마다 풍년일세  
 옆으로 봐도 풍년이요 돌아봐도 풍년일세  
 앞으로 가면 황송아지요 뒤로 가면 암송아지다  
 우로 돌면 풍년이요 외로 돌면 흉년이다  
 (캠플릿에서)

## 2 김부리 김부왕 단오놀이

### ■ 놀이의 원형

김부왕 단오놀이는 인제군 남면 김부리에서 전승하던 단오행사에 기원을 둔다. 김부리에서는 김부대왕제를 지냈는데, 이 행사는 단오에 행해졌다. 나중에는 9월 9일 중궐날로 두 번에 걸쳐 지내다가 단옷날은 없어지고 중궐날에만 지내게 된다. 이에 대한 자료는 1980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된다. 그 중에 kbs역사스페셜과 이태두의 『김부사적기』<sup>1)</sup>는 획기적인 자료와 문제를 대두한다. 물론 이전에 기록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조선조시대의 기록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윤형준의 조사에 의하면 대왕신격이 분명하게 “敬順王第一子金富之神位(경순왕제일자김부지신위)”라 했고, 알기로는 경순왕으로 알았는데, 1980년대 초 그 후손들이 이곳을 알고 찾아온 후에 마의태자임을 알았다고 하였다.<sup>2)</sup> 이후 남근우와 박신정의 조사(1996년)에 의해서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sup>3)</sup>에



산촌박물관 뒤에 있는 김부대왕당 모형 건물



산촌박물관 뒤에 있는 김부대왕당 안내판과 옛 대왕당 사진

1 이태두, 『김부사적기』, 갑돈향토사적연구회, 1987.

2 윤형준, 「김부리 대왕당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 10, 인제문화원, 1995, 52쪽

3 남근우 · 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대왕당제사를 깊이 있게 소개한다. 아울러 박신정의 석사논문<sup>4</sup>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 기재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대왕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대왕님께 인사드린다”고 하고, 서낭당에는 “제를 올린다”고 하며,<sup>5</sup> 제물에는 소나 돼지를 잡아 지내는데 다른 제물과 함께 단오 때는 취떡과 미나리적을 올리고, 중앙절에는 시루떡이나 절편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는 김부대왕이 생전에 즐겨먹던 음식으로 대왕님께 올리는 것이라 한다. 아울러 대왕당제사에서는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오전에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타며 즐겼다. 또 취떡을 갈잎에 싸 근처의 나뭇가지에 숨겨 놓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찾아 먹도록 하였다. 이것을 남자가 먹으면 글공부를 잘하게 되고 여자가 먹으면 길쌈을 잘하게 된다고 믿었다.<sup>6</sup> 박신정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사가 끝나면 골 단위의 돌싸움(石戰)이 벌어지기도 했다<sup>7</sup>고 한다.

## ■ 마을 소개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金富里)는 천 년 이상 김부대왕제(金富大王祭)를 지낸 아주 독특한 마을이다. 마을의 이름도 김부대왕이 살았다고 해서 ‘김부동’, ‘김부왕’, ‘김부리’ 등으로 불려진다. 김부대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략 세 가지 설로 압축된다. 하나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을 지칭한다는 것이고, 둘은 경순왕의 맏아들 마의태자를 지칭한다는 것이며, 셋은 김 씨 부자(富者)가 살았다고 해서이다. 그런데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옛 지명이 ‘김부왕’ 등으로 불렸다는 면에서 마의태자라고 알고 있다.

이 마을은 마의태자가 망한 신라를 되찾기 위해서 구국항쟁의 본거지로 삼았다는 이야기와 같이 군부대와 관련이 깊은 마을이다. 현재는 육군과 학화부대가 위치해서 마을사람 모두 이주한 상태이다. 오로지 민간의 것으로는 김부대왕각이 유일하게 있어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다.

한편 상남리에서는 마의태자마을을 조성하였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 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 이화여대 한국학과 석사논문, 1999.

5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앞의 책, 101쪽.

6 위의 책, 103쪽.

7 박신정, 앞의 논문, 20쪽.

시작되었는데, 매년 축제를 열고 있으며, 경주 김 씨들이 또 다른 사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올리고 있다.

## ■ 놀이의 유래

『동국세시기』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단오(端午)는 명절로 여겨 동제(洞祭)와 조상제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음을 알 수 있다. 놀이는 씨름, 그네, 석전 등이 있었고, 음식으로는 취떡, 쭉떡, 미나리전 등을 해 먹었고, 제의로는 강릉단오제, 오금잠제, 서낭제 등을 지냈고, 단오선이라는 부채와 액막이용 부적 등을 주고, 그리고 창포에 머리감기, 가수(稼樹)라는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행사도 하였다.

인제군 김부리에서도 단옷날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김부대왕제를 지내고 단오놀이를 하였다. 그런데 이 김부대왕제는 동신의 기능보다는 김부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한 추모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으며, 제의 방법도 기제사와 유사하다. 또한 제의가 끝나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각종 행사와 함께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이로 보면 김부리에서 김부대왕제를 지내고 단오놀이를 하는 것은 다른 지방의 단오행사와 비슷하나 그 의미가 조금 다름을 볼 수 있다. 곧, 단오제라는 일반적인 축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방과 같으나, 초점은 단오제를 빙자한 마의태자를 주축으로 하는 구국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제군 김부리의 김부대왕제와 단오놀이는 강릉단오제 등의 단오축제처럼 신을 즐겁게 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형태를 띠면서 동시에 구국항쟁 및 마을사람들의 위로 의미도 깃들어 있다.

## ■ 놀이의 특색

김부리 김부대왕제와 단오놀이에 대한 다음의 기록은 김부리 단오놀이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동 김부대왕제에는 김부리 내 모든 골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오전의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뛰기도 하며 즐겼다. 골 단위의 돌싸움[石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윤형준, 「김부리 대왕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에서)

동제가 끝나면 취떡을 갈잎에 싸서 근처의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 놓았는데 이것을 젊은이들이 서로 찾아 먹으려 했다고 한다. 그 까닭은 김부대왕이 생존

시 취나 쭉을 먹으며 나라를 되찾으려 노심초사했었음으로 이것을 찾아 먹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여자는 길쌈을 잘하게 되고 남자는 글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에서)  
 김부리에서 김부대왕제는 가장 큰 단오 축제였다.(윤홍규 제보)

이처럼 김부리 단오제는 김부대왕제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구국활동과 관련지어서 놀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제군사』에는 미나리전을 꼭 제상에 올리고 먹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부대왕이 생전에 미나리전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부리의 단오놀이는 김부대왕제를 지내고 제물로 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미나리전이나 수리취떡은 가수 및 놀이로 쓰였고, 이어서 씨름을 하고 그네를 뛰며, 마지막에는 동리별로 나누어서 석전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 무대

김부대왕각: 김부대왕제

마을공터: 단오놀이, 석전, 한마당잔치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25분

출연인원: 70명

소 품: 김부대왕각, 제상, 위패 깃발, 석전용 돌(오잼이) 곡괭이 등, 들판으로 쓸 커다란 푸른 비닐, 취떡과 미나리적, 가수용 및 취떡 감춤 나무, 그네, 각 마당별 명칭을 적은 팻말 내지는 깃발, 단오빔

## ■ 시나리오

첫째마당⇒ 길놀이 입장, 제의와 단오놀이 준비

- 〈인제군 김부왕 단오놀이〉라는 놀이제목 깃발을 앞세워 입장을 한다.
- 놀이제목 깃발 뒤에 〈신라경순왕제일자김부대왕지신위(新羅敬順王第一子金富大王之神位)〉라고 한자로 쓴 위패 깃발을 들고 뒤를 따른다.
- 출연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소품을 들고 입장을 한다.
- 입장을 할 때는 단오를 맞아 김부대왕께 제를 지내고 단오놀이를 한다는 내용의

축문(祝文)을 읊으면서 단오제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유세차 해가 바뀌어 신라기원 2070년 5월 5일 단오일이 되었습니다. 제관 ○○○은 마을을 수호해 주시는 김부대왕님께 삼가 고합니다. 대왕님께서서는 정성을 다해 나라를 구하고자 한 의미가 아주 높습니다. 세차고 군센 그 마음과 높고 높은 그 절개 한 칸 사당에 남겼으니 만고에 길이 잔을 올릴 것입니다. 단오일을 맞이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법식에 맞춰 진설하여 대왕님께 올리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 입장을 하면 바로 소품을 제자리에 놓아 제의와 단오놀이를 준비한다.

둘째마당 ⇒ 제의, 가수(稼樹), 수리취떡, 미나리적 놀이

- 대왕각에서 제상(연출)을 놓고 제관 및 모든 참가자가 절을 4배한다. 진행자가 “일동 4배”하고 크게 홀창을 하면 그 소리에 따라 모두 절을 한다.

- 절을 하는 동안 축관이 축언(원)을 하는데, 사설은 신라 마지막 왕자가 김부리에 와서 구국활동을 한 무용담, 그리고 영험성을 이야기 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한다.

(대왕님, 김부대왕님은 나라를 되찾고자 이곳 김부리에서 평생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시어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되셨습니다. 김부대왕님은 자식을 점지해 주시고, 맹수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축생의 번식과 농사의 풍년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은 오로지 김부대왕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김부대왕님 이렇게 단오를 맞아 대왕님께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고 마을의 풍요와 복락을 주시어 그저 마을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 같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대왕님 고맙습니다.)

- 제의와 축원 등 제사에 걸린 시간은 되도록 짧게 흥내만 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제의 시간이 너무 길면 지루하면서 단오놀이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 어른들 몇이 가수를 하고 올해는 과일이 많이 달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말을 한다. (김 서방 봤제. 취떡에 쌀알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처럼 올해는 과실이 많이 달릴 것이야?)

- 어른들 몇이 제사가 끝난 후 수리취떡과 미나리전을 갈잎에 싸서 주변나무에 얹고 처녀와 총각들이 찾아 먹으면서 좋아하고 찾지 못한 처녀총각은 부러움과 원통함을 말과 몸으로 표현한다.

- 해설지는 수리취떡을 처녀총각들이 찾아 먹는 취지(처녀가 찾아먹으면 길쌈을

잘하고, 총각이 찾아 먹으면 공부를 잘한다)를 얘기하면서 몸짓과 음성을 적나라하게 표현 한다.

셋째마당 ⇒ 그네뛰기와 마을 별 씨름대회 놀이

- 축제의 기원행사인 제의 및 기초행사가 끝나면 단오놀이 행사로 진행해야 한다.
- 이때 여자들은 돌아가며 그네를 뛰면서 “오월 단오 취떡이요”라는 소리를 외친다. 이 소리는 모기를 쫓고 액을 쫓는 행위로 인제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풍습이다.
- 그네를 타면서 광주리에 담아온 취떡 등의 음식을 먹고 함께 즐긴다.
- 남자들은 마을 별로 씨름 대회를 열면서 이기는 쪽은 환호를 지르고, 진 쪽은 원통함을 표현한다.
- 승자는 손가마에 태워 마을을 돌고, 상으로 황소를 받아 끌고 간다.

넷째마당 ⇒ 석전(石戰)놀이

- 아랫마을 항병골과 윗마을 단지골로 나누어서 단오제의 최고 절정인 석전을 한다.
- 항병골과 단지골이라 썬진 깃발을 들고 들판을 사이에 두고 대열을 지으며 서로 약을 올린다. (단지골 짝다리 대장감도 없는 마을 절뚝절뚝 절뚝절뚝. 항병골 외다리 싸워나 봤나 칠푼이 군사 뒤통뒤통 뒤통뒤통)
- 사람들은 몽둥이, 돌, 곡괭이 등을 들고 서로 샷대질과 팔뚝질을 하면서 서로 약을 올린다.
- 돌을 던지면서 몇 차례 공방이 오가다가 한 쪽이 지고 한 쪽이 이긴다. 그러면 이긴 쪽은 좋아 환호를 지르고, 진 쪽은 땅을 치면서 원통해 한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하고 음식을 권하면서 평상으로 돌아온다.

다섯째마당 ⇒ 흥겨운 잔치마당 및 퇴장

- 김부리의 단오제는 구국항쟁이면서 마을의 축제이므로 신명나게 놀아야 한다.
-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춤을 추고 신나게 논다.
- 질서를 갖추지 말고 아주 자연스런 분위기로 한다.

## ■ 명단 및 소품

단장, 제관, 처녀 총각, 진행자, 상쇠, 나무, 떡 광주리, 장구, 징, 북, 깃발, 팻말, 돌, 씨름 등



## ■ 놀이의 연원 및 참고자료

### 〈인제 지방의 단오행사〉

가아리(『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338-9쪽)

#### 취떡 빚어먹기

단오에는 취떡을 많이 빚어 먹었다. 취떡은 단오 하루 전에 산에서 취나물을 뜯어 참쌀이나 멥쌀과 함께 떡메로 쳐서 빚는다. 과거에는 쌀이 귀해서 옥수수가루나 수수가루 등으로 빚어 먹었다.

#### 그네타기

단오가 되면 마을 청년들이 그네를 매면 여자들이 즐겨 뛰었다. 그네를 타면 여름 철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 대체로 혼자서 타지만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타는 쌍그네도 있다.

#### 씨름

단오에 남자들은 씨름판을 벌이며 한바탕 논다. 마을길을 중심으로 편을 갈라 씨름을 하기도 하고, 개인전을 벌이기도 한다. 씨름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푸짐한 상을 준다.

귀둔리(『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351쪽.)

#### 차례

귀둔리 마을에서는 집안에 따라 단오에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는 집이 있다. 단오 아침 안방 윗목에서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데, 메밥을 짓고 취떡과 전을 부쳐 한 상 마련한다. 일반 제사를 지내는 것과는 달리 집안의 가장만이 절을 두 번 하는 단헌(單獻)에 무축(無祝)이다.

#### 단오고사

단오 하루 전에 미리 뜯어놓은 취나물을 삶아 건진 후 조참쌀가루에 섞어 취떡을 빚는다. 뒤뜰 장독대 옆에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취떡을 시루째 올려 놓고 집안의 안녕과 오곡이 풍년들기를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갈잎에 취떡을 싸서 집 주위의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끼워 놓았다가 다음날 꺼내 먹는다.

### 그네타기

여자들은 동네 청년들이 매어준 그네를 탄다. 그네를 탈 때 “오월 단오 취떡이요”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타면 그네 바람에 모기가 다 날아가 여름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

### 씨름

귀둔리 마을 남자들은 단오에 모두 모여 씨름판을 벌인다. 서로 편을 가르기도 하고 개인들끼리 붙기도 하는데 씨름판이 끝나면 모두 한 곳에 모여 술을 마시며 하루 종일 논다.

방동리(『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363-4쪽.)

### 조상모시기

단오 아침에 밥을 짓고 취떡과 전을 부쳐 안방에 모신 조상님들께 제를 올린다. 일반 제사와는 달리 집안의 가장이 술을 한 잔 붓고 절을 두 번 하는 것으로 끝이다.

### 단오고사

단오 하루 전에 미리 뜯어다 놓은 취나물을 삶아 조참쌀 가루에 섞어 취떡을 빚는다.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이참쌀로 취떡을 빚는다. 시기는 10월 상달로써 대왕단지 또는 제주단지 안에 있던 쌀로 떡을 한다.

뒤뜰 장독대 옆에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취떡을 시루째 올려놓고 시루 옆에는 갈나무를 놓고 집안의 안녕과 오곡이 풍년들기를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취떡을 갈잎에 싸서 먼저 광에 모신 대왕단지 위에 매달아 놓고 집 주위의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도 끼워 놓았다가 다음날 꺼내 먹는다.

### 그네뛰기

단오에 마을 여성들은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뭇가지에 청년들이 매어준 그네를 탄다. 그네를 뛰면서 “오월 단오 취떡이요”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네 바람에 모기가 다 날아가 여름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364쪽)

미나리 : 미나리는 단오에 태백시 전역에서 즐겨 먹은 시절음식이다. 태백에서는 ‘단옷날 미나리는 약’이라고 하였다. 미나리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않아 좋다고 하여 단옷날은 미나리부터 먹었다.

단오 때 꼭먹어야 할 음식은 미나리였다. 미나리로 국을 만들어서 미나리국을 먹

거나, 미나리를 무친 미나리나물을 먹었다. 미나리는 취떡과 함께 단오의 대표적 시절 음식이다.

그네는 보통 단오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에 됐다. 단옷날이 되면 성황당 고사를 지낸 뒤에야 그네를 탈 수 있었다. 단오가 지나도 며칠동안 더 그네를 두었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풀었다.

### 〈金富大王 洞祭〉

상남면 김부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이다.

대왕각은 김부리 일대에 3곳이 있었는데(현재는 1개소만 현존하고 있음)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와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드리는 행사로 천 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다.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자체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여 그 이자로 제물을 만들어 동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김부대왕각 동제에 빠짐없이 마련하는 제물 중에 미나리적과 취떡이 있었다고 한다. 미나리적은 김부대왕이 무척 즐겨 먹던 음식이었으므로 꼭 제상에 놓았다고 하며, 취떡은 동제가 끝난 후 갈잎에 싸서 몰래 근처의 나뭇가지에 올려놓은 것을 젊은이들이 서로 찾아 먹으려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남자가 찾아 먹으면 글공부를 잘하게 되고, 여자가 찾아 먹으면 길쌈을 잘하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 지내는 방법은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주가 되어 제물을 차려 놓고 향을 피웠으며 축을 고하였고 온 동리 사람들이 함께 절을 하면서 동리의 안녕과 집안의 복을 기원하였다.

제사가 끝난 후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1983년부터는 부안 김 씨와 용천 김 씨 문중에서 그들의 관시조인 김부 마의태자의 사당으로 모셔 제향을 올리고 있다.(9월9일)



참가자 단체사진(2009년)

특히 항병골 대왕각에는 위패가 없었는데 위패를 쓸 사람이 없어서 창호지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에 쓸 술은 미리 대왕각 옆 땅 속에 항아리를 묻고 술을 담갔다가 사용하였고, 향로는 오목한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이곳에 메를 지어 놓고 빌기도 했다는 것이다.<sup>8</sup>

### 〈김부 대왕각〉

상남면 김부1리에 있는 비각(碑閣)이다. 건립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 지방 사람들은 이 비각을 일러 김부대왕각이라 불러오고 있으며 연년세세(年年世世) 동제(洞祭)를 지내오고 있다.

비각 내에는 『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鑑之神(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원래 위패 내용은 『新羅敬順王第一子之神位(신라경순왕제일자지신위)』로 새겨져 있었으나 훗날 어느 후손에 의하여 지금의 내용으로 바뀌었다.

마의태지는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자 천년사직을 그대로 내 놓을 수 없다하여 그의 추종 세력을 거느리고 인제 땅으로 와 신라 재건을 위하여 군사를 모으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며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김부대왕(金富大王)으로 추대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와 공교롭게도 대왕각이 위치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최근 5층석탑이 발견되었고, 그 석탑에 새겨진 문구에 “…金富壽命長存家(김부수명장존가)…”라는 내용이 있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sup>9</sup>

### 〈대왕당제사〉

김부리 동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산치성과 서낭제 이외에도 대왕당 제사를 따로 지낸다는 점에 있다. 김부리의 중심부, 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왕당에서는 金傳大王을 모시고 있다. 김부대왕은 사람에 따라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라 하기도 하고 마의태자라 하기도 한다. 김부리에서 언제부터 김부대왕을 모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산치성, 서낭제와 같이 예전부터 위해 온 것이라 한다. 대왕당 제사는 매년 5월 5일 단오와 9월 9일 중양절에 지낸다.

대왕당은 예부터 현재의 자리(마을 공동창고 뒤)에 있었다 한다. 현재의 당집은 세

8 『인제군사』, 앞의 책, 925-6쪽.

9 위의 책, 838쪽.

번 중수한 것으로 예전 농아집이 있던 자리에 송관과 기와로 지었다가 다시 벽돌과 기와로 재건한 것이다. 예전의 농아집(농애집이라고도 한다.)은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쪼개 지붕을 덮고 벽 없이 만들어 지은 집이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1960년대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해가던 木商이 송관과 기와 등을 회사하여 허름한 농아집을 개축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김제수 군수가 벽돌과 기와로 중수한 것이 현재의 대왕당이다. 대왕당 안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고 촛대와 돛자리 등 간단한 祭器가 있다. 현재의 위패는 1983년 부안 김 씨 문중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之神位’라 적혀 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전의 위패는 ‘敬順大王第一子金傳之神位’라 적혀 있었다 한다. 대왕당 주변에는 양옆으로 큰 잣나무가 서 있다.

김부리에는 본동의 대왕당 이외에 항병골과 단지골에도 대왕당이 있었다고 한다. 두 곳 모두 소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 두 곳의 대왕당을 충신각이라고도 부른다. 원래는 본동의 대왕당에 김부리의 모든 자연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를 올린 것을 항병골과 단지골의 인구가 늘면서 모셔간 것이라 한다. 그러나 6.25동란 등으로 소실되고 인구가 줄면서 다시 본동의 대왕각 제사로 모여들게 되었다.

김부리 대왕당 제사는 해마다 단오와 중앙절에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지낸다. 예전엔 여러 자연마을에서 차례를 정해 돌아가면서 제를 올리곤 했다. 개개 마을에서 제비를 추렴하여 제물을 마련하고 생기복덕을 가려 깨끗한 이로 제주를 두 명 선출하였다. 이 두 명이 단오와 중앙절에 제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제주는 제물을 마련하는 도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상을 당한 이는 제주로 선출될 수가 없었다. 도가는 각 반의 반장들이 반단위로 걷은 제비를 가지고 제물을 마련하고 술을 담갔다. 초헌관이라 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이를 따로 두었는데 대개 마을에서 나이가 지긋하고 제사 경험이 많은 이가 맡았다.

제물로는 그 해의 형편을 보아 제비가 넉넉할 때에는 소나 돼지를 잡기도 하였다. 술과 적, 포, 과일 등을 마련하고 단오에는 취떡과 미나리적을, 중앙절에는 시루떡이나 절편을 준비했다. 단오에 마련하는 취떡은 인근 지방에서 쑥떡 대신에 많이 만들어 먹던 것으로, 주민들에 의하면 김부대왕이 생전에 즐겨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왕님께 올리는 것이라 한다. 미나리는 개울가에 자생하는 돌미나리를 넣어 만든 것으로, 이 역시 인근 주민들이 잔치 때 차려놓고 즐겨 먹었던 것으로 ‘기정떡’이라고도 한다.

대왕당 제사의 절차는 마을의 나이 지긋한 초헌관이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나서 절을 하고 잔을 올리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조상제사와 유사하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마을 사람이 평안하고 농사 잘 짓도록 지켜주십사는 축원을 올리고 나면, 참석한 이들이 절을 올린다. 대왕당 제사에서는 산치성과 달리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김부대왕은

어디까지나 마을의 어른이지 신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본동의 대왕당 제사 때에는 숲꾼의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오전의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뛰며 즐겼다 한다. 또한 취떡을 길앞에 싸 근처의 나뭇가지에 숨겨놓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찾아 먹도록 하였다. 이것을 남자가 먹으면 글공부를 잘 하게 되고 여자가 먹으면 길쌈을 잘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항병골과 단지골에서 대왕각을 따로 모셔 간 후, 그곳 사람들은 본동 대왕당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각기 자기 마을 대왕당에 모여 제를 올렸다. 그러던 것이 대왕당이 소실되고 인구가 줄면서 다시 본동의 대왕당 제사에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60년대에는 木商이 희사한 쌀 한 가마니를 제비로 삼아 이장이 관리하고, 이것을 ‘장리쌀’이라 하여 봄에 한 가마를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뒤 닛말을 이자로 쳐 갚도록 하였다. 한 때는 이 ‘장리쌀’을 서로 먹으려 하였으나 지금은 원하는 이가 없어 이장이 관리하고, 제주로 뽑힌 집에 돈으로 제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대왕당에 하루 두 자루씩 초를 켜 놓고 이를 보름까지 매일 반복한다. 지금도 행하고 있다.

한편 이곳의 대왕제가 관청의 조사와 홍보로 방송전파를 타게 된 이후, 마의태자를 시조로 모시는 부안 김 씨 자손들이 찾아와 제를 따로 올리게 되었다. 이들은 제당을 새로이 단장하고 위패를 새로 만들어 ‘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之神位’라 써 넣고 1987년경부터 해마다 중앙절에 와 제사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단오의 제사는 마을 공동으로 올리게 되고 중앙절의 제사는 오전엔 마을 사람들이, 오후엔 부안 김 씨들이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 단오 때의 대왕제는 치러지지 않았다. 올해가 마지막 대왕당 제사라 하여 나이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나, 농번기라 분주한 탓도 있고 그나마도 인구가 적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다 보니 지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마을이 해체된 후, 대왕당 제사는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다. 부안 김 씨 문중에서 모셔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의 해체와 대왕당 철거에 따라,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김부리 대왕당 제사의 맥이 끊기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10)</sup>

10 남근우·박신정, 앞의 책, 102-4쪽.



# 김부대왕제 연구

이 학 주

## Contents

- |                 |                      |
|-----------------|----------------------|
| 1. 머리말          | 3. 김부대왕제의 변천과 지역적 특성 |
| 2. 김부대왕의 실체와 신격 | 1) 제의의 변천            |
| 1) 김부대왕의 실체     | 2) 제의의 지역적 특성        |
| 2) 김부대왕제의 대왕신격  | 4. 맺는말               |

## 1 머리말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는 천년동안 이어져온 제사가 있다. 이를 김부대왕제(金富大王祭)라고 일컫는다. 김부대왕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였던 소위 마의태자(麻衣太子)를 인제에서 부르는 칭호이다.

역사 기록에는 마의태자가 마의(麻衣)를 입고 초식(草食)을 하면서 개골산(皆骨山)에 가서 죽었다고 한 것이 전부이다.<sup>1</sup>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마의태자가 김부리 일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신라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곳곳에 있는 지명과 유적과 설화와 동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부리(金富里)에서 지내고 있는 김부대왕제이다.

김부리와 원갑둔리는 현재 민간인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군사훈련장이다. 허허벌판에 훈련을 하는 군인들만 간혹 보일 뿐이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민간의 것으로 대왕각(大王閣)이 서있다. 모든 민간인이 떠나고 건물도 헐렸는데, 오직 김부대왕을 모시는 대왕각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김부탑(金富塔)이라 부르는 5층 석탑도 갑둔

1 김부식, 『삼국사기』상, 이병도 역, 을유문화사, 1986, 243쪽.;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146쪽.

리에 그대로 있다. 아울러 이곳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의 명칭이 김부대왕로(金富大王路)로 이름 지어졌다. 그러니 이곳에는 오직 민간의 것으로 김부대왕과 관련된 것만 남아 있는 것이다. 대왕각에서는 현재 음력 9월 9일 오전 11시에 마의태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안 김 씨에 의해 김부대왕제가 치러진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그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그 성격 또한 제사 주체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실체에 대한 논란은 신종원에 의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나,<sup>2</sup> 제사와 유적과 설화와 지명이 남아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김부대왕의 실체와 김부대왕의 신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실체와 신격에 의해서 김부대왕제는 어떤 성격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역과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막연한 마을신(洞神)의 개념이 아닌, 역사적인 인물신(人物神)을 모시는 제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적 인물신을 모시는 동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을 하므로 시대변화에 따른 그 지역인의 인식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 2 김부대왕의 실체와 신격

이 항목에서는 김부대왕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그가 마을의 제사를 받게 되었으며, 마을제사에서 얘기하는 대왕신은 누구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곧, 인제에서 얘기하는 김부대왕의 실체와 동제의 신격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 1) 김부대왕의 실체

김부대왕은 과연 누구인가? 한자로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 곧, 김부대왕(金傳大王)과 김부대왕(金富大王)이다. 스승 부(傳)와 부자 부(富)의 차이다. 여기서 스승 부(傳)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傳大王)은 『삼국사기』〈金傳大王〉조에서 거론하는 경순왕(敬順王)임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

2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85-105쪽 참조.

부대왕(金富大王)이다. 이것은 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김 씨 성의 부자’를 뜻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의태자(麻衣太子)’라고 하는 경순왕의 첫 번째 아들인 신라의 마지막 태자를 일컫는다는 주장이다.

먼저, 현재 스승 부(傅)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傅大王)에 관한 설화의 전승과 신앙에 대해서보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sup>3</sup> 이들 설화는 현재 전국에 걸쳐서 약 20여 종이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사찰과 무교(巫敎)인들에 의해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서낭신으로 좌정한 예도 나타난다고 하였다.<sup>4</sup> 이처럼 설화의 전승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으며, 신앙의 대상으로도 폭 넓은 전승을 보이고 있는 편이다. 여기서는 모두 스승 부(傅)자를 쓰는 ‘金傅大王=경순왕’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음은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富大王)에 대한 것이다. 위에서 김부(金富)는 김 씨 성을 가진 부자를 뜻하는 경우와 마의태자의 이름으로 두 가지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김 씨 성을 가진 부자로 보는 경우는 신종원에 의해서다. 이는 『한국지명총람』에 전제된 화천군의 ‘김부대’(김부터, 陳富垈: 陳 또는 金이라는 부자가 살았다는 마을)를 예로 들면서 “이 지명유래 또한 창작력이 뛰어난 好事家를 만나면 인제군 김부리와 같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sup>5</sup>고 하였다. 따라서 인제군의 김부리는 경순왕이나 마의태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하였다. 곧 인제군의 김부리가 경순왕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 것은 식자우환(識字憂患)의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미 이규경 당대에도 일부에서는 ‘김부’라고 불러서, 이 지명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이해된다.”라고 하였다.<sup>6</sup> 여기서 ‘김부리’는 원래 ‘금부리’였는데, 김부대왕과 관련을 시키기 위해서 ‘김부리’로 읽혔다는 주장이다.

3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출판부, 1979.;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김용덕, 『경순왕 설화의 형성배경과 의미연구』, 최래옥 외,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전신재,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권혁준, 「인제군 인물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윤형준, 「김부리 대왕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 10, 인제문화원, 1995.; 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 : 金傅大王 신격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석사논문, 1999.; 신종원, 위의 책, 등.

4 신종원, 위의 책, 참조.

5 신종원, 「갑둔리 5층석탑 명문과 관련된 역사해석의 문제」, 『인제 갑둔리 일대 석탑 조사보고서』, 인제군·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84쪽.

6 위의 논문, 83쪽. 여기서 이규경이 거론되는 것은 그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오는 〈김부대왕변설〉에 따른 것이다.

반면,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富大王)은 경순왕의 맏아들인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일(金鎰)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1980년 김 종권에 의해서이고, 이어서 마의태자 후손이라는 부안 김 씨 등에 의해서 ‘金富大王=麻衣太子’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sup>7</sup> 그 다음 이태두는 김부답을 발견하고 그에 적힌 “金富壽命長存家(김부수명장존가)”라는 명문을 바탕으로 역시 김부대왕은 마의태자라는 설을 주장하고,<sup>8</sup> 이제 사람들은 이를 고착화 시켰다.<sup>9</sup> 또 향찰 표기로 김일의 ‘일(鎰)=익(益)=부(富)’는 풍부하다의 의미로 같이 쓰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일(金鎰)을 김부(金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이처럼 아주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모두 지명과 김부대왕제에 초점을 두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면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다. 곧, 김부(金傅)와 김부(金富)의 혼돈과 역사적 사실이나 민중적 진실이나의 차이에 따라 달리 해야 함이다. 신종원은 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민중적 진실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다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를 ‘전설의 사실화 작업’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sup>11</sup> 반면에 부안 김 씨, 이태두 등은 지명과 김부답, 그리고 김부대왕제를 역사적 사실의 증거로 믿은 것이다.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분리해서 기록해야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찾아가고, 민중적 진실은 그들의 또 다른 삶의 역사이므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혼란이 왔을까? 먼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입장은 김부대왕(金傅大王)이라고 표기하는 경순왕이 인제군에 올 리가 없고, 마의태자를 김부대왕(金富大王)이라고 부른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부(金傅)와 김부(金富)에 대한 혼돈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규경이 <金傅大王辨證說(김부대왕변증설)>에서 착각을 했던 것이다. 김부대왕(金傅大王)이 김부대왕(金富大

7 김창원 편저, 『자랑스런 조상의 발자취』, 부령(부안)김씨소윤공파총회, 2000.; 김춘식·김수선, 『金富大王 麻衣太子的生涯』, 마의태자승모회, 2001.

8 이태두, 『金富史蹟記』, 갑둔향토사적연구회, 1987.; 이태두, 『인제조상의 얼』, 강원도인제교육청, 2000.

9 『인제군사』, 인제군, 1996.;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인제문화원, 2007.

10 kbs역사스페셜 65회.

11 신종원, 앞의 책, 96쪽.

王)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2</sup> 그렇다면 황응규(1518-1598)가 ‘金溥王墓(김부왕묘)’라 표기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sup>13</sup> 반면에 역사적 사실이며 김부대왕(金富大王)은 마의태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정사(正史)의 기록은 없는데, 여러 지명의 일치와 김부탑(金富塔)의 명문(銘文)과 김부대왕제(金富大王祭)의 신위(神位)를 사실(史實)로 믿은 데에 있었다. 이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단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개골산은 금강산의 이청인테 설악산에 개골산이 있다고 주장했고, 마의태자 무덤은 금강산에 있는데 김부리에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이미 모든 증거가 인멸된 뒤였다. 그런데 여기서 철마상을 갖고 ‘金富大王=마의태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철마상은 어느 서낭당에나 있었던 것으로 특별히 대왕각과 관련을 지어서는 곤란하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왕각이 마을의 서낭당이었다는 주장 내지는 대왕각을 어느 특정 사람들이 서낭당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두 입장은 이렇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변이 전승된 설화일 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명과 설화와 김부탑과 김부대왕제가 모두 ‘金富大王=마의태자’라는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경순왕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며, 마의태자가 이곳에 와서 살았으며, 여기 사람들은 김부대왕(金富大王)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면 더 좋겠지만, 민속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 2) 김부대왕제의 대왕신격

김부리의 김부대왕제는 1천년 이상 전승되어 온 것으로 현재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의의 신격에 있다. 이는 제의 당사자와 논자들의 인식이 다르며, 그 신격과 제의 양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이것은 박신정도 경순왕=金溥大王=金富大王으로 보았고(박신정, 앞의 논문, 36-43쪽), 전신재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전신재, 앞의 논문, 82쪽) 주민들은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영험을 기대해서 지역마다 달리 믿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같은 논문, 같은 곳)

13 “金溥王墓至今有城門縣民諱之蓋其苗裔甚盛堆其墓則有弊云 김부왕묘는 지금 성문만 있다. 마을사람 지개는 그 후손인데 숲이 무성한 언덕이 그 묘인데 즉 피폐해졌다고 말한다.”『송간고』, 인제군 최병현 제공.

현재까지 인제군 김부리의 김부대왕제의 신격(神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다. 이 중에 김부(金富)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신격은 김부답의 명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부답의 명문을 그대로 믿는다면 김부대왕제의 신격은 바로 김부(金富)가 된다. 그것이 1036년이니, 고려초기의 김부대왕제의 처음 신격은 바로 김부(金富)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황응규(1518-1598)의 지적인데 한자 표기는 김부왕(金溥王)으로 하였다. 물론 황응규의 언급에 제를 지냈다는 것은 없으므로 신격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대왕제의 신격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이규경(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이다. 이때 이규경은 김부대왕(金溥大王) 곧 경순왕으로 인식했다. 그 다음은 지명으로 전하는데 『조선헌지지자료』(1911)에서 ‘김부왕(金富王)’이라 했다. 그리고 『한국지명총람』(1967)에는 대왕당(大王堂)이라 하고, “거릿말 서북쪽 산에 있는 신당. 김부대왕을 위하여 음력 5월5일과 9월9일에 취떡과 제물을 차려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냄.”<sup>14</sup>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김부대왕은 다른 곳에 김부동(金富洞) 또는 김부리(金富里)가 나오는 것을 봐서 한자로 쓰면 金富大王으로 쓸 수 있다. 이후 1980년 김종권의 언급에 따라 부안김씨를 필두로 그 후손들은 모두 ‘金富大王=마의태자’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김부사적기』(1987)에서도 함께 인식하며, 서로 공조를 하고 있다. 『인제군사』(1996) 등의 인제군에서 출간한 문헌에서도 이를 따라 ‘金富大王=마의태자’로 굳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논자들에 의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다. 그 중 윤형준은 신격을 구비전승된 신격과 위패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 이때 구비전승된 신격은 1982년까지 ‘경순왕(金富大王)’이며, 1984년대에서 1995년까지 ‘마의태자(金富大王)’로 변했다고 했다. 김부(金富)라는 한자 표기는 같은데, 경순왕에서 마의태자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패는 3개를 거론하고 있는데 표기만 조금 바뀌었을 뿐 모두 경순왕의 아들이라 했다.<sup>15</sup> 다음 신종원은 일종의 마을에 흔히 있는 신당(神堂)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신격을 인물신으로 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원래는 그냥 신당이었는데 전설에 부회하여 유교식 위패를 모시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sup>16</sup> 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사실여부를 캐는 작업이므로 동

14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349쪽.

15 윤형준, 앞의 논문, 60쪽.

16 신종원, 앞의 논문, 90쪽.



제의 신격에 대한 여부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박신정은 분명히 경순왕인데도 불구하고 위패의 내용을 ‘金傳’가 아닌 ‘金富’로 잘못 썼다고 하면서,<sup>17</sup> 이는 후대에 역사인식을 한 사람이 경순왕과 맞지 않자 그의 아들로 바꾸었다고 하였다.<sup>18</sup> 전신제는 김부(金傳)와 김부(金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하지 않았으나 김부대왕이 서낭신으로 좌정하였고, 필요에 의해 자연신이 인격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변모하였을 것이라 하였다.<sup>19</sup>

위패의 변화를 통해서도 신격을 말하고 있다. 김부리 대왕각 옆에서 매일 대왕각을 청소하고 돌보며 동제를 마지막까지(1997년 5월) 치렀던 윤홍규 제보자의 구술에 의하면 6.25한국전쟁 전에는 위패가 “대왕지신위(大王之神位)”로 되어있었다고 한다.<sup>20</sup> 그런데 신중원의 서술에 의하면 1944년 원래 있던 제당을 개축했는데 이때 위패가 “경순대왕일자신위(敬順大王一子神位)”였던 것이 “경순왕제일자김부지신위(敬順王第一子金富之神位)”로 바뀌었다. 이후 1982년 부안김씨들이 개입하면서 “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鎰之神位)”로 바뀐다. 1987년 갑둔리 오충석탑 곁 김부탑이 발견되면서 “김부수명장존가(金富壽命長存家)”라는 명문 때문에 다시 “경순왕제일자김부지신위(敬順王第一子金富之神位)”가 되었다고 했다.<sup>21</sup> 이것은 2001년 부안 김씨 종중에서 대왕각을 다시 짓고 위패를 “신라경순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鎰公金富大王神位)”로 바뀌어서 현존하고 있다.<sup>22</sup> 이때 윤홍규를 비롯한 모든 제보자의 구술을 믿는다면 김부리 대왕각의 위패는 ‘대왕-경순대왕일자-경순왕제일자김부-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경순왕제일자김부-신라경순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으로 바꾸어 진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김부(金富)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1944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대왕이란 칭호를 쓰게 된 것은 2001년에 와서 된 것이다.

이처럼 김부리 대왕각의 신격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를 초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을 자세히 보면 한자의 쓰임이 달랐을 뿐 ‘김부(金傳, 金溥, 金富)’라는

17 박신정, 앞의 논문, 47쪽.

18 위의 논문, 48쪽.

19 전신제, 앞의 논문, 83쪽.

20 이학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240쪽.

21 신중원, 앞의 책, 86-9쪽.

22 이학주, 앞의 책, 233쪽.

명칭은 계속 쓰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김부가 인명(人名)인가 ‘김 씨 부자’인가의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과 이태두 향토사학자, 인제 군민에 의해서 김부는 곧 마의태자라는 인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신격은 ‘金富大王=마의태자’가 되어 현재 전하고 있다. 이것은 ‘대왕당(大王堂)’, ‘서낭당’, ‘대왕각(大王閣)’이라는 당집의 명칭에도 이견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자연신으로서의 산신(山神), 서낭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격신으로서 김부대왕을 보는 경우로 나뉘어 있었다. 현재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는 제사를 부안 김 씨 후손들에 의해서 김부대왕(金富大王: 麻衣太子)을 추모하는 대왕제사를 지내고 있기에 인격신으로 완전히 굳어졌다.

### 3 김부대왕제의 변천과 지역적 특성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제군에서 전승되는 김부대왕제는 개인, 마을, 후손에 의해서 제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부대왕제는 이 지역에서만 있는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를 문헌과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의의 변천

##### (1) 개인적인 치성의 형태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는 토끼봉이 있고, 그곳에 얽힌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언제부터 향유되었는지는 모르나 인제군의 설화를 소개하는 책자에는 <토끼봉의 전설>이란 제목으로 모두 기재돼 있다. 설화에서 김부대왕의 신격화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다.

옛날 이곳에 한 부부가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김부대왕을 찾아가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하였다. 김부대왕은 이들 부부에게 절을 짓고 부처님께 백일기도를 드리라고 하였다. 이들 부부는 김부대왕의 말씀을 따라 백일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들딸 쌍둥이를 낳아 잘 길렀다. 김부대왕이 돌아가시자, 이들 부부는 김부대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대왕각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그 후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대왕각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sup>23</sup>

23 『인제군의 유적·지명·전설』, 앞의 책, 360-1쪽.

김부대왕의 신격화를 아주 잘 나타내는 토끼봉 유래의 전설이면서 김부대왕이 개인적인 치성의 신(神)으로 되는 신화(神話)이다.

설화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나, 이 설화를 인제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뒀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마을이 있었던 1997년까지는 개인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 대왕각에 와서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이었다.<sup>24</sup> 설화와 실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마을에서 공동으로 치성을 드리는 서낭당이나 산제당은 개인의 치성 장소로도 쓰이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김부대왕에 대한 제의가 가장 먼저 행해진 것은 동제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개인치성의 형태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자식을 점지해 준대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시작해서, 나중에 김부대왕이라는 인격신(人格神)이 된 것이다.

## (2) 마을주민에 의한 공동제사의 형태

김부대왕에 대한 제사는 개인치성의 형태에서 언제부턴가 마을공동의 제사를 행하는 동제가 되었다. 이것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관심사가 되고, 마을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일체감을 주는 행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마을사람들은 김부대왕이 마을의 화복(禍福)을 결정짓고, 마을을 수호해 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김부대왕이 마을공동의 제사를 받는다는 것은 마을공동의 인격신으로 좌정한 것이다.

마을신앙으로서 김부대왕제는 그 전승에 있어 세 가지 입장에서 변화를 거론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신격이 마을 공동 신앙의 형태이거나 실존인물에 대한 추모제의 형태이거나이다. 또 하나는 대왕신앙이 마을의 상위신으로 모셔졌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의 변천에 따라 개제 수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럼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김부대왕의 신격이 마을신의 존재에서 실존인물에 대한 추모제의 형태를 취했다는 것은 아주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다.

(가)사람들은 이곳을 대왕이 계신 곳이라 하여 일반적인 서낭의 개념과는 달리 생각했다. 대왕은 서낭신이 아니라 인격신이라는 것이다. 간혹 서낭신처럼

24 이학주, 앞의 책, 241쪽.; 윤형준, 앞의 논문, 70-3쪽.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보면 그냥 일반 신 모시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장을 볼 때 이것은 서낭당 식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왕이면 왕의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2009년 채록자료)<sup>25</sup>

(나)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마을사람이 평안하고 농사 잘 짓도록 지켜주십사는 축원을 올리고 나면, 참석한 사람들이 절을 올린다. 대왕당 제사에는 산치성과 달리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김부대왕은 어디까지나 마을의 어른이지 신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1996년 채록자료)<sup>26</sup>

대왕제가 서낭신앙과 같이 일반적인 동신의 형태를 취하다가 어느 때부터 왕을 추모하는 제사의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가 이장을 볼 때이다. 그런데 인용문 (가)(나) 모두에 보면 과거에 지내던 일반 동신의 유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한 열댓 살 먹어서 그래 그때 새로 다시 짓고 그럴 때는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하고 한 번은 옛날엔 소잡고 돼지잡고 지내고 그랬어요. 옛날에 堂 안에는 철마가 있었는데 그 철마는 대왕당에는 없었고 서낭에 있었어요. 거 어제 대왕당에는 제사지낼 때는 제위 모시듯이 그 이제 김부대왕이라는 글씨 써서 있었어요. 위패에는 경순대왕일자신위라는 글자가 있었다는...<sup>27</sup>

과거에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등 일반 동신의 형태로 제사를 지내고, 그 성격은 경순대왕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도 역시 동신과 왕에 대한 추모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차차 서낭당 식 동신의 형태는 사라지고, 김부대왕을 기리는 추모제의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둘째, 대왕신은 마을에서 상위신으로 하위신인 산신과 서낭신의 위에 있었다. 그래서 대왕당의 제사는 일 년에 두 번 고정적으로 있고, 산신제를 지낼 때 따로 대왕당에 제물을 올려 고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그 반대로 대왕당 제사를 지내고는 산신이나 서낭신께 고하지는 않았다.

25 이학주, 앞의 책, 239쪽.

26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강원도·인제군, 1996, 103쪽.

27 윤형준, 앞의 논문, 61쪽.

산치성이 끝나면 도가가 서낭당과 대왕당에 메 한 그릇과 술 한 잔을 올리고 간단히 절을 한다. 대왕당에 올리는 것은 ‘대왕님께 인사드린다.’고 하고, 서낭당에는 ‘제를 올린다.’고 말한다. 대왕당 제사는 제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치성 때에는 간단히 메와 잔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서낭제는 산치성에 쓰였던 제물을 물려 진설하고 술을 붓고 절을 하는 것으로 간단히 치른다. 서낭당이 있었던 비독재와 본동 모두가 산치성 후에 서낭제를 지낸다.<sup>28</sup>

이처럼 김부리의 마을제사는 대왕제, 산신제, 서낭제의 세 개가 있었다. 그런데 이의 상하위 신의 계층을 보면 대왕신〈산신〉서낭신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박신정은 대왕신은 마을 전체를 통어하는 신이고, 산신과 서낭신은 마을의 작은 골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신은 서낭신의 상위신으로 보았다.<sup>29</sup> 그러면서 관념적 층위로 볼 때, 서낭신〈산신≤김부대왕신으로 동신의 층위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sup>30</sup> 이처럼 김부대왕은 김부리에서 마을신의 상위층에 있었다.

셋째, 개체수의 변화는 대왕의 충신을 제사하는 충신각이 있다가 인구가 줄자 다시 대왕각에서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부리에는 본동의 대왕당 이외에 항병골과 단지골에도 대왕당이 있었다고 한다. 두 곳 모두 소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 두 곳의 대왕당을 충신각이라고도 부른다. 원래는 본동의 대왕당에 김부리의 모든 자연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를 올리던 것을 항병골과 단지골의 인구가 늘면서 모셔간 것이라 한다. 그러나 6.25동란 등으로 소실되고 인구가 줄면서 다시 본동의 대왕각 제사로 모여들게 되었다.<sup>31</sup>

이런 변화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골의 인구가 늘면서 독립된 자치지구가 형성되고 그 자치지구는 그들만의 정치적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마을의 상위신인 대왕신을 모셔서 독립자치지구의 권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원래 대왕신을 모시고 있던 본동에서 파생된 골이라 항병골과 단지골에

28 남근우·박신정, 앞의 책, 101-2쪽.

29 박신정, 앞의 논문, 25-7쪽.

30 위의 논문, 31쪽.

31 남근우·박신정, 앞의 책, 102-3쪽.

서는 대왕당의 명칭을 달리해서 충신각이라 했던 것이다. 이때 충신각의 의미는 김부대왕이 신라의 충신이라 해서 붙여진 것인지, 아니면 김부대왕의 신하 중의 어느 충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구가 줄면서 더 이상 독립자치지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항병골과 단지골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립된 제사를 그만두고, 다시 본동으로 귀의한 것이다.

이처럼 김부리의 김부대왕제는 마을의 최고신을 모시는 동신신앙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김부대왕을 추모하는 유교식 기제(추모제)의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대왕각은 세 곳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었고, 마을이 없어질 때까지 - 산신제와 서낭제는 없어졌으나 -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층위의 관념으로 볼 때 최고의 상위에 있던 동신(洞神)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3) 마의태자후손에 의한 조상제례의 형태

동제의 형태로 행해지던 김부대왕제는 김부대왕의 후손에 의한 제례로 바뀌게 된다. 정확한 연대는 1987년 중앙절부터이다. 이때부터 부안김씨후손들은 매년 150~300여 명 정도가 중앙절에 와서 제례를 행하고 있다. 아주 큰 제례행사이다. 전국의 지회에서 버스 한두 대씩 대절을 해서 제례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다. 김부리에서 마을주민에 의한 마지막 동제는 1997년 음력 5월 5일의 단오 때 제사이다. 이후에는 중앙절에 지내는 문중제사만 남게 되었다. 1987년과 1995년까지는 마을 주민에 의해서 단오절과 중앙절에 동제가 아침에 치러지고, 중앙절에는 마을동제가 끝난 오전 11시에 후손들에 의해서 조상제례가 행해졌다. 1996년의 단오제는 마을의 사정으로 인해서 동제는 행해지지 못했다.<sup>32</sup>

마을 단위에서 문중 단위로 제사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대왕당(大王堂)이 대왕각(大王閣)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왕각의 건물도 2001년에 문중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새로 지었고, 위패는 “신라경순대왕태자일공김부대왕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鑑公金富大王神位)”라 하여 김부대왕으로 변경하였고, 영정을 4천만 원을 들여 그려서 걸어 놓았다. 또 제물은 대왕을 모시는 왕제사에 맞춘다고 하여 떡을 제외한 모두 날것으로 하였는데, 취떡과 미나리는 원래 김부대왕이 즐겨 먹던 것이라 하여 변함이 없었다. 흥기를 만들어서 제례절차를 왕의 제례절차에 따라서

32 위의 책, 104쪽.; 박신정, 앞의 논문, 20쪽.



하며, 절도 2배에서 4배로 바뀌었다. 복장도 그에 맞춰서 입었다. 동제에서는 축원만 했는데, 축문을 써서 읊게 되었다. 그리고 축문의 날짜는 서기나 단기가 아닌 신라기 원으로 하고 있다.<sup>33</sup>

이처럼 김부대왕제는 마을에서 문중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면에서 변화를 보였다. 마을제사의 형태일 때는 마을의 안녕과 복락을 기원했다면, 문중으로 제사가 넘어가면서 문중의 궁지와 선양과 단결 차원에서 행해짐을 알 수 있었다. 후손들은 마의태자가 신라에 항복하지 않고 이곳에서 구국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축문과 상량문에 보면 잘 드러난다. 축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誠深衛國 義大存宗 烈烈其心 卓卓其節(성심위국 의대존종 열열기심 탁탁기절)”<sup>34</sup>이라 하였다. 이를 번역해 보면, ‘정성을 다해 나라를 구하고자 한 의리는 아주 높고, 세차고 굳센 그 마음과 높고 높은 그 절개’정도가 된다.

## 2) 제의의 지역적 특성

김부대왕제는 논란이 많은 제사이다. 김부대왕의 실체부터 대왕당의 성격, 그리고 제의의 전승주체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변화와 논란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제사가 없어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전승되고 있어 흥미롭다.

김부대왕은 이 지역에서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를 일컫는다고 했다. 그리고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서 그의 의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바로 망한 신라를 도로 찾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결국 마의태자는 나라를 도로 찾지는 못했지만, 그의 후손이 만주벌판으로 건너가 금나라를 세웠다고 『고려사』, 『만주원류고』, 『금사』, 『송막기문』 등에 전하고 있다.<sup>35</sup>

그런데 마의태자 자신은 결국 신라의 패망을 떠안고 한 많은 생을 살다가 이 지역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냥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살아서 구국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민을 위해서 경주의 선진문화를 전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마의태자는 김부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를 이 마을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왔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유물이 바로 김부대왕제를 중

33 이학주, 앞의 책, 234-270쪽.

34 위의 책, 258쪽. 상량문의 내용은 같은 책, 242-5쪽을 참고하기 바람.

35 kbs역사스페셜65회 참조.

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김부대왕제가 갖는 제의 자체의 특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제의의 주체인 김부대왕과 김부리의 관계, 그리고 제의와 관련되어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김부대왕제를 통해 볼 때, 첫째는 김부대왕이 인격신으로 이 지역에 좌정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지역에만 머물렀다는 것이고, 셋째는 제사를 지내고 구국활동과 관련하여 씨름과 그네와 石戰을 했으며, 취떡을 감춰두고 찾아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 김부대왕이 이 지역의 인격신으로 좌정한 것이다. 일찍이 김부대왕이 마을의 인격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원인을 비극적인 인물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이 있다.<sup>36</sup> 이것은 결국 김부대왕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죽은 데에 따른 현상이다. 설화에 의하면 김부대왕이 이곳에서 구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진두지휘하던 맹 장군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다.<sup>37</sup> 그래서 그 증거로 옥새바위 등이 이곳에 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김부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만 동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신이 아닌 인격신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다. 광포와 혐의의 신이 그것인데, 혐의의 인격신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태공의 부인 마 씨 할머니가 전국에 걸쳐 성황신으로 좌정한 경우는 광포의 신이다. 그런데 이런 신은 그 마을과 특별한 인연이 주어져서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영월 정선 태백의 단종대왕신, 홍천 내면의 권대감신, 인제 기린면의 박대감신, 강릉의 범일국사신 등등은 그런 인격신이 살아생전에 그곳을 거쳐 갔던가 특별한 인연이 주어졌을 때이다. 그렇다면 김부대왕신은 김부리와 어떤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김부대왕이 역적으로 몰려 이곳에 피신했다는 제보도 전한다.<sup>38</sup> 이는 『삼국사기』에 전하는 내용과 어느 정도 상통하고 있다. 개골산이 금강산이든 설악산이든 이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셋째, 제사를 지내고 나서 구국활동과 관련하여 씨름과 그네와 석전과 취떡 찾아먹기를 했다는 것이다.

36 윤희준, 앞의 논문, 63-9쪽.

37 이태두, 『김부사적기』, 앞의 책, 12-3쪽.

38 윤희준, 앞의 논문, 64쪽.

본동 김부대왕제에는 김부리 내 모든 골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오전의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뛰기도 하며 즐겼다. 골 단위의 돌싸움[石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sup>39</sup>

동제가 끝나면 취떡을 갈잎에 싸서 근처의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 놓았는데 이것을 젊은이들이 서로 찾아 먹으려 했다고 한다. 그 까닭은 김부대왕이 생존시 취나 쑥을 먹으며 나라를 되찾으려 노심초사했었음으로 이것을 찾아 먹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여자는 길쌈을 잘 하게 되고 남자는 글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sup>40</sup>

단오절과 중앙절 때 모두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나, 단오절 때라면 어느 지역에 서나 볼 수 있는 풍속이다. 그런데 석전놀이와 취떡을 찾아먹기를 하면서 김부대왕의 구국활동과 연계를 짓고 있어 특이하다. 다시 말해서 단오절의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단오절의 행사도 김부대왕의 구국활동과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이처럼 김부대왕제는 김부리에서만 동신의 역할을 했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단오절의 행사도 김부대왕의 구국활동과 연계하여 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김부대왕제는 이 지역과 관련을 맺는 독특한 제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부대왕이 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부대왕은 실제인물이든 신앙의 형태로 존재하는 신격인물이든 간에 이 지역 사람들의 정신적인 주체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39 박신정, 앞의 논문, 20쪽.

40 윤형준, 앞의 논문, 72쪽.; 남근우·박신정, 앞의 책, 103쪽.

#### 4 맺는말

지금까지 강원도 인제군 김부리에 전승하고 있는 김부대왕제에 대해서 고찰했다.

이 제사는 그동안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다. 김부대왕이 누구냐 하는 실체부터, 신격이 그냥 신당형태인가 아니면 인격신으로서 역사적 실체인 마의태자인가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제사를 지내는 양상도 개인, 마을, 조상제사로 바뀌었고, 그 때문에 김부대왕제만의 특성도 드러났다.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 배경은 김부대왕에 대한 역사적 사실여부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부대왕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사실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역사적 사실여부 보다는 현재 전승하고 있는 제의에 담긴 민중적 진실에 있는 것이다. 이에 바탕을 두고 살펴 본 결과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본다.

먼저 김부대왕의 실체는 한자표기에서 혼란이 있었다. 경순왕을 『삼국사기』에서 한자로 김부대왕(金傳大王)으로 표기하였는데, 부자 부(富)자를 쓰는 김부대왕(金富大王)과 한글 음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논의 결과 한자음의 부(傳, 溥, 富)는 혼용되어 쓰였고, 한자표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부대왕(金傳大王)과 김부대왕(金富大王)은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그 신격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냥 마을에 흔히 있는 신당(神堂)이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김부대왕(마의태자)을 모시는 인격신으로 바뀌었다는 주장과 원래부터 김부대왕(마의태자)을 모셨다는 주장의 대립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증거인 위패로 보면 분명히 경순왕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마을사람과 그 후손들은 김부대왕(마의태자)을 모신다는 사실이었다.

김부대왕제는 개인-마을-조상제사의 형태로 변해왔다. 그리고 동제는 복을 구하는 것과 인격신에 대한 것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시기부터 인격신을 제사하는 추모제의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김부대왕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층의 신이었고,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제각의 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부대왕제는 김부리 지역의 인격신으로 좌정해 있었고, 이 지역에서만 전승했으며, 제의 속에 구국활동과 관련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논의는 천 년 이상 이어져왔다고 추정하는 제사의 실체와 그 변화를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곧, 우리나라 인격신을 모시는 동제의 변천과 특성의 단면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혁준, 「인제군 인물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강원민속학』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 김부식, 『삼국사기』상, 이병도 역, 을유문화사, 1986.
- 김용덕, 「경순왕 설화의 형성배경과 의미연구」,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 김창원 편저, 『자랑스런 조상의 발자취』, 부령(부안)김씨소윤공파총회, 2000.
- 김춘식·김수선, 『金富大王 麻衣太子의生涯』, 마의태자승모회, 2001.
-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강원도·인제군, 1996.
- 박신정, 「동신신앙의 일고찰 : 金傳大王 신격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석사논문, 1999.
- \_\_\_\_\_, 「신라최후의 미스터리, 마의태자」, kbs역사스페셜 제65회.
- 신종원, 「갑둔리 5층석탑 명문과 관련된 역사해석의 문제」, 『인제 갑둔리 일대 석탑 조사보고서』, 인제군·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 윤형준, 「김부리 대왕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10, 인제문화원, 1995.
- 이태두, 『金富史蹟記』, 갑둔향토사적연구회, 1987.
- 이태두, 『인제조상의 얼』, 강원도인제교육청, 2000.
- 이학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 \_\_\_\_\_, 『인제군사』, 인제군, 1996.
- \_\_\_\_\_, 『인제군 유적·지명·전설』, 인제문화원, 2007.
- 일 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 전신재,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 『강원민속학』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출판부, 1979.
- \_\_\_\_\_, 『한국지명총람』2, 한글학회, 1967.
- 황응규, 『송간고』, 인제군민 최병헌 제공.

※이학주, “김부대왕제 연구”, 『동아시아고대학』2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8.

### 3 서화리 용늪기우제

#### ■ 놀이의 원형

대암산은 해발 1200m이상의 고지대에서 솟아오르는 샘과 늪을 가지고 있다. 마치 백두산의 천지, 한라산의 백록담과 같은 모습이다. 또 천지와 백록담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신기하기까지 하다. 용늪은 큰용늪, 작은용늪, 애기용늪이라 해서 세 개의 늪을 형성하고 있다. 높은 지대에 있다가 보니 백두산 고원과 같은 습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탄층(泥炭層)이라고 해서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쌓인 동식물의 잔해가 무려 1.8m에 이른다. 이런 특징을 가진 늪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으로 1973년 7월 10일에는 천연기념물 제246호로 지정 되었으며, 1997년 7월 28일 세계 101번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람사르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이 때문에 예부터 이 지역은 대바우산 용늪이라 해서 인근 사람들이 숭앙하는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높은 산 위에서 늪이 형성된 신비성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은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용늪에는 용이 살며 비를 관장한다고 믿고 있었고, 이에 얽힌 다양한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 지역은 양구와 인제의 경계에 있어서 인근 지역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양구와 인제 양 지역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기우제가 혼합된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몇 가지 문헌과 구술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런데 대암산 용늪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 첫째로 동면과 서화면의 유지들이 제 각기 그 해의 농사에 흡족한 비를 내려 달라고 용늪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이는 가뭄이 계속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순에 보통 지내는데, 해마다 하기도 하였다. 이런 기우제는 용늪 주변에 기우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진설하고 축문을 읊어서 비를 비는 형태이다.<sup>1</sup>

② 거기는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물을 푸고 그러면 비가 오고 그랬어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키를 갖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물을 펴요. 그렇게 물을 푸

1 『양구군지』, 양구군, 2014, 226쪽. 1984년에 출간된 『양구군지』에는 “해마다 동면이나 서화면의 유지들이 제각기 그 해의 농사에 흡족한 비를 내려 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238쪽)고 기록했다.



면 비가 와요. 키를 갖고 물을 퍼서 막 까불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지요.<sup>2</sup>

③ 팔랑리에서는 용늪에다 산개(살아있는 개)를 집어넣으면 비가 온다고 해서 개를 죽여 용늪에 던졌으며<sup>3</sup>

④ 산개를 끌고 가서 피를 뽑아 용늪에다 뿌려주고 제문을 읽는다. … 風水說에서도 龍늪이 明堂이라고 해서 누가 늪 속에 暗葬이라도 하면 큰 비가 몹시 내리니 附近의 住民이 이 屍體를 파 버려야 비로소 비가 그친다는 것이 記錄되어 있다.<sup>4</sup>

⑤ 용늪에 부정한 물건을 던져두면 그것을 씻겨 내기 위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신성한 장소다.<sup>5</sup>

⑥ 전두환 때 비가 안 와서 용늪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날이 많이 가 무니까 용늪에 올라가서 개잡아놓고 지냈다. 논이 다 마르고 곡식이 말라 죽고 하였다. 당시 면장과 이장과 마을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냈는데, 개를 잡아서 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용늪에 개를 넣고, 비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포를 놓고 술을 따르고 하였다. 축도 고한다. 제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늪에다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용늪은 신성한 곳인데, 그곳에 부정하고 기인 개를 잡아넣음으로써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성한 곳에 개를 넣으면 부정을 타서 씻으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바로 비가 오는 경우도 있으나 최소한 2,3일 이내는 다만 몇 방울이라도 비를 뿌린다.<sup>6</sup>

인용문에서 보듯이 대암산 용늪의 기우제는 아주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이뤄졌음을 볼 수 있다.

## ■ 마을 소개

인제군 서화리는 서화천이 흘러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서화천은 인북천과 내린천의 수량만큼이나 풍부한데, 이 지역도 가뭄이 계속되면 농사를 짓기가 곤란한 적이

2 제보자: 이규홍(남, 79) 서흥2리, 2013.7.4.

3 『글초』6,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9쪽. 산개를 용늪에 넣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용늪에 넣었던 개를 꺼내면 비가 멈춘다고 한다.

4 『양구민속지』(1984), 양구군, 238쪽.

5 제보자: 이종열(남, 56) 서흥1리, 용늪 해설사, 2013.7.4.

6 제보자: 이종빈(남, 78) 서흥1리, 2013.7.4.

많다. 특히 논농사는 강물이라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밭농사는 하늘만 쳐다봐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암산 용늪으로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서화리는 인제에 용늪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그 때문에 산신제를 지내도 대암산에 가서 행했고, 기우제를 지내도 대암산 용늪에 가서 행했다. 그 뿐 아니라 대암산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산나물이며 각종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서흥2리 산신제〉: 골짜기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신은 그냥 산신령인데, 대암산 밑이니까 대암산신령이지. 1월 4일에 제사를 지내요. 옛날에는 돼지를 잡아서 지냈는데, 지금은 돈이 뭘해서 돼지머리를 사다가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을 하고 먹고 남은 것은 회관으로 가져와서 여기 어르신들이 먹고 그러지요.<sup>7</sup>

서흥2리에서 대암산 산신께 산신제를 지낸다는 구술이다.

서화리는 용에 대한 관념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각종 마을사업을 하면서 용마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마을은 38선을 기점으로 갈렸던 남북분단과 6.25한국전쟁 때는 이북의 통치를 받았던 곳이다. 그러다가 수복이 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야 민간인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마을을 새로 형성해서 살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을 주축으로 새로 형성되었지만 아주 많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상당히 긴 세월 동안 공백기를 보냈지만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은 쉽게 단절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으로 가서 산신을 모시고, 용늪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전통을 계승한 마을이 되었다.

## ■ 놀이의 유래

이 지역 기우제에 대한 유래는 언제부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되었다. 용늪의 기우제도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기우제와 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기우제가 문헌에 소개된 것은 『양구군지』(1984)에 “해마다 동면이나 서화면 유지들이 제각기 그 해의 농사에 흡족한 비를 내려 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와 “풍수설(風水說)에서도 용(龍)늪이 명당(明堂)이라고 해서 누가 늪 속에 암장(暗葬)

<sup>7</sup> 제보자: 이규홍(남, 79), 서흥2리. 2013.7.4.

이라도 하면 큰 비가 몹시 내리니 부근(附近)의 주민(住民)이 이 시체(屍體)를 파 버려야 비로소 비가 그친다는 것이 기록(記錄)되어 있다.”고 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의 기록도 있겠지만, 필자가 찾기에겐 그 기록이 처음이다. 그 다음 기록은 대부분 요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그 기록이 사실 상당히 오래된 이 지역 기우제의 유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비문학의 전승과 같이 구비문화로서 용늪의 기우제는 전승이 되었다. 곧,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었던 이야기와 경험이 구연을 통해 전승되는 것과 같다. 이는 문화전승이라 할 수 있는데, 대암산과 용늪은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 이기에 전승은 끊어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용늪 문화해설사는 용늪의 생태보다는 기우제 설명에 더욱 충실하다. 아울러 용늪에 없던 석척기우제까지 행하고 있다. 용늪 전망대에 향아리를 가져다 놓고 나무꼬챙이로 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용늪에 있는 도롱뇽을 잡아 놓고 기우제를 행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대암산 용늪의 기우제는 아주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방법도 다양하며, 지금까지 전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 놀이의 특색

용늪은 백두산의 천지(天池)와 같이 높은 산꼭대기에서 물이 솟는 특징을 띄고 있다. 그런데 그 물이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로 물 위에 이탄층이라는 벌레와 나뭇잎 등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탄층 아래로 물이 쿵쿵 소리를 내며 흐른다. 사람이 이탄층 위에 올라가도 꺼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용늪에는 아주 독특한 기우형태가 행해졌다. 곧,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우제의 종류가 모두 행해졌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김의숙은 음양오행에 따른 기우제의 형성이론을 추출하기 위해서 유형을 분류한 적이 있다. 그 중 목적수성별(目的遂成別)유형이라는 항목에서 강우를 위한 제의방식에 따라 화해형(和解型), 대항형(對抗型), 유도형(誘導型)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김의숙, 「기우제의 형성이론」) 이에 의하면 대암산 용늪의 기우제는 이 세 가지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를 본고의 논의에 맞게 순서를 정하고 항목을 명명하면 첫째로 화해형은 ‘용 달래기’, 둘째로 유도형은 ‘용 가르치기’, 셋째로 대

항형은 ‘용 혼내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암산 용늪기우제에 내재한 지역주민들의 원형의식을 추출하여 밝힐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굳이 주술과 연관시킨다면 용 달래기는 기도주술(祈禱呪術)이라 할 수 있고, 용 가르치기는 유사주술(類似呪術), 용 혼내기는 대항주술(對抗呪術)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의 용늪기우제와는 그 순서에 따라 달래고 가르치고 혼내기의 형태이다.(이학주, 「대암산 용늪 기우제에 내재한 원형의식 탐구」)

이처럼 대암산 용늪 기우제놀이는 용늪 기우제의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형태에 따라 그 순서를 정해서 놀이를 진행한다.

## ■ 무대

대바우[대암]산 용늪  
인제 서화면과 양구 동면  
논밭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30명  
소 품: 기우제단의 제물, 모형 개, 키, 뼈다귀, 곡괭이, 삽, 지게, 각 마당별 명칭을 적은 팻말, 용늪 기우제 깃발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대암산 용늪 기우제〉라는 놀이제목 깃발을 앞세워 입장을 한다.  
출연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소품을 들고 입장을 한다.  
입장을 하면 바로 소품을 제자리에 놓아 기우제 준비를 한다.

둘째마당 ⇒ 땅이 말라 타들어가는 퍼포먼스와 용달래기를 위한 화해형(和解型) 기도주술(祈禱呪術) 기우제  
- 땅이 메말라 곡식이 타들어 가는 퍼포먼스(행위예술)를 진행한다.(푸른 곡식이

누렇게 말라가는 모습 연출, 모형 곡식을 교체함)

- 인제와 양구 사람들이 대암산 용늪으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다.(산으로 오르는 장면은 놀이마당에 양쪽으로 기우제 도구를 지게에 지고 손에 들고 용늪으로 가는 모습으로 설정)
- 용늪 이탄층이 있는 옆 산언덕에 기우제단을 차리고 기도주술 기우제 준비를 한다.
- 기우제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힘들어하는 퍼포먼스는 계속 행한다.
- 기우제 준비와 함께 비를 내려 달라는 기우축문을 읊으면서 기우제를 행하고 하늘을 본다.
- 인제(서화면)와 양구(동면) 두 지역에서 합동으로 제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마당 ⇒ 대항형(對抗型) 용 가르치기는 유사주술(類似呪術)

- 용에게 제물을 차려 기원해도 비를 내리지 않자 가르치는 행위이다.
-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키를 들고 용늪으로 들어간다.
- 용늪 가에서 키로 물을 하늘로 뿌리며 비를 기원한다.
- 비는 이렇게 내리게 하는 것이라는 모습을 용에게 가르치는 행위이다.
- 나이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과 같은 유사주술이다.

넷째마당 ⇒ 유도형(誘導型) 용 혼내기는 대항주술(對抗呪術)

- 기원을 하고 가르쳐도 용이 비를 내리지 않자 용을 혼내는 행위이다.
- 용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성한 장소를 더럽히는 행위이다.
- 처음에는 신성한 장소에 사람의 뼈나 개 뼈와 같은 부정한 물건을 묻는다.(암장이(暗葬)라 하는데, 커다란 모형 뼈를 용늪 주변에 묻는 행위를 한다.)
- 다음에는 개적심이라하여 살아있는 개를 용늪까지 끄고 가서 잡아 피를 주변에 뿌리고 개를 용늪에 넣는다.(모형 개를 만들어서 피를 뿌리고 용늪에 넣는 행위를 한다.)

다섯째마당 ⇒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려 환호하는 장면 연출

- 비가 내려 좋아하는 퍼포먼스를 행한다.
- 참가자 모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좋아하며, 신나게 춤을 춘다.
- 모든 출연자 퇴장한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지게, 키, 제물, 곡괭이, 삽, 물, 깃발, 팻말 등

## ■ 놀이의 연원 및 참고자료

〈대암산(大岩山) 용연기우제(龍淵祈雨祭)〉

대암산은 양구군 동면 팔랑리(八郎里)와 만대리(萬岱里) 그리고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瑞興里)의 경계에 있는 높이 1,316m의 높은 산이다.

이 산은 펀치볼(Punch Bowl) 분지의 외곽산릉(外廓山稜)인 대암산에서 남북방 약 2km 지점에 위치한 무명의 산봉(1,804m)에서 남쪽 약 1km 지점에 넓이 약 200m 길이 약 300m 정도의 용연(龍淵)인 고층습원(高層濕原)이 있다. 이 용연은 보통 용늪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46호로 1973년 7월 10일에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용늪은 두 개인데 큰 용늪과 작은 용늪이 그것이다. 1997년 7월 28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가입되었다. 현재는 창녕 우포늪, 신안 창도습지, 순천만 등 16곳이 가입되어 있다. 백두산과 비슷한 희귀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서 생물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한동안 민통선에 위치한 탓에 생물의 생태보호가 잘 이뤄져 있었다. 생물들이 죽은 뒤 썩지 않고 층을 이루는 이탄층이 잘 발달돼 있어서 우리나라 생물의 역사를 연구하거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도 유용한 곳이다.

이처럼 용늪은 다른 지역과는 특이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이 사는 신성한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그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런데 대암산 용늪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곧, 기원제, 개적심, 암장(暗葬)이라는 기우제의 여러 형태가 함께 행해지고 있었다. 첫째로 동면과 서화면의 유지들이 제 각기 그 해의 농사에 흡족한 비를 내려달라고 용늪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이는 가뭄이 계속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순에 보통 지내는데, 해마다 하기도 하였다. 이런 기우제는 용늪 주변에 기우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진설하고 축문을 읊어서 비를 비는 형태이다. 둘째는 개적심이라는 것이다. 개적심은 용이 거거할만한 신성한 소(沼)나 바위 또는 우물에 가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개의 피를 바르거나 흘리는 것을 말한다. 바로 용늪에서도 살아있는 개를 끌고 가서 잡아 피를 뿌리고 제문을 읊었다고 하였다. 셋째는 신성한



장소에 시체나 사람의 뼈를 몰래 묻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암장(暗葬)의 방법을 썼다. 신성한 장소에 부정한 시체를 묻으면 그것을 없애려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양구군지』(1984)에 의하면 “풍수설(風水說)에서도 용(龍)늪이 명당(明堂)이라고 해서 누가 늪 속에 암장(暗葬)이라도 하면 큰 비가 몹시 내리니 부근(附近)의 주민(住民)이 이 시체(屍體)를 파 버려야 비로소 비가 그친다는 것이 기록(記錄)되어 있다.”고 했다.

용늪은 양구군민들에게 신성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 때문에 지명도 용이 사는 늪이라 하여 용늪 또는 용연(龍淵)이라 했으며, 그곳을 신성하게 여겨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다.

아쉬운 것은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우제를 지냈다는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양구군지』)

# 대암산과 용늪기우제에 내재한 원형의식 탐구

이 학 주

## Contents

- I. 서론
- II. 대암산에 대한 원형의식
- III. 대암산용늪기우제의에 내재한 원형의식
- IV. 결론

### I 서론

본고는 강원도 대암산과 대암산용늪기우제를 통해 강원도 산간마을 사람들의 원형의식을 밝혀보고자 하는데 있다. 강원도는 산이 많은 까닭에 강원도사람들은 대체로 산에 의지하여 생활해 왔다. 산은 강원도사람들에게 생활의 터전이면서 외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 때문에 평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질을 모두 주는 고마운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산은 강원도 산간사람들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산 자체의 위험성과 산짐승의 피해 등은 일상을 벗어나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시련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산은 산간사람들에게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강원도에서 산을 빼놓고는 강원도사람들의 원형의식을 파악해 내기는 어렵다. 특히, 산간사람들에게는 산이 삶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도 산이고, 죽어 묻히는 곳도 산이었다. 산은 산간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도저히 산간사람들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산이었다. 아무리 산이 그들에게 억울하게 해도 산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산은 그들에게 잠시 힘든 상황을 주어도 또 다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강원도 산간사람들이 갖는 산에 대한 일상과 의식을 살펴보면 그들의 심성 속에 내재한 어떤 원형의식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원형의식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원형의식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산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강원도산간사람들의 산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강원도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형의식의 일단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강원도 사람들은 강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산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갖는 의식이 각별했다는 것을 산맥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sup>1</sup>

본고에서 대암산과 용늪이라는 특정 산<sup>2</sup>을 배경으로 원형의식을 탐구하는 것은 대암산 용늪이 갖는 다양성 때문이다. 대암산은 그 형상과 식생 때문에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도 용늪의 경우는 하루에 방문객 50명을 넘을 수 없도록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설화를 갖고 있고, 기우제의를 행하는 특이한 곳임을 볼 수 있다. 1970년대까지는 화전민이 살고 있으면서 대암산에 직접적으로 의지했으며, 인근 사람들도 산나물부터 나무 등 모든 삶의 근원을 대암산에 의지해 살아왔다. 그 때문에 ‘대바우 용늪’은 주변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신앙 처인 외경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암산에 대한 일상과 외경을 통한 원형의식, 용늪기우제를 통한 원형의식을 탐구해 보도록 한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4338)

1 삼척을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사람들은 매년 산맥이[산메기, 산맥이기, 산맥이]를 하고 있다. 산맥이는 가정신앙과 연계된 산치성이면서 집단적인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독특한 산치성의 의례이다. 이때 산맥이를 행하는 사람들은 산간사람들 뿐 아니라, 어민들을 포함해서 도시민까지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맥이 대상신은 특별히 성씨별로 조상신을 먹이는 것으로 봐서 단군이 죽어 산신이 되어갔듯이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간다는 의식이 있는 듯하다. 김선평·이기원, 『민간신앙』, 『한국민족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154쪽.; 김익숙·전상국, 『강원전통문화총서』민속편, 국학자료원, 1998. 137-8쪽. 참고.

2 대암산은 현지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6.25한국전쟁 때 군인들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라고 한다. 지역 사람들은 ‘용늪’ 또는 ‘용늪 대바우’, ‘대바우 용늪’이라 불렀다. <양구바랑골농요>에도 <얼러지타령>을 부를 때 “대바우 용늪에 얼러지가 나거든 너하고 나하고 얼러지 캐러 가자.”(『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1994. 154쪽)라 나온다. 따라서 지금은 대암산과 용늪을 따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대암산과 용늪은 지역민들에게는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보자: 김진영(남, 81), 최한복(남, 85), 홍성삼(남, 88), 고순복(남, 87), 임태식(남, 86) 팔랑1리 마을회관, 2014.1.16. 채록.

## II 대암산에 대한 원형의식

강원도에 있어 산은 특별한 존재였다. 강원도는 산, 강,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그 때문에 강원도 문화는 산계(山系)와 수계(水系)와 해계(海系)를 형성하고 있다.<sup>3</sup> 그 중에 특별히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까닭에 산과 관련한 일상과 신앙이 발달해 있다. 그 때문에 최승순은 일찍이 “산이라는 형상적 뜻보다는 靈峰이라는 관념적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sup>4</sup>고 하였다. 이어서 “강원도가 산의 고장이기에 산을 바탕으로 한 토속신앙이 다른 고장보다 짙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고, 또 이러한 산을 중시한 토속신앙은 강원도의 가장 원초적 의식의 하나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단이 된다.”<sup>5</sup>고 하였다.

이 같은 원리는 강원도 양구와 인제에 걸쳐있는 대암산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 대암산에 의지해서 생업을 이뤄왔으며, 또 대암산에 대해 외경심을 갖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왔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암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실재를 통해서 밝혀 보고자 한다.

### 1. 일상과 생활의 터전

대암산은 대암산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일상의 산이면서 생활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생활의 터전이었다. 봄이면 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산에서 소꼴을 베고, 가을이면 열매를 따고, 겨울이면 사냥을 하는 생활의 터전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음의 민요자료에서도 읽을 수 있다.

〈얼러지 타령〉

돌산령, 달산령 선질꾼 떴다 재작장이의 공지갈보야 술 걸러 놓아라.

대암산 용늪에 쌓인 눈이 녹거든 임자 당신과 소녀 단둘이 얼러지 캐러 갑시다.

대암산 용늪에 얼러지가 나거든 우리나라 삼동세 얼러지 캐러 가세.

돌산령, 명당 구비에 쌓인 눈이 녹거든 당신하고 나하고 얼러지 캐러 갑시다.

대암산 멀구다래가 열거든 우리나라 삼동세 멀구 따라 가세.

3 최승순, 「도민의 성품 암하노를」, 『강원일보』, 2007.7.10.

4 최승순, 「강원도 封定山祭 연구」, 『강원문화논총』, 강원대학교출판부, 1989, 270쪽.

5 위의 책, 271쪽.

산천에야 그물은 머루 다래 인간에 그물은 당신이로구나.  
 돌산령 셋바람이 휘몰아치니 심곡사 종소리 요란도 하구나.  
 못살겠구나 못살겠구나 나는 못살겠구나 돈 그리고 임이 그리워 나는 못살겠구나.  
 천질만질을 뚝 떨어져서 살았거든 정든 임이야 떨어져선 나는 못살겠구나.  
 바람골 뒷산에 머루 다래 열거든 당신하고 나하고 머루 따러 갑시다.  
 산수갑산에 다랑쪼은야 열그러설그러졌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언제나 열그러설  
 그러지느냐.  
 어스름 달밤에 백우산을 받고서 요리가자 조리가자 날 호리는 구나.  
 무정한 기차야 말 실어다 농구서랑 고향 실어줄 줄은 왜 날 몰라주나.  
 요놈야 총각야 손목을 놓아라 물같은 손목이 얹크려진다.<sup>6</sup>

이처럼 대암산 주변의 사람들은 대암산과 그 주변의 농토에 의지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삶에서 우러나온 노래를 불렀고, 임과의 사랑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대암산을 배경으로 부른 노래는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민속놀이로 만들어져서 출품을 하였다. 〈양구바랑골농요〉, 〈돌산령지גע놀이〉 또는 〈바랑골지גע놀이〉라 하여 연행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sup>7</sup>

〈양구바랑골농요〉는 대암산 아래 바랑골이라 불리는 팔랑리에서 주민들이 만들어 부른 연행민요이다. 이곳 팔랑리는 대암산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이다. 동네에서 쳐다보면 대암산 꼭대기가 보인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산을 일궈 농사를 지으면서 또는 대암산에 산나물을 뜯으면서 불렀던 노래를 연행으로 만든 것이다. 산나물은 농산물에 버금가는 훌륭한 생계수단이었다. 봄 내내 대암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 말렸다가 겨울의 양식으로 삼은 것이다. 그 때문에 〈양구바랑골농요〉에는 농요뿐만 아니라, 대암산의 얼러지 뜯는 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다.<sup>8</sup>

6 김의숙·전상국, 앞의 책, 341~2쪽. 이런 자료는 다음의 민요에서도 볼 수 있다. 〈대암산 나물 뜯는 노래〉 “참나물을 가져/ 대우산 나물을 갈까/ 총각놈을 데리고/ 개울에 놀이를 가진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잔디 도라지 잔디/ 아 시급치 맛이로구나”(제보자: 이규홍(남, 79) 노래, 서화면 서흥2리, 2013.7.4. 채록)

7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1994, 154~8쪽.

8 위의 책, 154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랑골은 양구군 동면 대암산 중턱에 자리 잡은 팔랑리 마을의 옛 이름이다. 이곳에 전승하는 바랑골 농요는 뿌리 깊은 우리의 농경생활과 더불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속적인 이 지역 고유의 소리이다. 바랑골 농요는 노동요의 일종으로 험한 산전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타작하는 일 년 농사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얼러지 타령〉 돌산령 달산령 선질꾼이 떴네 재작정이 얘기 같보야 술걸려 보라. 대바우 용늪에 얼러지가 나거든 너하고 나하고 얼러지 캐러 가자.”(154쪽)

〈돌산령지계놀이〉 또는 〈바랑골지계놀이〉는 같은 놀이인데 명칭이 다르고 약간의 각색을 했을 뿐이다. 〈돌산령지계놀이〉의 핵심은 대암산에서 나무하는 사람, 곧 나무꾼들의 놀이이다. 놀이의 내용은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올 지계를 엮어서 상여를 만들어 메고,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거나 구두쇠인 영감을 죽은 것으로 가장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나무하러 가는 고달픈 현실을 그렇게 산사람을 장사를 지내면서 잊고자 한 해학적인 놀이의 일종이다. 구두쇠 영감을 장사 지내면서 영감의 구두쇠 생각이 바뀌기를 희망한 작은 소망이기도 했다. 이런 놀이를 한 것으로 봐서 나무하러 대암산으로 올라가는 고개가 녹록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옛날 양구 주민들에게 나무는 취사, 난방, 농기구제작, 건축자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었으며 나무를 땔감으로 팔아서 양식과 의복을 구입하기도 하는 등 가계수입에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돌산령지계놀이는 당시 나무를 하러가는 팔랑리 마을 나무꾼들이 돌산령을 오르며 하던 놀이로서 성행하였다.

40여명의 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다가 지계상여(喪輿)를 꾸며 편을 갈라 싸움을 하기도 하고, 장례(葬禮)절차를 그대로 흉내 내는 등 장난을 치다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잘살지는 못했지만 여유와 풍류가 가득한 산간생활 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놀이이다.<sup>9</sup>

민요와 민속놀이가 생활의 일부였듯이, 이 지역 사람들은 대암산의 용늪을 배경으로 축제를 열기도 하였다.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에서는 2008년(2009, 2010, 2012)부터 4번에 걸쳐서 ‘용늪제’라는 축제를 열었다. 봄(6월) 또는 가을(9월)에 했는데, 장소는 마을 폐교에서 했고, 용가면 무도회, 용춤, 용풍물, 용줄다리기를 등을 했다. 축제라고는 하나 작은 마을 잔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을사람들은 생태체험장에서 행사를 하고, 외부 손님은 생태체험장과 용늪까지 등반을 하였으나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마을단위축제이다 보니 외부로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sup>10</sup>

대암산 주변 사람들은 ‘산을 캔다’는 다음의 자료처럼 모든 것을 산에 의지해서 삶을 영위했음을 알 수 있다. 곧,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산을 캐고 다닌단 소리가

9 위의 책, 155쪽.

10 제보자: 이종열(남, 54) 용늪 해설사, 서흥1리, 2013.7.4.



있었어. 나물도 캐고 산삼 캐러 다니고 나무 하러 다니고 다 산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sup>11</sup>라고 고순복 제보자는 대암산에 대한 표현을 하였다. ‘산을 캐고 다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암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대암산을 이 지역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생활의 터전으로 인식한 것이다. 산 자체가 생업의 현장인 것이다. 서흥리 주민 이종열 제보자도 “대암산은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주요 터전이었다. 농사만 짓고 살 때 산에 가서 약초 캐고 산채를 뜯어서 각종 생활비로 사용했다.”<sup>12</sup>라고 제보를 했다.

## 2. 신성과 외경의 대상

대암산은 지역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신성(神聖)과 외경(畏敬)의 대상이었다. 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산에 대한 생각은 산계문화(山系文化)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산은 일상생활에 땀감이나 식생을 제공해 주는 고마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산은 일상의 시공을 뛰어넘은 신들이 기거하는 신성한 장소이면서 신들이 화를 내면 무서운 시공으로 변하는 외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고 신성한 존재이기에 산신(山神)을 상정하여 좌정하고 그들을 달래고 믿고 따랐다. 강원도의 가정신앙을 조사 채록한 황루시는 “강원도의 가정신앙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산에 대한 경외심이었다.”<sup>13</sup>고 하였다. 동제가 아닌 가정신앙에서 산을 숭배하고 경외한 것이다.

산에 대한 신성과 외경심은 산신앙으로 나타난다. 산을 신성한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산에 좌정해 있다고 생각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행했다. 이때 기도나 제사를 행할 때 그를 주관하는 제관과 도가 등은 부정(不淨)이 없는 사람으로 생기(生氣)에 맞춰서 땀을 뺀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참가하는 사람까지도 엄격한 금기가 요구되었다. 이런 깨끗해야 한다는 조건과 금기를 요구한 것은 신에 대한 고마움과 외경심 때문이다.<sup>14</sup>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서운 벌을 내리고, 지켰을 때는 그

11 제보자: 고순복(남, 79) 팔랑1리, 2006.6.22-5. 함혜영 채록자료.

12 제보자: 이종열(남, 54) 용늪 해설사, 서흥1리, 2013.7.4.

13 황루시, 「강원도 지역 가정신앙의 특징」,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580쪽.

14 최승순(1989), 앞의 책, 281쪽.

에 대한 가호(加護)가 따르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산신앙은 이미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서부터 나타난다. 〈고조선〉조에 등장하는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에 내려왔고, 단군이 도움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고, 뒤에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곰이 산의 굴에서 금기를 지켜서 웅녀(熊女)로 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5</sup> 〈고조선〉조의 이 기록은 우리 민족이 갖는 산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산은 하늘과 가까운 곳으로 산에는 신들이 기거하고 나라를 처음 열 정도의 신성성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신성성은 산에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들이 기거하고 있다는 원초적 의식과 함께 신에 대한 외경심이 원형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승순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폈다.

建國神話에 의하면 이 신화의 산업적 배경은 이미 농경으로 되어 있다. 농경과 관계되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때의 산업은 이미 농경이었으므로 환웅이 하강할 때 농경에 알맞은 평야로 하강하여야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 논리가 설 터인데 평야로 하강하지 아니하고 산정으로 하강했다는 것은 민생이나 산업보다는 한 차원 위에 있었던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의 當處로 산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산에 대한 신앙적 외경심의 齎來로 산에 대한 神觀이나 崇山思想의 발로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崇山の 맥락은 母山思想이나 鎮山思想을 낳게 되었다.<sup>16</sup>

환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올 때 가져온 곡식이나 풍백·우사·운사 등을 데리고 온 것을 바탕으로 농경이 주요산업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정(山頂)으로 도움을 정했다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산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본 것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농경과 신앙에 대한 것은 최승순의 언급과 같이 이미 산은 생업의 대상이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산신앙은 산이 유달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사람들에게는 독실하게 나타났다. 그 때문에 지금도 가신신앙인 산치성과 독치성(瀆致誠)<sup>17</sup> 등이 행해

15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43-4쪽.

16 최승순(1989), 앞의 책, 272쪽.

17 독치성은 산계곡이나 산의 샘 등처럼 개인적으로 산치성을 드릴 때 물 옆에서 그 물로 메를 지어 산치성을 드리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산에서 흐르는 물도랑 옆에서 치성을 올리므로 독치성(瀆致誠)이라 한다.

지고 있다. 그 중에 산맥이는 강원도에서만 채록되는 독특한 신앙이다. 아울러 동제(洞祭)의 형태로도 산신제나 산치성이라 하여 행해지며, 또는 홍천의 권대감제처럼 특정인물을 신으로 맞아 행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적인 치성인 가정이나 씨족 중심의 산맥이나 마을 단위의 동제가 계속해서 관습으로 남아 이어진다는 것은 이들의 심성에 자리한 원형의식의 일단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조사한 대암산 개인 산치성의 경우이다.

할아버지가 첫새벽이면 바가지하고 냄비하고 가져가지고 밤에 가셨는데 첫 새벽에 주무시고 한 3,4시쯤에 가져서 정성을 드리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 밥만 깨끗이 떠냈다가 가져가서 정성을 들이시고 하셨지.<sup>18</sup>

제보자 당사자가 제를 지낸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산치성을 지낸 것을 제보고 있다. 사실 그 당시는 모든 가구가 이처럼 개인적으로 산치성을 행했던 것이다. 이런 산치성을 팔랑리에서는 ‘노구메정성’이라고 한다. 산에 있는 바위 앞에서 메를 지어놓고 실타래를 걸고 축원을 하면서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산에 가서 노구메정성을 드렸듯이 삶의 모든 것을 산신에게 의지했던 것이다.<sup>19</sup>

가신신앙으로 봄가을에 많이 행하는 안택고사가 있다. 팔랑리의 경우는 안택고사를 지낼 때 읊는 고사반이나 〈바랑골지게놀이〉에서 읊는 고사반의 경우 첫 구절이 “대암산 산신령님 하강하소서!”로 시작이 된다.<sup>20</sup> 이것은 가정신앙과 대암산 산신앙의 연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신신앙이 가정신앙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산(山)이나 군웅을 모시다가 산맥이나 산치성을 할 때 이전의 것은 산에 바치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흡사하다.<sup>21</sup> 강원도는 삼신도 산에서 타왔으니,<sup>22</sup> 대암산 밑에 사는 팔랑리 사람들이 고사반을 할 때 대암산 산신령을 초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18 제보자: 이문기(남, 64) 팔랑1리, 2006. 6. 자료제공 함혜영.

19 제보자: 김진영(남, 81) 외 마을 사람들. 팔랑1리 마을회관. 2014.1.16.

20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양구바랑골지게놀이』, 양구군, 팸플릿. 참고.; 제보자: 고순복(남, 87) 팔랑1리. 2014.1.16.

21 황루시, 앞의 책, 583쪽.

22 위의 책, 581쪽.

심마니들은 특히 산신을 위하는 것이 남달랐다. 젊었을 때 심마니를 했다는 김진영 제보자의 경험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마니들은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야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야영을 할 때는 먼저 제단부터 만들어 놓고 메를 지어서 산신께 먼저 드리고, 본인이 먹는다. 산은 항상 위험하며, 다니다 보면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 산에는 돌바우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하여 99%가 위험지역이다. 산에 다니면 그냥 산을 믿는데, 빌 때는 “오늘만 무사하게 해 달라고 하지. 산삼 좀 주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 한다.<sup>23</sup>

대암산은 이런 개인치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대암산 주변의 동제(산신제)를 비롯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만 행해지는 비주기적인 기우제가 대암산에서 행해졌다. 이때 이들의 의식도 산에 대한 신성성을 바탕으로 고마움과 외경심이 같이 나타난 것이다.

대암산 주변에서 행하는 동제의 경우를 몇 개 보도록 한다.

〈서흥2리 산신제〉: 골짜기 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신은 그냥 산신령인데, 대암산 밑이니가 대암산신령이지. 1월 4일에 제사를 지내요. 옛날에는 돼지를 잡아서 지냈는데, 지금은 돈이 뭘해서 돼지머리를 사다가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을 하고 먹고 남은 것은 회관으로 가져와서 여기 어르신들이 먹고 그러지요.<sup>24</sup>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의 산신제이다. 현재 산신제가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렇게 산신제를 행하는 자체가 이미 대암산에 좌정한 산신에 대한 외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암산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양구 동면의 팔랑1,2리의 경우는 모든 마을이 산신제를 행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4차에 걸쳐 함혜영이 조사한 자료에<sup>25</sup> 의하면, 팔랑1리의 경우만 해도 1반, 2,3반, 4,5반이 각각 따로 산신제를 봉행하고 있었다. 참여하는 주민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예전과 같이 금기며 의식절차는 똑 같이 행하고 있다. 위패는 당연히 “대암산신(大岩山神)”이다.

23 제보자: 김진영(남, 81) 팔랑1리, 2014.1.16.

24 제보자: 이규홍(남, 79) 서흥2리, 2013.7.4.

25 2006년 (1차) 6.22-25, (2차) 7.18-22, (3차) 9.29-10.1, (4차) 10.4-5.

여기 노인네는 산에 가서 텅가 어디가다가도 아이고 산신령님 봐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맘적으로다 그게 막 나온다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급하면 아유 하나님 아버지 봐주세요. 이렇게 나오듯이 아이고 산신령님 이런 식으로 나온다.<sup>26</sup>[밑줄필자]

일상에서조차도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 산신령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얼마나 대암산 산신령에 대한 믿음이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팔랑리(동면) 산신제〉 삼월 삼짇날과 8월 14일에 지낸다. 1반~5반이 모여 지내는데 2반 반장이 제주이다. 2반 반장은 달을 봐서 날을 정한다. 정성드려 날을 받아왔으면 제당에는 소나무가지를 꺾어다가 표시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제를 지낼 때는 부정한 사람 곧 개를 잡아먹은 사람, 임신한 사람 등은 참가하지 못한다. 도가도 생기를 맞추어 정한다.<sup>27</sup>

이처럼 택일(擇日), 금기, 도가와 제관 선정 등에 있어 철저히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아닌 대암산 신령에 대한 신성성과 외경심의 발로라 할 것이다.

이런 자료는 동면 팔랑2리(『양구민속지』), 해안면 현리, 만대리(『문화유적분포지도』)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 해안면의 〈만대리 대암산 산신제〉에서는 대암산 산신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암산의 산신령은 원래 여신이므로 제물은 전부 수놈을 사용한다. 여성은 참여할 수 없으며 음식 준비나 제를 지내는 준비도 모두 남자가 한다. 현장에서 직접 소를 잡는 점이 특이하다.<sup>28</sup>

산신이 여신이기에 제물을 수컷으로 사용하고, 남성만 참여한다는 것이다. 동제 때 소를 잡고 양구문화원의 보조까지 받는다고 한다.<sup>29</sup> 팔랑1리에서는 산신제를 지낼 때 대암산신이 여신이기에 수탉지를 제물로 쓴다.<sup>30</sup>

26 제보자: 박찬성(남, 55) 팔랑1리, 2006.6. 자료제공 함혜영.

27 『글초』6,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1997. 128쪽.

28 『양구문화유적분포지도』, 양구군·한림대학교박물관, 2008. 199쪽.

29 위의 책, 같은 곳.

30 제보자: 김진영(남, 81) 외, 팔랑1리 마을회관, 2014.1.16.

대암산은 위낙 영험해서 개나 닭이나 먹고 산으로 올라가면 비가 쏟아졌다. 그렇게 비가 쏟아지다가도 산만 벗어나면 비가 오지 않았다. 명산이기 때문에 개를 잡아먹고 산에 가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 어른들이 용늪에 가기 이삼일 전부터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 당시는 아주 산을 신 같이 믿었다. 산신령이 완전히 있는 것으로 믿은 것이다.<sup>31</sup>

대암산에 대한 신성과 경외심은 영험담에서도 나타난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가면 비를 내려 신성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여 대암산의 영험성을 말하고 있다. 산 자체를 신으로 믿었다고 했으니, 이들이 산에 대해서 갖는 의식을 알만하다.

### III 대암산용늪기우제의에 내재한 원형의식

대암산은 백두산의 천지, 한라산의 백록담처럼 산꼭대기에 용늪(龍池, 龍淵, 大龍浦)이라고 하는 못을 가지고 있다. 용늪은 큰용늪, 작은용늪, 애기용늪이라고 해서 세 개의 늪을 형성하고 있다. 해발 1300m이상의 고원에 자리하고 있어서 백두산 중턱의 습원과 같이 독특한 식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탄층(泥炭層)이라고 해서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쌓인 동식물의 잔해가 1년에 1mm씩 더해 용늪에 무려 1.8m나 쌓여있을 정도이다. 이런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1973년 7월 10일에는 천연기념물 제246호로 지정을 했으며, 1997년 7월 28일 세계 101번째로 랍사르 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이러한 대암산 용늪은 위에서 본 <얼려지타령>에도 나올 정도로 대암산 주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보다 더한 것은 대암산 주변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서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용늪에 와서 위협을 해결하였던 것이다. 생계의 위협을 용늪에 와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이들의 의식 속에 대암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용늪을 신성구역으로 봤다는 증거이다. 기우제 자체가 생계와 직결되므로 지역민의 원형의식이 잘 표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우제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김재호는 연구한 바 있다. 곧, “기우권역

31 제보자: 김진영(남, 81) 외, 팔랑1리 마을회관, 2014.1.16.



문제는 자연환경의 차이와 더불어 역사적인 사회문화적 차이가 부가된 것으로 여겨진다.”<sup>32</sup>면서 “민속학이 주요 과제로 삼는 한국기층문화의 특질을 밝히는데 기우문화가 역시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sup>33</sup>고 하였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본고에서 논제로 삼은 기우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원형의식추출은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암산 용늪 기우제가 행해지는 형태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일찍이 김의숙은 음양오행에 따른 기우제의 형성이론을 추출하기 위해서 유형을 분류한 적이 있다. 그 중 목적수성별(目的遂成別)유형이라는 항목에서 강우를 위한 제의방식에 따라 화해형(和解型), 대항형(對抗型), 유도형(誘導型)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sup>34</sup> 이에 의하면 대암산 용늪의 기우제는 이 세 가지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를 본고의 논의에 맞게 순서를 정하고 항목을 명명하면 첫째로 화해형은 ‘용 달래기’, 둘째로 유도형은 ‘용 가르치기’, 셋째로 대항형은 ‘용 혼내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암산 용늪기우제에 내재한 지역주민들의 원형의식을 추출하여 밝힐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굳이 주술과 연관시킨다면 용 달래기는 기도주술(祈禱呪術)이라 할 수 있고, 용 가르치기는 유사주술(類似呪術), 용 혼내기는 대항주술(對抗呪術)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의 용늪기우제의는 그 순서에 따라 달래고 가르치고 혼내기의 형태이다. 그 실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용 달래기 – 비기원제, 기도주술

대암산용늪기우제의 본바탕은 제의를 통한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제의를 통해 비가오기를 기원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기우제의이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의 곡식이 타들어가고 먹을 물이 없으면,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비는 것이다. 이런 비기원제는 인간이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무엇인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든가, 신 자체가 자주 성격을 바꾸는 소유자여서 신을 기분 좋게 달래주어야 비를 내린다는 원초적 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그 때문에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진설해 놓고 진설한 제물을 흠향하고 맺힌 마음을 풀어 비를 내려달라고 달래는 것이다. 이런 기우제의는 정성을 다해서 금기를 지켜가면서 제수를 장만하고 제물을 진설하고 축

32 김재호, 「기우제의 지역간 비교와 기우문화의 지역상」,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527쪽.

33 위의 논문, 530쪽.

34 김의숙, “기우제의의 형성이론: 음양오행사상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28,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0, 48-53쪽 참고.

을 고하면서 빈다.

이런 기원형태의 기우제의를 김의숙은 화해형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和解型은 神이 흠향할 제물을 정성을 다하여 진설하고서 降雨하여 주기를 호소하는 기우제의 한 유형이다. 이는 順理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신령에 대한 인간들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신령을 진노케한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니 神에게 용서를 빌고 참상을 호소하며 나아가 신령과 화해함으로써 得雨하고자 하는 제의형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유교식의 기우제의가 여기에 속한다.<sup>35</sup>

인용문에서 호소(呼訴)는 절실한 기원으로 볼 수 있으며, ‘화해’는 ‘달랠’이 더 어울리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화해는 쌍방이 오해를 풀어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지만, 달랠은 화가 났거나 마음이 상한 상대에게 맺힌 마음을 풀 것을 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달랠은 화가 난 상대에게 가장 처음으로 접근해서 행하는 일반적인 기원행위이다. 이런 비기원제외가 용늪에서도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용늪의 기우제단에 대해서 고순복 제보자는 “큰용늪 옆에 가면 돌을 쌓아 기우제를 지낸 제단이 있다. 돌을 쌓고 가운데 나무 막대를 가로 걸치고 한지와 실을 걸었다. 기우단은 산자리 좋다는 바로 밑 용늪 옆에 있었다.”<sup>36</sup>라고 제보를 했다. 이런 기우단이 용늪에 있었다는 것은 대암산용늪기우제의의 첫 번째 시도도 비를 관장하는 용을 달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신성한 장소를 더럽히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대암산에 올라서 용이 기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용늪에 가서 제단을 설치해 놓고 용에게 비가 오기를 빌었다. 그것이 첫 번째 행한 용늪기우제의였다.

그런데 대암산 용늪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 첫째로 동면과 서화면의 유지들이 제 각기 그 해의 농사에 흠족한 비를 내려 달라고 용늪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이는 가뭄이 계속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순에 보통 지내는데, 해마다 하기도 하였다. 이런 기우제는

35 위의 논문, 49쪽.

36 제보자: 고순복(남, 87), 필광1리, 2014.1.16.

용늪 주변에 기우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진설하고 축문을 읊어서 비를 비는 형태이다.<sup>37</sup>

이처럼 용늪에 제단을 설치하고 신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빌었다. 신을 어르고 달래서 그만 화를 풀고 비를 내리라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신을 더 화나게 해서 안 된다. 그 때문에 기원제에는 금기(禁忌)를 행하게 된다. 신이 싫어하는 행위인 부정(不淨)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기원제에서 행하는 금기는 투장이나 개적심과 같은 대항형의 기우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것이다. 화가 났거나 뒤뜰린 마음을 푸는데 상대를 거슬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용 달래기는 신을 향한 인간의 순응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정성을 다해 잔뜩 차려놓고, 신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수없이 빌면서 비를 기원하는 것이다.

## 2. 용 가르치기- 키씻이, 유사주술

대암산용늪기우제의 두 번째 유형은 ‘용 가르치기’에 해당한다.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비기원제를 지냈는데도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신에게 비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용늪에는 비를 관장하는 용이 산다고 생각하고, 용은 신령한 동물로 용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에게 비가 내리는 흉내를 내 보이며 ‘비는 이렇게 내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것은 앞서 본 유도형(誘導型)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주술(類似呪術)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용 가르치기’의 비근한 예로 병에다 물을 담고 입구에 술가지를 꺾어 끼우고 처마 끝에 거꾸로 매달아 물방울이 떨어지게 하는 현병적수형(懸瓶滴水型), 강물에 들어가서 키로 물을 떠서 하늘로 던져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천수국기형(川水掬箕型)이 이에 속한다.

이 중 대암산용늪의 기우제에서는 천수국기형을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37 『양구군지』, 양구군, 2014. 226쪽. 1984년에 출간된 『양구군지』에는 “해마다 동면이나 서화면의 유지들이 제각기 그 해의 농사에 흡족한 비를 내려 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238쪽)고 기록했다.

거기는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물을 푸고 그러면 비가 오고 그랬어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키를 갖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물을 펴요. 그렇게 물을 푸면 비가 와요. 키를 갖고 물을 퍼서 막 까불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지요.<sup>38</sup>

나이 많은 노인들이 키를 갖고 용늪에 올라가서 물을 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키를 갖고 물을 푼다’는 것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비를 내리는 흉내를 내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물을 푼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흉내일 수도 있지만,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재생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천수국기형 곧, 키씻이의 경우는 가르치는 행위와 재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암산용늪기우제의의 키씻이는 일반적인 키씻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키씻이는 여자들이 속옷차림으로 키를 갖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까뼀다. 이때 춘천 지내리의 경우는 세 마을의 과부를 반드시 참가시켰다고 한다.<sup>39</sup> 충남 금산군 부리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마을 처녀들은 고쟁이만 입거나 알몸으로 강물에 들어가서 서로 물을 끼얹고 물장난을 치며 “하늘님 물이 귀해 속옷을 못 빨아 입어서 시집을 못갑니다. 어서 비쯤 내려 주시오!”라고 한다. 이때 아주머니들은 청이(키)를 이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 청이를 물에 담아 힘껏 까부린다.<sup>40</sup>

처녀들의 시집가는 행위를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들이 키를 갖고 물을 까뼀다고 했다. 어쨌든 이때 키를 갖고 행하는 행위는 모두 비를 부르는 의도에 있는 것이다.<sup>41</sup> 그런데 인용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여자와 결혼이라는 풍요의 생산의 식이 들어가 있다.<sup>42</sup>

38 제보자: 이규홍(남, 79) 서흥2리, 2013.7.4.

39 김의숙·전상국, 앞의 책, 1997, 503쪽. 김의숙은 키씻이에서 여자들을 참가시킨 것은 “풍요와 생식의 성격을 띤 지모신격의 여성을 통하여 생명의 비를 얻으려는 발상으로 생각된다.”(503쪽)고 하였다.

40 이기태, “마을기우제의 구조와 사회통합적 성격”, 『한국민속학』46, 한국민속학회, 2007.11, 291쪽 재인용.

41 김재호, 앞의 논문, 517쪽. 김재호는 “소나기가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 청이를 머리에 덮어 쓰는데, 청이를 갖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청이를 덮어 쓰는 행위 모두가 비를 부르는 의도에서 행해졌다.”(517쪽)고 했다.

42 이기태, 앞의 논문, 289쪽. 이기태는 기우제외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으로 봤고, 기우제는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풍요는 마을의 위기를 극복하여 불안한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대암산용늪기우제의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키를 갖고 물을 푸는 것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여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키로 물을 푸는 행위나, 노인들이 물을 푸면서 비를 내리는 시늉을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유사(유감)주술적인 것으로 물을 퍼내는 행위 속에는 가르침과 재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용신에게 비기원제를 지내면서 달래고 어르고 해도 비를 내리지 않으니, 그들에게 비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비를 내려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용 혼내기 - 개적심, 투장, 대항주술

용신을 달래도 보고,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대암산 주변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쓴다. 용신이 기거하는 시공인 신성구역을 더럽혀서 용을 혼내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항거이다. 그동안 신성시 해왔던 구역을 세속화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항주술(對抗呪術)적인 행위로, 달래고 가르쳐도 안 되니 신력(神力)에 반발해서<sup>43</sup>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세속이나 별반 다를 것이 아니라는 의식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우제 형태로는 부정한 개를 잡아 피를 뿌리는 유혈철포형(流血撒布型), 부정한 짐승의 머리를 용소에 던지는 수두투소형(獸頭投沼型), 용이 사는 소를 딸리는 용소고갈형(龍沼枯渴型), 용소에 돌을 던져 채우는 용소투석형(龍沼投石型), 신성한 용소나 무덤 등에 부정한 뼈를 파묻거나 묘를 파내는 투장과묘형(偷葬破墓型) 등이 있다.<sup>44</sup> 이 중에 대암산용늪기우제의에는 유혈철포형, 수두투소형, 투장과묘형이 행해졌다. 여기서 유혈철포형과 수두투소형은 같이 행해지고 있다. 굳이 명칭을 짓는다면 용늪기우제의에서는 산개를 용늪에 넣기도 했으므로 생견투소형(生犬投沼型)의 형태도 같이 이뤄졌다.

① 팔랑리에서는 용늪에다 산개(살아있는 개)를 집어넣으면 비가 온다고 해서 개를 죽여 용늪에 던졌으며<sup>45</sup>

43 김익숙(1990), 앞의 논문, 51쪽.

44 위의 논문, 48쪽. 참고.

45 『글초』6, 앞의 책, 129쪽. 산개를 용늪에 넣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용늪에 넣었던 개를 꺼내면 비가 멈춘다고 한다.

② 산개를 끌고 가서 피를 뽑아 용늪에다 부려주고 제문을 읽는다. … 風水說에서도 龍늪이 明堂이라고 해서 누가 늪 속에 暗葬이라도 하면 큰 비가 몹시 내리니 附近의 住民이 이 屍體를 파 버려야 비로소 비가 그친다는 것이 記錄되어 있다.<sup>46</sup>

③ 용늪에 부정한 물건을 던져두면 그것을 씻겨 내기 위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신성한 장소다.<sup>47</sup>

④ 전두환 때 비가 안 와서 용늪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날이 많이 가 무니까 용늪에 올라가서 개잡아놓고 지냈다. 논이 다 마르고 곡식이 말라 죽고 하였다. 당시 면장과 이장과 마을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냈는데, 개를 잡아서 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용늪에 개를 넣고, 비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포를 놓고 술을 따르고 하였다. 축도 고한다. 제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늪에다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용늪은 신성한 곳인데, 그곳에 부정한 고기인 개를 잡아넣음으로써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성한 곳에 개를 넣으면 부정을 타서 씻으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바로 비가 오는 경우도 있으나 최소한 2,3일 이내는 다만 몇 방울이라도 비를 뿌린다.<sup>48</sup>

인용문에서 보듯이 대암산용늪기우제의에서 행해진 ‘용 혼내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부정한 동물인 개를 산채로 넣거나, 개를 잡아 피를 뿌리고 용늪에 개의 시체를 넣는 일명 ‘개적심’이라는 행위이고, 둘째는 신성한 명당인 용늪 부근에다가 역시 부정한 시체를 몰래 장사지내는 일명 투장(偷葬)이라는 것이다.<sup>49</sup>

이런 형태는 기우설화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노성미는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노성미는 ‘신성 더럽히기’와 ‘신성 회복하기’라는 말로 나타났다.<sup>50</sup> 그러면서 “기우설화는 민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신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서사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sup>51</sup>고 하였다. 결국 개적심과 투장은 모두 신성

46 『양구민속지』(1984), 앞의 책, 238쪽.

47 제보자: 이종열(남, 56) 서흥1리, 용늪 해설사, 2013.7.4.

48 제보자: 이종빈(남, 78) 서흥1리, 2013.7.4.

49 투장에 대한 것은 팔랑리에 살고 있는 고순복(남, 87)제보자도 직접 경험했다고 한다. 용늪의 명당은 현재 헬기장으로 뒤야놓은 곳인데, 옛날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누가 투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을사람들이 용늪에 올라가서 봉양고챙이로 쑤셔 두개골을 파내었다고 했다. 2014.1.16. 채록.

50 노성미, “기우설화에 나타난 신성성 연구”, 『인문논총』31, 경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3. 참고.

51 위의 논문, 86쪽.



에 대한 모독으로 본 것이며, 투장한 것을 파헤치는 형태는 신성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sup>52</sup>이라 본 것이다. 그렇다면 신성한 장소에 부정한 개와 시체를 넣는 행위는 신성한 장소에 대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신성구역을 세속구역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는 엄청난 항거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항거를 하면 신성한 동물인 용신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용신은 치명상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용신은 순박하기만 했던 인간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했으니, 스스로 회복해서 다시 신성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부정한 동물인 개피와 개시체로 더럽혀진 구역을 깨끗하게 씻고, 더러운 시체가 묻혀 역시 더럽혀진 구역을 파헤쳐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속으로 얼룩져 죽었던 신성구역은 재생하는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대암산과 대암산용늪기우제를 중심으로 그곳에 내포된 주변사람들의 원형의식을 탐구해 보았다.

이 작업은 강원도에는 산이 많으며, 산이 먼 평야지대나 수계와 해계를 끼고 있는 어촌 해안지방에서도 산에 대한 신앙이 깊게 뿌리내렸다는 데서 발상을 한 것이다. 그렇다고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대암산과 대암산용늪기우제를 표본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대암산과 대암산용늪기우제만 봐도 어느 정도 강원인의 원형의식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암산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의식은 일상생활의 생업의 터전과 신성한 외경의 시공으로 대암산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생계를 위해 나무를 뜯는 것부터 총각처녀의 애정, 민속놀이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산을 캐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산에는 자신들의 생활전반을 관할하는 신들이 기거하는 신성한 장소로 보았다. 그 때문에 신을 잘 달래야한다는 외경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대암산용늪기우제에 담긴 원형의식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 과

52 위의 논문, 101쪽.

정은 ‘용 달래기’, ‘용 가르치기’, ‘용 혼내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신을 대변하는 용이 화가 나든가 마음이 변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정성과 금기를 다한 제물을 차려놓고 비는 것이었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용에게 비를 내리는 시늉을 보여줌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용들이 사는 신성구역을 세속구역으로 바꾸는 항거였다.

본 논고를 통해서 지엽적으로나마 강원인들이 어떤 원형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대략 밝힐 수 있었다. 곧, 강원인은 산을 통해서 볼 때 산은 생활의 터전이면서도 신성한 외경의 대상으로 대했으며, 대암산용늪기우제의에서는 비를 관장하는 용을 달래고 가르치고 혼내면서도 언제나 재생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인은 상당히 유순하면서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본고에서 대암산과 대암산용늪기우제라는 작은 표본을 대상으로 원형의식을 탐구했지만, 이들 범위를 넓혀 가면 강원인이 갖고 있는 보다 궁극적인 원형의식(Archetype)을 천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1994. 1~273쪽.
-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반, 「양구군학술답사보고서」, 『글초』6,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1997. 68~142쪽.
- 김선풍 · 이기원, 「민간신앙」,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1~713쪽.
- 김의숙, 「기우제의의 형성이론」, 『인문학연구』28,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12. 40~66쪽.
- 김의숙 · 전상국, 『강원전통문화총서』〈민속〉, 국학자료원, 1997. 1~690쪽.
- 김재호, 「기우제의 지역간 비교와 기우문화의 지역성」,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505~533쪽.
- 노성미, 「기우설화에 나타난 신성성 연구」, 『인문논총』31,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5~106쪽.
- 『문화유적분포지도』〈양구군〉, 양구군 · 한림대학교박물관, 2008. 1~286쪽.
- 『양구군지』, 양구군, 1984. 1~393쪽.
- 『양구민속지』, 양구군, 2001. 1~894쪽.
- 이기태, 「마을기우제의 구조와 사회통합적 성격」, 『한국민속학』46, 한국민속학회, 2007.11. 265~301쪽.
- 이학주, 「민속신앙과 공동체 행사」, 『양구군지』, 양구군, 2014. 194~230쪽.
-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1~420쪽.
-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양구바랑골지게놀이』, 양구군, 팸플릿. 1~6쪽.
-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양구 돌산령지게놀이』, 양구군, 1996. 1~6쪽.
- 최승순, 『강원문화총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9. 1~363쪽.
- 최승순, 「도민의 성품 암하노불」, 『강원일보』, 2007.7.10.
- 황루시, 「강원도 지역 가정신앙의 특징」,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580~594쪽.
- ※ 이학주, 「대암산과 용늪기우제에 내재한 원형의식 탐구」, 『동아시아고대학』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4.

## 4 냇강 천렵 화전놀이

### ■ 놀이의 원형

인제군 서화면 월חק리 냇강마을에는 그 이름에서 풍기듯이 냇강이라는 보물이 있다. 이 냇강에는 누더기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강돌이 모여 여러 형태의 광경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강돌이 얼마나 많이 강바닥에 있는지 누더기를 기운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때문에 강의 풍경도 아름답고 봄이면 강가에 온갖 꽃들이 만발한다. 길게 늘어진 자갈과 강돌의 풍광과 꽃이 어울려 그야말로 환상적인 모습이다.

마을사람들은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힘든 일을 잊기 위해서 강으로 찾아들었다. 바로 화전놀이와 천렵과 호미씻이와 복놀이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냇강에 찾아들면서 강에서 하는 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 놀이에 대한 전통적인 기록은 없다. 그 때문에 언제부터 냇강마을에 천렵을 비롯한 놀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강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을사람들의 놀이가 있었던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에 2015년 강원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강원도 18시군에서 한 지역씩 조사를 해서 책으로 내었다. 이곳에 의하면 냇강에서 천렵은 개천렵과 물고기천렵이 있는데, 또래 또는 마을사람 전부가 모여서 한다고 했다. 화전놀이도 냇강가에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여자들 중심으로 장고도 치며 논다고 했다. 그리고 말복을 기해서 호미씻이 겸 마을놀이를 한다고 했다.

이로 보면 냇강의 천렵과 화전놀이는 마을 대동제이면서 놀이의 형태를 함께 갖춘 냇강의 또 다른 민속임을 알 수 있다.

### ■ 마을 소개

냇강마을은 말거리의 다른 이름이다. 인제군 월חק리의 말거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다. 서화면 지역은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다. 그러나 8.15광복과 함께 이 지역은 인민통치를 받았다. 이어서 6.25한국전쟁 과정에서는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유명하다. 이후 한국군에 의해서 수복이 되었으나 몇 년 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가 단계적으로 지역을 풀면서 땅을 개간하여 다시 마을을 이루었다. 개간하는 동안 마을사람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건설한 마을이다.

그런데 수복 후 마을에 들어와 개간을 한 사람들 중에는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 고향으로 찾아왔다. 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끊어졌던 마을의 전통도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마을제사, 세시풍속, 일생의례 등 우리의 민속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

넷강마을이라는 이름은 마을 개발 차원에서 불리지던 이름인데,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말거리보다는 넷강마을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농촌마을개발사례로 대표적인 마을의 하나이다. 대통령이 칭찬한 마을이며, 문화관광부에서 몇 번에 걸쳐 성공한 마을개발 사례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각종 체험을 비롯해서 잠시 쉬었다가는 마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때문에 연일 외부 단체의 방문으로 마을 단위 체험이 열리며, 민박 등을 와서 강과 농촌의 전원을 만끽하고 간다. 아울러 인근 군부대의 장병을 면회 온 면회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이 마을사람들은 농촌마을개발을 하면서도 전통을 잘 살리고 있다. 마을의 고유성이 마을개발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놀이의 유래

『동국세시기』3월 풍속에 의하면 “산언덕·물굽이에 나가 노는 것을 화류(花柳, 꽃놀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삼복(三伏)에 개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는 “고대 수렵사회(水獵社會)와 어렵사회(魚獵社會)의 습속이 후대에 여가를 즐기는 풍속으로 변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넷물이나 강가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며 헤엄도 치고, 또 잡은 고기는 술을 걸어 놓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때로 농악이 따르기도 한다.”고 해서 현재 행하는 천렵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곳에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4월령에 그 내용이 소상히 나타나 있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앞내에 물이 주니/천렵을 하여보세/해 길고 잔풍(殘風)하니/오늘 놀이 잘 되겠다/벽계수 백사장을/굽이굽이 찾아가니/수단화(水丹花) 늦은 꽃은/봄빛이 남았구나/추고(數罟)를 둘러치고/은린옥척(銀鱗玉尺) 후려내어/반석(磐石)에 노구 걸고/숫구처 끓여내니/팔진미(八珍味) 오후청(五候鯖)을/이 맛과 바꿀소냐.”(『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재인용)

인제군 냇강마을에서도 천렵과 화전놀이 및 복놀이가 행해졌다. 냇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놀이도 그 유래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천렵 및 화전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곧, 강가에 가서 개를 잡든가 물고기를 잡아서 술에다 매운탕이나 어죽을 끓이고,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하루 노는 마을축제의 한 형태였다.

## ■ 놀이의 특색

2014년 강원민속문화의 해에 냇강마을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천렵 및 화전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었다.

말거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연중 몇 번에 걸쳐 천렵(川獵)을 하였다. 천렵은 포래끼리 하는 경우도 있으나 호미씻이를 할 때는 마을 단위로 진행하였다.

포래끼리 하는 천렵에는 개천렵과 물고기천렵이 있다. 개천렵은 포래끼리 추렴을 해서 개를 사서 이곳에서 잡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노는 것이다. 물고기천렵은 물고기를 잡아서 어죽을 끓이거나 매운탕을 끓여서 먹고 미리 준비한 술을 마시면서 하루 종일 노는 것이다. 포래끼리 하는 천렵은 일 년에 보통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진행하였다.

마을단위 천렵은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경우이다. 일종의 대동제 같은 개념으로 진행되었다. 보통 말복을 기해서 호미씻이라는 세시풍속을 진행하면서 하는 마을의 전통놀이이다.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나와서 함께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 먹으면서 술과 음료수를 마시고 노래 및 춤을 추면서 하루를 논다. 이렇게 호미씻이를 하면서 노는 것은 여름 내내 땡벌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노고를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이다.(제보자: 최현식(남, 67), 이정숙(여, 67), 장옥화(여, 78) 냇강마을, 2014.9.14.)

이 제보에 의하면 냇강의 천렵은 복날 호미씻이를 겸해서 물고기를 잡아 끓여 먹으면서 대동제의 개념으로 노는 놀이였다. 이것은 화전놀이를 할 때도 행했는데, 놀 때는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가 화전을 구워놓고 장구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하며 하루를 놀다가 오는 것이다.”라 했으며, “동이에 물 떠놓고 바가지 얹어 놓고 파리로 두드리면서 장단치며 그 저 뭐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부르면서 놀았지요 뭐.”라 하여 노는 방법을 이야기 했다.

이런 제보를 통해서 보면 냇강의 천렵 화전놀이는 대동제 개념으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고기 잡아 먹을 것을 만들고, 물박장단과 장구장단을 두드리고, 술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마을행사였다.

## ■ 무대

강마을의 천렵 및 화전놀이 장소, 냇가 자갈밭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50명

소 품: 고기잡이 도구, 술단지, 물박장단 및 장구 등 악기, 출연진 남녀노소 다양하게 등  
소리꾼: 민요를 잘 부르는 사람 몇 명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출연진 모두 〈인제 냇강 천렵 화전놀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소품을 들고 냇강가 천렵 장소로 입장한다.
- 입장 할 때는 특별한 격식을 갖추지 말고 뿔뿔이 들어오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서 입장을 한다.
- 입장을 하면 소품을 제자리에 놓고 천렵 화전놀이 준비를 한다.

둘째마당 ⇒ 물고기 잡이

- 각종 어구를 들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 모형 물고기를 마련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즐거움을 표현한다.
- 고기를 잡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술단지도 걸고, 두고 온 물건을 마을에 가서 들고 오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셋째마당 ⇒ 천렵 및 화전놀이 진행(먹고 마시기)



- 잡은 물고기를 술에 넣고 끓인다.(각종 양념도 넣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습도 연출한다.)
- 어죽탕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이때 어른들과 아이들이 각각 자리를 잡고 먹는데, 몇 번씩 더 가져다 먹기도 한다.)
- 음료수와 술 등을 따라주며 마신다.
- 최대한 풍성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넷째마당 ⇒ 천렵 및 화전놀이 진행(마시고 놀기)

- 이제 배도 부르고 술도 어느 정도 거나해지자, 노랫가락이 절로 나온다.
-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먹도 감고 신나게 뛰는다.
- 어른들은 노래를 권하면서 돌아가면서 신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
-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신난다.
- 강가에서 하는 전통적인 천렵의 취지를 살려 농악이나 상고 등은 돌리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 냇강마을에서 하던 대로 악기는 물박장단과 장고, 그리고 나무막대기나 손뼉 등으로만 한다.
- 노래는 장옥화(여, 78, 2014) 씨의 노래 가사를 활용하면 된다.

다섯째마당 ⇒ 퇴장

- 흥건히 취한 모습과 행복한 모습으로 퇴장한다.
- 퇴장할 때도 일정한 대열이나 격식을 갖추지 말고, 자유롭게 행한다.
- 삼삼오오 끼리끼리 서로 이야기를 한다.

## ■ 출연자 및 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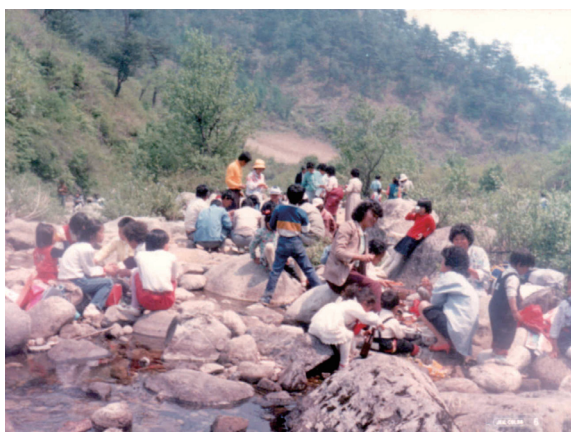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어구, 깃발, 술, 노래 등

## ■ 놀이의 연원 및 참고자료

〈냇강의 천렵, 화전놀이, 호미씻이, 복놀이〉

냇강은 말거리 앞을 흐르는 서화천의 일부를 일컫는 이름이다. 내와 강의 합성어이다.





넛강마을 사람들의 화전놀이와 천렵 장면

넷강은 말거리사람들의 생활터이면서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관광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넷강마을을 운영하면서 강바닥을 정비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놓았다.

말거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연중 몇 번에 걸쳐 천렵(川獵)을 하였다. 천렵은 또래끼리 하는 경우도 있으나 호미씻이를 할 때는 마을 단위로 진행하였다.

또래끼리 하는 천렵에는 개천렵과 물고기천렵이 있다. 개천렵은 또래끼리 추렴을 해서 개를 사서 이곳에서 잡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노는 것이다. 물고기천렵은 물고기를 잡아서 어죽을 끓이거나 매운탕을 끓여서 먹고 미리 준비한 술을 마시면서 하루 종일 노는 것이다. 또래끼리 하는 천렵은 일 년에 보통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진행하였다.

마을단위 천렵은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경우이다. 일종의 대동제 같은 개념으로 진행되었다. 보통 말복을 기해서 호미씻이라는 세시풍속을 진행하면서 하는 마을의 전통놀이이다.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나와서 함께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 먹으면서 술과 음료를 마시고 노래 및 춤을 추면서 하루를 논다. 이렇게 호미씻이를 하면서 노는 것은 여름 내내 땀벌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노고를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이다. 김매기가 세 벌까지 끝나고 나서 힘든 농사일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는 머슴들을 먹이고 위로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나 말거리는 6.25한국전쟁 이후 수복이 되면서 새로 형성된 마을의 특성으로 옛날의 마을 전통이 거의 사라져 머슴놀이를 잊지는 않고 있다. 보통 이월 초하루와 호미씻이를 할 때 머슴을 위로하였다.



넷강에서의 낚시

### 〈민요〉

※ 이 소리자료는 말거리 장옥화(여, 78)의 창을 옆집에 살고 있는 이정숙(여, 64)이 노트에 베껴 쓴 자료이다. 소리는 정선아라리, 어랑타령, 뱃노래 등이 섞여 있다.



2014년 9월 14일 말거리 최현식(남, 67), 이정숙(여, 67) 씨택에 들렀다. 이정숙 씨는 말거리의 반장을 맡고 있어서 이 동네의 인적자료를 잘 알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집을 들어서기 전에 먼저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온갖 들꽃과 나무들이 아담한 정원에 가득했다. 정원을 들어서니 깨끗하게 가꾸놓은 기와집이 눈에 선뜻 들어왔다. 집으로 들어서자 이정숙 씨가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일행이라야 백창현 문화원 사무국장과 필자인 이학주가 전부였다. 워낙 사무국장이 잘 알고 있는 동네인지라, 마치 이웃에 놀러 온 분위기였다.

동네의 지명이며 풍속 등을 물어보다가 화전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월 초파일이면 진달래가 만발한 뒷동산에 올라가서 여인들이 화전놀이를 한다는 것이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가 화전을 구워놓고 장구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하며 하루를 놀다가 오는 것이다. 그때 그런 놀이 장소만 있으면 불려가는 동네의 소리가 수가 있다고 하였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장옥화 할머니였다. 또 한 분의 할머니가 있었으니 얼마 전 타계하셨다고 했다. 그렇게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정숙 반장이 전화를 걸어 장옥화 할머니를 불렀다.

장옥화 할머니의 소리가락은 아주 좋았다. 신청을 하자 바로 소리가 나왔다. 장옥화 할머니는 인제군 신남에서 정자리 가는 길목에 살다가 냇강으로 시집을 왔다.

못하는 소리를 하라구나 하니  
주눅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네

긴치마를 똑잘라서  
도랑에 치마를 해입고  
원산 기차를 불러 타고  
비행기 공장을 가잔다

석쇠 및 도랑치마를  
입었을 망정  
너 같은 하이칼라  
내 눈 알로 본다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어  
이산 저산 도라지 꽃에  
남물이 들었네

일본에 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 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 타더냐

신고산이 우르릉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 애기  
담보짐만 싸는구나

콩나물은 길러서  
뽕아나 먹자고 길렀지  
우리 부모 날 길러  
남이나 주자고 길렀나

담배나 담배 할적에  
홍이나 한 갑 사줄 걸  
그리하여 죽었는지  
꿈에 봐도 담배담배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구요  
귀뚜라미 슬피우니  
남은 간장을 닥 썬이네

오동나무나 세면통  
방안을 들었다 놓고요  
후원 별장 큰 애기  
와자시 들었다 놓는구나

시들새들에 봄배추는  
참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리네

노랑저고리 분홍치마  
입고나 싶어서 입었나  
우리 부모 형제 떨어질 때  
울며불며 입었지

저산에 칙닝쿨은  
얼그러 설그러 졌는데  
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그러 설그러 질까나

남대문 기차야  
고리 말구 가거라  
살란한 이내마음  
더 살란 해진다

어스름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간 저처녀가  
안달이 나는 구나

올타리를야 뚝뚝 꺾으면  
나오신다더니  
행랑채를 둘러 지어도  
왜 아니 나오시나

개구장 나물을 갈까요  
산지랑 나물을 갈까요  
총각낭군 데리고  
덩굴 놀이나 가잔다

산이야 높아야  
끝이나 깊지  
조그만 여자 속이야  
속 깊을 소냐  
울통에 불통에  
저 남산을 보아라  
우리도 죽으면 저 모양 저 끝이 된단다

가랑잎이야 떨어지면은  
구렁구렁 모이지만  
동기간 떨어진 것은  
어디나 구렁에 모이나

청치마 꼬리다  
소주나 병을 달구요  
뒷동산 꽃밭으로  
잠자리 간다

놀다가 죽어도  
원통타고 하는데



우리네 인생은  
일만 하다 죽어야 하나  
달롱 아제 조카  
물고지 동세에  
꼬들배기 깨가지고  
막걸리 타려올 가잔다  
수천장 세모진 나무에  
높다랗게 그네를 매고  
님이 뛰면 내가 밀고  
내가 뛰면 님이 밀고  
임아임아 줄잡지 말아  
줄 끊어지면 정떨어진다

명사십리가 아니라면  
해당화는 왜 폼나  
춘삼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울어

간다더니 왜 또 왔소  
간다더니 왜 또 왔소  
이왕지사 왔거들랑  
발치잠이나 자고 가오  
품에 잠도 설다는데  
발치잠이 웬말이오

백설같은 흰나비아  
부모님 몽상을 입었는지  
소복단장 곱게 하고  
장다리 발을 넘나든다

물 찬 제비야 꽃 본 나비아  
다나 봉절이 건만  
나비가 꽃을 보고  
그냥 갈소나  
알록달록에 두둥베개  
밤마다 보건만  
하이칼라 긴긴 팔은  
언제나 베나

뒷동산 홍도복숭아  
울긋불긋 한테  
정드신님에 얼굴이  
비슷도 하네

봄철인지야 가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 행와 충절이  
나를 알려 준다

허랑타령에 본고향  
경상도가 김아치  
와다구시나 본고향  
어머님 땃속이구나

노랑주 대구리  
뒤범벅 상투  
언제나 길러서  
내낭군 삼으리  
그것은 그것은  
길러서 낭군을 삼으니

술씨를 뿌려서  
정자를 짓지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 건너주오  
아우라지 오도(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오늘가실지 내일가실지  
사사 망정인데  
맨드라미 봉숭아는  
왜 심어 났어

천하에 못할 장사는  
막걸리 장사  
누어달래 들어달래  
먹여까지 달라네

일본동경 갈마음은  
연락선으로 하나고  
살림살이 할마음은  
쿨밤에 딱지나 반딱지

바람이 쓰러진 나무  
눈비 오신다고 일어서나  
정주같이 굳은 절개  
매 맞는다고 (꺾이나)  
몸은 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 소냐

### 〈넣강의 민요 가수 장옥화의 노래 이야기〉

제보자: 장옥화(여, 78세) 월학리 5반 말거리(넣강마을)

질문: 이학주 · 백창현

장소: 최현식(남, 67), 이정숙(여, 64)의 집 안방

날짜: 2014년 9월 14일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아주 잘한다면서요?”

“아이고 아니에요.”

“옛날엔 아주 날렸어!”(이정숙)

“화전놀이 가서 그렇게 노래를 잘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못해요. 이젠. 다 잊어 먹었어.”

“노래는 언제 배웠어요?”

“옛날에 클 때 아이들 하고 놀면서 배웠어요. 동이에 물 떠놓고 바가지 얹어 놓고  
파리로 두드리면서 장단치며 그 저 뭐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부르면서 놀았지요 뭐.  
지금 같으면 배웠지. 그런데, 옛날엔 그게 없었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서 그랬지. 그때 같으면 뭐 다 머리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외울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사내용에 살면서 한 같은 것 담아서 풀었나요?”

“하하하. 그랬지요 뭐.”



채록장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잊어먹었어요. 더군다나 저 영감 병 난 것 공경하고 들어앉아 있느라고 다 잊어 먹었어요.”

“그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기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저 신남 농엄동이라는데, 늪바우. 정자리 가는데 밑에. 그리로 해서 올라가면 정자리거든. 거기서 아주 산골서 태어났지요 뭐. 그래 내가 여 시집와서 놀림을 다 받았어요. 그 산골에서 어떻게 저런 아줌마가 태어났나고. 젊어서는 조금 밍지는 않았어. 그런데 늙으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지. 그러니 아무 노래고 되는 대로 장단을 치고 춤을 추면서 부르는 거지.”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학교는 못 댕겼지요 뭐. 학교는 우리 친정 할머니가 아이고 옛날 할머니라서. 학교를 2학년을 다녔는데. 지지배를 글을 가르쳐 놓으면 시집가서 그 서러우면 편지질만 한다고 못 가르치게 했어요. 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니 그만. 여기 아주머니도 있지만 친정 할머니는 산에 호랑이만 무서운 게 있지 다른 무서운 게 없대요. 아주머니도 잘못하면 고무래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꿈적도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혼자 되셨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가지고. 그러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그만 나를 학교를 못 다니게 떼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떼고는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야학을 배웠어요. 저녁마다 가서 칠판에 써놓고 배워가지고 국문은 조금 알지요. 아주 높은 글씨는 몰라도 조금은 알지요.”

“그럼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예, 우리 할아버지가 청춘에 돌아가셨대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두 형제를 혼자 사시면서 키우는데, 아주 호랑이나 마나 그랬지요.”

“그리 할머니가 혼자 되셨네요?”

“예, 우리 친정할머니가, 호랑이 같아서 우린 맘대로 어디로 놀러 나가지도 못했어요. 가라 하면 가고, 몇 시까지 와라 하면 그 시간까지 와야 하고, 못 나단다고 하면 못 나가고, 아주 그랬지요.”

“그럼 남매는 많나요?”

“3남매인데 이제 하나 죽고 하나 남았으니 둘이래요. 막내 동생 살고 내가 살고.”

“시집은 언제 오셨어요?”

“시집은 19살에 왔는데.”

“그럼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아니, 신남으로. 신남으로 와 가지고, 그 전에 여기가 우리 영감님 고향이야. 이 북에서 왔으니까 월남해 나가서 신남에서 산거지. 그러다가 여기 수복되고 복구한다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우리가 다 복구했잖아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아들 벌 어 놓은 돈 다 까먹고 빚을 지고 돌아가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주 억지로 살아요.”

“그래도 저기 큰 집에서 사시잖아. 하하.”(이정숙)

“늙은이가 아주 힘들어.”

“그럼 수복하고 여기 바로 들어오셨네요?”

“그래, 난리 끝나고 이내 들어와서 여기 오니까 아무 것도 없고 그저 축대만 꼭 찼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시아버지가 도저로 밀어가지고 다 논 뜨고 그러느라고 돈을 싹 없앴어요. 그러다가 그만 빚을 지니까는 논 뜯 것 다 팔고. 아주 할아버지가 난봉꾼이래 가지고, 집안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 빚을 저 가지고 내가 72까지 빚을 갚았어요. 그래 이제 조금 살만하니 영감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래 살지요.”

“자식들은 많아요?”

“4남내지. 아이고 옛날 같으면 내가 안 살았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원체 무서워 가지고 내가 못가고 이렇게 살았지.”

“이제는 갈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이제는 갈 수도 없고 어디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지 뭐. 하하. 다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뺨고 앉는데 그래가지고 어딜 가겠소. 허허.”

“그럼 어렸을 때 노래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그냥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하는 소리 듣고 익혔지.”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 그랬어요?”

“그냥 제목도 없이 막 하는 거지.”

“그럼 노래하라 그래요, 소리 하라 그래요?”

“소리라 했지. 옛날에는. 지금은 그 말 다 내버리고 노래라 하지. 옛날엔 소리지 뭐. 소리라 해야 신세타령이야. 지금은 배우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랬어요.”

“지어가주고 했잖아.”(이정숙)

“그럼 논두렁 밭두렁 그런 것도 지어가지고 했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리하고 장단을 치고 춤을 추고 아주 신이 나서 놀았지. 젊었으니까.”

“그때 그 소리만 하셨어요?”

“그래 처음에는 소리만 하다가 노래를 배워가지고 유행가만 하다보니까 그만 그 소리를 잊어먹더라고.”

“여기 보니 ‘못하는 소리를 하라니까’ 하면서 하네요.”

“그때 원 씨 아주머니랑 둘이 주거나 받거나 잘 했지.”

“둘이 보기만 하면 ‘야, 소리하자’ 그러면 하고 그랬지.”

소리를 하기 시작.

“못하는 소리를 하라고나 하나~ 주눅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네~.”

“하하하”(일동 다 웃음)

“진 초마를 똑 잘라 도랑에 초마를 해입고~ 원산 뱃사공을 불러라 비행기 공장을 가잖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여디야 사랑가로만 돌려라~/ 오동~ 나무나 세면 등 방 안을 들었다 놓고요~ 후원 별당에 큰 아기. 아이야 잊어먹었다야. 하하.”

이어서 부름.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꽃에 남물이 들었네~. 헤야노야노야 ~ 헤야노야노~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잖다~”

“이건 뱃노래네요. 어랑타령, 뱃노래,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었어요?”

“삼흔칠백에~ 끼친 정기를~ 어떤 정칠 놈한테 뺏겨가지고 ~ 걸음을 걸어도 등신에나 걸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나 주소~.”

“아이고 다 하시네요. 아리랑, 어랑타령, 뱃노래. 다 하시네요? 그럼 아라리도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따라 부른 것이예요?”

“그래, 옛날에는 다 따라 불렀어요. 뒷동산 ~ 홍복상은 울긋에나 불긋~ 정드신 님의 얼굴이에야 비교 또나 하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나 주소~.”

“지금은 숨이 차서 그렇지 옛날에는 동네에서 뽕혀 다녔다니까요.”(이정숙)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그게 있기는 한데 다 잊어 먹었어요. 앞 낭산 칩덩굴은야 얼그러 설그러 졌는데 나는 야 언제 님을 만나 얼그러 설그러 지나~.”

“원 씨 아주머니가 있었으면 둘이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이정숙)

“청춘에 꼴이랑 소주병을 달고 오동나무 그늘 밑으로 님 찾아 갑시다~. 옛날에는 무슨 날만 되고 하면 나가서 놀고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가 놀지 않고 집 안에 일이 뭐 옛날 보다 그냥 시간이 없어 못하잖아.”

“옛날 형님이 불러준 거. 이거 그래도 적어놓은 것 안 버리고 있었어.”(이정숙)



“그럼 옛날에 농사는 많이 지었어요?”

“농사는 많이 지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병들어 많이 못 지어요.”

“어떤 농사를 지으셨어요?”

“하이고 우리 별거 다 했어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지었어요. 뭐 무, 배추, 고추 해가지고 안 해 본 게 없어요. 그러다가 영감이 집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 몇 년 하고 나니 살기에 괜찮았는데, 풍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못 나갔지요. 그래 못 나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집지어 달라고 전화가 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안 와요. 그러고는 이제 심장이 아파 수술을 했는데 그게 더 아파요.”

“대목이었어요?”

“아니, 십장.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래 집에 들어앉았어요. 내일도 춘천병원에 떠 가야돼요.”

“사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이 언제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시집와가지고 11식군데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건답이어서 매일 굶었어요. 내가 진짜 명 췌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밥을 해서 11식구를 밥을 퍼주면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부뚜막에 앉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암만 밥을 많이 해도 11그릇을 푸고 나면 없어. 그래 부뚜막에 요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일꾼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방 씨라고 그이가 밥 먹다가 날 보려고 우정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와서 부엌을 찢끔 데려다 보고는 들어가. 들어가서는 밥을 이렇게 내 보내. 꼭 요만큼 씩 그거 하루 두어 번 얻어먹고는. 그렇잖으면 배가 고프면 바가지에다 물을 떠 가지고 장독에 가 가지고 장을 퍼서 물에 타서 마시지요. 그렇게 하면 그 장물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머슴이 식구보가 낫네.”(이정숙)

“그래 우리 식구들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몰라. 그런데 그이가 나이가 좀 있었어. 그러면서 나보고 가라고 했는데 뭐. 군인가족이 가라고 했어요. 군인가족이 서울에 일하는데 다 알려주고 차비까지 다 대주고 안 받을 테니까 가라고 했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군인가족이 우리 집 사랑방에 있었는데. 그런데 가라고 했는데도 못 가고 살았어요. 그래 가라고 할 적에는 나이가 한 스무 살 됐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우리 영감이 팔방미인이야. 그래 돌아다니느라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21살 먹어서 어떻게 애가 들어섰어. 그렇게 애를 낳다가 4남매를 낳았는데 낳아 가지고, 그걸 기르면서 살다가 여태까지 사는데. 그래 나는 영감이 나를 고생을 시켰어도. 나는 성질이 그냥. 누구랑 싸워도 거기

서 끝나지 뒷말은 하기 싫어요. 아예 안 해요. 속이 덜 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 속상할 때는 집 앞에 나가서 혼자 울고 그러지요. 이 사람(이정숙)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지.”

“나도 가라고 그랬어요. 형님 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이정숙)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막 속상해 하다가도 이 사람이 달래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신세를 많이 졌어요. 옆집이라도 여느 사람 같지 않고 날 잘 달래줬어요. 그러니 여지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이가 80이 돼가고. 며느리 얻고 손주들도 군인 갔다 와가지고 직장을 잡고 하나는 대학 가고 뭐. 만사가 그러는데. 한 가지 며느리에게 미안한 게. 못 살아서. 며느리 보기 미안하고 그런 게 그렇지 여느 거는 뭐 다 좋지 뭐.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내가 살아온 걸 쓰려면 말도 못하게 많아. 그래도 난 내가 살아 온 걸 얘기하면 내가 눈에서 눈물부터 나와. 누구에게 내 얘기를 해 줄래도 이게 마음이 너무 뭐 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마음이 울컥해서요?”

“예, 그래 전에 그 양반도 얘기를 더 해주면 좋은데 얘기를 못해요. 눈물이 나와서 못해. 아주 너무 슬피 살아서. 텔레비에서 나와 뭐 고생 하고 어찌는데 그게 뭐 고생이예요. 지금은 그래 고생을 해도 밥 먹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입으면서 고생을 하잖아. 그게 무슨 고생이예요. 아무리 고생했다고 해도 다 들어봐도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어요. 난 막말로다가 지랄병 하나 안 했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안 해 본 게. 여지까지 살면서 안 해 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병이 나서 수술을 양쪽을 다 했더니 어디 가서 앓는 것도 잘 못해. 그래 오늘도 앓았다가 벌떡 일어나려니 못 일어나겠어. 그래 내가 진짜 끝끝내 이렇게 사는 구나하면서 이리 왔어요.”

“그렇게 슬플 때마다 노래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텔레비에서 노래자랑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같이 따라 하고,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 나와서 노래하면 서러워요. 왜 서러우냐면, 우리 친정어머니도 내가 따듯이 한 번 모셔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해서 그 눈물이 나오고 항상 그러지요. 그렇게만 하지 속에 든 것은 없어요. 내가 속에 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럼 그걸 노래로 다 풀어버려요?”

“예, 섭섭하면 그저 노래하고. 그리고 나가 놀고. 내가 또 고스톱을 좋아해요. 고스톱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그러지요.

그냥 그렇게 풀고 살지요 뭐.”

“노래가사도 그때 그 자기 감정을 담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감정 그런 거요?”

“그래 그런 게 많지요. 많다고요.”

“그럼 지금 감정을 담아 부르면 어떻게 지어낼 까요?”

“그래 지금은 생각이 잘 안나요. 그 옛날에는 막 나왔는데. 바로바로 나왔는데. 지금은 깜박깜박하는 게 생각이 안 나.”

“노래와 관련한 일화, 그러니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러니 노래를 부를 때 특별한 일 같은 거 없나요? 뭐 재미 있었던 일?”

“노래 부를 때 재미있었던 거는 많지요.”

“어떤 경우요? 어디 가서 부를 때 제일 재미있었어요?”

“나는 저 그거. 저 전라도 여행을 가서. 내가 차로다가 가 가지고 그 저 나이트클럽에 나이트클럽에서 놀 때 제일 재미있었어요. 노래는 안 불러도 제일 재미있었어요. 춤을 막 추면서 거기서 하는 노래 따라 하면서 놀 때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 이창락이라고 그 할 적에 돈을 보냈잖아요. 그때 저 골 안에 꽃밭 적에 바위 등에 꽃이 이렇게 아주 만발했어요. 지금은 다 파가고 하나도 없지요. 철쭉 그제 피어서, 거기 가서 진종일 놀다가 사진 찍고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 사진 좀 보여 주세요? 그 골 안이 어디예요.”

“저 소재골. 그 전에 거기 가서 많이 놀았어.”

“그 소재골이 화전놀이 하던 장소군요?”

“예, 거기 가서 놀고. 또 어디 가서 놀고 하던 사진이 있을 거예요.”

사진첩을 집에 가서 가지고 와서 함께 보며 이야기 함.

“군에 위문공연도 갔네요?”

“이 아주머니가 여기. 내가 여기. 그때는 날씬 했는데, 지금은 이래.”

“여기 꽃놀이 갔을 때야. 여기 관광 갈 때 치마 입고 갔잖아. 그때 뭐 있었어.”

〈끝〉

## 5 방태산 개인약수치성놀이

### ■ 놀이의 원형

방태산 개인약수치성놀이는 개인약수(開仁藥水)에 얽힌 전설과 약수의 발견과 치성행위 및 효험에 기원을 둔다. 이 약수는 2011년 1월 13일 주변 면적 400㎡에 대해 천연기념물 제531호로 지정하였다.

개인약수 옆에는 보명사라는 절이 있었고, 산신과 성황을 모시는 지당이 있었다. 물론 약수이기 때문에 용왕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1891년 함경북도 사람 지덕삼(池德參)이 수렵생활을 하다가 발견하였다. 그 시초는 알 수 없으나 『인제군사』(1996)에 전하고 있다. 『인제군지』(1968)에 보면 산신당에는 “1925년 경기도 개성인 김영식과 1956년 원주인 이재희가 약수로 위장병을 치유하고서 써놓은 현판이 걸려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고 했는데, 김영식(金英植)이 쓴 <개인산수찬(開仁山水讚)>이라는 글이 다음과 같이 『기린향토지』에 전한다.

今日吉辰 消災療病 오늘 길일을 택해 재앙을 없애고 병을 고치고자  
敢將菲儀 護禱于神 감히 작은 정성으로나마 신령님께 가호를 빕니다.  
添壽幸福 表其誠意 목숨을 더해 행복하고자 성의를 표하옵나니  
惟靈其神 幸須感佑 신령님이시여! 부디 감응하여 도와주소서(『인제군사』재인용)

전설에 따르면, 원래 현재 있는 약수터 위에 ‘장군약수’라는 약수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약수는 양쪽 거드랑이 밑에 용 비늘이 세 개씩 붙어있는 아기장수가 혼자 마시고는 아무도 찾지 못하게 큰 바위로 덮어 버렸으며, 이 아기장수는 역적이 되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부모의 손에 살해당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약수터는 원래 여성의 음부와 흡사한 형태였는데 어느 전설에 의하면 심술궂은 한 과부가 어느 날 공연히 음핵에 해당하는 뽕죽한 부분을 파괴해 버렸다가 감기 지기를 모독한 탓인 듯 과부는 며칠 후 피를 토하고 죽어 버렸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그 후부터는 이 약수에 부정 탄 사람이 오면 물이 흐려지고 때로는 구렁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약수를 찾기 전의 금기사항으로는 3일전까지 육류나 기타 부정한 보신탄류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인즉 야생동물의 해를 입거나 약수가 흐려져 마실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도 전해진다.

안연태(남, 66, 미산1리 3반, 2013.8.5.) 제보자에 의하면, 이곳에 보명사라는 절이

있었고, 절은 너와로 있었는데 상등신이라고 하는 3칸 방과 하등신이라고 하는 6칸 방이 있었다. 하등신은 불공을 드리거나 병을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항상 붐볐다고 한다. 환자들은 절에서 7일 또는 15일간 머물면서 병을 치료하였다. 또 절 앞 약수 쪽에는 지당이 있어서 산신과 성황신을 모셨다. 그런데 이 절과 지당은 1968년 울진삼척 공비침투 때 이승복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강제로 헐렸다고 한다.

## ■ 마을 소개

개인약수가 있는 마을은 미산리 산 1번지에 해당한다. 약수는 해발 1,0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약수이다. 아래 주차장에서 1,880m거리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약수 주변에는 300년 이상 된 가문비나무, 전나무, 피나무, 주목 등이 우거져 있다. 고목 사이로 돌로 된 제단을 비롯해서 약수 주변도 돌로 치장을 해 놓았다. 약수 아래로 흐르는 계곡물에는 천연기념물 열목어가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다. 약수는 상탕과 하탕이 있는데 상탕은 암탕이고 하탕은 수탕이라 한다.

약수 옆에는 보명사라는 절에 간성택일(看星擇日)을 잘하는 유성민이라는 스님이 기거하였다. 스님은 마을 아이들이 올라가면 밥을 주는 등 상당히 인자하였다.

대개인동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7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곳에도 지당이 있어서 산신과 성황신을 모셨다. 매년 1월과 7월 첫 정일(丁日)에 제사를 올렸다. 마을에는 위낙 산짐승이 많아서 문설주에 흠을 파서 밤이면 나무판자를 끼워 넣어 짐승을 막았다. 세시풍속은 많이 행해지지는 않았으나 단오가 되면 취떡을 하고 다른 음식을 해서 나눠 먹었다. 소나무 가지에 그네를 매서 타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개인동과 개인약수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개인약수를 중심으로 보명사와 지당도 설치되어 있었고, 병을 고치기 위한 치성제의가 연일 행해졌다.

## ■ 놀이의 유래

약이 흔하지 않던 옛날에는 약수에 대해 사람들은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초정약수의 경우는 세종대왕이 치료 차 들렸다고 전해진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세종 26년(1444) 2차에 걸쳐 117일간 머물며 눈병을 고쳤고, 세조 임금 역시 이곳 약수

로 피부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약수이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청주시에서는 매년 5월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열고 있다.

또 정선의 화암면에서는 매년 〈화암약수제〉를 열어 지역을 알리고 있으며, 화암약수 주변을 공원으로 꾸며서 각종 편익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약수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치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개인약수의 경우도 보명사 절과 지당을 중심으로 치성제외가 연일 행해졌으며, 금기와 신앙이 결부되어 아주 오래 전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약수를 발견한 사람이 이 약수를 떠서 고종황제께 진상을 하여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 ■ 놀이의 특색

〈방태산 개인약수치성놀이〉는 약수와 그에 얽힌 각종 이야기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약수라는 독특한 대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각종 사건이 놀이의 핵심이다. 약수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치병의 중심에 있었다. 전국의 약수가 임금님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특정 다수를 막론하고 최고의 명약으로 믿게 된 것은 그만큼 효험이 크기 때문이었다. 효험이 큰 만큼 그에 대한 믿음도 컸으며, 얽힌 이야기도 많다. 그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약수를 찾아 모여들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약수 주변에는 산장과 여인숙과 민박 등이 즐비했고, 약수로 만든 음식점도 많았다. 그 만큼 약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이다. 약수가 있는 곳마다 그야말로 장사진을 쳤다. 약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계를 가름하는 원천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약수는 민속종합을 이루었다. 민간요법과 민속신앙이 주를 이루면서 관련 설화와 약수관광 및 약수축제라는 민속축제까지 만들어 냈다. 초정약수축제, 화암약수제, 추곡약수제 등은 아주 대표적인 예이다. 홍천 내면의 권대감 설화와 신앙의 중심에 삼봉약수가 자리한 것은 약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화이다.

이 때문에 약수가 바탕이 된 민속놀이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존속될 수 있다. 특히, 개인약수의 경우 개인약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곧, 약수를 발견하여 임금님께 진상을 하는 장면, 병이 있는 사람들이 보명사 절과 지당에서 치성을 올리면서 치유를 하는 일, 금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먼 등이 놀이에 담겼다. 이는 연출을 어떻게 전통성을 살려 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놀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

※ 놀이를 연출하는 사람과 연희자는 반드시 개인약수에 갔다 올 것. 심사자는 개인약수에 갔다 오지는 못해도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심사할 것.

## ■ 무대

개인약수와 주변의 상황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30명

소 품: 새옹메, 약수그릇, 개인약수 모형, 보명사, 지당, 김영식의 글을 쓴 깃발, 개인약수 놀이 깃발, 환자노릇, 쌀과 제물을 등에 지고 제당으로 오르는 환자, 스님, 밥 얻어 먹으로 오는 아이들, 임금님께 진상하고 상을 받는 모습, 아기장수의 출현 등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참가자들은 〈방태산 개인약수놀이〉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한다.
- 출연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소품을 들고 입장을 한다.
- 환자 모습을 하고 같이 입장을 한다.
- 특별한 질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마당 ⇒ 봇짐을 지고 약수를 오르는 사람들

- 개인약수까지 각자 쌀과 초와 실과 한지와 북어 등을 지고 산으로 오른다.
- 오르는 과정에 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한다. 하나는 무사히 약수까지 오르는 사람, 둘은 약수로 오르는 과정에 뱀과 같은 금기사항이 앞을 가로질러 돌아가는 장면 내지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 무사히 오르는 사람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약수를 대하고, 스님을 맞이한다.
- 금기를 당한 사람은 땅을 치면서 억울해 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연출한다.



셋째마당 ⇒ 보명사와 지당에 모여 약수제를 지내고 치료하는 사람들

- 보명사에서 함께 치유 불공을 올리고, 지당에서 산신과 성황신께 각자 제를 올린다.
- 상당과 하당에 모여 약수로 메를 지어 약수제를 올린다.
- 기원을 하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축원한다.
- 약수를 마시고 목욕을 하면서 치유를 기원한다.
-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약수로 치유를 기원하고 옆 계곡물에 가서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한다.

넷째마당 ⇒ 밥 얻어먹으러 오는 아이들과 스님

- 대개인동에 사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 계곡물을 마시면서 약수로 오른다.
- 약수에 오른 아이들은 보명사 앞으로 간다.
- 스님은 아이들이 온 원인을 알고 약수제를 지낸 메를 내어 아이들에게 준다.
- 아이들은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 기뻐한다.
-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스님도 칭송하고 좋아한다.
- 다 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다.

다섯째마당 ⇒ 임금님께 진상하고 상을 받는 장면

- 마을사람이 약수를 통에 담아 서울로 간다.
- 서울로 간 사람은 약수통을 들고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찾는다.
- 우여곡절 끝에 임금님을 찾아 약수를 드리고 상을 받는다.
- 상을 받은 사람은 신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여섯째마당 ⇒ 아기장수가 약수를 먹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장면

- 세상은 혼탁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 그때 약수를 발견한 사람 아이가 태어난다.
-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무 꼭대기를 오르고, 큰 돌맹이를 드는 등 비범함을 보인다.
- 그러면서 세상의 비리와 불합리를 이야기 한다.
- 세상이 바뀌어서 이상향이 되기를 기원한다.
- 아기장수는 나라의 압력 때문에 결국 부모의 손에 죽는다.

### 일곱째마당 ⇒ 퇴장

- 아기장수의 꿈이 이뤄져서 마을은 이상향이 되어 함께 즐거워한다.
- 이상향의 참의미는 가족과 함께 단란히 지내는 것이었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아기장수1인, 스님 1인, 마을 사람들, 아이들, 치성자들, 고기잡이 등

### ■ 놀이의 연원 및 참고자료

#### 〈開仁山水讚(개인산수찬)〉

金英植(김영식)

今日吉辰 消災療病(금일길신 소재료병)  
敢將菲儀 護禱于神(감장비의 호도우신)  
添壽幸福 表其誠意(첨수행복 표기성의)  
惟靈其神 幸須感佑(유령기신 행수감우)

개인산 약수를 예찬함

오늘 길일을 택해 재앙을 없애고 병을 고치고자  
감히 작은 정성으로나마 신령님께 가호를 빕니다.  
목숨을 더해 행복하고자 성의를 표하옵나니  
신령님이시여! 부디 감응하여 도와주소서  
(『기린향토지』)

### 〈개인약수 답사 자료〉

2013.8.5. 안연태(남, 66) 미산1리 3반. 개인약수 바로 아래 대개인동에서 나고 자라 결혼하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살던 사람임. 현재는 개인약수로 올라가는 다리 건너편 미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 보명사

개인약수 도랑 건너편에 있던 사찰이다. 유성민이라는 주지가 절을 짓고 살았다. 유성민 이후 3번 절의 주지가 바뀌었다. 보명사는 두 개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상등신과 하등신으로 나누었다. 상등신은 3칸짜리 절로 스님이 기거하는 곳이고 달리 일등신이라고도 하였다. 하등신보다 시설 등이 좋아서 상등신으로 불렸다. 하등신은 6칸짜리 집으로 불공을 드리러 오는 불자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절은 너와지붕을 이어서 만든 것이며, 기둥은 산에 있는 커다란 통나무를 베어서 세웠다.

이곳에 와서 불공을 드리면서 약수로 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보통 7일 15일 정도 머물다가 갔다. 사람이 아주 많이 왔는데, 그 당시의 길이 험해서 미산리에서부터 걸어왔다. 개인약수에서 현재 상남면소재지까지 왔다가 가는 데는 꼬박 하루가 걸렸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오던 환자는 위장병 환자였다.

불공을 드리면서 치유하는 사람들은 메를 지을 때 냄비 2개를 지었다. 하나는 주지스님께 드리고 하나는 불공드리는 사람이 먹었다. 당시 먹을 것이 귀할 때고 특히 이밥은 산에서 먹기가 어려웠다. 그 때문에 마을의 아이들은 주지스님이 주는 밥을 얻어먹으러 개인약수까지 걸어올라 가서 밥을 얻어먹고 내려오곤 하였다. 아이들이 올라가면 주지스님은 알아서 밥을 아이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때 먹던 이밥은 정말 꿀맛이었다. 그래도 밥이 남으면 주지스님은 밥을 말려 두었다가 죽을 썰어서 먹기도 하였다.

절을 허문 것은 간첩들이 은신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철거했다. 그 당시가 울진삼척 공비침투 때 이승복사건(1968.12.9)이 있고 나서 얼마 후이다.

절을 철거하던 당시 개인약수 뒤편에 있던 지당도 함께 철거했다. 지당에는 산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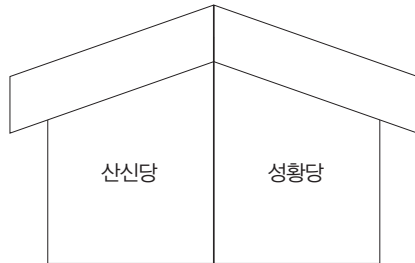
당과 성황당이 같이 있었다. 지당에는 지당을 지은 사람의 명단 등이 걸려있었다. 정부에서 절과 지당을 철거하라고 해서 인부들이 그곳에서 철거를 하면서 혹시나 동티가 날까봐 엄청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라에서 철거하라고 한다면서 헐었는데, 다행히 아무 탈이 없었다.

유성민 주지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간성택일(看星擇日)을 잘 했다. 간성택일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날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병이 나고 하면 염불을 하면서 퇴송(退送)도 해 주었다.

#### 대개인동 마을 관련 이야기

〈마을크기〉 미산리에는 6.25한국전쟁 당시 200가구 정도 살았다. 대개인동에는 안연태 제보자가 살 당시는 7가구가 살았다.

〈동제〉 이 마을에는 지당이 있어서 1년에 두 번 마을제사를 올렸다. 지당은 당집은 하나인데 양쪽으로 나뉘서 산신당과 성황당의 위패를 모셨다. 제당의 위치는 현재 미산너와집이 있는 바로 앞에 있었다. 제사를 지내는 날짜는 정월 첫 정일(丁日)과 칠월의 첫 정일이었다.



아침에 날 새기 전 어두컴컴할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도가는 생기복덕을 봐서 적임자를 뽑았다. 제수는 집집이 옥수수과 콩 등을 한 되씩 거두어서 마련했다. 콩은 거둬서 두부를 해 먹었다. 제물로는 돼지를 잡을 때도 있고, 그냥 돼지머리를 사서 쓰기도 하였다. 또 돼지가 없을 때는 닭을 잡아서 썼다. 산신당과 성황당을 따로 모시기 때문에 제물은 모두 2개씩 따로 마련했다. 축원도 하고 소지도 올리면서 제사를 지냈다.

〈단오〉 대개인동은 가구 수가 적어서 세시풍속에 대한 특별한 행사가 많지 않았다. 그래도 단오가 되면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먹으며 놀았다. 이날은 막걸리를 해서 나눠먹고, 취떡을 해서 먹었다. 그리고 큰 소나무 가지에 그네를 매어서 타기도 하였다.

〈집〉 집은 대부분 너와를 지붕으로 하였으며, 집집이 고콜이 있어서 벽에 작은 나

무 조각으로 불을 때서 난방과 조명으로 썼다. 그리고 산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쪽으로 홈을 파고 밤이면 나무판자를 끼워 넣었다가 낮이면 빼곤 하였다. 이것을 뭐라 하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독특한 방법이었다. 할아버지 말씀이 호랑이가 개를 물어간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했다.

|             |      |             |
|-------------|------|-------------|
| 문<br>설<br>주 | ↓↑   | 문<br>설<br>주 |
|             | 나무판자 |             |
|             | 나무판자 |             |
|             | 나무판자 |             |
| 문지방         |      |             |

《**먹을거리**》 감자, 옥수수를 주로 먹었고, 도토리도 가을이면 주워서 식량으로 썼다. 대여곡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빌려주는 곡식이었다. 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받았다. 가령 강냉이 한 말을 빌리면 가을에 1말 3되를 갚아야 했다. 다래와 머루도 많았다. 토끼와 멧돼지 사냥을 하기도 했다. 주로 올무를 놓아서 토끼를 잡아먹었다.

《**내린천의 뜻**》 내린천(內麟川)은 홍천군 내면의 ‘내(內)’자와 인제의 ‘린(麟)’자를 써서 부르는 이름이다. 곧, 내면에서 인제읍내까지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다. 내린천 200리란 말이 있다.

《**산삼금표**(山蔘禁標)》 개인동으로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에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산삼금표라는 것이다. 이 안내판은 미산리 주민들이 2008년 11월 20일에 세운 것이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다.



잣바위에 새겨진 금표 글씨



산삼금표 안내판

### 산삼금표(山蔘禁標)

이곳 잣바위 밑에는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라는 글씨로 횡서 2줄로 새겨져 있다.

이 뜻을 해석해 보면 “이 산의 고개부근에는 산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의 서쪽 경계표시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표석은 조선 초 부락민들이 국가에 공삼을 위한 채삼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타 부락민들이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세웠던 금표석(禁標石)으로 추정되며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인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크다.

2008. 11월 20일

참 살기좋은 마을(미산리)

이 안내판 옆으로 개울로 내려가는 길이 나 있다. 누군가 길을 잘 단장해 놓았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면 잣바위가 있고, 잣바위 왼쪽 바위 면에 이 글씨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바위 아래에는 벌통이 놓여있고, 벌통 옆에는 누군가 막걸리를 따라놓은 잔이 있었다.

〈**개인동의 일상**〉 마실간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다른 집으로 놀러 다녔다. 개인동까지 가끔 고등어를 파는 장사가 왔다가곤 하였다. 누구의 생일이 되면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었다.

〈**화투놀이**〉 민화투를 많이 쳤다. 화투를 치면서 내기를 했는데, 소주와 국수 내기를 많이 했다. 진 사람이 상납까지 가서 소주와 국수를 사다가 같이 나눠 먹었다.

〈**걸림**〉 미산에서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걸림을 했다.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 걸림을 해서 쌀 등을 모아 동네그릇을 샀다. 그 당시는 그릇이 귀해서 동네에서 잔치나 환갑을 할 때 그릇이 필요했다.

〈**안택고사**〉 개인동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안택고사를 집집이 지냈다. 그리고 새 집을 지었을 때나, 이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터주를 달래는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낼 때는 시루떡, 과일, 포, 술을 놓고 절을 하면서 손을 모아 잘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개인약수**〉 개인약수(開仁藥水)라고 명명한 것은 이 지역이 개인동(開仁洞)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위치는 방태산에 있지만 개인동과 가깝기 때문이다.

처음 약수는 5~60년대만 해도 위의 약수 한 곳만 나왔다. 아래에 약수가 솟은 것은 1980년대에 와서이다. 그 때문에 원래는 암수의 구별이 없었다.

개인약수를 발견한 사람은 포수 지덕삼이라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탄산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았다. 그 포수가 마을에 내려와서 그거 좋은 물이라고 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약수 옆에는 지당이 있었는데, 지당은 산신당과 성황당 두 곳이었으며, 이곳 지당은 환자들이 약수를 마시면서 병이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던 곳이다. 마을에서는 따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다. 산신당은 보명사의 스님이 같이 사용을 했다. 지당이 없어진 것은 간첩의 은거지를 제공할까봐 보명사를 헐 때 같이 헐었다. 또 지당 옆에는 돌탑이 많은데 이것은 약수를 먹고 건강을 되찾고자 기원하면서 사람들이 쌓은 것이다. 치유를 절실히 기원한 흔적이다.

약수가 있는 골짜기는 ‘약수계곡’이라했고, 반대편 골짜기는 ‘원골(사태골)’이라 했다. 약수계곡으로 올라가다가 첫 번째 나오는 폭포가 있는 곳을 ‘취소라’ 했고, 사태골에는 소 구유를 닮은 소라 해서 ‘귀용소’라는 소가 있다. 이 계곡에는 열목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많이 잡아먹었다. 반두를 들고 가서 계곡에 대고 돌을 일구고 뜨면 보통 20마리 이상은 쉽게 잡았다. 나중에 천연기념물이라 하여서 잡아먹지 않았다.

개인약수는 특히 위장병에 효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보름씩 쌀을 지고 와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고 갔다. 환자들이 많아서 절에서 지어놓은 하등신의 방 6개가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요즘은 등산객이 많이 가고 약수는 호기심으로 마시는 정도이다. 약이 좋아져서 굳이 약수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약수로 올라갈 때 구렁이가 나와 길을 막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올라가면 해를 입게 된다. 구렁이가 길을 막으면 부정을 탄 사람이라는 뜻이다.

### 〈개인약수의 효험 및 영험성〉

- ①치유력(治癒力) - 약수의 기본성격, 물은 생명수(生命水)라는 기본의미로 〈바리데기〉에서 부모의 생명을 구하는 특효약으로 쓰임. 개인약수로 치유한 김영식과 이재희의 경험담은 좋은 예임.
- ②신앙성(信仰性) - 제의의식에 의해 약수에는 산신이나 용왕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약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神秘)한 영약(靈藥)이라는 속성을 지님. 약수의 효능을 보고,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



성(神聖性)을 가미시킴. 신앙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신수(神樹)와 함께 돌로 된 제단이 약수의 뒤쪽에 있음.

- ③강력상징(強力象徵) - 약수는 신령스러운 약이 되는 물이므로 약수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장수의 힘을 소유하게 됨. 개인약수는 아기장수가 마신 숨겨진 약수 전설이 있음. 여기서 아기장수의 의미로 볼 때 기존 권력을 뛰어넘을 힘을 가지는 소유자가 될 수 있음. 약수를 마시고 힘을 얻었다는 설화는 홍천 노천리의 도적, 설악산 계조암의 수음바위 등이 있다.
- ④신이금기형(神異禁忌型) - 위험성을 지닌 이야기가 전함. 개인약수는 약수를 찾기 전 3일 안에 개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고 가면 야생동물의 해를 입거나 약수가 흐려져서 마실 수 없게 됨.
- ⑤음부이상형(陰部理想型) - 여성상징인 자궁은 <몽유도원도>, <도화원기> 등에서 보듯이 무릉도원이나 이상향 또는 유토피아라 일컫는 최고의 낙원을 상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숨겨진 음부는 불의 근원이나 잉태의 신비를 간직한 성(聖)스러운 곳이다. 개인약수의 형상은 여성의 음부처럼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속(俗)의 입장에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훼손했다가 재앙을 받아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설화가 있다.
- ⑥회춘력(回春力) - 금강산의 <망장천> 설화에서 보듯 약수는 젊어지는 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개인약수 설화 - 상남면 미산리 개인동(대개인동) 1번지〉

인제의 내린천을 거슬러 현리-하남-상남에 이르러 미산1리로 가면 개인산(1324m)을 만나게 되고, 거기 해발 850m지점에 개인약수가 있다. 약수의 맛은 방동약수처럼 탄산이 강하다. 3백여년 전 지덕삼이라는 함경도의 포수가 사냥을 다니다가 발견하였다는 이 약수는 백내장에도 좋으며 특히 당뇨병에 효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등 기적을 일으킨 약수로 알려져 있다.

약수는 2개가 있는데, 위쪽의 것은 여성의 음부처럼 생겨서 어떤 사람이 이를 훼손하였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데, 지금도 전설 그대로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진짜 본래의 개인약수는 더 위쪽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곧 아랫마을 지포수의 아기가 몰래 돌을 떠들고 약수를 마시고는 또 덮어놓곤 하였는데, 아기가 이 약수를 먹고 힘을 쓰기 시작하여 드디어 아기장수가 되자 이를 두려

위한 부모가 아기를 죽이는 바람에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니, 약수의 효능성이 ‘아기 장수설화’와 연결되어 있다.

모든 약수터가 그렇듯이 여기도 돌로 쌓은 제단이 있는데 예전에는 당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지』(1968)에 보면 산신당에는 “1925년 경기도 개성인 김영식과 1956년 원주인 이재희가 약수로 위장병을 치유하고서 써놓은 현판이 걸려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고 했는데 오늘은 볼 수가 없다.(김의숙, 『강원도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371-2쪽.)

### 〈美山の 龍바위와 龍馬〉

麟蹄面 美山1里 賓地洞 20km가량 떨어진 北쪽에 位置하고 있는 龍淵洞(용늪)은 그 面積이 3,000坪이나 되며 朝鮮末葉 산 길가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3年만에 뱀박질을 하며 산을 오르고 한 번 집을 나가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음이 일췌였다고 한다.

이상히 생각하여 이런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니 마을이 망할 흉조라 하여 부부가 잡아 죽였다. 그때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는 3個의 비늘이 달려 있었다고 하며 그 후부터 용바위에 용마 한 마리가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울어대자 마을 사람들은 그나마 잡아 죽여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민속지』, 강원도, 1989. 405쪽.)

### 〈개인약수의 종합적 현황〉

#### (1) 개인약수의 위치와 형태

- ◇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 ◇ 개인산(開仁山) 중북 해발 1,080미터 에 위치
- ◇ 남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
- ◇ 약수주변에는 300~400년 묵은 가문비나무, 전나무, 피나무, 주목 등 고목이 우거짐
- ◇ 돌로 단장을 해 놓았고, 방문객들이 돌탑을 쌓아 분위기가 뛰어난
- ◇ 상탕(암)과 하탕(수)으로 구분
- ◇ 계곡 바로 옆에 있어 계곡물이 불면 약수까지 들어옴
- ◇ 약수 바로 위에는 산신께 제를 올릴 수 있는 제단과 돌탑이 있음
- ◇ 예전에는 약수의 효험을 감사하며 약수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산제당이 있었

고, 제당에는 실제로 약수를 먹고 효험을 본 사람의 효험기가 쓰여 있었음

- ◇ 주차장에서 거리가 1,880m로 긴장한 사람이 걸어가면 4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됨. 하산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나 사람에 따라 다름
- ◇ 개인산은 돌이 많아서 등산로에는 흙은 전혀 없고 모두 돌로 이뤄져 있음
- ◇ 등산로 계곡은 수량(水量)이 많아서 비가 많이 오면 건너기 어려움
- ◇ 돌과 물이 많아서 계곡의 경치가 몹시 빼어남
- ◇ 계곡에는 천연기념물73호(정선), 74호(낙동강)인 열목어가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음
- ◇ 등산로에는 활엽수와 침엽수가 골고루 있으며 머루 다래 산딸기 산나물 등이 많아서 계절의 묘미를 맘껏 느낄 수 있음

## (2) 개인약수의 효능

- ◇ 약수의 맛은 톡 쏘면서 달콤해서 질적으로 누구나 먹기에 좋은 우리나라 최고 약수임
- ◇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위장병, 당뇨, 간질환, 신장을 비롯한 만병을 다 치료했음
- ◇ 산신당에는 1925년 경기도 개성인 김영식(金英植)과 1956년 원주인 이재희(李宰熙 1939~?)가 약수로 위장병을 치료하자 남겨 놓고 간 글이 현판에 걸려 있어 보는 이의 시선을 모으게 함. 현재 그 당시의 산신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등산로 입구에 있는 민박집에는 많은 환자들이 머물면서 각종 병을 치료하러 모이고 있으며, 간암 3기의 환자가 와서 거의 완쾌되어 간 적이 있음
- ◇ 산이 깊어서 공기가 좋을뿐더러, 약수까지의 거리가 있으며, 계곡의 물도 좋아서 환자들의 치유에 특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특히 아토피환자들은 약수를 마시고 계곡물에 목욕을 하여 대부분 치유하여 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3) 개인약수에 얹힌 설화·영험성

- ◇ 약수를 마시기 전에 부정을 타거나 육류를 먹으면 물이 흐려진다고 함. 일상적인 민속신앙의 금기사항과 결부됨.
- ◇ 개인약수는 암수 한 쌍이 나란히 있는데 암컷쪽은 웬지 물이 고이지 않고 그냥 흘러 보내며 잘 마시지 않는 내력이 있음. 상탕이 암탕이고 하탕이 수탕임. 물맛에

대한 현상으로 설명됨.

- ◇ 약수를 마시기 전에 나쁜 것을 한 경우 물이 흐려짐. 물의 신성성과 인간생활의 도덕성을 결부시킨 것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떤 사건이나 배경이 있었을 것임.
- ◇ 현재의 약수터 위에 ‘장군약수’가 있었는데 양쪽 겨드랑이 밑에 용 비늘이 세 개씩 붙어 있는 아기장수가 혼자 물을 마시고는 큰 바위로 약수를 덮어버려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함. 아기장수는 현실의 비리와 불합리를 타개(打開)하고 이상세계를 만들 구세주적인 인물임. 따라서 물을 덮었다는 것은 구세주가 나와 활동할 때가 아님을 나타내며, 덮은 물을 찾으면 세상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암시함.

#### (4) 개인약수의 발견경위

- ◇ 1891년 함경북도 사람 지덕삼(池德參)이 수렵생활을 하다가 발견하였음. 그 시초는 알 수 없으나 『인제군사』(1996)에 전하고 있음.
- 이야기를 서사구조에 맞춰 가공하면 좋을 듯함.

#### (5) 개인약수의 뜻

- ◇ 개인약수는 개인산(開仁山)의 이름을 따서 지었음.
- ◇ 개인(開仁)의 뜻은 한자로 열 개(開)자에 어질 인(仁)이다. 풀면 ‘어진 마음을 열다.’ 정도로 할 수 있다. 어짊은 우리말로 달리 사랑이라 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정도로 할 수 있음. 개인약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약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약수는 약수를 마시고 몸의 병을 치유하여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를 둘 수 있음

#### (6) 천연기념물

- ◇ 개인약수는 천연기념물 제531호로 지정됨
- ◇ 지정(등록)일은 2011년 1월 13일임
- ◇ 수량/면적은 400㎡임

## 〈인제군지 자료〉

### (1) 〈개인약수(開仁藥水)〉

상남면 미산(美山) 1리의 빈지동(賓地洞)을 지나 결가리, 고목동(古木洞)을 우회하여 소개인동(小開仁洞)을 지나 대개인동(大開仁洞)을 따라 올라가면 개인산(開仁山) 중복(中腹, 산의 중턱)의 아늑한 한 곳에 약수가 있는데 바로 개인약수이다.

1891년 지덕삼(池德參 함북인)이 수렵생활을 하다가 발견하였다는 이 약수는 주변에 100~200년 묵은 잣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소나무 노목이 우거져 있어 지상으로 용출하는 약수만 보아도 가슴속을 시원하게 한다.

예부터 약수를 마시기 전에 부정을 타거나 육류를 먹으면 물이 흐려진다는 설화도 담겨져 있다.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위장병을 비롯한 만병을 다 치료했다고 하여 군내는 물론 타지방에도 이 효험을 만끽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이 길을 메운다고 보호관리하고 있는 김경용(金敬龍 1919~)은 전해준다.

산신당에는 1925년 경기도 개성인 김영식(金英植)과 1956년 원주인 이재희(李宰熙 1939~)가 약수로 위장병을 치료하자 남겨 놓고간 글이 현판에 걸려 있어 보는 이의 시선을 모으게 한다.

1976년 6월 이곳을 답사한 기린중고교감 전현권(全鉉權, 1927~), 교사 김용희(金容希 1939~), 한차수(韓次洙, 1941~)는 약수와 함께 이 고장의 등산코스로 손꼽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 곳곳에 소폭포가 걸려있고 녹음이 우거져 피서지로도 안성맞춤일 듯 등산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도 한번 가보기를 권할 만한 곳이다. 인근에 구룡덕봉(九龍德峰 1,388m) 등의 거봉(巨峰)들이 즐비하여 기호에 따라 코스를 골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약수 인근은 새하얀 꽃송이가 찬란하게 피어오를 뿐만 아니라 눈부신 태양 아래 산산이 부서진다. 겨울철 설원에 펼쳐지는 한 폭의 그림인 개인산(開仁山)의 설경은 등산광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발길을 옮기기 어려운 험준한 산곡이나 약수터 바로 밑까지 차도(車道)가 나 있어서 겨울 산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다소 위안이 된다.(『인제군지』, 1996)

### (2) 〈개인동계곡(開仁洞溪谷)〉

상남(上南) 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한 개인산(開仁山)은 미산(美山) 리에 속하고 있으며 편의상 소개인(小開仁), 대개인동(大開仁洞)으로 부르고 있다.

대개인동 일대는 인적이 드문 미답지역(未踏地域)으로 풍부한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도상에 놓여있다. 대개인동에 소재한 10km에 걸쳐서 전개된 계곡일대는 특히 향기 그윽한 100~200년생의 주목, 가문비나무, 전나무를 비롯하여 자목이 무성하며 깊은 계곡의 노송과 함께 기암 사이에서 세속을 씻을 수 있는 곳으로 밭이라도 담그면 찌는듯한 무더위도 순간에 사라진다.

은방울꽃의 포기포기가 가는 곳마다 번성하여 5~6월 경에는 훈풍과 함께 그윽한 향기가 속객(俗客)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며 녹음 우거진 수림 속에서 울려나오는 황금피꼬리의 울음소리는 한층 더 흥취를 돋운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경사진 단풍의 붉은 비단 모양이 호화로우며 산중복에는 푸짐한 머루, 다래 등 산과(山果)가 무르익어 등산객의 구미를 돋우기도 한다.

100여년 묵은 노송이 천둥과 노쇠로 인해 곳곳에 뒹굴고 있는데다가 가을철이 되면 백설이 내려 덮어버릴 때의 그 설경은 일대장관이 아닐 수 없다.

가까운 곳에는 개인약수(開仁藥水), 용연(龍淵) 등의 명승지가 있어 1박2일의 여정으로 꼭 정복할 만한 곳으로 흠을 잡을 수 없으며 1975년 8월에는 배재고등학교에서 탐승을 겸한 대생물채집활동을 하여 큰 수확을 얻었다.(『인제군지』, 1996)

# 장소마케팅에 따른 문화콘텐츠 컨셉트원형 발굴 시론\*

— 인제군 개인약수터를 대상으로 —

이학주 · 류시영 · 송운강\*\*

## Contents

1. 서론
2. 장소마케팅에 따른 문화콘텐츠 컨셉트원형 발굴 방안
  - 2.1.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 컨셉트원형의 연계
  - 2.2. 개인약수의 컨셉트원형 ‘치유’ 발굴
3. 결론

## 1 서론

개인약수(開仁藥水)는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개인동계곡 해발 1080m에 위치하고 있는 광천(鑛泉) 약수이다. 이 약수는 2011년 1월 13일 천연기념물 제531호로 지정되었으며, 약수에 얹힌 다양한 설화와 약수에서 병을 치유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방태산과 개인산 등의 울창한 산림에 얹힌 이야기, 개인약수와 관련해 당시 개인동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소 전승되고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국제어문학회 제76차 전국학술대회(2014.3.1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학주: 강원대학교(주저자) · 류시영: 한라대학교 · 송운강: 강원대학교(교신저자)

1 인제군 개인약수에 관련한 자료는 다음 문헌 및 제보를 참고할 수 있다. 『인제군사』, 인제군, 1996.; 김의숙, 『강원도 약수신앙과 설화』, 『강원도 민속 문화론』, 집문당, 1995.; 김의숙, 『강원도 자료 보고서』, 『강원문화연구』13,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4.9.; 송운강 외, 『용늪 및 개인약수 브랜드상품화 컨설팅 연구용역』, 인제군, 2013.12.; 제보자 안연태(남, 66) 미산1리 3반, 2013.8.5.



인제군에서는 개인약수의 효험과 문화관광적 측면에서의 장소성 때문에 대대적으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sup>2</sup>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개발의 원천을 이루는 문화콘텐츠의 콘셉트와 이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개인약수라는 장소에 따른 문화콘텐츠에 대한 콘셉트원형이 발굴, 복원되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의장을 입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개인약수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문학적인 특성과 인제군의 개인약수 개발 시도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연구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약수의 지리적인 위치와 약수의 특성 및 설화 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콘셉트원형 발굴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간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많이 이뤄져 왔다.<sup>3</sup>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장소마케팅이 유럽의 도시마케팅에서 비롯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특정 장소에까지 연구의 범위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비록 짧은 연구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괄목할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일찍이 문화콘텐츠학의 현황과 전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고, 미래의 상황까지 진단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sup>4</sup> 이제 이런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는 독자적인 연구로만 이뤄지지 않고 상호적인 관계에서 연계는 의도 이뤄지고 있어 바람직하다.<sup>5</sup>

이에 본고는 개인약수라는 지역에 대한 장소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문화콘텐츠를 접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콘셉트원형에 대해 천착할 것이다. 곧 문화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에서 다(多) 활용(Multi Use)을 하기 위한 원소스(One Source)의 원형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어떤 장소

2 인제군에는 광천수로 삼봉약수, 남전약수, 필례약수, 개인약수, 방동약수가 있다. 그 중 개인약수만 현재 대대적인 개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원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하고 약수 주변의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3 장소마케팅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유영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 개발」,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05. 8. 49~61쪽 참고.

4 박기수, 「문화콘텐츠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국제어문』37집, 국제어문학회, 2006.; 박기수, 「한국문화콘텐츠학의 현황과 전망」, 『대중서사연구』16호, 대중서사학회, 2006. 12.

5 이희곤, 「문화콘텐츠 기반의 도시마케팅 연구: 용산 미군기지 활용방향에 대한 모색」,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때는 그 장소에 얹힌 복합적인 이야기 및 현상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입각한 것이다.

특히 개인약수는 산과 계곡과 약수터라는 원천콘텐츠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을 관광매력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의 결합은 당연하고, 아울러 흩어진 원천콘텐츠를 통합하여 원소스를 찾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 2 장소마케팅에 따른 문화콘텐츠 개념의원형 발굴 방안

### 2.1.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 개념의원형의 연계

#### 2.1.1.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의 연계

개인약수는 약수터(藥水址)라는 장소성(場所性)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개인약수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마케팅을 접목 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약수는 약수가 갖는 콘텐츠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약수콘텐츠에는 약수에 얹힌 설화를 비롯하여 치유에 관한 실제담과 주변사람들의 생활에 얹힌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개인약수를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를 연계시켜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를 연계시킬까. 이에 대해서는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알아보고, 둘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은혜는 “장소마케팅에서의 장소는 흔히 말하는 지리학적인 위치나 단순한 공간 그 자체를 넘어서 개개인마다의 경험과 의미를 투영한 감정적 유기체로 지칭할 수 있다.”<sup>6</sup>고 하였다. 이 말은 관광활성화라는 기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말이다. 그 때문에 장소가 갖는 의미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빚댄 것이다. 그것도 공통의 감정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투영한 느낌이 있는 유기체라고 하였다. 이것은 문화콘텐츠가 지향하는 기본 성격과 다를 것이 없다. 문화콘텐츠의 영역은 만화, 문학, 영화, 광

6 이은혜, 「장소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12.12. 7쪽.

고, 테마파크 등으로 확산되는데, 문화콘텐츠가 추구하는 유무형의 실체들도 모두 살아있는 유기체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도 ‘개개인마다의 경험과 의미를 투영한 감정적 유기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를 감상하는 사람들은 각자 지닌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난 느낌으로 감명을 받기 때문이다.

같은 개념으로 유영준은 장소마케팅과 관련해서 체험과 감성이 녹아있는 관광산업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복합적인 요소로 결합된 관광산업의 주 생산품은 독특한 체험일 것이다. 관광산업은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켜야하는 고도의 감성산업이고, 나그네의 호기심과 서정적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심미안적 가치투여가 필요하다.”<sup>7</sup>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느낌은 환상과 신비감이라고 하였다.<sup>8</sup> 장소마케팅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대목이다. 이 언급을 문화콘텐츠에 그대로 옮겨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미안적 가치투여’라는 말이다.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분별하고 그 가치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대안이 역으로 보아서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상적 신비감의 감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느낌이 있는 장소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느낌이 있는 장소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김영은 “관광에 있어 자원이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발견하는 것’, ‘창조하는 것’”<sup>9</sup>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이는 문화콘텐츠에 있어 보편적 시대정신으로 기능하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이론<sup>10</sup>과 같은 개념이다. 하나의 원소스를 찾아 다양하게 창조해 내는 멀티유즈의 체계가 관광자원의 개발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소마케팅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연계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장소가 갖는 원형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원형과 다를 바 없으며,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앞으로는 이를 ‘장소 문화콘텐츠’라 명명한다.)에 있어 멀티유즈의 창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7 유영준, 앞의 논문, 138쪽.

8 위의 논문, 같은 곳.

9 위의 논문, 133쪽 재인용.; 김영,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광」, 『도시정보』 278,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1쪽

10 김종희·최혜실, 『OSMU&스토리텔링』, 랜덤하우스, 2006, 10쪽.

### 2.1.2. 콘셉트 원형 발굴의 의미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학의 마케팅과 문화콘텐츠는 그 장소에 합당한 장소성을 대상으로 인간의 감성, 곧 느낌을 자극하고, 느낌에 호소하여 가치를 확대하는 데 주안 한다. 장소가 갖는 콘셉트원형의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장소마케팅과 장소문화콘텐츠에 있어서 콘셉트원형이 왜 중요하며, 그를 발굴해 내야하는지를 알아보자.

도시마케팅에서 상징자본은 곧바로 생산자원으로 활용된다.<sup>11</sup> 여기서 상징자본은 쉽게 말해서 유형적 자본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개념적이며 원형적인 자본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돈이나 유용한 물질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그를 바탕으로 확대생산이 가능한 명성이나 호감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달리말해서 콘셉트원형이 도시(장소)마케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상징자본과 콘셉트원형을 일체시킬 수는 없지만, 관련성은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상징자본 즉 콘셉트원형이 제대로 구축되면 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어서 생산자원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에 있어서도 이런 개념은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원천소스 개발이 먼저 이뤄져야만 ‘리터러시(Literacy)’와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sup>12</sup>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한 천착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성공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문화원형 기반이 중요하다’<sup>13</sup>고 말한다. 곧, 학자와 학문분야에 따라 용어는 다르지만 모두 원천소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1 유영준, 앞의 논문, 133~4쪽. 유영준은 ‘콘텐츠를 활용한 장소마케팅’이라는 항목에서 Lazzaretti의 주장을 끌어들여서 상징자본의 중요성을 “도시의 문화예술자원은 상징자본을 형성하여 관광자를 유치하며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된다.”(133~4쪽)고 말했다.

12 박기수(2006. 12). 앞의 논문, 28쪽. 박기수는 문화콘텐츠에서 스토리텔링의 경우 ①양질의 스토리텔링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 소스 개발 및 전환 전략, ②확보된 소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콘텐츠화 할 것인가 하는 스토리텔링 전략, ③구현된 스토리텔링을 매개로 한 향유의 활성화 전략과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확산 전략, ④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리터러시 전략에 대한 연구가 통합적으로 전개되어야만 기대했던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원천소스 개발 및 전환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야만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창조와 활용의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네 번째에서 ‘리터러시(Literacy)’와 ‘생산적인 결과’를 언급한 것은 첫 번째에서 말한 원천소스 개발의 결과인 것이다.

13 강나연, 「한국바독설화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논문, 2012, 2, 54쪽. 강나연은 문화원형기반의 중요성을 “문화콘텐츠의 성공요인인 낯설고 새로우면서도 친숙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획득됨과 동시에 문화적 가치를 아울러 지니게 되는 문화원형 기반의 콘텐츠개발이 중요하다.”(54쪽)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콘텐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천소스에 있는 것이다. 그렇듯이 장소마케팅과 장소문화콘텐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천소스라고 하는 장소에 얹힌 콘셉트원형의 발굴에 있는 것이다. 최혜실에 의하면 스토리텔링을 원천소스로 해서 구술적 이야기, 문학,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하이퍼텍스트문학, 컴퓨터게임, 광고, 디자인, 홈쇼핑, 테마파크, 스포츠 등과 상호교환을 이루며 OSMU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4</sup> 문화콘텐츠학에서 원형을 확산해 나가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OSMU의 OS(One Source)가 ‘스토리텔링’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미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개념으로 2차적인 가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공 전의 1차적인 원천소스를 진짜 원천소스로 봐야 한다. 이때 1차적인 원천소스는 또한 그 이야기를 배태시킨 원형(Archetype)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 이야기를 배태시킨 원형은 한 가지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개념에서 도출될 수도 있다. 이때 여러 가지의 화소를 단일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합화소를 구성해야만 한다.<sup>15</sup> 복합화소는 여러 개의 화소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원천소스를 떠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단일화소가 복합화소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단일화소가 하나로 뭉쳐 복합화소를 떠는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 약수의 경우는 여러 개의 단일화소가 있다. 이를 복합화소로 만들어서 원천소스로 발굴하여 쓰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일화소가 갖고 있는 원천소스를 파악하고, 아울러 그들 원천소스가 합쳐 또 다른 원천소스를 떠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거쳐서 가장 전형적인 원형을 떠는 원천소스를 찾아야 멀티유즈로 사용했을 때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콘텐츠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단일화소가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서를 읽어내는 것이다. 마치 <대장금>처럼 보편적인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합의된 서사구조에 색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특수성이 결합되어야 한다.’<sup>16</sup> 이에 대해서 강나연은 ‘보편성

14 최혜실, 「소나기의 OSMU방식과 문화콘텐츠로서의 잠재력」, 『OSMU&스토리텔링』, 랜덤하우스, 2006. 76쪽.

15 곧 이야기 자체를 형성하는 스토리 근원이 단일화소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화소를 결합하여 단일화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 근원이 단일화소일 때는 원천소스를 스토리텔링과 같은 ‘원천소스=스토리텔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토리 근원이 여러 가지가 뭉쳐서 단일화소를 도출할 때는 원천소스 자체를 스토리텔링으로 볼 수 없는 ‘원천소스≠스토리텔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 강나연, 앞의 논문, 53쪽.

을 지니는 창작소재는 대개 문화적인 원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문화에 입각한 창작소재는 개발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 보편성의 주관적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sup>17</sup> 고 했다.<sup>17</sup> 이 말은 장소성을 띤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내는데 아주 유용한 방안이다. 곧, 개인약수의 경우 산(山)이라는 보편성과 약수(藥水)라는 보편성이 합쳐서 개인산에 있는 개인약수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2.2. 개인약수의 개념원형 ‘치유’ 발굴

여러 개의 화소를 갖고 있는 개인약수의 화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원천소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화소들의 여러 유형들을 각각 살펴야 한다. 각각의 화소들이 내포하고 있는 원천소스를 밝혀내서 통합을 이뤄야만 개인약수의 개념원형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개념원형은 개인약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의 것이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로 확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김영순·윤희진은 향토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때 향토문화자원은 “아직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원천자료로서 역사적·정보적·정서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sup>18</sup> 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가치를 지닌 자료’이지만, 그 자료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원천자료’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료가 개개의 화소라 할 수 있다. 개개의 화소인 “향토문화자원은 향토민들의 역사와 정서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들의 선험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up>19</sup> 고 할 수 있다. 향토문화자원으로 흩어진 개개의 화소에 선험적 의미를 넣어 주는 일이 스토리텔링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필자는 개념원형이라는 말로 대치한다. 곧, 스토리텔링 또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단순자원이 아닌 의미를 부여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본 항목에서 논의 하는 ‘장소의미-장소신앙-전설(장소설화)-장소기대심리의 이상성’에 따른 순차성은 개인약수의 개념원형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순차성은 서로 연계를 이루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 가령, 전설과 신앙은 신앙 때문에 전설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설 때문에

17 위의 논문, 같은 곳.

18 김영순·윤희진, 「향토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17, 인문콘텐츠학회, 2010, 331쪽.

19 위의 논문, 같은 곳.

신앙을 낳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각각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약수와 개인약수터가 갖고 있는 콘셉트원형이 밝혀질 것이다.

### 2.2.1. 개인약수터의 의미와 콘셉트원형

장소마케팅에서 장소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듯 개인약수에서 개인약수터가 갖는 장소는 물(水)이라는 보편적 의미를 벗어나서 약수라는 보다 특수한 의미를 띠고 있다. 약수가 갖는 의미는 효험담(效驗談)으로만 보더라도 치유(治癒), 득남(得男), 장수(將帥), 결혼(結婚), 비공(飛空)의 뜻을 가진 것<sup>20</sup>으로 연구되었다. 약수는 몸을 치유하는 것 외에도 신앙처럼 정신적인 치유까지 이루며, 약수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 공중으로 날아가는 환상적인 능력까지 있는 것이다. 이런 약수는 반드시 특정한 약수터라는 장소를 동반하고 있다. 그런 장소를 가지는 것은 효험담을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에 장소성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물, 또는 약수는 장소적 기능차원에서 어떤 의미도 떨 수 없다.

약수터가 장소성을 띠면서 효험을 강화하는 것은 그 약수터만이 지닌 효능(效能)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추곡약수는 위장병, 당뇨, 피부병, 안질에 좋고, 오색약수는 위장병, 신경통, 빈혈, 기생충구제에 좋다는 식으로 반드시 그 효능을 자랑한다. 개인약수의 경우도 위장병, 당뇨병, 백내장 등에 좋다고 한다.<sup>21</sup> 만약, 약수가 똑 같은 성분과 효능을 갖고 있다면 약수는 관광마케팅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 전국 어디의 어떤 약수를 마시더라도 똑 같은 효능을 갖기 때문에 굳이 먼 곳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sup>22</sup>

약수가 갖는 장소마케팅은 약수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약수는 약수가 자리한 위치의 지명을 따서 만들어진다. 화천의 별떡약수처럼 그 효능을 따서 짓기

20 김의숙(1995), 앞의 책, 358~360쪽.

21 위의 책, 344쪽. 이곳에는 강원도 17곳의 약수에 대한 효능을 기록해 두었다.

22 청원군의 조정약수는 우리나라에서 약수의 장소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약수는 세계3대 광천수(鑛泉水)라면서도,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이 이곳에서 안질과 피부병을 고친 『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동국여지승람』〈청주목〉조, 椒水在州東 三十九里 其味如椒而冷 浴則已疾 我世宗世祖嘗幸于此.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약수는 청주 동쪽 39리에 있다. 그 맛이 산조 같으면서도 차다. 목욕을 한즉 병이 그친다.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이 일찍이 조정약수에서 병을 치료하고 효험을 보셨다.”)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 3대 광천수를 일컫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이 이곳에서 병을 고쳤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실제적인 효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세종대왕과 조정약수 축제〉를 열 뿐 아니라, 각종 음식점, 목욕탕 등의 시설을 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연일 찾게 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세종대왕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이 마시고 병을 치유했 바로 그 약수를 마신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세계관광학회나 F.D.A를 끌어들여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움으로써 인해 믿음성까지 주고 있는 것이다. 조정약수의 이런 효험은 조정리를 찾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도 하지만, 대부분 지명을 따서 명칭을 짓는다. 가령, 초정약수는 초정리, 오전약수는 오전리, 추곡약수는 추곡리, 후곡약수는 후곡리 등처럼 대부분 그 위치를 따서 약수의 명칭을 짓고 있다. 이렇게 약수의 명칭을 약수가 위치한 장소의 지명을 따라 짓는 것은 약수가 갖는 장소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약수의 장소성으로 인한 콘셉트원형은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 약수가 갖는 장소성에서 보았듯이 개인약수가 위치한 지리성, 역사성, 효험성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효험성은 개인약수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의 안내판에 있듯이 개인약수는 위장병과 당뇨에 좋다고 했으며, 김의숙은 “이 약수는 백내장에도 좋으며 특히 당뇨병에 효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앓은뱅이가 일어서는 등 기적을 일으킨 약수로 알려져 있다.”<sup>23</sup>고 했으며, 『인제군사』에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위장병을 비롯한 만병을 다 치료했다고 하여 군내는 물론 타지방에도 이 효험을 만끽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이 길을 메운다고 보호관리하고 있는 김경용(金敬龍, 1919~)는 전해준다.”<sup>24</sup>라고 했다. 개인약수가 갖고 있는 치유의 능력인 것이다.

역사성에서는 고종황제와의 관련설과 산삼금표를 들 수 있다. 이혜숙에 의하면 “개인약수는 1891년 함경도에서 온 지덕삼이란 포수가 발견했는데, 고종황제에게 이 물을 진상하고는 말 한 필과 백미 두 가마, 광목 백 필을 하사품으로 받았다고 하니”<sup>25</sup>라고 했다. 이 기록은 개인약수가 갖고 있는 엄청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나라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약수로 오르는 개인동 계곡 초입세 잣바위에 “産蔘加岷山西標(산삼가현산서표)”라고 바위에 새겨진 글이 있다. 이 글은 산삼이 많이 생산되는 산의 서쪽 표식이라는 뜻이다. 고종황제설과 산삼금표는 개인동계곡과 약수의 장소적 가치를 한층 격상하는 것이다. 최고의 약수와 약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리성에서는 개인약수의 높은 위치, 약수로 오르는 등산로, 약수주변의 나무와 빼어난 풍광, 약수계곡에 있는 천연기념물 열목어의 서식 등을 일컬을 수 있다. 그리고 약수가 위치한 곳이 우연하게도 한자로 開仁(개인)이라 쓰는 대개인동(大開仁洞)계곡에 있다.

23 김의숙(1994), 앞의 지료, 178쪽.

24 『인제군사』, 앞의 책, 784쪽.

25 이혜숙, 『몸이 좋아하는 건강여행』(강원·경기편), 국일미디어, 2003, 108쪽.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보면, 개인약수터는 장소성을 부각하기에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자원은 일종의 개인약수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 할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어진마음을 열어 남을 사랑하는 개인(開仁)의 의미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곧, 약수로 인해 자신의 병을 치유함은 물론 남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다. 치유, 황제, 천연기념물로 이어지는 단어들이 껍질처럼 겹쳐져서 섬세한 면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개인약수터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장소마케팅을 이미 개인약수터는 지니고 있는 것이며, 개인약수터에서 무엇을 콘셉트원형으로 삼아야할지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이다.

### 2.2.2. 장소신앙에 따른 신성성

약수터에 올라가면 어느 약수를 막론하고 신앙적인 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실제적인 장소인 신앙터를 마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약수는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오대산의 방아다리약수는 용신당과 산신당이 옆에 있어 제의를 행하고 있으며, 인제의 남전약수는 산신의 탕화를 모시고 있는데 영험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삼봉약수는 돌탑을 쌓아서 기도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개인약수의 경우도 돌탑과 제단을 쉽게 볼 수 있다. 춘천의 추곡약수와 정선의 화암약수는 매년 약수기원제를 행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김의숙은 “약수터마다 정성을 드린 촛불의 자취를 역력히 볼 수 있어서 신앙의 예배터임을 알 수 있다.”<sup>26</sup> 고 하였다. 이렇게 물 자체도 생명수라는 속성 때문에 제의의 대상이 되지만, 약수는 일반 물보다 강한 치유라는 기본속성과 함께 약수터는 신들이 기거하는 신성한 구역으로 여겼기에 신앙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나타난다.

약수터의 신앙은 간단한 개인적인 바람을 기원하는 기도로부터 제의(祭儀)라는 의식행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약수는 이처럼 신성하고 영험한 것이기에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으로 제의가 따른다. 제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약수로 질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제(治癒祭), 약수로 병을 고친 사람에게는 感謝祭, 약수터의 상인들에게는 약수의 지속적인 효험성을 간구하는 靈驗祭와 사업의 번성을 바

26 김의숙(1995), 앞의 책, 345쪽.

라는 財數祭, 그리고 약수터를 자주 찾는 무당에게 있어서는 신비의 약수가 있는 곳에 있을 것으로 믿는 용신이나 산신의 초월적 힘을 얻고자 하는 降神祭의 성격으로 나타난다.<sup>27</sup>

위의 글은 약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의가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제의 외에도 오대산의 방아다리약수의 경우는 자식을 기원하는 기자신앙(祈子信仰)까지 조사되었다.<sup>28</sup> 약수터 주변에서 신앙적인 제의가 행해지는 것은 약수터가 신성한 장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의의 대상신은 대체로 산신과 용신으로 나타난다. 약수터의 발견경위를 보면 대부분 산신령의 현몽에 의한 것이 많다.<sup>29</sup> 약수터 발견 경위에 산신령이 개입하는 것은 약수터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산을 끼고 있으며, 우리 민족 고유의 산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산신령은 〈금도끼은도끼〉의 설화에서 보듯 산에 있는 물까지 관장하는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용신이 등장하는 것은 물의 신이 용신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용신도 김시습의 〈용궁부연록〉에서 보듯이 한강신, 조강신 등으로 그 지역을 관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약수의 경우는 일반적인 용신으로 이야기 된다. 그 약수터가 위치한 장소가 특정한 장소인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신령이 주신으로 등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약수터의 위치를 알려주어 약수를 발견하게 하고, 그 약수를 마시고 치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산신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약수터에 대한 장소성은 신앙이라는 기본적 속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약수터의 일반적인 속성이 신성한 구역에 산신령이나 용신이 기거하고 치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개인약수터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약수터가 갖고 있는 장소신앙은 또 다른 콘셉트원형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약수터에서는 약수터와 관련한 신앙의 형태를 알아보고, 그런 신앙이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보아야 한다.

개인약수터에는 여러 신앙의 형태가 있지만 두드러지게 전하는 것은 산신당과 성황당을 함께 모셨던 지당과 보명사라는 절에 얹힌 것이다.

27 위의 책, 같은 곳.

28 이학주, 『아들 낳은 이야기』, 민속원, 2004, 130~1쪽.

29 김의숙, 「물의 제의 연구」, 『강원인문논총』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12. 45~6쪽.

① 산신당에는 1925년 경기도 개성인 김영식(金英植)과 1956년 원주인 이재희(李宰希, 1939~)가 약수로 위장병을 치유하자 남겨 놓고 간 글이 현판에 걸려 있어 보는 이의 시선을 모으게 한다.<sup>30</sup>

② 약수 옆에는 지당이 있었는데, 지당은 산신당과 성황당 두 곳이었으며, 이곳 지당은 환자들이 약수를 마시면서 병이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던 곳이다. 마을에서는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산신당은 보명사의 스님이 같이 사용했다. 지당이 없어진 것은 간첩의 은거지를 제공할까봐 보명사를 헐 때 같이 헐었다. 또 지당 옆에는 돌탑이 많은데, 이것은 약수를 먹고 건강을 되찾고자 기원하면서 사람들이 쌓은 것이다. 치유를 절실히 기원한 흔적이다.<sup>31</sup>

③ 보명사는 개인약수 도랑 건너편에 있던 사찰이다. 유성민이라는 주지가 절을 짓고 살았다. … 보명사는 두 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 상등신은 3칸짜리 절로 스님이 기거하는 곳이고 달리 일등신이라고도 하였다. … 하등신은 6칸짜리 집으로 불공을 드리러 오는 불자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절은 너와지붕을 이어서 만든 것이며, 기둥은 산에 있는 커다란 통나무를 베어서 세웠다. 이곳에 와서 불공을 드리면서 약수로 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싸 가지고 와서 보통 7일 15일 정도 머물다가 갔다. 사람이 아주 많이 왔는데, 미산리에서부터 걸어왔다.<sup>32</sup>

지당(산신당, 성황당), 돌탑, 보명사에 얽힌 기록이다. 지당은 개인동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지은 지당의 형태와 같이 하나의 건물을 반으로 나눠서 산신당과 성황당으로 하였다. 개인약수터에 있던 지당은 마을의 동제를 지내던 곳은 아니고, 오로지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던 치유목적에만 있었다. 보명사 역시 개인약수를 마시면서 병의 치유를 바라던 사람들이 찾던 곳이었다.

이처럼 개인약수는 약수터와 그 주변 일대가 모두 신성구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산신, 성황신, 부처님 등이 언제나 존재하는 곳으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그런 것이 모두 치유라는 큰 목적의식 속에 있었으나 치유를 돕는 힘을 약수 자체보다도 신들의 가호로 안 것이다. 따라서 개인약수터는 장소신앙으로 볼 때 치유를 위한 특별한 구역 곧 신들이 기거하는 신성구역임을 알 수 있다.

30 『인제군사』, 앞의 책, 784쪽.

31 제보자: 안연태(남, 66) 미산1리 3반, 2013.8.5.

32 제보자: 안연태(남, 66) 미산1리 3반, 2013.8.5.

### 2.2.3. 전설이 갖는 환상성

약수는 약수터라는 장소성과 함께 약수터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약수의 효험성을 말하는 전설이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봉약수는 날개가 부러져 떨어진 학이 약수를 먹고 바로 치유되어서 날아갔다고 했으며, 남전약수는 산신령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유익한 물이 있을 것이니 파라고 해서 발견했으며, 후곡약수는 위장병에 걸린 소가 약수를 먹고 치유하여 발견했으며, 방동약수도 심마니에게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알려준 것이다.<sup>33</sup> 이렇게 약수에는 해당 약수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효험을 설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설화적 장치는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초정약수처럼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이 효험을 보았고, 미국의 F.D.A.가 선정한 세계 3대 광천수라는 것처럼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근거도 알고 보면 전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곧, 임금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식약청을 근거로 제시하기는 하나 정확한 근거가 없는 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이 이곳에 와서 치유를 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개인약수를 마시고 산신당에 그 효험을 적어 현판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약수설화는 치유라는 큰 목적을 위해 약수의 장소성을 부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생각이 모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약수터는 그곳에 얹힌 전설이 있을 때 그 가치를 더하게 된다. 그런 전설도 신의 계시로 발견했다는 신성성, 약수를 마시고 병을 치유했다는 효험성이 개입하든가, 신이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신이성이 개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sup>34</sup> 이들 신성성, 효험성, 신이성의 설화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물론 경험에 의한 치유담이 효험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치유경험이 과학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약수를 먹고 치유한 경험도 설화로 바뀔 때는 장소설화가 갖는 초경험적인 환상을 불러온다.

33 김의숙(1994), 앞의 자료, 179~184쪽 참고.

34 김의숙(1995), 앞의 책, 351~363쪽 참고. 김의숙은 약수설화를 첫째, 발견연유담(發見緣由譚)- 몽중지시형, 효험목적형, 혼합형, 둘째, 효험담(效驗譚)- 치유, 득남, 장수, 결혼, 비궁, 셋째, 신이담(神異譚)- 탁수분출, 술이 나옴, 뱀의 형상이 나타남, 음부의 형상을 지남, 음풍을 일으킴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런 예는 춘천의 추곡약수를 발견하게 된 설화에서 잘 나타난다.<sup>35</sup> 약수의 영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약방집 아들이 등장하고, 한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약수로 고쳤다고 했다. 게다가 발견할 때는 산신령이 등장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도 고치지 못한 병을 추곡약수를 마시고 고쳤다고 했다.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가 보면 추곡약수터만이 가진 특성을 신성성, 효험성, 신이성을 동원하여 추곡약수를 환상적인 약수로 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곡약수의 설화에서 보듯, 개인약수터가 갖는 설화적인 요소도 초경험적인 환상성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약수설화로써 전승될 수 있는 화소는 대부분 갖추고 있다. 개인약수터를 배경으로 전승하는 화소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약수는 1891년 함경북도 출신의 지덕삼이란 포수가 백두대간을 넘나들며 수렵생활을 하다가 발견하였다.<sup>36</sup>
- ② 이 약수는 백내장에도 좋으며 특히 당뇨병에 효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앓은 병이가 일어서는 등 기적을 일으킨 약수로 알려져 있다.<sup>37</sup>
- ③ 약수는 2개가 있는데, 위쪽의 것은 여성의 음부처럼 생겨서 어떤 사람이 이를 훼손했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sup>38</sup>
- ④ 본래의 개인약수는 더 위쪽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곧 아랫마을 지포수의 아기가 몰래 돌을 떠들고 약수를 마시고는 또 덮어놓곤 하였는데, 아기가 이 약수를 먹고 힘을 쓰기 시작하자 이를 두려워한 부모가 아기를 죽이는 바람에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니, 약수의 효능성이

35 이학주 외, 『북산면 사람들』, 춘천문화원, 2010. 330~1쪽. 참고로 추곡약수설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추곡약수터는 100여 년 전에 김모씨라는 분이 이 약수터를 가장 먼저 발견하였는데, 이분이 어느 해 갑자기 몸이 병약해졌다. 이분 아버지께서는 춘천에서 한약국을 하였다. 그런데 자기네 한약으로 병이 낫지 않으니 아들에게 객지 물을 100일만 먹고 오라 하였다. 그래서 약수터 발견자 김모씨는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며 끼니를 밥하고 소금으로 밖에 해결을 못하니 기운이 오히려 점점 없어졌다. 그러다 지금 이곳 추곡약수 아래에서 쓰러졌다.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야 이놈아 약을 앞에 두고 왜 잠만 자느냐’하며 호통을 치는 것이다. 이에 깜짝 놀라 잠을 깨보니, 앞에 낙엽이 잔뜩 있어서 그것을 긁어보니까 물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 물 주변 돌들에 녹이 잔뜩 숨어있던 것이다. 김 씨는 문득 ‘이 물이다.’라는 생각에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다. 아프던 속이 풀리기 시작하고 트림이 확 나서 이것이 약이로구나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100일간 정성을 올리며 그 물을 마시라고 했다. 그렇게 100일을 기도드리며 물을 마시니 몸이 씻은 듯 나아졌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지금의 추곡약수터의 명성을 만든 것이라 한다.”

36 『인제군사』, 앞의 책, 783쪽.

37 김익숙(1994), 앞의 자료, 178쪽.

38 위의 책, 같은 곳.

‘아기장수설화’와 연결되어 있다.<sup>39</sup>

⑤엿부터 약수를 마시기 전에 부정이나 육류를 먹으면 물이 흐려진다는 설화도 담겨져 있다.<sup>40</sup>

이처럼 개인약수는 사실성, 신성성, 효험성, 신이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문에서는 ①의 화소만 사실적으로 발견경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 ②효험·신이성, ③신성·신이성, ④신이성, ⑤신성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설이 완벽한 서사구조를 갖춘 것이 없이 단편적인 화소 위주로 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키면 훌륭한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사실여부를 밝힐 수는 없으나 고종황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첨부하면 초정약수의 세종대왕 관련설에 못지않은 스토리가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의 등장이 화소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③, ⑤처럼 죽음과 금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화소에는 이미 신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약수 전설의 경우도 일반 약수전설과 같이 개인약수터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설화적인 초경험적 환상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약수설화가 이처럼 약수가 위치한 장소를 바탕으로 환상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 약수터의 장소적 특성과 치유에 대한 효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2.2.4. 약수의 기대와 심리에 따른 이상성

약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치유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일상적인 물과는 차별을 둔 약수(藥水) 또는 약물이라 일컫고 있다. 또한 이런 약수는 다 같은 약수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다. 각각의 약수가 갖는 효험이 다른 것은 그 장소에 있는 특정한 약수의 효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 때문에 약수는 약수터마다 갖고 있는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치유를 위해 마시는 약수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심리에서 온 것이다. 그 때문에 약수는 약수터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장소성은 치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데, 그것은 이상향적인 성격을 띤 곳으로 보고 있다.

39 위의 책, 같은 곳.

40 『인제군사』, 앞의 책, 783쪽.



약수터가 신성성과 환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속시공을 떠나 신들이 기거하는 신성시공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곧 약수터는 현실계를 벗어난 별세계인 것이다. 약수터로 갈 때의 갖가지 금기사항은 약수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 신성구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뜻한다. 약수터가 갖는 별세계적인 장소성은 앞서 살펴 본 신앙적인 신성성과 설화적인 환상성을 함께 갖고 있다. 이것은 영험한 약수가 갖는 효험으로 이야기된다.

개인약수터의 경우도 개인약수가 갖는 기대심리로 인해 이상향적인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효험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데, 개인약수터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이상성은 치유력(治癒力)을 기본으로 하여, 신앙성(信仰性), 강력상징(強力象徵), 신이금기형(神異禁忌型), 음부이상형(陰部理想型)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유력은 약수의 기본성격이면서 생명수라는 물의 속성으로부터 비롯한다. 마치 〈바리데기설화〉에서 바리데기가 구해 온 약수로 이미 죽은 부모를 살리는 특효약과 같은 것이다. 그 때문에 개인약수터에서 약수를 마신 위장병, 백내장, 당뇨병환자들이 모두 치유를 한 것이나, 앓은뱅이가 일어서 가는 기적도 있는 것이다. 개인약수로 위장병을 치유하고 산신당에 치유영험기를 써서 걸어놓았다는 김영식과 이재희의 예화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위장암 3기의 환자가 개인약수터에서 약수로 치유를 했다<sup>41</sup>는 제보는 개인약수터가 갖는 이상적인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성은 약수터의 특성 중 하나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제의의식을 통해서 약수터에는 산신이나 용왕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개인약수의 경우 보명사라는 절이 있어서 이미 신성구역임을 나타내는데, 게다가 산신당과 성황당이 있어서 신성구역역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개인약수터의 약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약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산신당에 써놓은 치유효험기는 약수의 효능이면서 효능을 유지하기 위한 신성성을 가미시킨 것이다. 개인약수터의 신성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금도 울창한 숲과 함께 제단과 돌탑 등이 세워져 있다.

강력상징은 약수는 신령스러운 약물이므로 약수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강력한 장수의 힘을 소유하게 됨을 말한다. 개인약수터에는 일명 ‘장군약수’라고 해서 〈아기장수전설〉과 결부된 전설이 있다. 〈아기장수전설〉은 새로운 세계인 이상세계에 대

41 제보자: 안연태(남, 66) 미산1리 3반, 2013.8.5.

한 바람을 민중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기장수는 기존 세상의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뛰어난 힘의 소유자로 상징된다. 바로 약수를 마시고 강력한 힘을 얻어 탐관오리나 악당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다. <천지>설화에서도 백두산 약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흑룡을 물리쳐 이상세계를 건설하였다.<sup>42</sup>

신이금기형은 약수터가 위치한 장소가 신성구역이므로 부정을 금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기는 약수터가 갖는 일상적인 것으로 신성한 약수의 효험을 통해 치유력을 높이려는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개인약수터의 경우도 “약수를 마시기 전에 부정이나 육류를 먹으면 물이 흐려진다.”<sup>43</sup>거나, “약수로 올라갈 때 구렁이가 나와 길을 막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올라가면 해를 입게 된다. 구렁이가 길을 막으면 부정을 탄 사람이라는 뜻이다.”<sup>44</sup>라고 한다.

음부이상형은 개인약수의 또 다른 이상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여성상징인 자궁은 <몽유도원도>, <도화원기> 등에서 보듯이 무릉도원이나 이상향 또는 유토피아라 일컫는 최고의 낙원을 상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숨겨진 음부는 자궁의 상징으로 잉태의 신비를 간직한 성스러운 곳이다. 개인약수의 형상은 여성의 음부처럼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속(俗)의 입장에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훼손했다가 재앙을 받아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했다.

개인약수터가 갖는 이상성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환자들 또는 개인약수가 갖는 신성성 등으로 인해 개인약수터는 이상향의 성향을 띠고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향유되고 있는 것이다.

### 3 결론

본고의 목적은 인제군 개인약수터를 대상으로 장소마케팅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 콘셉트원형 발굴을 해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은 개발에 앞서 원천콘텐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42 최룡관 · 리천록, <천지전설>, 『두만강』제1호, 룡녕민족출판사, 1992.10. 54~9쪽.

43 『인제군사』, 앞의 책, 783쪽.

44 제보자: 안연태(남, 66) 미산1리 3반, 2013.8.5.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에 의거한 콘셉트원형발굴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는 개인약수터를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한 것이다. 연계의 바탕은 ‘감정적 유기체’라는 것으로 그것도 ‘개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투영한 느낌이 있는 유기체’라는데 두었다. 이를 원소스멀티유즈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는 같은 의미를 띠다고 보았다. 이때 장소마케팅과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인 바탕은 콘셉트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 원형은 장소와 콘텐츠가 갖고 있는 복합화소에서 나오며, 그 복합화소를 연계하여 단일화소를 이끌어내야 멀티유즈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약수의 장소마케팅에 따른 문화콘텐츠 콘셉트원형을 치유로 보고 고찰을 했다. 문화콘텐츠 콘셉트원형을 밝히기 위해서 개인약수터를 중심으로 향유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개인약수터의 장소의미, 장소신앙에 따른 신성성, 전설이 갖는 환상성, 약수의 기대심리에 대한 약수터의 이상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약수터라는 장소를 통해서 문화콘텐츠의 콘셉트원형이 나름대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곧 치유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개인약수터만이 갖고 있는 치유의 효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앙, 전설, 심리 등이 동원돼서 신성성, 환상성, 이상성을 콘셉트원형으로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나연, 「한국바둑설화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논문, 2012.2. 49, 53~54쪽.
- 김영,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광」, 『도시정보』278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1쪽.
- 김영순·윤희진, 「향토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17집, 인문콘텐츠학회, 2010. 331쪽.
- 김익숙, 「강원도 자료 보고서」, 『강원문화연구』13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4.9. 178쪽.
- 김익숙, 「강원도 약수 신앙과 설화」, 『강원도 민속 문화론』, 집문당, 1995. 344, 351~363쪽.
- 김익숙, 「물의 제의 연구」, 『강원인문논총』9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12. 45~6쪽.
- 김종희·최혜실, 『OSMU&스토리텔링』, 랜덤하우스, 2006. 10쪽.  
『동국여지승람』〈청주목〉조.
- 박기수, 「문화콘텐츠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국제어문』37집, 국제어문학회, 2006.
- 박기수, 「한국문화콘텐츠학의 현황과 전망」, 『대중서사연구』16호, 대중서사학회, 2006.12. 28쪽.
- 송운강 외, 『용뉴 및 개인약수 브랜드상품화 컨설팅 연구용역』, 인제군, 2013.12.
- 유영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 개발」,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05.8. 49~61, 133~4, 138쪽.
- 이은혜, 「장소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12.12. 7쪽.
- 이학주, 『아들 낳은 이야기』, 민속원, 2004. 130~1쪽.
- 이학주 외, 『북산면 사람들』, 춘천문화원, 2010. 330~1쪽.
- 이혜숙, 『몸이 좋아하는 건강여행』〈강원·경기편〉, 국일미디어, 2003. 108쪽.
- 이희곤, 「문화콘텐츠 기반의 도시마케팅 연구: 용산 미군기지 활용방향에 대한 모색」,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인제군사』, 인제군, 1996. 784쪽.
- 최룡관·리천록, 「천지전설」, 『두만강』제1호, 룡녕민족출판사, 1992.10. 54~9쪽.

최혜실, 「소나기의 OSMU방식과 문화콘텐츠로서의 잠재력」, 『OSMU&스토리텔링』, 랜덤 하우스, 2006. 76쪽.

※ 이학주 · 류시영 · 송운강, 「장소마케팅에 따른 문화콘텐츠 콘셉트원형 발굴시론: 인제군 개인약수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61, 국제어문학회, 2014.6.

## 6 상남리 방아다리마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 ■ 놀이의 원형

방아다리마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정월대보름에 마을행사를 했다. 아침에 산신당과 서낭당에 제의를 행하고, 음복례 겸 마을 축제가 벌어진다.

새마을운동을 할 때 마을 제의가 미신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부셨던 사건이 있지만 곧바로 마을제사는 재개되었다. 옛 전통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이 마을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다만, 마을 서낭당은 미신타파의 사건 이후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핑계로 산신당과 합해지기는 했지만,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의 음양론으로 존속하고 있다. 그것도 제주를 당 앞 땅에 묻어 사용하고 우물도 당 앞에 땅을 파서 사용하는 등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동제로 마을공동체의 연대감을 시작하여 널뛰기, 달집태우기 등으로 행사를 이어간다. 2008년 당시 채록한 정월대보름행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아주 많은 행사를 한다. 대보름 행사는 막국수를 누르고, 떡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달집태우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하루 동안 즐긴다. 달집태우기는 달이 뜰 때쯤에 하는데 집집마다 이름과 소원을 써서 달집 주위에 처진 새끼줄에 걸어서 같이 태운다. 장소는 마을 회관 앞이다. 일정을 자세히 보면, 10시에 퇴비시연회, 10시 30분에 떡치기와 민속토속음식(인절미와 절편), 11시에 새농어촌건설발대식, 12시에 막국수로 점심 먹고, 13시에 연날리기, 13시30분에 짚신삼기, 14시에 널뛰기, 14시 30분에 윷놀이 행사, 18시에 달님에 소원 빌기(달집태우기). 18시 30분에 지신밟기와 사물놀이 행사, 20시에 끝낸다.

이처럼 상남리 방아다리마을은 정월대보름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열고 있다. 이 행사는 어느 순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마을 전통을 이어오던 것이다.

### ■ 마을 소개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는 원래 기린면 지역이었다. 옛 기린현의 남쪽 위가 되므로 상남(上南)이라 하였다.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엄수동, 방아다리, 아홉사리, 자포대, 봉남대를 병합하여 상남리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그해 9월 18일에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이양에 따라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83년 1월 10일 기린면 상남 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상남면으로 편입되었다. 이 가운데 상남 3리가 방아다리 마을이다.

방아다리는 마을의 형국이 디딜방아 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이며, 실제로 이곳에 디딜방아가 있기도 했다. 다리 형국 사이에는 소(沼)가 있었는데 물이 많이 흐르면서 토사가 쌓여서 현재는 소가 없어졌다. 이는 사람에 비유하면 여성의 국부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곳 사람들은 방아다리라고 표현하였다.

마을에는 마의태자 이야기도 전승하고 있으며, 옆 마을에는 마의태자권역을 정해서 각종 시설을 해 놓았으며 매년 10월에 축제를 행하고 있다. 가까운 김부리와 갑둔리에는 마의태자 관련 지명과 유적이 있다.

마을에는 풍수적으로 피난지지라 하는데 실제로 6.25한국전쟁 때는 인민군이 들어와서 마을사람들을 죽이고 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한다.

## ■ 놀이의 유래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많은 풍속을 가지고 있다. 여름날, 가을날, 귀신날 놀이를 합하면 무려 일 년 세시풍속 중에 어림잡아 5분의 1은 될 것이다. 그만큼 정월대보름을 기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행사를 했다. 3일 동안 행하는 세시풍속이다. 물론 세시풍속이 일 년 365일 동안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월별 세시풍속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다. 그 원인은 이 시기가 농한기인데다가 대보름이라는 달 행사가 겹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상남리 방아다리마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때 가장 많은 마을행사 및 개인행사를 행한다. 그 행사가 흙다리산신제를 비롯해서 막국수, 떡, 부치기 등의 먹거리를 만 들어서 널뛰기, 달집태우기, 윷놀이, 연날리기, 짚신삼기 등의 행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행사는 너무나 오래 되어서 그 시원을 고구할 수 없을 정도다.

## ■ 놀이의 특색

상남면 방아다리마을의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이 지역만의 전통성을 띠고 있다. 사실 이 동네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 할 정도로 오지마을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어디나 그렇듯 찾길이 놓여 있지만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사람의 발품을 팔아야 하는 곳이었다. 그 때문에 방아다리마을은 방아다리마을 만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방아다리에 전승하는 민속 또한 어찌면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아다리마을의 흠다리산신제는 다리에 흙을 덮어 만들어 산신당까지 건너가서 붙여진 이름이다.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그렇게 놓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제의를 행하고 나서는 온 마을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날을 보냈다. 그런 행위가 현재까지 전승하는 마을행사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 방아다리마을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는 여러 콘텐츠는 모두 방아다리마을 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 무대

흠다리산신제터, 마을회관, 달집태우기터 등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40명

소 품: 낚은 옷옷, 산신제 터, 달집, 떡메, 옷놀이, 연날리기, 지신밟기, 막국수  
틀, 쫄면삼기, 금줄 등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출연진들 소품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간다.
- 대열을 맞추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지계에도 지고 등에도 지고 머리에도 이고 입장 한다.
-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이므로 농악도 올리면서 입장을 한다.

둘째마당 ⇒ 흠다리산신제 올리기

- 산신당 주변과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땅을 파고 불을 해 놓아 언 땅을 녹여 제주를 담근다. 그리고 주변에 금줄을 친다.
- 금줄을 쳐 놓은 산신당에 각각의 제의 준비를 해서 올라간다.
- 제당 앞에서 우물을 이용해 쌀을 씻어 메를 짓고, 시루떡을 찐다.
- 두 개의 산신당에 제물을 차리고 제관과 축관이 정성껏 제의를 올린다.

- 축을 읊고, 소지를 올리며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한다.
- 마을 사람들은 제관이 제의를 행하는 동안 앉아 있다가 간단한 음복을 하고 같이 마을로 내려온다.

#### 셋째마당 ⇒ 정월대보름놀이 낮행사

- 산신제를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제물로 올렸던 시루떡과 메 및 마리를 준비하여 음복 겸 아침밥을 먹는다.
- 퇴비시연회, 떡 치기 및 인절미와 부치기를 만든다.
- 막국수를 놀려 점심을 먹는다.
- 연날리기, 쫄신삼기, 널뛰기, 윷놀이행사를 낮에 행한다.

#### 넷째마당 ⇒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 저녁 어스름이 다가오면 준비해 둔 달집태우기를 행한다.
- 달집을 만들어서 각자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걸고, 달이 떠오르면 각자 두 손을 비비든가, 달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달을 맞이하면서 소원을 빈다.
- 이어서 농악대(농악대는 이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가 한바탕 놀고, 마을사람들의 소원이 월신(月神)에게 전달되도록 달집에 불을 놓아 태운다.
- 마을사람들의 축제가 최고로 진행된다.
- 마을사람들은 각자 주변을 돌며 마을에 동티가 없기를 기원하며 지신을 달래는 지신밟기를 행한다.
-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놀다가 마을의 대보름 축제를 끝낸다.

#### 다섯째마당 ⇒ 퇴장

- 퇴장은 형식을 갖추지 말고 각자 집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한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제관, 축관, 마을이장, 마을사람들 등

##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 〈상남면 방아다리 마을 흠다리 산신제〉

####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5년 2월 22일 9-15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방아다리마을

제보자: 임성재(49, 남):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이장. 초헌관.

민병렬(73, 남):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최계화(64, 여):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윤양순(65, 여):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김완철(68, 남):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아헌관.

김성렬(93, 남):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종헌관. 축관.

##### (2) 마을유래와 개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는 원래 기린면 지역이었다. 옛 기린현의 남쪽 위가 되므로 상남(上南)이라 하였다.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엄수동, 방아다리, 아홉사리, 자포대, 봉남대를 병합하여 상남리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그해 9월 18일에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이양에 따라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83년 1월 10일 기린면 상남 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상남면으로 편입되었다. 이 가운데 상남 3리가 방아다리 마을이다.

방아다리는 마을의 형국이 디딜방아 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이며, 실제로 이곳에 디딜방아가 있기도 했다. 다리 형국 사이에는 소(沼)가 있었는데 물이 많이 흐르면서 토사가 쌓여서 현재는 소가 없어졌다. 이는 사람에 비유하면 여성의 국부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곳 사람들은 방아다리라고 표현하였다.



방아다리 마을 할아버지당 진설장면  
(2009년 음력 8월 14일)

이곳의 가구 수는 102가구이며, 인구는 290명 정도 인데 남자가 260명이고 여자가 30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자가 적은 것은 학생들이 학교로 나가고, 젊은 이들이 직장 때문에 자주 나가기 때문이다. 집성촌은 아니며 모두 각성이다. 현재 이 마을은 다른 농촌과는 다르게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노층 각이 많다.

초등학교는 예전에 두 개가 있었는데 폐교가 되고 상남초등학교에 모두 다닌다. 교통이 좋아서 약간 멀지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서당이 있어서 대부분 한문을 수학하였다. 좌훈 보다는 번차를 주로 했다.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켜 낱을 잡아서 이집 저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서당이 열렸다. 훈장 어른은 마을에서 글 잘하는 어른을 세우기도 하고 외부에서 불러들이기도 하였다.

종교는 여러 종교가 있다. 교회에는 이 마을에 없고 상남에 있는데 몇몇 다니는 사람이 있다. 불교는 이곳에 절이 세 곳 있는데, 문안사 대곡사 대경사이다. 꽤 오래된 절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 행사에는 모두들 적극적이라고 한다.

농사 작물은 고추, 피망, 토마토, 콩, 옥수수, 배추, 무 등으로 다양하다. 이곳은 해발 700m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특히 고랭지 채소가 생산되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마을의 진산은 가득산인데 해발 1480M이며 명산이다.

마의태자가 지나다가 머문 곳이라 하여 마의태자 비도 세워 두었다. 참고로 상남리 옆의 김부리에는 마의태자비와 김부대왕각이 세워져 있다. 김부리는 오로지 김부대왕각과 비만 남아 있고, 군사 시설 관계로 온 마을이 다른 곳으로 이주 하였다.

민 씨 머느리의 열녀각이 하나 있다.

마을의 특징을 물었더니 <학진령>이라는 풍수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이곳에서 씨라는 사람이 살았다. 서 씨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묘 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다가 한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곳에 묘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장남한



할아버지당 장면(2005년)

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관 시간에 맞추어 묘혈을 파다 보니까 너래(넓적바위)가 나왔다.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바위 위에다가 어떻게 시신을 모시냐고 말이 많았다. 스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쓰라고 했는데, 그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래를 깨게 되었다. 너래를 깨자 그곳에서 학(鶴)이 나와서 날아갔다. 그래서 이 고개를 학진령이라고 한다. 스님이 시킨대로 너래를 깨지 않고 묘를 써야 하는데 너래를 깬기 때문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 2) 동제의 내용

### (1) 제당의 명칭과 형태

방아다리 마을의 동제는 정월 14일과 팔월 14일 오전에 행해진다. 일 년에 두 번 행해지고 있다.

산제당은 마을회관에서 뒤로 난 산으로 향해 약 1km 남짓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개울을 건너 150여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차도를 뒀아놓아서 제당 바로 앞까지 자동차가 갈 수 있다. 그곳은 제물을 장만할 충분한 공간과 소형트럭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꽤나 넓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데 한 겨울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이 물을 사용한다.

제의의 명칭은 “흠다리산신제”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제당”과 “할머니 제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할아버지 제당이 본당이고 할머니 제당은 할아버지 제당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치했다고 한다. 곧 산신도 남녀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서란다. 음양이 서로 어울려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할아버지 제당은 개울 옆의 제물을 장만하는 곳에서 산으로 약 5m정도 올라가서 위치해 있다. 마치 범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바위 밑에 다가 슬레이트로 지붕을 해서 덮고 밑에는 나무로 기둥을 해서 놓았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는 단은 시멘트로 평평하게 손질해 놓았다. 당 안에는 나무를 가로 놓고 한지를 걸어두었



방아다리마을 할아버지당 소지축원(2009년)

다. 당의 크기는 높이가 약 60cm정도이고 넓이가 약 1m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당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자란 많은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있다. 당의 위치가 비탈에 있으므로 그 밑에서 절을 할 때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절을 하게 된다. 산제당으로 오르는 길목은 계단식으로 닦아 놓았다.

할머니 제당은 할아버지 제당에서 개울을 건너 약 30m정도 내려가면 큰 소나무 앞에 설치해 두었다. 지붕은 역시 슬레이트로 했는데 이중으로 덮여있고, 그 밑에 돌을 쌓아서 양 벽을 만든 후 나무로 가로놓아 지붕을 엮었다. 크기는 할아버지 당보다 약간 작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 안 되는 제물이 꼭 들어찰 정도이다. 당 안에는 할아버지 당과 같이 나무를 가로놓고 한지를 걸어 두었다. 할머니 제당 주변에는 나무들이 뺨뺨이 들어차 있어서 어두컴컴하였다.

이곳은 산신과 성황당을 같이 모시므로 마을에는 산제당만 있고 따로 성황당이 없다. 옛날에는 수구막이라고 해서 마을 입구에 성황당이 있었으나 김성렬 웅이 성황신을 산신당에 같이 모신 이후로 성황당이 따로 없고 제의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 (2) 동제의 준비

### ① 제관(祭官) 선정

제관과 축관과 비서하는 사람 및 도가가 있다. 이들은 나이를 보아 생기복덕을 맞추어서 선별하며 혹시나 집안에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이로 바꾼다. 한 일주일 전부터 선정을 하는데 이에 선정된 사람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부정한 것을 하거나 보지도 말아야 하며, 집안에 달거리 하는 여인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한다.

2005년 정월 산신제에는 초헌관이 마을 이장 임성재(49), 아헌관이 마을 총무 김완철(68), 종헌관이 김성렬(93)이며, 축관은 김성렬 웅이 같이 맡았다.

여기는 도가가 셋인데 세 집이 몸을 정결히 하고 서로 협의하여 제물을 준비한다. 2005년 정월 14일 산신제에 도가는 황귀환, 장홍수, 장남운 맥이 하였다. 제물을 세 집이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집이 서로 의논하여 한 곳에서 만든다. 그리고 도가에는 따로 금줄을 치지는 않았다.

### ② 제비(祭費)와 제물(祭物)

제사 비용 마련은 마을의 호수마다 정성으로 만원 내지 2만 원 정도를 거두어서 사용한다. 이곳에는 통돼지를 잡아서 쓰기 때문에 제의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원래 돼지는 산신제를 지내는 날 아침에 산제당 앞에까지 몰고 가서 잡아서 제물로 쓰는데, 2005년 정월 대보름 산신제에는 날이 추워서 미리 잡아 손질을 해 두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털과 내장을 제거한 돼지를 가져갔다. 돼지를 선정할 때는 옛날에 비해 조금 느슨해 졌다. 옛날에는 아주 정성스럽게 키운 집에서 사왔다. 지금은 돈사에서 키운 돼지 중에 한 마리를 사와서 희생물로 쓴다. 돼지를 고를 때는



메 짓는 장면(2005년)

새끼를 낳지 않은 암돼지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아직 교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마치 옛날에 인신공희를 할 때 숫치녀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깨끗하고 신선하면서도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고 하였다. 돼지는 머리와 다리 한쪽을 올린다. 나머지 부분은 제의가 끝나고 음복할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구워 먹는다.

제기는 뚝그릇을 쓰는데 촛대, 향로, 메 그릇과 메 받침, 술잔과 술잔 받침에 국한되었다. 이 뚝그릇은 항시 이곳에 두었다가 쓰는 것 같았다. 처음 도착했을 때 보니 이미 그곳에 있었다. 나머지 제기는 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다만 돼지를 올리는 그릇은 쟁반을 사용하였다. 메는 술 채로 올려놓았다. 제를 지낼 때 술잔과 술잔 받침은 뚝그릇을 빼고 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떡을 잘 찌면 신이 흠향했다고 여기며, 메를 짓고 나면 그 위에 발자국 같은 것이 생겨서 구멍이 숭숭나고 하면 부정이 안타고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었다. 그러면 노인들은 만수무강하고 젊은이들은 건강하면서 하는 일 잘되고 풍년농사이론다고 하였다. 가을에는 팔월 14일에 농사를 잘 해 주어 고맙다고 또 지낸다.



떡찌는 장면(2005년)



떡의 경우도 떡 위에 어떤 현상이 나면 그렇게 생각했다. 떡은 팔 시루떡을 찌서 몇 조각을 잘라서 올렸다. 떡과 메는 산제당 앞에서 직접 찌고 지었다.

술은 원래 도가가 빚어서 할아버지 제당 밑에 묻어 두었다가 파내어서 제를 올리는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땅을 팔 수가 없어서 약주를 사서 썼다. 제당을 중심으로 아랫부분 양쪽에 술을 묻었다고 한다. 제를 다 지내고 나서 돼지를 잡았던 사람이 옛날에 묻어두었던 술을 찾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아, 그 술은 그때 이미 다 썼지. 지금까지 있는가?”라고 했다. 술을 빚을 때는 누룩하고 술이나 옥수수를 넣고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했다. 가끔은 소주도 묻어두었다가 파내어서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묻어두면 술맛이 아주 좋아진다고 한다.

산신제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북어포, 메, 팔 시루떡, 대추, 밤, 배, 사과, 수박, 물, 초콜렛 한 개를 위단에 올리고, 돼지 머리와 뒷다리를 각기 다른 쟁반에 놓은 것과 술과 향을 아랫단에 올려놓았다. 원래 아랫단은 제관이 절을 하는 곳인데 제물이 많아서 원래의 제단인 위단에 다 올리지 못해서 2단으로 제물을 올렸다. 그래서 실제로 제관이 절을 올릴 때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엉거주춤 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절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제당에 쓰는 제물은 할아버지 제당에 올렸던 돼지머리를 올리고 돼지다리는 따로 올리지 않았다. 메와 약주 및 떡 등만 새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쓰던 것을 그냥 올렸다.

### ③ 제수(祭需) 준비

방아다리 마을의 산신제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비교적 성대하게 치러지는 동제 중의 하나이다. 먼저 제관과 도가가 선정되면 흙다리 할아버지 산제당 앞에 금줄을 치고 청결한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한다. 제의에 쓰는 제물을 준비할 때도 쌀이며, 팥이며 깨끗한 것을 골라 정성을 들여 씻어서 사용한다. 돼지의 경우도 산신제를 지내는데 합당한 돼지를 골라야 한다. 과일이며 포 등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방아다리 마을의 산신제 금줄은 할아버지 제당 앞에만 친다. 할머니 제당에는 치지 않는다. 그리고 2005년 정월 열나흘 산신제 때에는 도가가 세 집이 선정되었지만 어느 한 집도 금줄을 치지 않았다. 도가의 경우는 금줄을 치기도 하고 치지 않기도 한다. 올해의 금줄은 할아버지 제당 앞에 약 10여m 정도로 원세끼에 한지를 군데군데 꽂아서 쳤다.

제수 비용은 위에서 보았듯이 마을 주민들이 정성으로 각 호수마다 1만원에서 2만



할아버지당 제물 진설 장면(2005년)

원 정도를 거두어서 사용한다. 예전에는 돈 대신 쌀을 거두어서 쓰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돼지를 잡기 때문에 제의 비용이 다른 마을에 비해 조금 더 들어간다. 제수 비용은 동네에서 미리 거두어서 제물을 마련할 때 사용한다.

제주(祭酒)는 원래 제의 며칠 전에 도가에서 담가서 할아버지 제당 앞에 묻어두었다가 사용하는데, 올해는 날이 너무 추워 땅이 얼어서 술을 묻을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파는 약주를 사서 썼다. 이곳에다가 마을에서 담군 술이 아니라도 묻었다가 먹으면 술 맛이 훨씬 좋다고 한다.

희생 돼지는 예전에는 마을에서 아주 정성을 들여 키운 것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몇 마리씩 마을에서 기르는 돼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량으로 기르는 돈사에 가서 사서 쓴다. 돼지를 선정할 때는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돼지로 한다. 원인은 사람으로 치면 숫처녀와 같은 것으로 신성한 제물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돼지가 선정되면 원래 제당 앞에서 잡아서 희생물로 바치는데, 올해는 날이 너무 추워서 미리 잡아서 사용했다.

메와 떡으로 사용하는 쌀은 새 것으로 아주 정결한 것으로 사용한다. 농사지는 쌀 중에서 가장 먼저 떠 놓았던 것을 떠서 사용한다. 이 쌀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현장에 가서 화덕을 걸어 놓고 메는 짓고 떡은 찐다. 메는 할아버지 제당과 할머니 제당에 바치는 것을 따로 술에다 한다. 떡은 팔 시루떡을 하는데 한 곳에 찌서 나누어 쓴다.

과일이며 포 등은 미리 시장에 가서 사다가 두었다가 사용한다.

음복 음식은 술과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뒤풀이는 원래 산제당 앞에서 하는데, 날이 늦어서 2005년 정월 열나흘에는 마을회관에서 상을 펴놓고 하였다. 뒤풀이 음식

은 산신제를 지내고 난 떡 외에도 사람이 많으므로 밥을 더 하고 국을 끓여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다.

### (3) 동제의 진행

#### ① 제의 절차

제당으로 들어오는 길은 매년 풀을 베고 제당 부근에도 말끔히 손질을 해 둔다고 한다.

제의를 하기 약 15일 전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이의 출입을 금한다. 금줄은 왼새끼에다가 한지 조각을 오려서 드문드문 끼워 두었다. 그 길이가 십여 미터가 넘게 할아버지 제당 앞에 양쪽 나무에 매어 두었다.

눈이 오는 관계로 제당 앞부분에다가 비닐로 포장을 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드럼통을 반으로 갈라 다리를 해서 세우고 그 안에는 숯을 넣어서 음복할 때 돼지를 구워 안주할 준비를 해 두었다.

처음 제당에 도착하여서는 빗자루로 제당과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빗자루는 그곳에다가 이미 만들어 두었다. 싸리 빗자루이다. 그리고 얼어있는 우물을 도끼로 얼음을 깨어서 준비하였다. 물은 아주 맑고 차다.

이 우물로 준비해 온 쌀가루와 팥을 쪄서 넣은 팥 시루떡을 화덕에 올려놓고 찌으며, 메도 할아버지 제당에 올릴 것과 할머니 제당에 올릴 것을 두 개를 하였다. 메물 역시 이곳의 우물을 바가지로 퍼서 양동이에 담아서 사용하였다.

제물로 쓸 돼지는 원래 이곳에 와서 잡아서 쓰게 되어 있으나 날씨가 몹시 추운 관



고사우물(2005년)



할머니당 진설장면(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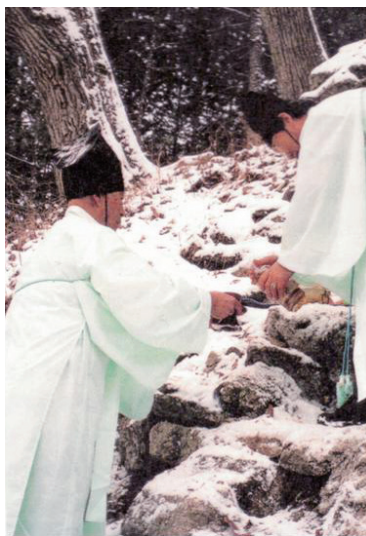
계로 도가에서 잡아서 내장과 털을 손질을 해서 가져왔다. 가져올 때는 간과 염통을 통돼지와 함께 차에 싣고 가져왔다. 이곳에 와서 칼로 돼지 머리를 자르고 다리 한 짝을 잘라서 제물로 쓰고, 나머지는 도끼로 자잘하게 썰어서 나중에 음복할 때 구워 먹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제물이 완성되자 진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진설을 할 때 위의 제물 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사른 후에 제의가 진행되었다.

제의의 순서는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이 배례를 하고, 잔을 올리고, 축 읽고, 소지 올리고, 음복하는 순이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방법이 같다고 한다. 초헌관은 마을 이장 임성재(49) 씨이고, 아헌은 집사가 하고, 종헌은 노인회장이 한다. 노인회장은 김성렬(남, 93) 옹이고, 집사는 총무로 김완철(남, 68) 옹이다. 이날은 눈이 많이 와서 소지 올리는 것은 생략을 했다. 제의 시간은 마을에서 오전 10시에 올라오기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러 준비를 하여 약 12시 경에 시작하였다. 제의를 할 때 흘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

이때 두 번의 제의가 있는데, 첫째는 할아버지 제당에서 행한다. 할아버지 제당에서 할 때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절차를 아주 잘 이행하며 경건하게 진행한다. 모든 제관들은 제의 복장을 갖추어 입고 임했다. 기본적인 제의 절차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제당을 향해서 절을 두 번 반씩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였다.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제의 준비를 하던 아주머니들이 절을 하고 축원을 한 다음 끝났다.

할아버지 제당에서 제의가 끝나자 제의 복을 벗어놓고 개울 건너 할머니 제당으로 모두들 향했다. 할머니 제당에서도 촛불 하나를 밝혀놓고 향을 사르고, 포, 배, 사과, 메, 대추, 밤을 놓고, 돼지는 할아버지 제당에서 지내던 머리만 갖다가 놓고 입에다 나무젓가락을 꽂아놓았다. 돈은 필자가 놓은 것이다. 그리고 메는 솔 채로 놓는데 뚜껑을 열어 놓고 제를 지냈다. 술은 역시 약주를 썼고, 단잔 재배



할아버지당 제주 올리는 장면(2005년)





할머니당 소지축원(2009년) (사진제공 최종익)



방아다리마을 산신제 고사우물 앞에서 제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2009년)(사진제공 최종익)

로 제의가 끝났다. 처음 잔을 올리면서 김성렬(남, 93) 할아버지가 “을유년 정월 열나흘 정성 드립니다.”라고 하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축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몇이서 하였다. 이미 할아버지 제당에서 제의가 끝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복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할머니 제당에는 참석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할머니 제당에서 제의가 끝나자 제당 오른 쪽에 준비해 두었던 하얀 사발에다 음식을 조금씩 뜯어서 담아 놓았다. 이 음식을 버리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나머지 제단에 올렸던 음식은 다시 거두어 왔다.

할아버지제당과 할머니제당에서 제의절차가 모두 끝나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바비큐 판에다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음복을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철수 준비를 하였다. 눈이 오지 않으면 이곳에서 뒤편이를 한다고 했으나 눈이 많이 와서 마을회관에서 뒤편이를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음복을 끝내고는 모두들 짐을 챙겨서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회관에 오니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이 뒤편이를 할 음식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는 대로 차려진 음식상 주변으로 둘러앉아 한담을 나누면서 맛있게 음식을 들었다. 이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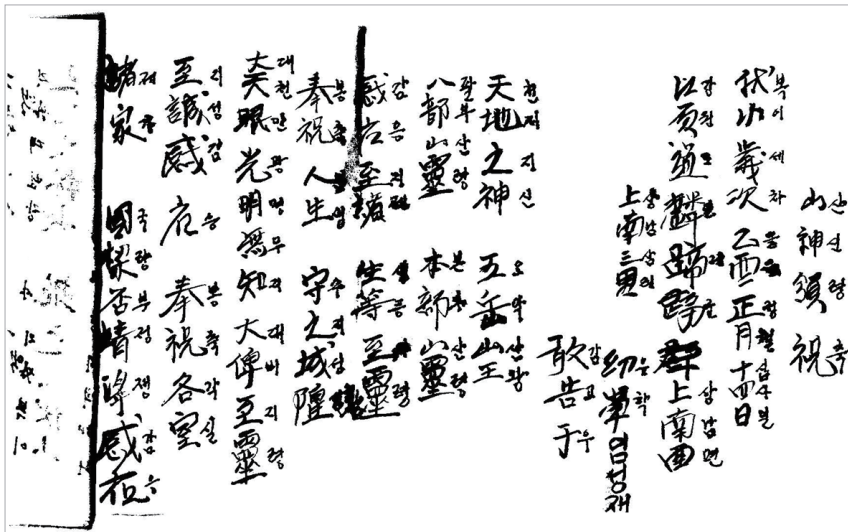
할머니당 배례 장면(2005년)

간이 약 오후 2시 가량 되었다.

방아다리마을은 음식 준비할 때부터 동네 아주머니 넷이서 같이 하였다. 아주머니들이 팔 시루떡을 찌고 메를 하였으며 뒤풀이 준비를 하였다. 복장은 한복을 갖추어 입고 앞치마를 했으며 날씨 탓에 두꺼운 겂옷을 하나씩 걸쳐 입었다.

## ② 축문

축문의 규격은 세로 17cm이고 가로 80cm이며, 종이는 한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글씨는 붓으로 썼는데 한글과 한자를 병행했다. 먼저 한글을 쓰고 그 옆에 한자를 썼다. 어느 축문이나 마찬가지로 상남 3리의 경우도 그 주요내용은 많은 신을 부르 고 나서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나쁜 재앙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다. 가끔 불교 적 색채가 짙게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지역보다 그 내용도 상당히 길게 나열되었다. 축문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 상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 쓰고, 한자 와 한글을 따로 기록하도록 하겠다.



상남면 상남3리 방아다리 산신제 축 앞부분(2005년)

## 山神靈祝

### 산신령축

伏以 歲次乙酉正月十四日

복이 세차을유정월십사일

江原道 麟蹄郡 上南面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上南三里 幼學 임성재

상남삼리 유학 임성재

敢告于

감고우

天地之神 五岳山王

천지지신 오악산왕

八部山靈 本部山靈

팔부산령 본부산령

感應至諸 生等至靈

감응지제 생등지령

奉祝人生 守之城隍

봉축인생 수지성황

大天眼 光明無知 大俾至靈

대천안 광명무지 대비지령

至誠感應 奉祝各室

지성감응 봉축각실

諸家 國樑否靖諍感應

제가 국량부정쟁감응

奉祝伏以之 一切衆生無量

봉축복이지 일절중생무량

功德感應 奉祝願明靈

공덕감응 봉축원명령

之下諸生等 三灾九橫之厄

지하제생등 삼재구횡지액



水火木土 之厄牛馬失物  
 수화목토 지액우마실물  
 之厄田畝破落 之厄隣里  
 지액전답파락 지액인리  
 不和之厄 子孫短壽  
 불화지액 자손단수  
 之厄大林長 蛇之厄伏以  
 지액대림장 사지액복이  
 神靈之下 諸兇殺之厄海外  
 신령지하 제흉살지액해외  
 速出至誠 奉祝天眼  
 속출지성 봉축천안  
 光明大慈大俾 一体衆生  
 광명대자대비 일체중생  
 無量功德 安過泰平  
 무량공덕 안과태평  
 至誠奉祝 繼歲諸生  
 지성봉축 강세제생  
 流垂功德 山輕水博  
 유수공덕 산경수박  
 天高地下明明 之位不言奉祝  
 천고지하명명 지위불언봉축  
 敢以庶羞 佛哭小饌  
 감이서수 불곡소찬  
 玄酒小飾小芬 一哭伏願  
 현주소식소분 일곡복원  
 成祝飲之尙  
 성축음지상  
 饗  
 향

## 〈번역〉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엎드려 비옵나니. 해가 바뀌어 을유년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에 사는 임성재는 감히 고합니다.  
천지신 오악산왕 팔부산령 본부산령 님  
감응하여 모두 이르렀고 생등에게는 존령들입니다.  
우리들이 봉축하오니 성황신께서는 지켜주십시오.  
큰 천안과 광명을 알지 못하고 크게 존령께 복종합니다.  
지성으로 감응을 바라니 집집마다 봉축합니다.  
모든 집과 나라의 대들보에 조용히 감응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봉축하오니 모든 중생은 한량이 없습니다.  
공덕에 감응하십시오. 밝으신 신령을 봉축합니다.  
아래에 사는 모든 생등은 3재9황의 액과  
수화목토에서 우마를 잃는 액과  
논밭이 파괴되고 떨어져 나가는 액과 이웃의 액과  
불화의 액과 자손의 짧은 수명과  
큰 수풀이 자라는 액과 뱀의 액을 엎드려 비오니  
신령의 아래에 있는 모든 홍살 액을 바다 밖으로  
속히 쫓아내기를 지성으로 빕니다.  
받들어 천안께 축원하오니  
광명과 대자대비로써 일체 중생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안과태평하게 해 주십시오.  
지성으로 봉축하오니 해마다 모든 사람에게  
물 흐르듯이 공덕을 내리시어  
산처럼 가볍게 물처럼 넓게 하십시오.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밝게 하시니  
위치하신 곳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봉축합니다.  
감히 여러 음식을 진설하고 부처님께 올면서 소찬을 올립니다.  
맑은 물과 작은 장식과 작은 향을 놓고

한번 울고 엎드려 원합니다.  
그걸 마시도록 축원하오니  
신명께선 제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을 고하고 나서 축관이 다음과 같이 노래와 같은 사설을 하였다.

“산신님 전 이 정성 저 정성하고, 성황님 전에 다가 정성 올리오니 흠향 받자 하옵  
시기를 복문 하옵나이다.”

이처럼 축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작성되었는데, 글자가 중간에 약간씩 이상하며  
해독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다. 축문을 읽을 때 두루마리를 풀듯이 감겨진 것을 한 쪽  
으로 풀어가면서 하였다.

#### (4) 영험담

동제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동제를 지내고는 이곳에서 비명횡사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한다. 곧 교통사고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동제의 덕택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을에는 90세 이상 된  
노인이 많이 살고 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낭비를 한다고 해서 산신제며 마을 성황제를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촌사람들이 괜히 밥이나 해서 버리며 일은 안하고  
시간 낭비만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뜻은 마을의 산신제나 성황제를 지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  
해서 천렵을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술타령만 하면서 청년들이 놀기만 한다고 한 것  
인데, 글썄 어떤 사람이 아예 올라가서 성황당을 때려 부수고 그곳에다가 “이 성황당  
을 복원하는 사람은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써 붙여 놓았다. 산신과 성황신을 모시  
는 것은 방탕하게 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을과 개인이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성렬 옹이 올라가서 다시 돌을 들어 올리고 하여 성황당을 복원 하였다. 그  
리고 나서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그 뭐 신이 있기는 있습니다.” 점잖은 노인이 옛날  
대신들이 입은 그런 관복을 입고 나타나더니만 “글썄 오늘 어떤 놈이 나 집을 부셔서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네가 와서 이렇게 잘 해줬구나.”라고 꿈에 현몽을 하였다.

그리고 이 밑에 “수구당”이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소도 갔다가 매고 해서 소똥이며 개똥이며 막 흠어져 있었다. 그래서 김성렬 옹이 “성황님 제가 산신님 계신 곳에 같이 모셔드릴 테니 그곳에 가서 깨끗한 곳에 같이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산신님께 모셔드렸다. 그랬더니 역시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영통하지는 않지만 “집을 지어줘서 고맙다.”고 하였다. 단지 그것뿐이다.

오늘은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소지를 올리지 못했지만, 예전에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가 위로 잘 올라가야 하는데 오르지 못하고 똑 떨어지면 그 집이 뭐 앓든지 하였다. 소지를 올릴 때는 집집마다 대주 이름을 쳐들면서 한다.



할머니당 장면(2009년) (사진제공 최종익)

#### (5) 동제의 운영과 결산

제의의 비용은 마을에서 해마다 거두어서 사용한다. 행사비용은 자신들의 정성이 들어가므로 언제나 넉넉하게 거둔다. 남으면 다음 제의 비용으로 쓴다. 이 비용은 마을의 총무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돼지 가격은 해마다 다르므로 가격이 매번 다르다.

올해의 경우는 제수비용이 16만원 돼지가 35만 원해서 약 52만 원정도 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 5천원, 배 만5천원, 대추 6천원, 수박 만2천원, 밤이 4천원, 정종이 한 병 9천원이 들고, 그밖에 소지, 쌀, 초, 향 등해서 16만 원정도 들었다.

제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므로 뭐 잘 차렸다느니 못 차렸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면 모두 정성으로 하는데 얘기할 것이 있냐고 하였다. 그리고 매년 정월 14일과 팔월 14일 같은 날에 치러짐으로 차후의 계획을 의논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 회관에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한담을 하면서 정월 대보름에 있을 마을 행사 이야기를 한다.

### 3) 동제의 특징

마을 산신제를 하는 목적은 예부터 해오던 행사이므로 전통을 잇는다는 의미와 마을의 안녕과 평화와 단합에 있다. 그리고 시골에서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이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행해진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마을 공동의 기원과 개별적인 기원을 한다. 이 기원은 소지를 올릴 때 행하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리는 관계로 소지를 올리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모두들 기원을 했다. 이 기원은 정월 대보름 날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다시 하면 된다. 원래 이 기원은 개인적인 기원이 나중에 마을 단위로 바뀌었다.

방아다리 마을의 산신제는 남녀가 같이 참가한다. 제의를 주관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남자들만 하는데, 메나 떡 같은 제물을 만들 때는 같이 한다. 그리고 나중에 제당에 가서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곤 한다.

외지에 있는 사람은 제의를 지내기 위해 직접 이곳까지 오지 않고, 이 마을에 이사를 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을 제의에 동참한다.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는 말로 한양 서울부터 쳐들면서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곳 방아다리마을은 산신과 성황신을 따로 모시지 않고 한 곳에다가 모신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인데 왜 한 곳에 모시지 않고 따로 두느냐고 하여 김성렬 옹이 마을 밑에 있던 성황신을 산신이 계신 곳으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있던 “수구당”이 없어졌다. 이 수구당이 곧 성황당이였다. 수구당이 마을에 같이 있다가 보니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소를 매놓고 동네 개들이 그 옆에 똥을 싸고 해서 매우 지저분했다. 옛 사람들은 성황당에도 제의를 하고 산신당에도 했다. 그 역사는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곳 산신당을 “흙다리산신당”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지금 산신당이 있는 곳에 나무와 흙으로 만든 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

정월 대보름에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아주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한다. 대보름 행사는 막국수를 누르고, 떡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달집태우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하루 동안 즐긴다. 달집태우기는 달이 뜰 때쯤에 하는데 집집마다 이름과 소원을 써서 달집 주위에 처진 새끼줄에 걸어서 같이 태운다. 장소는 마을회관 앞이다. 일정을 자세히 보면, 10시에 퇴비시연회, 10시 30분에 떡치기와 민속토속음식(인절미와 절편), 11시에 새

농어촌건설발대식, 12시에 막국수로 점심 먹고, 13시에 연날리기, 13시30분에 짚신 삼기, 14시에 널뛰기, 14시 30분에 윷놀이 행사, 18시에 달님에 소원 빌기(달집태우기). 18시 30분에 지신밟기와 사물놀이 행사, 20시에 끝낸다.

김성렬 옹은 이 마을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피난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구술에 따라 풀어 본다.

구한말 이곳에 김 진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김성렬 옹의 아버지도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의 관직을 빼앗고 모두 쫓아냈다. 김 옹의 아버지도 그때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 진사와 김 옹의 아버지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여기 문안의 오십 리에 피난처가 있다는데, 그래 서울서 오십 리가 어찌 피난처가 될 수 있냐고 자꾸 그랬다.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땐가 김 옹의 아버지가 이곳에 왔다. 그때 어떤 이가 와서 문안에서 왔다고 하니, 어디가 문안이나고 김 옹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랬더니 여기 저 위가 문안이라는 데가 아닙니까? 하였다. 그랬더니 김 옹의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가 바로 피난처구나 하면서 김 옹을 보고 너 자손들이 나면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서 살아라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후 6.25병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인민군이 들어와서 죽이고 한 일도 없었다고 한다.

#### 4) 문헌자료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방아다리의 산신제>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上南面 上南3리는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방아다리는 2반에 속한다. 이곳은 마을을 가려지르는 큰 개울이 있고 이를 건너다니기 위한 다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방아다리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에 산신제를 올리는데 그 날짜는 정월 14일과 8월 14일로 정해져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목적은 산신께 정성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신수를 좋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며,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기 위한 것이라 한다. 마을 뒤 개울을 건너 제당골에 오르면 빼곡한 잡목 숲 사이로 시멘트로 벽을 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두른 산신당이 있다. 이곳은 뱀이 많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 일이 적다고 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나이를 짚어 생기에 맞는 이를 골라 제관과 도가로 선출한

다. 이들이 산신제를 주관하게 된다. 요즘에는 이장이 지목하는 이가 제관과 도가를 지내게 되는데, 대체로 동네에서 나이가 지긋한 이가 맡게 된다고 한다. 동네에서 얼마간의 돈을 걷어 제비를 마련해 주면 도가가 장에 나가 제수를 준비한다. 예전에는 쌀을 걷어 제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제물로는 정한수와 메, 돼지머리와 간, 염통을 놓고 포와 과일을 올린다. 따로 술을 담가 올리기도 했으나 요즘은 사서 쓴다. 돼지도 제일에 잡아 쓰는 것이 원칙이나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장에 나가 산신제에 쓸 것이라 특별히 주문하여 고기를 받아다 쓴다.

제일 새벽이 되면 마을 사람 모두가 제당에 올라간다. 제관과 도가가 제당 근처에 불을 피우고 메를 짓는다. 술을 준비해 가서 미리 돼지머리를 삶고 탕을 끓여 제상에 올린다. 제의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다른 마을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마을의 안녕과 단결을 부탁드리는 내용의 축원과 절이 제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사의 모든 절차는 제관과 도가가 주관하고 마을 사람들은 제당 주변에서 참관한다. 제사를 잘 받으셨느냐는 소지를 올리고 아울러 마을의 한 해 운수를 묻는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제는 끝이 나고, 모였던 이들이 음복을 하게 된다. 제보자는 떠들썩한 마을 잔치였던 산신제가 요즘은 옛날만 못하고 정성도 그만 못하다며 안타까워하였다. 동리의 나이 지긋한 이들은 ‘지금도 지당골에서 까마귀가 울어대면

마을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고, 산신제의 규모가 축소되고 정성이 옛만 못하다는 점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한다.<sup>1</sup>

※ 이학주, 『인제인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1 남금우 · 박신정,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박물관, 1996), 98-9쪽.



## 7 용대리 황태덕장 생업민속놀이

### ■ 놀이의 원형

연구에 의하면 황태는 북한의 동해안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만들어오던 우리의 전통 음식재료이다. 동해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명태의 서식지로 최적지였다. 그 때문에 동해어장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 중의 하나였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태에 대한 작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곧,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의하면 조선조 인조 때 쯤, 함경도 관찰사 민 모 씨가 명천군(明川郡)에 초도순시를 했을 때 반찬으로 내놓은 생선이 담백하고 맛이 좋기에 이름을 물었더니 명천에 사는 태(太) 씨 성의 어부가 처음으로 잡아온 고기라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명천의 명(明)자와 태(太)씨 성을 따 명태(明太)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전해진다.

명태는 고기가 워낙 많이 잡힐뿐더러 맛도 좋아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명태(明太), 간태(杆太), 건태(干太), 건태(乾太), 골태, 그물태, 난태(卵太), 황태(黃太) 등을 비롯하여 50여 가지나 된다.

아울러 젓갈도 귀세미젓, 명란젓, 서거리젓, 창란젓 등이 있으며, 무엇이든 버리지 않고 모두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물고기이다.

그 가운데 황태는 강원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가공 식재료이다. 이는 남한에서는 최초로 시작된 황태덕장이 인제군 용대리이기 때문이며, 이어서 대관령 황계와 태백 동점동, 삼척 하장 등지에서 황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용대리의 경우는 남한에서는 6.25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황태가 만들어진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생업민속으로써 훌륭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놀이로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의 생업을 보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놀이가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 동북지방에서 대형으로 황태덕장을 만들어서 박리다매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 나중에 세월이 오래되면 아리랑이나 김치처럼 국적을 따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황태생업민속놀이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 마을 소개

용대리는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래서 바람 풍(風)자를 써서 풍대리라 하기도 한다. 내설악 대부분이 용대리에 속할 정도로 그 형상도 아름다운 마을이다. 진부령, 소간령, 미시령이 모두 용대리에 속해 있으며, 백담사라는 유명한 고찰도 용대리에 있다.

용대리는 용이 하늘로 솟아올랐다는 용터마을이다. 용이 사는 곳은 물도 있어야 하는데,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강을 이뤄 남북천을 이뤄 용대리를 관통하고 있는데, 강바닥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만큼이나 또 다른 경관을 자랑한다. 그 때문에 강을 따라 만해 한용운 문학관을 비롯하여 여초서예관 및 시집박물관 등이 있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름이면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연일 가득 찰 정도로 글램핑과 오토캠핑이 가득 차 있다.

특히 소간령, 미시령, 진부령, 마등령의 고개는 영너머 고성, 양양, 속초와 문물을 교환하던 중요한 지리적 공간이었다. 그 때문에 소간령에는 장이 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갔으며, 산적 및 오세암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풍부하다. 사람이 많이 찾다 보니 시인묵객들도 많이 찾았고,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글도 많은 곳이다.

무엇보다 진부령으로 통하는 계곡은 바람이 아주 많은 곳이다. 풍대리라는 별명이 전하는 것만큼이나 찬바람이 연일 분다. 설악산이라는 산을 끼고 있고 바람도 심하기 때문에 추위와 바람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 때문에 황태를 남한 땅에서는 가장 먼저 건조시켰던 장소로 유명해 지게 되었다.

## ■ 놀이의 유래

황태덕장생업민속놀이는 그 유래가 6.25한국전쟁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피란길에 올랐던 함경도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 모여 살던 곳이 속초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였다. 그 가운데 고향에서처럼 바다에서 명태를 잡고 명태에 의지해서 생업을 이어갔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겨울철 황태를 생산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진부령을 넘어 인제군 용대리였다. 용대리는 바람도 잘 불고 추위도 알맞았다. 그래서 함경도 고향에서 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용대리에 하나둘 모여 덕목을 날라 덕장을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남한 황태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황태는 별비 중의 별미이며, 바삭 말랐기 때문에 보관도 오래 되었

다. 그 때문에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졌다. 황태해장국, 황태탕, 황태구이정식, 황태조림, 황태정식, 황태구이, 황태무침, 황태전, 황태과전, 황태전골, 황태찜, 황태버섯전골 등 정말 다양한 요리가 선을 보였다. 다양한 요리가 개발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다. 먹거리 재료로써 인기가 많으니, 더욱 황태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 인제군과 용대리는 이를 더욱 알리고자 황태축제를 열었으며, 더욱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자 황태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황태는 이 지역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생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겨울에는 거의 대부분 인력이 황태를 만들고 가공하는 일에 종사할 정도이다.

## ■ 놀이의 특색

용대리 황태덕장생업민속놀이는 용대리에서 황태를 덕장에 넣어 말리는 과정을 다룬 생산민속에 관한 놀이이다. 곧, 덕장을 중심으로 황태 만드는 과정을 놀이로 만든 것이다. 황태덕장의 일은 엄청 고된 노동이다. 그것도 추운 겨울 손은 얼어터지고 동상이 오며, 찬바람을 얼굴로 맞으며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주변에 해놓은 손 녹이는 결불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몸이 추위에 얼어 움직이지 않을 때면 결불이 주는 위안이 대단하다. 그 때문에 노래를 한다거나 참을 덕장에서 먹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가끔 추위와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유일하다.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따뜻한 모자를 쓰고 일을 한다.

이처럼 황태덕장에서 하는 일은 아주 고된 작업이다. 이를 생업민속놀이로 만든 것이다.

## ■ 무대

황태덕장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20~30명

소 품: 황태, 덕장, 칼, 할복, 다라이, 결불 등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입장은 아주 자연스런 분위기로 한다.
- 농악을 하거나 풍악을 울리지 않는다.

둘째마당 ⇒ 할복장에서 명태 손질하기

- 화주가 명태를 사오면 할복장에서는 명태의 배를 갈라 내장을 뺀다.
- 내장을 뺀 명태를 깨끗한 물에 씻는다.
- 내장을 제거한 명태를 덕장으로 나른다.
- 1급(젖은 상태의 명태 20마리)씩 코를 꿰어서 얼음물에 넣어 하루 저녁 재운다.

셋째마당 ⇒ 덕장만들기

- 명태를 할복장에서 손질하는 동안 덕목으로 엮어 덕장을 만든다.
- 덕장을 엮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조립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덕장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만 한다.

넷째마당 ⇒ 황태 넣어 말리기

- 황태가 잘 되기를 바라며 고사 내지는 무당의 굿하기
- 덕장 일을 하는 사람의 복장을 그 역할에 따라 분명하게 한다.
- 옆에 걸불을 피우고 막걸리 통도 몇 개 놓아둔다.
- 얼음물에 넣어 재운 명태를 끄집어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명태를 덕장에 낸다.
-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준비한 덕장에 명태를 가득 건다.
- 실제로 명태를 몇 번에 걸쳐 물에 적서 얼렸다 말렸다를 반복하는 행위를 한다.
- 이듬해 봄 잘 만들어진 황태를 수확한다.

다섯째마당 ⇒ 퇴장

- 덕장에 열었던 황태를 모두 철거하고, 덕장도 철거하여 퇴장을 한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덕장주, 화주(貨主), 덕장노동자 등

##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 〈명태의 유래〉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의하면 조선조(인조때 쯤) 함경도 관찰사(민모 씨)가 명천군(明川郡)에 초도순시를 했을 때 반찬으로 내놓은 생선이 담백하고 맛이 좋길래 이름을 물었더니 명천에 사는 태(太)씨성의 어부가 처음으로 잡아온 고기라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명천의 명자와 태씨 성을 따 명태(明太)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인제 황태축제 즐기기〉

인제의 용대리황태축제는 매년 2월 말에 북면 용대3리 삼거리를 거점으로 치러진다. 겨우내 눈맞으며 얼었다 녹았다 꾸덕꾸덕 말린 황태가 딱 좋게 말랐을 때이다. 주변경관이 수려한 광장에서 공식행사를 비롯, 황태놀이체험, 요리와 시식, 문화체험행사, 전시이벤트, 그리고 황태마을 장터도 열린다. 난타공연과 무용단공연을 보고나서 황태라면, 황태강정 같은 흥미로운 요리체험도 할 수 있고 황태탕 썰기, 덕장체험, 황태투호던지기 등 황태와 함께 하는 놀이, 그 외에 떡메치기 같은 다양한 문화체험도



용대리 덕장

준비되어 있다. 맛과 멋이 함께 있는 용대리황태축제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향토 축제임에 틀림이 없다. 황태는 원래 함경도 원산이 주산지였다고 한다. 원산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의 음식을 되살려내려고 노력한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이다. 좋은 황태 만들기의 필수요소인 강추위와 눈을 찾아서 강원도 전역을 찾아 헤메다가 발견한 곳이 용대리라고 한다. 이곳은 진부령과 미시령이 만나는 지점이라 눈이 흔하고, 독특한 기압구조를 하고 있어서 주변지역보다도 기온이 낮다고 한다. 용대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정도는 유독 추운 날씨를 보여준다니, 신이 우리에게 황태를 선물하기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닌가 싶기까지 한다. 속살이 보송보송 부드럽고 표면이 노랗게 일어나는 고소한 황태가 되려면 4개월 동안 얼었다 녹았다는 20번 이상 반복이 되어야하는데 최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꽤나 까다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한다. 명태를 말리는 동안 기온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지면 안 되고, 영하 15℃~영상 2℃ 사이를 꾸준히 유지해야한다고 한다.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살이 썩어버리고 너무 세게 불면 살이 딱딱해진다. 북어는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수도 있지만 황태는 영양소가 4배나 더해진다. 숙취해소와 간장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연탄가스에 중독되었을 때 황태국물을 먹이기도 했다고 한다. 요즘엔 임산부들과 노인들의 보양식으로도 애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 황태를 생산하는 용대리 사람들의 자긍심은 클 만도 하다. 황태덕장에서 마치 자기들의 몸값을 높혀 준다는 걸 알고 눈보라와 칼바람을 묵묵히 견뎌내기라도 하는 듯 보이는 황태들의 요지부동함에서 결연함마저 느껴진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축제 한마당을 탄생시키기도 하니 이름이 하나 더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설악산 스토리텔링』)

### 〈명태의 명칭 및 황태〉

명태(明太): 명태를 총칭하는 명칭.

간태(杆太): 강원도 간성 앞바다에서 잡힌 명태.

간태(干太): 명태업자들이 부르는 동건 명태.

강태(江太): 11월 경 강원도 연해에서 잡아 동건(冬乾, 얼려 말린)한 질이 나쁜 명태.

건태(乾太): 명태업자들이 부르는 동건 명태.

골태: 속살이 딱딱하여 부드럽지 못한 황태.

그물태: 망태의 다른 말. 그물로 잡은 명태.

금태(金太): 잘 잡히지 않아 귀하다고 하여.

깡태: 기온이 높아 얼리고 부풀리기가 안 돼 바로 건조된 황태.

걱태: 산란하여 살이 별로 없이 뼈만 남은 명태.

낙태(落太): 건조과정에서 부주의로 땅에 떨어진 황태.

난태(卵太): 산란 전에 알을 뺀 상태로 잡은 명태.

냉동진공태: 공장에서 기계로 급속하게 얼리고 부풀려 말린 푸석한 명태.

노가리: 명태 새끼. 앵치라고도 한다.

더덕북어: 1월 중 신포(新浦)에서 잡아 동건한 어육(魚肉)이 노랗고 부풀부풀한 가장 좋은 마른 명태.

동지(冬至)바지: 동지 전후에 찾아오는 명태.

동태(凍太): 얼린 명태.

막물태: 마지막 어기(漁期)에 잡은 작은 명태.

망태(網太): 그물로 잡은 명태.

먹태: 기온이 높아 색깔이 검게 변한 황태.

매가리: 강원도와 서울에서 25cm 내외의 생명태 또는 건명태를 지칭.

무태어(無泰魚): 함경도 명천의 토산물로 알려짐.

무두태(無頭太): 머리를 떼고 몸통만 건조시킨 것.

바닥태: 바람태. 해안에서 바람과 햇볕으로 빨리 건조시킨 것.

백태: 기온이 지나치게 추워 얼어붙어 살이 희게 변한 황태.

북어(北魚): 말린 명태. 북방에서 온 고기 또는 북방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

북태(北太): 일본 북해도에서 수입되던 명태.

북홍어(北蕨魚): 얼려 말린 최상품의 명태.

생태(生太): 얼리지 않은 싱싱한 명태.

선태(鮮太): 신선한 명태.

선달바지: 음력 12월부터 떼를 지어 오는 명태.

애태: 애기태. 작은 명태.

염태(鹽太): 간명태. 소금에 절인 명태.

왜태: 아주 큰 명태.

원양태(遠洋太): 원양어선에서 잡은 명태.

은어바지: 은어(도루묵) 떼를 쫓아 내유(來游, 찾아오는)하는 명태.

조태(釣太): 낚시로 잡은 명태.

진태(眞太): 동해안 근해에서 잡은 명태. 원양어선과 구분.

짝태: 내장을 빼고 소금에 절여 넓적하게 말린 명태.



전태: 덕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 육질이 흐물흐물해진 황태.

추태(秋太): 가을에 잡은 명태.

춘태(春太): 봄에 잡은 명태.

코다리: 명태의 내장을 빼고 반쯤 말린 것.

통태(統太): 내장과 같이 건조시킨 황태.

파태(破太): 건조 과정에서 흠집이 생긴 황태.

황태(黃太): 거울에 말려 색이 누렇게 된 명태.

월별명태: 함경도 지방에서는 월별로 잡히는 명태를 一太, 二太, 三太 … .

크기에 따라서: 대태(大太), 중태(中太), 소태(小太), 왜태(倭太), 아기태 등

속담 “명태가 잘 잡히면 사찰의 승려까지 평안히 보낸다.”(『내설악 그 명승에 빠지다』)

〈명태로 만든 젓갈〉

귀세미젓: 명태의 머리로 만든 젓갈.

명란젓: 명태의 알로 만든 젓갈.

서거리젓: 명태의 아가미로 만든 젓갈.

창란젓: 명태 내장으로 만든 젓갈.

# 황태 덕장 연구

김 의 숙

## Contents

- |           |               |
|-----------|---------------|
| 1. 머리말    | 4. 황태의 산업적 기능 |
| 2. 명태와 민속 | 1) 황태사업       |
| 3. 황태덕장   | 2) 황태음식       |
| 1) 덕장의 조건 | 5. 결론         |
| 2) 덕장의 위치 |               |

## 1 머리말

강원도는 동해를 끼고 있어서 해안선을 따라 어촌이 형성되어 있다. 동해안 어촌의 주업은 오징어잡이와 명태잡이인데 어획의 다소가 어촌의 경제를 좌우한다. 현재 어촌의 경제사정은 어족이 고갈되어 어획량이 매년 줄고 더구나 IMF시대를 맞아 기름 값의 상승과 어가(魚價)의 하락으로 지극히 열악한 상태이다.

어민들은 오징어와 명태를 잡아서 공판장에 내다 판다. 연안에서 잡은 것은 싱싱한 채로 팔지만 원양어선에서 잡은 것은 냉동상태로 판다. 또 오래도록 보관하고 고가를 받을 수 있기에 오징어와 명태를 건조 시킨다. 건조시킬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덕목을 잇대어 덕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걸어서 말린다.<sup>1</sup> 덕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조장을 ‘덕장’이라고 한다.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는 마른(乾)오징어, 명태는 건태 또는 북어라고 한다. 딱딱하게 굳어서 쪼그라졌기에 “때려야 먹을 수 있는 것은?”이라는 수수께끼의 해답이 되는 북어는 바닷가 어촌의 노천에서 말리거나 혹은 인공

1 1997년의 경우에는 오징어가 풍년이어서 남아도는 바람에 어촌의 집집마다 오징어 배를 갈라 내장을 빼고 물로 씻은 후에 줄에다 널어 말렸다. 오징어를 말릴 때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나무젓가락 같은 꼬챙이로 꿰어서 말린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사이를 벌려 놓는다. 횃집에서 파는 살아있는 오징어 값은 공급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당시에는 건조된 오징어 값이 생오징어 값의 2배나 되었다.

건조장에서 영하 20도로 냉각한 후에 서서히 온도를 높혀 하루 만에 급속으로 건조한 것이다. 노천에서 건조한 것은 색깔이 거므스레하므로 ‘떡태’ 또는 ‘흑태’라고 부르고, 인공으로 건조한 것은 색깔이 하얗게 되므로 백태라고 한다.

그런데 명태를 건조시킨 것이로되 북어와는 달리 ‘황태’라는 것이 있다. 황태는 명태를 한겨울에 진부령, 황계, 태백 등 산간지역의 바람받이에서 건조시킨 것이다. 황태는 북어와는 달리 말린 더덕처럼 살이 통통하게 부풀고 노란색을 띠므로 품위가 있어 보이며 또 맛이 부드럽고 고소하므로 생태를 대신하여 제사상에 올리거나 탕국과 술안주용으로 애용한다.

황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곧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5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특별히 낮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하며 3한4온이 되풀이되는 입지조건을 갖춘 고지대의 덕장에서 말려야 한다. 명태를 말릴 때 습기가 많으면 겹질이 검게 변하는 흑태가 되고, 영상의 기온이 계속되면 하얀 백태가 된다. 그러므로 명태는 “덕장일은 하늘과 사람이 7:3의 비율로 동업하는 것”, 혹은 “제맛이 나는 황태는 80%가 하늘이 만들어 준다.”고 할 정도로 기후조건에 적합한 덕장에서 1주일 간격으로 얼맬림 곧 바짝 얼고 다시 녹고 마르고 얼기를 되풀이 하면서 황태로 되어간다.

황태 덕장의 조건을 갖춘 덕장은 오로지 강원도에만 있는데, 현재 인제군 북면 용대리, 평창군 도암면 황계리, 태백시 동점동, 삼척의 땃재 인근의 번천리와 성산리 등 크게 잡아 4곳이다.

황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동해안의 주문진항이나 거진항의 활복장에서 내장을 빼고 고원의 덕장으로 명태를 옮긴다. 덕장에다 명태를 처음 거는 때는 동지가 지나서이고, 거두는 때는 3월 말이나 4월 초이다. 4~5개월 정도 마르면 거므스레하던 명태가 황금색 빛깔로 변하여 살은 솜방망이처럼 연하게 부풀어 오르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다. 꼬리 부분을 꺾었을 때 딱! 소리를 내면서 부러지는 것이 바로 잘 말라 제맛이 나는 황태이다.

그런데 현재 황태 덕장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황태의 조리방식이 불편하여 신세대들의 수요가 적다는 점도 있으나 가장 큰 위기의 이유는 명태가 잡히지 않아 덕장에다 말릴 명태가 없다는 점이다. 1998년 1월 말의 경우, 제철을 맞고도 명태 반입이 안 되어 덕장에 전년도의 30%정도만 걸리었다. 근본적으로 어족이 고갈되어 있는 데다가 기상이변(氣象異變)인 엘니뇨 현상으로 동해안의 한류대가 최북단 해역으로 밀리는 바람에 어장조차 형성되지 않아 어획량이 겨우 61kg에 그쳤기 때문이다. 게

다가 1998년에 들어서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IMF한파로 3만원하던 기름 한 드럼이 8만원으로 올라서 출어하여 보았자 선주(船主)에게 2할의 고깃값을 주고나면 기름값 빼기도 어려워 선원들이 아예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황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할복장에서 명태를 할복하여 내장을 제거한 후에 덕장으로 가져와 계곡의 맑은 물에다 담그고 꺼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환경공해를 유발하므로 관청의 제지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최근(1996년 12월)에 동해안 일대의 환경사범 단속강화로 원양 동태를 할복하여 황태덕장에 공급하던 최대의 명태 공급처인 강릉시 주문진읍 G물산을 비롯한 회사들이 수산물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업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할복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국내산 명태할복장의 경우도 환경문제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물량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sup>2</sup> 한편 1996년 12월에는 동년 5월에 출하된 황태가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소비가 제대로 안 되어 1997년 3월까지 판매할 물량이 재고로 쌓이는 바람에 본격적인 황태 건조작업에 들어가야할 덕장들이 텅텅 비게 되었다.<sup>3</sup>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강원도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산업민속인 황태 덕장의 생존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적 연구가 없는 덕장에 대한 풍속도를 고찰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명태의 민속을 살펴보고 나아가 황태 덕장이 지닌 다양한 기능들 곧 덕장의 설치 및 황태 말리기에 대한 방법, 황태의 유통구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속신과 금기사항, 나아가 덕장이 현지 주민들의 경제와 소득증대에 끼친 영향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민속생활사를 기록·보존함으로써 조상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동시에 강원도지방의 민속에 대한 연구성과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명태와 민속

(이 부분은 본 책의 의도와 크게 적합하지 않아 생략한다.)

2 “강원도만이 지닌 천혜자원으로 황태를 생산하고 있으나 명태값 상승과 환경부담금의 가중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김성용, 42세, 북설악영농조합법인 대표)

3 1996년 12월 26일 강원일보 19면 참조.

### 3 황태덕장

#### 1) 덕장의 조건

겨울철에 진부령과 대관령 용평스키장을 오가다 보면 명태를 덕대에 걸어놓고 말리는 덕장 풍경을 볼 수 있다. 강원도의 산간 장터가 배경인 소설 <아리랑난장>(중앙일보연재소설)에서 작가 김주영은 용대리 덕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미시령을 넘어 간성과 원통으로 갈라지는 진부령 삼거리에 당도한 것은 해가 나절가웃으로 기울 무렵이었다. 황태 생산의 8할을 감당하고 있는 30군데의 덕장은 북쪽의 진부천과 남쪽의 백담계곡 초입에 자리잡은 설원지대였다. 그들 덕장에서 매년 1천만 마리 이상의 황태가 건조되고 있었다. 백담사 계곡 초입의 왼편 개활지를 메운 농뎡힌 용대리 덕장은 해질 무렵인데도 가슴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를 신은 인부들이 마침 트럭에 실려온 명태를 하여하느라 불알에서 요령소리가 나도록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름을 이룬 개활지 위로 늘어선 덕대에 주렁주렁 매달린 명태들은 퐁퐁 얼어붙은 차렷 자세로 도열한 병사들과 흡사했다.

덕장에는 바닷가나 저지대의 북어덕장과 진부령이나 대관령 등 저온(低溫) 고지(高地)의 황태덕장이 있다. 따뜻한 저지대의 북어덕장에서 건조된 명태는 바짝 쫄아 들고 색깔이 검어 먹태 혹은 흑태라 하는데 이는 상품가치가 적다. 반면에 저온고지에서 60여차례 정도로 얼었다-녹았다-말랐다는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진 황태는 풍성한 본래의 몸통을 유지한 채 노르스름한 황금색을 띠게 되어 귀티가 날 뿐 아니라 명태의 담백한 맛을 오래도록 유지하므로 상품가치가 높다.

이러한 황태덕장이 처음 생긴 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북한쪽의 함흥·원산·명천 등지에서 먼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40여년 전 6.25 이후 원산에서 덕장을 하던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와 원산과 기후조건이 비슷한 인제의 용대리에 처음 덕장을 열었고, 이어서 황계에도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태덕장에는 식당을 경영하는 개인이 황태음식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덕장도 있으나 대개는 판매를 위해 대단으로 설치한다.

덕장은 덕장주가 자기사업을 위해 직접 설치하고 거기에 황태를 말려 판매하는 경우와, 건어물 도매상이나 물산회사의 의뢰를 받아 황태로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덕장에 명태를 넣고, 말리고, 찌리가지로 꿰어 관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아야 하는데, 그때의 수수료는 대개 황태값의 6분의 1쯤이다.<sup>4</sup>

황태의 주인을 화주(貨主)라고 한다. 원양어선에서 동태를 하역하여 부산이나 동해 등의 냉동창고에 보관한다. 그 동태를 화주들이 산다, 본래 황태용은 연안태를 쓰지만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 연안태가 지금은 잡히지 않은데다가 그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감자가 등에서 잡은 북양 명태와 북한산을 사용한다. 최근에 업자들은 통일원의 허가를 얻어 북한산의 명태를 수입하고 있다. 1997년 12월에 북한산 명태 70톤이 첫입항한 이래 98년 2월 7일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38.5톤이 들어왔다. 이 명태들은 북한의 동해안 연안에서 갓 잡아 얼음에 재운 반냉동 상태로 중국 등 제3국의 어선에 의해 수송되었다.

화주가 동태를 살 때 동태값은 편(상자) 당으로 계산하는데, 1편은 4~8통 등으로 구분한다. 평균치는 한 상자에 중태 48마리 들이 1편인 7통이다. 5통은 30마리, 4통에는 왕태가 들어있어서 마리수가 적다. 화주는 동태의 내장을 제거하기 위해 할복장으로 옮긴다. 그러면 아낙네들이 할복하고 명란과 내장을 분류한다. 5통짜리 30마리 내외의 명태가 들어있는 1편의 명태 배를 할복하고 받는 품삯은 상자당 2천원 정도이다. 화주는 이렇게 할복한 명태를 모아 덕장으로 보낸다.

한편,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인 11월이 되면 용대리와 횡계리의 밭이나 개활지에는 통나무(덕목)를 엮어서 덕대를 만든다. 뽕뽕하게 걸린 코다리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덕대는 튼튼해야 한다. 덕대가 땅에서 얼어붙어 튼튼하도록 물을 붓기도 한다. 12월 초순이 되면 주문진이나 할복장에서 내장이 제거된 명태가 덕장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면 비닐 끈으로 1급(젖은 상태의 단위) 곧 20마리씩 코를 꿰어서 덕장 옆에 흐르는 차디찬 계곡의 얼음물 속에 집어넣어 하루이틀 쫓 재운다. 지금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계곡물예다 씻는 일이 금지되어 있어서 할복장에서 씻는다. 비린내와 핏기가 없어진 명태는 5달 동안 덕대에 매달린 채 고가(高價)의 황태로 되어간다. 이 과정에서 덕장주와 화주는 성공적인 황태의 형성을 기원하여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과가에는 무당을 청하여 굿을 한 적도 있었다.

눈보라가 치고 칼 같은 북풍이 몰아치면 덕대의 명태는 금방 얼어 붙는다. 오전

4 제보자: 1998.3. 용대3리 제2황태덕장 주인 민국현 씨(49세)

이 되어 따스한 햇볕이 비치면 얼었던 명태가 정결하게 녹고 또 마른다. 이렇게 열고, 녹고, 마르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사이에 명태는 어느 덧 속살이 숨처럼 연하게 부풀고 노란 색깔을 띤 노랑태 곧 황태가 된다. 덕장에서는 행여 날씨가 풀려 비라도 오면 비닐이나 천막으로 덕대의 지붕으□ 씌워 비를 맞지 않도록 하고 비가 그치면 바람과 햇볕에 명태가 잘 마르도록 즉시 조치를 취한다. 잘 건조된 황태는 3~4월에 싸리가지로 1쾌(건조된 상태의 단위) 곧 20마리씩 코를 낀 관태 상태로 포장하여 4월 경에 출하한다.

추운 겨울일수록 맛깔이 난다는 황태는 해방되기 전에는 함경남도 원산에서 말린 것을 제일로 쳤다. 요즘은 강원도 인제의 진부령 일대와 대관령의 횡계 지역에서 말린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친다. 최근에는 태백시의 동점 일대와 삼척의 하장면 댕재 인근에도 새로운 덕장이 들어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강원도가 공기와 물이 청정하고 기후가 맞아서 덕장으로서의 조건에 합당한 지역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기온이 낮으니까 계곡에서 늘 매서운 바람이 부는 등 천혜의 덕장조건을 지니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황태 만들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명태가 없어서 덕대에 늦은 1~2월쯤에 걸거나 겨울철 날씨가 따뜻한 이상난동일 때이다.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상난동 현상으로 거의 다 말려놓은 황태가 눈비를 맞는 일이 잦아서 덕장일에 어려움이 많다.

한편, 대형 덕장에 명태를 걸지 않는 이유에는 대개 4가지가 있다. 그것은 황태의 소비 부진으로 지난번의 황태가 남아있으므로 업자들이 덕장에 황태의 건조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명태의 어획 부진으로 걸 수가 없는 경우, 덕장주들이 이익이 없어 덕장 설치를 기피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두 번째 경우는, 황태의 주공급원인 원양 냉동태값이 지난해의 1편(1kg)당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자들이 명태의 배를 가를 때 인부들에게 노임 대신에 부산물인 창란을 주면 되었으나 창란값이 올해 들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kg당 1,200원선으로 떨어져 노임 차액을 업자들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보호차원에서 오래부터 인근의 계곡에서 세척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예전과는 달리 소형차량으로 명태를 운반해야 하므로 운임이 2배나 비싸진 것도 한 원인이다.

이를 연도별로 대입하여 보면, 1995년에는 첫 번째의 경우 곧 황태의 소비부진에 해당한다. 1996년에는 두 번째인 명태의 어획부진으로 덕장이 한산하였다. 역시



1997년과 1998년에도 명태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1998년 겨울철에는 이상난동의 영향으로 예년 어획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하여 진부령의 황태덕장이 반도 채우지 못하고 겨울을 나게 되었다.

## 2) 덕장의 위치

### (1) 인제군 용대리 덕장

현재 인제군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부터 진부령 중턱에까지 이어지는 진부천 일대에는 26여개의 대소형 덕장이 있다. 백두대간의 진부령과 미시령 아랫마을인 용대리는 4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명태 말리기에 제격이다. 황태 건조장은 총 1.5ha 정도이고, 거기에 국내총생산량의 80%에 해당하는 연간 75만 두름(2천 톤)의 황태가 건조되어 50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46번 국도를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장소로 가광을 받고 있다.

용대리에 덕장이 처음 생긴 것은 지금부터 35년 전 6.25전쟁 이후 함경도 청진·원산에서 황태덕장을 하던 피난민들이 그곳과 기후조건이 비슷한 용대리에 덕장을 설치하면서부터 황태단지가 형성되었다. 황태덕장은 용대리 1~3리 중에서 미시령 아랫마을인 용대3리에 집중되어 있다. 3리는 60여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가구가 황태와 연관을 갖고 있다. 30여 가구는 명태를 말리는 일에 직접 나서고 나머지 가구는 그 시기에 덕장에서 또는 황태의 포장이나 황태음식점을 경영하고 매매한다.

용대리에는 황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도로변에 30여 개가 산재하여 있다. 그 중에서 지난 91년을 전후하여 영업을 시작한 진부령식당, 용바위 식당, 진미식당, 바람도리식당 등이 원조격이다. 황태요리는 구이·국·찜·조림·무침 등 다양하다. 이곳 식당의 황태구이는 황태구이와 황태국 그리고 6가지의 반찬이 나오며 값은 6천원 정도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파는 황태가격은 현재(1998년 1월 20일 현재) 10마리에 1만~2만원 정도, 포는 10마리에 1만~1만5천원, 황태채는 250g에 5천원이다. 1월 25일에 춘천의 수협마켓에서 팔고 있는 황태값은 1캐(10마리)에 13,350원이다.

용대리에는 나름대로 해결되는 지역경제 때문인지 젊은이들이 많다. 1집에 20~30대의 젊은이가 1~2명이 있어서 40대도 청년회원으로 포함시키는 다른 마을과 다르다. 용대리 주민들은 용대리가 황태덕장으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인제군에서도 대규모의 황태가공시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농의소득증대와 농한기 유희노동력 활용에 도움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용대리 지역은 우

리나라 황태의 60%를 만들어내는 곳으로서 치커리와 함께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원양태의 어획량 감소와 연근해어장의 난류현상으로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예년 같으면 황태로 뽁뽁이 들어차있을 덕장이 1997년 이후로는 줄어들고 있다. 주민들은 이대로라면 용대리 덕장은 1998년도에는 70%정도밖에는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덕장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는 7개의 대형 덕장이 있다. 30여년째 운영되고 있는 횡계의 황태덕장은 요즘 건조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시기이나 지난해 1급(20마리 기준)당 1만6천~1만7천원 하던 명태가 올해는 20~30% 오른 2만원선에 거래되면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용평리조트 진입로와 대관령 일대의 40여명 덕장업자들에 따르면 흉어로 물량이 모자라고 이에 따라 가격마저 올라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건조작업을 해야 하는 데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근 고성 앞바다 등 연근해 어장과 북해도 등 원양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명태를 황태로 건조하여 저렴한 소비자 가격에 맞출 수가 없다고 걱정을 한다.

여기에는 용대리와 마찬가지로 황태를 전문적으로 조리하여 파는 식당들이 있다. 황태회관이 대표적인 음식점이다.

## (3) 태백시 동점동 덕장

태백에도 덕장이 있다. 장성3동의 장명사 인근에 1곳, 문곡동의 풀장이라는 곳에 1곳이 있다. 그리고 동점동의 구문소 부근 속칭 사군다리에 서너 개 있고, 흰두리에 3곳이 있다. 이곳의 덕장에는 코다리 외에도 아기태인 노가리의 머리를 잘라내고 꼬리를 묶어 거꾸로 걸어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황태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황태로서의 상품가치가 적은 아기태(노가리)가 빨리 마르도록 머리를 잘라서 매단 것이라고 한다.

1997년 1월 현재, 여기서는 한달 이상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도 명태를 꼬챙이에 꿰어 덕장에 달아매는 아낙네의 손놀림은 부지런하기만 하다. 일자리 옆에는 모닥불이 진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고,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막걸리병과 김치그릇 및 술잔들이 오히려 정감을 자아낸다. 94년 겨울부터 생긴 명태덕장 덕분에 인근의 부녀자들은 겨울철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오전 8시에 나와 오후 5시까지 9시간 동안 일하

는 대가치고는 많은 돈이 아니지만 폐광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입장으로는 달리 돈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아낙네의 일당은 1만5천 원, 남자는 기능에 따라 3만2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받는다.

강원탄광이 폐광되는 바람에 실직한 한 주민은 “임금은 적어도 큰 보탬이 되나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개월뿐이다.”고 아쉬움을 표한다. 여기의 명태 덕장에서 일 하는 사람은 여자 35명, 남자 5명으로 대부분이 실직광원과 그 가족들이다. 올여름 부터 객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일거리가 생겨나기를 하나같이 바라고 있다. 한 편 태백의 황태는 일교차가 커서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출하가격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1kg당 1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다.(제보자: 태백시 동점동 1통 6반 김점태 씨)

#### (4) 삼척시 번천리 · 상산리 덕장

삼척시 하장면 땃재 인근에 있는 번천리에 덕장이 있다. 황태 건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춘 번천리 덕장은 부산에서 삼척의 정라진항으로 들어와 거기서 할복한 명태를 옮겨와 건조한다. 작년도(1997년)에는 면적이 13,7ha에 이르는 지대에 선 7개의 덕장에서 27만 상자의 황태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IMF와 명태의 부족으로 3개의 덕장만이 명태를 곁었다. 이곳의 덕장은 덕장주가 황태의 주인이 아니고 모두 회사의 위탁을 받아 명태를 건다. 번천리에서 차로 가면 10여분 거리에 있는 상산리에도 두서너 개의 덕장이 있다.(제보자: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이장 이재만 씨)

## 4 황태의 산업적 기능

### 1) 황태사업

4월이 오면 덕장에서는 겨우내 말린 황태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위해 10마리와 20마리씩 싸리꼬챙이에 끼워서 묶는 관태작업을 벌인다. 관태작업은 하순경이면 모두 끝나 황태는 중간도매상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로 대량으로 출하된다. 1996년에는 동해안 연안 원양에서의 어획고가 크게 떨어져 덕장의 황태 건조가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해 상품황태 1코(10마리)가 1만3천원으로 1995년보다 3~4천이 올랐다.

출고가격은 1997년 4월 초순의 가격으로 황태 대(大) 10마리 - 1만2천5백원, 황태

중(中) 통포 5마리 - 5천5백원, 황태 대 통포 2마리 - 2천5백원, 황태찜구이용 포 7마리 - 7천9백원, 황태채 2백g - 4천2백원, 황태양념구이 1백g - 4천2백원, 황태채무침 2백g - 4천4백원이다. 1998년에는 가격이 좀 내려서 껍질을 벗겨 포장한 중태 10마리가 1만원 정도이다.<sup>5</sup>

한편 농협과 우체국에서는 황태를 주문판매한다. 현재 덕장에서 말려진 황태는 절반은 현지의 조합법인에서 포장을 하는 등 2차 가공을 거쳐 농협·수협·축협·우체국을 통해 전국에 유통 출하되고, 나머지 절반은 중간상인들을 통해 서울의 중부시장이나 가락동시장 등으로 출하하고 있다. 북설악영농조합법인에서는 92년부터 황태의 껍질을 벗겨내고 뼈를 발려서 황태찜, 황태통, 황태채무침 용으로 다양하게 포장하여 고품질화를 모색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우체국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황태는 설·추석·한식 등 명절에 제수품과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황태사업을 위해 인제군에서는 황태의 가공시험단지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 인제군은 사업비 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북면 용대2리 지역에 건물 40평 규모 1동과 절단기, 박피기, 접착기 등 가공기계 3종을 설치하여 술안주와 간식용, 제수용, 황태선물세트, 구이용 황태, 조림용 황태, 국거리용 황태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또 군에서는 강원도 농수산물마크의 품질인증을 받아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 후 인근지역 판매장 및 대도시 백화점과 유통센터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황태요리전문점인 진부령 소재의 황태골은 1998년 5월 현재로 서울 여의도의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외식체인점을 모집하고 있다. 체인점에서 취급하는 메뉴는 식사류와 안주류로 나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사류- 황태해장국, 황태탕, 황태구이정식, 황태조림, 황태정식

안주류- 황태구이, 황태무침, 황태전, 화태과전, 황태전골, 황태찜, 황태버섯전골

## 2) 황태음식

저 먼 알래스카나/ 물 좋은 동해안에서/ 간 밤 꿈길 사나운 탓에 코 꿰어/ 진부령에 실려온 나는/ 뺏골 시린 산골물에 몸씻기 석달 열흘/ 별바라기 긴긴/ 겨울이야기가 쌓여갈 쫘/ 칼날 바람에도 그럭저럭 이력이 나/ 마침내 영혼마저 맑아진 삭신/ 노

5 인제의 용대리 덕장 부근의 식당에서 포장하여 파는 황태 가격은 1코(10마리)에 1만원, 1코(20마리)에 1만5천원, 뼈를 추린 중태(10마리)는 1만원이고 그것을 선물용으로 포장한 것은 1만1천원이다.

룻노릇 황태로의 품위를 갖추고/ 술꾼들 안주상에 오르거나/ 숙취로 쓰린 새벽이면/  
홍두깨로 흠뻑 두들겨 맞는/ 그렇게 고달픈 한 생애가/ 한 그릇 따끈한 국으로 남는  
날/ 물빛 좋은 동해안이나 알래스카쯤에서/ 바닷빛 건강한 어부의 손에/ 꿈 잘못 꾸  
탓에 코 꿰일/ 또 다른 나를 생각하고.(김정실, <황태>)

덕장이 있는 진부령의 용대리 일대와 대관령의 황계리에는 별미의 황태국, 황태찌  
게, 황태구이, 황태찜, 황태전, 황태무침, 황태조림을 요리하여 파는 음식점이 많이  
생겨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몫으로 작용하고 아울러  
새로운 조리법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황태는 지방이 적고(2%) 단백질의 함유량(56%)이 많아서 국을 끓이면 개운하고  
담백하다. 황태국은 껍질을 벗긴 포실포실히고 노르스름한 황태살을 들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계란 · 파 · 마늘 등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국이다. 특히 뽕양  
게 우러난 국물과 부드럽고 구수한 황태살은 메치오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많아서 간  
장해독제, 혈압조절, 노폐물제거 등에 좋고 특히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태로 만든 음식으로 으뜸은 황태에다 두부나 콩나물 등을 넣고 푹 끓인 황태국  
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황태해장국, 황태미역국 등이 있다. 탕류 이외에도 황태  
를 찢어 식성에 맞게 고추장, 간장, 소금에다 무쳐서 반찬으로 먹는 황태무침이 있  
다. 또 황태를 규격에 맞게 잘라 양념에 졸인 황태줄임도 있다. 그리고 황태에다 콩  
나물, 쏙자, 미나리 등을 넣고 고추장과 양념을 풀어서 아구찜처럼 찌내는 황태찜과  
찢은 황태를 참기름에 볶은 후에 미역을 넣고 끓인 황태미역국도 있다. 그런가하면  
통황태의 배속에다 황기 · 인삼 · 대추 · 밤 · 녹각 등을 넣고 푹 끓인 황태백숙도 있  
다.(제보자: 황계리 황태회관 안주인)

인제군 용대3리 삼거리에 용바위식당이 있다. 주인(안웅우 씨, 45세)은 강원도 토  
박이로 황태덕장일만 30여년을 하여 왔다. 그의 부인(연영숙, 43세)은 황태를 가지  
고 별미를 만들어내는 요리사이다. 용바위식당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만들어내는 음식  
이 ‘황태구이정식’이다. 뽕양게 우러난 황태국과 부드러운 황태 속살이 노르스름  
하게 구워진 황태구이, 그리고 강원도 토속 나물을 반찬으로 정갈하게 내놓는 정식  
은 1인분에 5천원(1997년 1월 현재)이다. 그밖에도 도토리국수, 감자부침, 황기백숙  
등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중략)

## 5 결론

명태는 우리의 식생활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어류이다. 그 명태를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는 바람과 햇볕에다 건조를 시키는데, 그때에 북어와 황태가 된다. 일상적인 바람과 햇볕에 말라 바짝 쪼그라들고 검으스레한 것이 북어(먹태)이고, 추운 산간지역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여 살이 통통하게 부풀고 노란색을 띠는 것이 황태이다. 황태는 노랑고 통통하며 또 맛이 부드럽고 고소하다. 그래서 황태는 고급 어종으로 쳐 제사상에 오르고 찜이나 탕 또는 술안주용으로 빈번히 쓰이며 나아가 황태를 주종으로 삼는 식당이 생기었다.

그런데 명태를 황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덕장에서 특별한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덕장은 명태를 덕대를 서로 이어서 얹어놓은 건조장소이다. 황태 덕장은 한겨울에도 영하 15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특별히 기온이 낮고 또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하는 일교차가 심하고 3한4온이 되풀이 되는 입지조건을 갖춘 고지대에 설치한다. 거기서 명태는 1주일 간격으로 바짝 얼고 녹기를 되풀이하면서 3~4개월 동안 말라야 한다. 그리고 황태를 거둘 때인 3~4월 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썩지 않도록 비로 쓸어주거나 비니루로 덮어 준다. 만일 12월과 1월에 명태가 없어서 2월경에나 걸게 될 때는 명태 개개의 공간을 넓게 하여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덕장은 적합한 기온이 생명이다.

이처럼 황태는 80%가 하늘이 만들어 준다고 말할 정도로 기후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그것에 적합한 덕장이 필요한데, 그 조건에 맞는 덕장은 오로지 강원도에만 있다. 현재 인제군 북면 용대리,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태백시 동점동, 삼척의 하장면 땃재 인근의 변천리와 상산리 등 크게 잡아 4곳이다. 이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인 11월이 되면 밭이나 개활지에 나무(덕목)를 엮어서 덕대를 만든다. 뽕뽕하게 걸린 코다리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덕대는 튼튼해야 한다. 덕대가 튼튼하도록 땅에다 물을 부어서 얼어붙도록 하기도 한다.

12월 초순이 되면 주문진이나 거진의 할복장에서 내장이 제거된 명태가 덕장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면 비닐끈으로 1급(젖은 상태의 단위) 곧 20마리씩 코를 꿰어서 덕장 옆에 흐르는 차디찬 계곡의 얼음물 속에 집어넣어 하루이틀쯤 채운다. 비린내와 핏기가 없어진 명태는 4달쯤 덕대에 매달린 채 고가(高價)의 황태로 되어간다. 이 과정에서 덕장주와 화주는 성공적인 황태의 건조를 기원하여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는 무당을 청하여 굿을 하기도 하였다.

황태덕장이 처음 생긴 때는 언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북한쪽의 함흥·원산·명천 등지에서 먼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40여년 전 6.25 이후 원산에서 덕장을 하던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와 원산과 기후조건이 비슷한 인제의 용대리에 처음 덕장을 열었고, 이어서 횡계에도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태백시의 동점 일대와 삼척의 하장면 땃재 인근에도 새로운 덕장이 들어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강원도가 공기와 물이 청정하고 기후가 맞아서 덕장으로서의 조건에 합당한 지역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기온이 낮으니까 계곡에서 늘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등 천혜의 덕장조건을 지니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황태 만들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명태가 없어서 덕대에 늦은 1~2월쯤에 걸거나 겨울철 날씨가 따뜻한 이상난동일 때이다.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상난동 현상으로 거의 다 말려놓은 황태가 눈비를 맞는 일이 잦아서 덕장 일에 어려움이 많다.

덕장은 덕장주가 자기사업을 위해 직접 설치하고 거기에 황태를 말려 판매하는 경우와, 건어물 도매상이나 물산화사의 의뢰를 받아 황태로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덕장에 명태를 넣고, 말리고, 싸리가지로 껴서 관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맡는데, 그때의 수수료는 대개 황태값의 6분의 1쯤이다.

이 덕장의 위기는 명태가 잡히지 않아서 덕장에다 말릴 명태가 없다는 것이다. 1998년 1월말의 경우, 제철을 맞고도 명태 반입이 안 되어 전년도의 30%에 그치었다. 근본적으로 어족이 고갈되어 있는데다가 기상이변인 엘니뇨 현상으로 동해안의 한류대가 최북단 해역으로 밀리는 바람에 어장조차 형성되지 않아 어획량이 겨우 61kg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998년에 들어서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IMF한파로 3만원 하던 기름 한 드럼이 8만원으로 올라서 출어하여 보았자 선주(船主)에게 2할의 고깃값을 주고나면 기름값 빼기도 어려워 선원들이 이에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강원도의 특징적 민속이며 전통적인 어류사업인 황태 덕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명태의 어획고를 늘려야 한다. 명태의 어획을 늘리면서 활발히 원양조업을 전개하거나 유류값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태의 치어인 노가리를 남획하여 씨를 말리는 불법을 차단하여야 한다.

※ 김의숙, 「황태 덕장 연구」, 『강원문화연구』17,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8.9. 41~69쪽.



## 8 현리 박대감제민속놀이

### ■ 놀이의 원형

박대감제민속놀이는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기원을 둔다. 기린면 현리에서는 매년 날을 받아서 박대감제를 지냈다. 박대감제는 유일하게 현리에 있는 인물제이면서 서낭이고 산신인 존재였다. 거리제가 있었으나 박대감제하고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거리제는 못 귀신을 먹이는 마을제사인데 비해, 박대감제사는 마을사람 모두가 받드는 존재이다.

박대감제사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평장사를 지낸 인물로 볼 때 그 시기가 최소한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대감은 박원평이라는 인물로 춘천 박 씨의 시조인 박항의 맏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평장사를 지냈다. 고려 충렬왕 때의 인물이다. 원나라에 들어가서 왕의 명을 수행하기도 했다. 임금께 자신의 낙향을 말하자, 기린면 현리에 만 호를 주었다. 현리에 살면서 동해안 양양에 침범하는 왜구를 물리치다가 충선왕 2년(1310)경에 세상을 떠났다. 박원평은 문무를 겸비한 고려의 충신이었다.

세상을 떠난 후 마을사람들은 그를 추모하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좌정시켰다. 마을사람들은 개별적이든 마을공동의 것이든 모든 대소사를 박 대감에게 의존했다. 그러면 박 대감은 그런 마을사람들의 소원을 잘 들어주었다. 아이들이 아파도 빌고, 자식을 잃지 못해도 빌고, 수험생이 있으면 시험 잘 보게 해 달라고 빌기도 하였다.

박 대감 신은 아주 영험했다. 묘 앞에 빨래를 널면 빨래가 어디로 사라졌다가 이튿날 가보면 이곳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했다. 말을 타고 가면 말발굽이 붙어 하마로가 생겼다고 했다. 묘를 옮길 때는 무단히 도저의 삽날이 부러졌다고 했다. 호환에 갈 사람이 이곳에 빌어 면하기도 했다.

박 대감과 관련한 제의를 보면, 개별적으로 지내는 각종 치성으로부터 마을공동의 제의가 다양했다. 공동의 제의는 서낭제, 기우제, 무사고기원제 등이 있다. 마을사람들의 기원이 있으면 뭐든 척척 들어주어서 그 영험성이 대단했고, 그 만큼 박 대감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 ■ 마을 소개

기린면 현리는 기린면소재지이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기지군(基知郡)의 현

(縣)이 있던 지역으로 현동(縣洞)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현리(縣里)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춘천의 속현으로 있다가 인제군으로 속하게 되었다. 조선조 때는 백동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조선무예도보통지』를 저술해서 유명하다.

현리는 기린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농업과 상업이 함께 발달했다. 특히 소양댐 건설 이후 이 지역에 남면 관대리에 주둔해 있던 3군단이 옮겨 와 군사 요충지가 되었다. 3군단 사령부가 들어오면서 이곳에 있던 박 대감 묘를 현 위치인 면사무소 뒤에 있는 태봉에 옮기게 되었다.

기린면 일대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내린천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많다. 이 지역은 내린천과 방동약수와 같은 천연자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손님이 찾아와도 어떻게 대접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곧, 내린천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방동약수를 떠서 밥을 해서 대접하면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라 한다.

이 마을에는 박원평을 모시는 것이 유일한 마을제사였다. 이를 박대감제라 했고, 박대감제를 지낼 때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다. 아이들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섰다. 이렇게 마을제사를 받은 것은 그가 생전에 평장사라는 높은 벼슬을 지내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왜구를 물리치다가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 놀이의 유래

제의는 원래 축제(祝祭)의 성향을 띠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축제는 그 지역을 수호해 주는 신을 강림시켜 대접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복락을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행사이다. 신을 즐겁게 대접하기 위해서 원시종합예술이 행해졌고, 난장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음주가무가 따랐고, 각종 연회가 행해졌다. 축제의 현장에 가면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모습에서 축제의 속성이 잘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의는 신과 인간이 어울려 함께 즐겁게 노는 행사에서 비롯하였다. 그렇다면 박대감제의 경우도 현리 지역의 축제였음을 알 수 있다. 현리의 서낭신으로 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 사람들은 박대감 사당에 와서 기원을 하였다. 10월에 지내는 마을 서낭제부터 비가 안 오면 지내는 기우제와 마을의 무사고를 비는 무사고 기원제도 있었다. 이를 볼 때 박대감은 인격신이면서 마을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신격을 가지고 있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다는 동네사람들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로 보면 박대감제는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행해져 온 마을축제의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강릉의 단오제가 축제의 현장처럼 행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 ■ 놀이의 특색

현리의 박 대감제 민속놀이는 박 대감 제의인 축제에 그 시원을 둔다.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 생전의 업적으로 인해서 마을의 신(神)이 된 사례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경우이다. 그런데 현리의 경우는 박대감제와 못귀신을 제사하여 달래는 거리제가 있었을 뿐 다른 제의는 찾을 수 없다. 개인의 소원을 비롯하여 마을의 모든 일을 오로지 박대감 신에게 의탁하였다. 자식을 기원하고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비가오기를 빌며 무사고를 기원하며 서낭으로써의 역할까지 모두 하는 신이다. 햇곡식이 나면 먼저 박대감사당에 와서 올린 후 먹을 정도로 현리사람들이 박대감을 위하는 마음은 각별하였다. 또 하마로설화와 박대감사당에 얹힌 설화를 놀이에 가미하였다.

이와 같은 현리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를 이 놀이에 담아내었다. 그러므로 이 놀이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현리만의 독특한 민속행사임을 알 수 있다.

## ■ 무대

박대감사당, 현리마을, 하마로, 빨래줄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40명

소 품: 박대감 모형사당, 하마로 표석, 모형 말, 빨래 줄, 제의 도구 등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현리 박대감제 민속놀이라 써진 깃발을 들고 앞장을 서서 들어온다.

- 농악이나 사물놀이 등의 음악은 사용하지 않는다.
- 서낭제를 지낼 때 마을사람들이 사당으로 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장을 한다.
- 입장을 하면 바로 다음 마당 준비를 한다.

둘째마당 ⇒ 왜구를 물리치고, 동네를 위해 선정을 베풀

- 박대감이 마을의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당위성을 연출한다.
- 동해바다로 침범하는 왜구를 물리치는 장면을 펼친다.
- 동네에 선진문명을 전해주면서 동네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면을 펼친다.
- 연로한 박대감이 왜구를 물리치다가 왜구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셋째마당 ⇒ 하마로 사건과 빨래 사건

- 박대감이 죽은 후 인제 현감이 말을 타고 가다가 하마로에서 말발굽이 붙어 말에서 내려 걸어가는 장면을 연출한다.
- 박대감 무덤 앞에 빨래를 널었다가 빨래가 사라지고 이튿날 빨래가 다시 걸렸을 때 이곳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새겨진 장면을 연출한다.

넷째마당 ⇒ 서낭제 및 개인기도

- 동네사람들이 박대감 사당에 와서 햇곡식을 바치고, 개인적인 소원을 빌며 기도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 동네사람 전체가 사당에 와서 서낭제 및 기우제 또는 무사고제를 지내는 장면을 연출한다.

다섯째마당 ⇒ 퇴장

- 놀이가 끝나고는 삼삼오오 자연스럽게 퇴장을 한다.
- 한바탕 놀거나 농악을 울리지 않는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박대감, 현감, 왜구, 마을사람 등

##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 〈 조사자료 〉

박 대감서낭제

####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2009년 9월 2일 오전 10시

조 사 지: 현리 노인회관, 박대감 무덤, 사당

제 보 자: 김은필(82, 남) 기린면 현1리 노인회분회장

박산진(80, 남) 기린면 현1리

박주국(81, 남) 기린면 서리

##### (2) 마을유래와 개관

기린면 현리는 기린면소재지이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기지군(基知郡)의 현(縣)이 있던 지역으로 현동(縣洞)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현리(縣里)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리는 기린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농업과 상업이 함께 발달했다. 특히 소양댐 건설 이후 이 지역에 남면 관대리에 주둔해 있던 3군단이 옮겨 와 군사 요충지가 되었다. 3군단 사령부가 들어오면서 이곳에 있던 박 대감 묘를 현 위치인 면사무소 뒤에 있는 태봉에 옮기게 되었다.

기린면 일대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내린천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많다. 이 지역은 내린천과 방동약수와 같은 천연자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손님이 찾아와도 어떻게 대접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곧, 내린천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방동약수를 떠서 밥을 해서 대접하면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라 한다.

기린면 현리 일대에 춘천 박 씨의 시조인 박항의 장남 박원평이 고려 말에 살고 있었다. 박원평은 고려 공민왕 때 평장사라는 벼슬을 하였다. 벼슬에 있다가 낙향하고자 하니, 당시 임금이 지금의 현리에 만호를 제수했다고 한다. 박원평은 현리에 있으면서 양양 방면으로 침범하는 왜구를 소탕하기도 하였다. 또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박원평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다가 이곳에 유배되어 와서 살다가 죽었다고





박 대감 사당



박 대감 사당 전경(2009년)

한다. 어찌됐든 박원평은 죽어서 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이 고장에는 마을신앙으로 유일하게 박 대감 사당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뿐이었다. 창말에서 도깨비를 먹이는 거리제가 있으나 서낭의 역할을 한 것은 박대감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박 대감서낭제” 또는 “박 대감제”라고 한다. 박 대감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풍요와 안녕 및 모든 기원을 들어주는 동신(洞神)의 역할을 하였다. 박대감은 상당히 영험하고 위엄이 있었음을 전설을 통해 읽을 수 있다. 곧, 빨래를 무덤 앞에 걸면 빨래가 하나씩 없어지고, 말을 타고 앞을 지나가면 발굽이 붙어서 갈 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하마로(下馬路)라는 지명까지 생기게 되었다. 게다가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기우제는 지금도 지내고 있다. 간단한 제물을 준비해서 축문을 써서 읊으면 비가 내린다고 박주국 제보자는 전했다.

## 2) 마을제사의 내용

기린면 박 대감제사를 채록하기 위해서 먼저 면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면사무소에서는 이 제사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현1리의 노인회장인 김은필 제보자를 만났다. 전화를 했더니 면사무소로 나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면사무소 귀퉁이에서 조사를 했다.

박 대감제사 조사를 끝내고는 기린면 무후제까지 조사를 했다. 무후제 사당을 열어 보고 축문이며 갖가지 궁금한 점을 면담항목에 맞춰 물었다.



그 후 필자는 혼자서 노인회관 쪽으로 난 길을 따라 박대감 사당을 향해 갔다. 약 10분만 가면 보인다고 했는데 30여분을 가도 보이지 않았다. 의문이 들어서 태봉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등산객에게 물었으나 알지 못했다. 아무래도 사당을 지나친 것 같아 그 등산객과 같이 면사무소로 향하는 길로 내려왔다. 그랬더니 그곳에 박 대감의 묘가 보였다. 그리고 멀지 않는 곳에 사당이 보였다. 그래서 묘 주변을 둘러보고, 사당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채록을 하려는데, 어떤 노인이 등산을 하며 올라왔다.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박 대감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박 대감 후손이라고 했다. 곧, 박산진 제보자였다. 그래서 박산진 제보자의 안내를 받아서 사당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사당 옆에 앉아서 박 대감 제사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서 채록하였다.



박 대감 사당 안에 걸려 있는 옷

이튿날 기린면 서리에 살고 있는 박주국 제보자를 찾았다. 박주국 제보자가 박 대감 제사의 축문을 관리한다고 해서였다. 축문을 작성하다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에 전해 받기로 했다. 박주국 제보자에게서도 박 대감제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취재를 하였다. 이후 11월 26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축문과 진설도와 홀기를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를 드려 부탁을 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만나기로 한 날짜에 출타중이어서 결국 축문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박주국 제보자는 현재 박 대감제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묘와 사당 관리는 서리에 살고 있는 박수환 씨가 한다고 한다.

###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박 대감 사당은 이 마을에서 서낭당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낭이라고 일컫는다. 박 대감서낭당이다.

박 대감 사당은 현재 면사무소 뒤에 있는 태봉에 위치하고 있다. 면사무소에서 약 150여m정도 올라가면 산속에 사당이 나온다. 사당은 목조 건물에 기와를 얹었다. 기



와는 붉은 기와이고, 나무에도 붉은 색을 칠해 놓았다. 그리고 사당 주변을 돌아가면서 흙을 쌓아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위에는 기와를 얹었다. 대문을 설치해서 대문을 통과하면 사당에 이를 수 있다.

옛날에 묘를 옮기기 전까지는 사당이 없었다. 제사를 박 대감 묘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단사령부가 들어와 묘를 옮길 때 이 사당도 같이 지었다.(김은필) 사당은 원래 여기에 있었다. 묘만 군단사령부안에 있어서 이곳으로 옮겼다.(박산진)

사당 내부에 들어서면 콘크리트로 바닥과 벽을 해 놓았다. 제단은 콘크리트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대리석을 올려놓았다. 대리석 뒤편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신위를 해서 세웠는데, 한자로 “高麗大匡門下平章事 朴大監 神位(고려대평문하평장사 박대감 신위)”라고 하였다. 제단에는 한자로 “高麗平章事春川朴公元宏祠堂(고려평장사춘천박공원평사당)”이라고 쓰여 있다.

신위 뒤에는 예단으로 보이는 노랑, 분홍, 도라지색의 천이 뭉쳐 놓여있었다. 실타래도 있었다. 누가 갖다놓았냐고 했더니, 여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리석 양쪽에는 돌로 된 촛대가 양쪽에 있고 타다만 양초 두 자루가 꽂혀 있었다. 대리석 제단 앞에는 향로로 쓴 스테인레스 밥그릇이 모래가 담긴 채 놓여 있었다. 밥 그릇 위에는 타다만 담배도 있었다. 대리석 옆에는 양초, 향, 소주가 있었다.

사당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벽 모서리에는 남자 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흰옷도 갖다가 놓았고, 신발도 두 켤레가 있다.

천장은 나무 조각과 흙으로 이겨서 했는데 오래 돼서인지 조금 흘러내렸다. 천장이



박 대감 사당 내부



박 대감 묘 전경

흘러내린 곳으로 상량문이 보였다. 상량문에는 실과 한지가 묶여 있었다. 아마도 상량을 할 때 매어 둔 것이리라. 상량문의 내용은 부분이 가려 있는데 다음과 같았다. 내용은 “龍乙卯年三月十二日原時立柱上樑龜(을묘년삼월십이일원시입주상량구)”라고 하였다. 을묘년은



박 대감 사당 상량문

가장 최근부터 1975년, 1915년, 1855년이다. 그런데 사당의 기와재질과 위패의 대리석 등으로 봐서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붕이 거의 다 썩어서 내려앉은 것으로 봐서는 관리소홀인지는 모르나 또 기간이 꽤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보자의 증언이 갈려서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기와는 나중에 다시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의 상태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975년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대문의 기와가 사당의 기와와 색이 다르고, 나무의 훼손 정도가 다른 것으로 봐서 사당은 나중에 중수했을 수도 있다. 박주국 제보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이 사당은 원래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는 곳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고 춘천 박 씨 후손들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 원인은 남의 조상 제사에 왜 가느냐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당은 마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치성을 드리고 간다. 아이가 아파도 오고, 개인의 소원이 있어도 온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아 있다.

박 대감이 이 마을에 와서 공헌한 기록이나 이야기는 없다.

지금 그 후손들이 많아서 후손들이 제사를 받들고 있다.

사당에서 약 100여m정도 산으로 더 올라가면 박대감의 무덤이 나온다. 이 무덤은 현재 군단사령부 안의 사열대 동남방 쪽 9m 앞에 있었다. 그러던 것을 1972년 7월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 무덤을 옮길 때 헌병대, 보안부, 검찰부에서 입회를 나갔다. 제보자는 검찰부에 있으면서 입회를 나가서 봤다. 유골은 없고 머리 부분이 흙이 까맣게 돼 있었다. 그 안에서 부장품이 나왔다. 부장품은 도자기가 나왔는데 밥그릇과 국그릇 정

도였다.(김은필)

부장품으로 수저가 나왔는데 길이가 상당히 길었다. 중요한 유물이 없었다. 그걸 아마 여기 갔다가 도로 묻었을 것이다.(박산진)

묘를 파서 옮길 때 돼지도 잡고 제사를 크게 지냈다. 그때 참가한 사람은 수백 명이 되었다. 발굴 당시 수저가 길이가 긴 것(30cm 정도)이 나오고 고려청자로 된 접시가 나왔다. 그 접시는 문화재청에서 가져갔다. 그리고 보검이 똑똑 떨어지며 나왔다. 시신은 모두 까맣게 흙이 되었다. 그래서 이장을 할 때 흙을 파서 했다.(박주국)

묘 관리는 박 씨 문중에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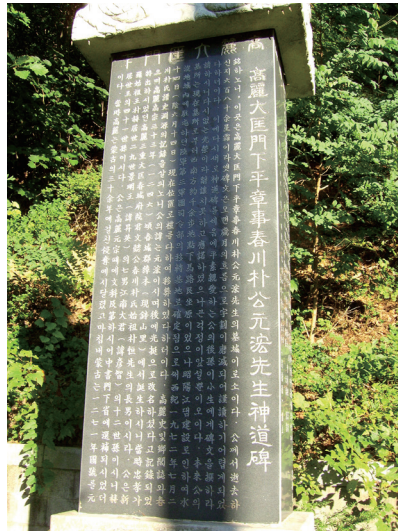
묘에는 무인석과 문인석이 2개씩 양쪽에 놓였고, 옛날에 세운 비석과 1990년에 세운 비석이 있다. 비석에는 “高麗平章事春川朴公元宏之墓 配羅州鄭氏(고려평장사춘천박공원굉지묘 배나주정씨)”라 했고, 옛날 비석에는 “麗朝平章事朴公之墓(여조평장사박공지묘)”라 썼다. 그리고 묘 입구에는 “平章事公墓宮治修記(평장사묘공궁치수기)”가 있다.

박 대감은 기린면의 수호신으로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곧, 필자가 2003년에 기린면에서 입수한 “기린면무사고기원대제축(麒麟面無事故祈願大祭祝)”에 의하면 이곳의 신은 3명으로 나타났다. 곧 “기린선사수호지신 신

위, 방태점봉태봉진만지신 신위, 여조평장사춘천박공영상대감 신위(麒麟禪師守護之神 神位, 芳台占峰胎峰鎮巒之神 神位, 麗朝平章事春川朴公領相大監 神位)”라 하였다. 이처럼 박대감이 기린면의 수호신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유일한 인격신(人格神)이다. 나머지 두 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박 씨가 아닌 사람도 집에서 치성을 드릴 때는 먼저 이곳 사당에 와서 고하고 집에서 치성을 드렸다. 곧, 텃고사를 지낼 때 시루떡을 두 개를 찌서 한 개는 이곳 서낭에 와서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나머지 한 개는 집에서 지냈다. 그렇게 엄했다.(박산진)

사당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면 면사무소 바로 뒤에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에



박 대감 신도비

는 1972년 7월 24일 하마로에서 현재 위치로 묘를 옮긴 사연이 적혀있다. 그리고 박원평의 약력이 적혀있다. 태어난 곳은 춘천 신북읍 발산리에서 박항의 맏아들로 태어났고, 박혁거세의 후손이라고 했다. 박원평은 충렬왕 때 원나라에 들어가 왕의 명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신의 험담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고, 뒤에 낙향을 원하자 기린면 현리에 만호를 주었다. 그리고 동해안 양양에 침범하는 왜구를 물리치다가 충선왕 2년(1310)경에 돌아왔다. 이에 의하면 『인제군사』에 전하는 귀양 어찌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의 건국과는 80년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박원평은 문무를 겸비한 충신이며, 죽은 후 이 지방의 수호신이 되었다. 신도비는 1990년에 세웠다.

동네 사람들은 박 대감 사당을 서낭당이라고 불렀다.(박주국)

## (2) 마을제사의 준비

###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의 날짜는 원래 양력으로는 11월이고 음력으로는 10월경인데, 보통 사가에서 시제 지낼 때였다. 그때 날짜를 받아서 제사를 지냈다.(김은필)

요즘은 음력 10월 2일에 제사를 지낸다. 10월 1일에는 춘천 샘밭에서 춘천 박 씨 시조 박항의 제사를 지낸다.(박산진)

제사를 지내는 날짜는 10월 2일이다. 제례는 옛날에는 새벽부터 가서 제의 준비를 해서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집(묘각)에서 제사를 올리고, 사당에는 별도로 제관이 갔다 온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오전 10시 경이다. 옛날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에 같이 참가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옛날에는 10월 1일에 지냈는데, 10월 2일로 바뀐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불과 몇 십년 정도 된다. 10월 1일은 춘천 박 씨 시조 제향이 있기 때문이다. (박주국)

###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은 문중에서 원로 되는 사람이 맡아서 했다. 종헌관은 면장이 했다. 초헌과 아헌은 문중에서 했다.

도가는 따로 선정하지 않고 부인회에서 제물을 마련했다. 지금은 부녀회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인회라고 하였다.

### ③ 제비와 제물

옛날에는 반별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비를 거두었다. 그래서 집집이 5백 원씩 거둬서 제물을 마련했다. 제비를 거둬서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부인회에서 했다.

제물에는 돼지를 잡았다. 돼지를 잡아서 제상에 올리는 것은 돼지머리만 올렸다. 떡을 찌고, 메를 지어 올렸다. 떡과 메는 집에서 지어 가져갔다. 예전에는 메를 지을 때 특별한 금기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메를 지을 때는 합이라고 해서 종이를 입에 물고한다. 이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다. 해물은 비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린다.(김은필)

옛날 돼지를 잡을 때는 집에서 키워서 제사 준비를 하였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사항 차리는 사람이다. 제물에는 과일, 편 등을 차렸다. 편은 일반제사와 달리 아주 큰 것을 올렸다.(박산진)

옛날에는 돼지를 온 마리를 잡고, 떡을 몇 말을 하고, 메를 짓고 하였다. 제물을 마련할 때는 목욕재계하고 합을 입에 물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잡담을 하면 바로 벌을 받았다.

돼지를 올릴 때는 생 돼지로 온마리를 다 올리는데, 허파와 간과 콩팥도 올렸다. 떡은 집에서 찌서 올리는데 서 말 서 되를 하였다. 떡을 올릴 때는 시루로 했다. 시루떡은 팔 시루였다. 그런데 지금은 절편을 올린다. 메도 집에서 지어 갔다. 메는 한 개만 놓았다. 과일은 홍동백서, 좌포우혜 등등을 올리는데 마치 환갑상 차리듯이 푸짐하게 올렸다.

2009년에는 돼지 정육을 산적 같이(썰어서 차곡차곡), 조기, 북어, 민어, 미나리, 참나물, 두릅, 메(합을 물고), 떡시루편, 인절미(참쌀), 대추, 밤, 감, 배, 잣, 육탕 3개 등을 올렸다.

예전에 술은 청주라 해서 매년 별도로 담가서 썼다. 담는 장소는 집에서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정종을 한 병 사서 쓴다.

이때 제물을 만드는 집은 재실이라고 한다. 재실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위답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정적으로 제물을 준비했다. 이 사람은 제물을 만들 때 금하는 것이 많았다.

그 때는 위토가 논이 1,500평이고, 밭이 3,000평이 있었다. 그러니 떡을 그렇게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어도 되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면 동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모두 모였다.(박주국)



#### ④ 제수준비

제수는 먼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아주 푸짐하게 했다. 쌀이나 기타 제수는 마을에서 거둔 돈으로 구입했다.(김은필)

쌀은 별도로 담아 두었다가 제사에 썼다. 쌀을 보관할 때는 버를 두었다가 제사 준비를 할 때 방아에 찧어서 사용했다. 쌀을 찧을 때는 정성을 다해 밭 방아에서 일곱 번을 찧었다. 이 쌀로 떡도 하고 메도 지었다. 쌀의 양은 원래 사람이 많으므로 밥을 많이 지어서 나눠 먹었다.(박주국)

#### ⑤ 금기방법

제당 앞에 금줄을 쳤다. 금줄은 원새끼에 한지와 색이 있는 천 조각을 꼈었다. 색은 붉은 색, 검은 색, 흰색이다. 제삿날을 받으면 바로 쳤는데 보통 5일 전쯤 된다. 제사가 끝나면 금줄은 거둬서 태웠다.

부정한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제물 준비할 때와 제사를 지낼 때 참가하지 않았다.(김은필)

옛날에는 부정을 많이 가렸다. 그래서 날짜가 가까워지면 원새끼를 꼬고 송아리(솔가지)를 꺾고, 솥검뎡이를 도가집에 쳤다.(박산진)

제물을 만들기 전에는 부정을 금하기 위해서 송침을 했다. 송침은 원새끼를 꼬고 거기에 소나무 아지를 몇 개 꽂아서 집 앞에다 걸었다. 한지 조각도 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통 3일 전에 금줄을 쳤다. 사당에도 쳤다.(박주국)

### (3) 마을제사의 진행

#### ① 제의절차

제삿날을 받으면 기린면에서 주관하여 제각과 주변지역 대청소를 했다.

초헌 아헌 종헌을 끝내고, 거기 모인 사람들 보고 와서 절을 하라고 하면 모두 가서 절을 했다.

고수례는 음복을 하기 전에 한다. 제상에 놓인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한지에 싸서 제각 옆에 놓고 술을 사당 네 귀퉁이 기둥 주춧돌에 한 잔씩 다 붓는다. 술을 붓는 사람은 초헌관이다. 그리고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한다.

음복은 보통 제관과 나이 많은 노인들만 한다.

제사가 끝나면 지방과 축문을 소각 했다. 따로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이때 금줄을

올렸던 것을 내려서 같이 태운다.

제사 후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떡이며 음식을 모두 나눠 주었다. 그 당시는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아이고 어른이고 아주 많이 모였다. 그래서 제상에 올리는 떡 이외에도 많은 여분의 떡을 해서 가져갔다. 떡을 나눠 줄 때는 찌리가지에 몇 개의 떡을 꼬치처럼 끼워서 주었다. 떡꼬치는 아주 커서 식성이 좋은 사람도 한 번에 다 먹기가 힘들었다.

참가자는 보통 2~3백 명은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였다.(김은필) 현재는 문중 사람들만 참가하므로 30여 명 정도 된다. 내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후손들이 잘 참가할 것인데, 자꾸 노인들이 사망해서 내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가자가 줄어든다.(박산진)

옛날에는 참가자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제사를 사당에 가서 지내지 않고 묘각(집)에서 지낸다. 사당에는 제관이 별도로 갔다 온다.

제사 순서는 장손이 먼저 초헌을 하고, 아헌은 나이 많은 연장자가 하고, 종헌도 자손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한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냈는데, 면장과 이장도 함께 참가해서 헌작을 하였다. 제사가 끝나고 소지를 올릴 때 먼저 마을 소지를 올린다. 그때 제관은 세 번 절을 하였다. 소지가 잘 올라가면 신이 응감을 했다고 했다. 고수례는 하지 않았다. 음복은 초헌관부터 한다. 돼지는 나중에 삶아서 그곳에서 다 먹는다. 음식을 먹을 때는 묘역에서 했다.

지금은 박수환 씨 댁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런데 돼지도 편육을 해서 올리고, 따로 잡지는 않는다. 지금은 아주 약식으로 한다. 기제사상 차리는 것과 같다. 신위는 함을 만들어서 올렸다가 내린다. 참가자는 한 30여 명 된다. 옛날에 마을에서 지낼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었다. (박주국)

## ② 축문

축문은 서리의 박주국 제보자가 읽는다. 다음 축문은 1996년에 치러진 제사에서 독축한 것이다.

維歲次丙子正月丙辰朔十五日庚子 獻官○○○虔告于  
유세차병자정월병진삭십오일경자 헌관○○○건고우  
土主山川守護之神 祝而奠靈 氣序流易 時惟孟春 致此誠施



토주산천수호지신 축이전령 기서유역 시유맹춘 치차성시  
 國泰民安 雨順風調 百穀豐登 百災不侵 官民和合 面內亨通  
 국태민안 우순풍조 백곡풍등 백재불침 관민화합 면내형통  
 謹以酒果 庶羞陳此 于神尚饗<sup>1</sup>  
 근이주과 서수진차 우신상향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또 한 해가 지나 병자년 정월 15일이 되었습니다.  
 헌관○○○는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고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며 산천의 수호신이신 높으신 신령님께 비나이다.  
 세월이 흘러 바뀌어 때는 맹춘이 되어 이 정성을 베풀어 다합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며 비는 순조롭고 바람이 고르며  
 온갖 곡식은 풍년이 들고 온갖 재난은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관청과 백성이 화합하고 기린면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삼가 술과 과일로써 여러 제물을 이에 진설하였으니  
 신께서는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문에 의하면 분명히 맹춘이라고 하였다. 제보자들 모두 10월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기록을 옮길 때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또 박대감 사당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올린다. 기우제를 올릴 때 읍은 축문을 소개한다. 이 축문은 박주국 제보자가 작성한 것이다. 이 축문을 이곳에 넣기 위하여 필자는 원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전화를 걸고 찾아갔다. 그날 할머니가 끓여주신 커피며 닭고기를 잘 먹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祈雨祭  
 기우제

維歲次 干支某月某日日辰 獻官 麒麟面長○○○  
 유세차 간지모월모일일진 헌관 기린면장○○○

<sup>1</sup> 남근우·박신정, “인제군의 민속문화(1)”,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 박물관, 1996), 95쪽.

麗朝春川朴公領相大監  
 여조춘천박공영상대감  
 悠久歲月無雨 萬民生活塗炭  
 유구세월무우 만민생활도탄  
 億兆蒼生所望 大雨方數萬里  
 억조창생소망 대우방수만리  
 洽足解決 祈願 尙饗  
 흡족해결 기원 상향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기우제

세월이 바뀌어 모년모월모일이 되었습니다.  
 헌관 기린면장○○○은 아뢰입니다.  
 고려조에 영상대감을 지낸 박 대감 신이시여  
 오랜 세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여러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는 바는 수만리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흡족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원을 드리오니 신께서는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린면에서 지낸 무사고 기원제의 축문을 병기하여 둔다. 이 축문은 2002년  
 1월 20일에 지낸 것이다.

麒麟面無事故祈願大祭祝  
 기린면무사고기원대제축

維  
 유

歲次癸未元旦乙巳朔二十日甲子  
 세차계미원단을사삭이십일갑자

麒麟面長 張憲權  
 기린면장 장헌권  
 敢昭告于

감소고우

土地之神麗朝平章事春川朴公領相大監

토지지신여조평장사춘천박공영상대감

芳台占峰胎峰鎮巒之神

방태점봉태봉진만지신

麒麟禪師守護之神

기린선사수호지신

伏以 歲遷癸未 元旦二十日

복이 세천계미 원단이십일

至誠祈禱 鴻恩伏蒙

지성기도 홍은복蒙

實賴神休 官民泰安

실뢰신희 관민태안

雨順風調 百穀豐登

우순풍조 백곡풍등

謹以清酌 庶羞祇薦

근이청작 서수기천

三神尙

삼신상

饗<sup>2</sup>

향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기린면무사고기원대제축

세월이 바뀌어 계미년 정월 이십일입니다.

기린면장 장현권은

삼가 신들께 고하나이다.

토지신이신 고려조의 평장사를 지낸 춘천 박원굉 영상대감

방태점봉의 태봉을 진압하는 신

2 이 축문은 2002년도에 기린면 복지계 이승실 계장으로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기린면 선사수호신께 엮으려 합니다.  
 해가 바뀌어 계미년 정월 이십일입니다.  
 지성으로 기도드리니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실로 신령님께 의지하니 관민이 크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비는 순하고 바람은 고르며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바칩니다.  
 세 신께서는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 (4) 영험담

박 대감 사당은 마을의 유일한 기도처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도 여기서 빌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낳게 해 달라고 빌기도 하였고, 수험생이 있으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도 빌었다.(김은필)

박 대감과 관련한 영험담은 문헌에 전하는 것과 같다. 박 대감 묘가 보이는 곳에 빨래를 걸면 빨래가 없어졌다가 이튿날 가보면 빨래에 이곳에 열지 말라는 글씨가 써 있다는 것과 말을 타고 가면 말발굽이 붙어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는 것이다.

박주국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영험담을 얘기했다.

#### 〈묘를 팔 때 도저 삽날이 부러진 이야기〉

옛날 박 대감의 묘가 있는 곳에 3군단 사령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군단을 이주하려고 그곳에 있는 묘를 전부 옮기게 되었어요. 당시 묘를 한 기 이주하는데 나온 보상비는 5천원이었어요. 엄청 비싼 돈이었어요. 그때 땅을 파며 터를 닦았는데 도저 삽날이 무단히 3개가 부러졌어요. 거기엔 암반이 없이 모두 사질 양토인데도 도저삽날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며, 전설과 한 가지로구나 하였어요. 그래서 박 대감 묘를 정성을 들여서 파어요.

박 대감 사당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서낭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많이 치성을 드렸어요. 몸이 아파도 노구메를 지어 가서 치성을 올렸는데, 가서 “살려주십시오.”하고 빌면 바로 병이 나았어요. 그 만큼 영험한 분이었어요.(박주국)

함주선 씨라고 지금 계셨으면 한 100세 정도 될 것인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었어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살았다고요.

왜냐하면 점봉방태산봉오리가 큰 산입니다. 옛날에도 시월이면 삼을 캐게 되었습니다. 약이 지금(가을)이라야 효과가 나지. 그 이전에 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 가 보면 삼이 여러 해 된 것은 빨갭니다. 옛날에는 산삼이 비쌌어요. 진짜 한 뿌리 5구나 6구정도 캐면 소가 몇 십 바리 되고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함주선 씨 아버지와 여러 일행이 갔었는데, 그때 전지도 없고 그러니까 야외에서 자는데, 고목을 주어다가 크게 불을 해놓고 밤새도록 피웠지요. 그렇게 막을 해놓고 있었어요. 막도 아니고 그렇게 앉아서 밤을 새웁니다. 지금은 뭐 막도 치고 그러지만.

그래서 범이 나왔더랍니다. 아주 큰 호랑이가 옆에 와서 사람이 수십 명인데 있더랍니다. 근데 허연 옷인데. 당시는 전부 허연 옷입니다. 사람도 무서워 안하고 불도 무서워 안하고. 그래 뭐 억지로 그 놈이 새벽녘이나 돼서 가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보냈대요. 아침에는. 그런데 주로 피를 토해서 뿌린 것은 함주선 씨 아버님에게 맞았대요. 그래 날 새니까. 다들 당신이 호환에 갈 팔자인데 당장 나가라고 우리까지 공포에 떨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날 왔대. 그 날 와서 노구메를 지어서. 메를 지어서 그 참 몇 번 일곱 번인가를 씻어서 깨끗하게 당에다 갖다놓고 또 그 앞에다 묘역에다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빌었답니다.

“미련한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니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현몽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네가 호환에 갈 팔자인데 내 묘역에다 갖다가 여가리에다 나무를 갖다 박고서 그 피 묻은 옷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다 제거해주마.”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니까. 그 옷이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인제 참 호환을 면했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이게 전설이 아니라. 실화로 들은 예예요.

(언제 들었어요?)

그것을 들은 지가 그러니까. 왜정 당시지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들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하마로에 살았어요. 그 함주선이라고요. 지금 일추 살았으면 100세는 일추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빨래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인데 옷이 없어졌다는 얘가지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영험하시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사셨노라. 그런 전설을 직접 들었어요. 전설이 아니라 실화로 들었어요.(박주국)

###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에서 가가호호 돈을 얼마씩 거둬서 제사를 지냈는데, 각 반장이 거두어 이장에게 쥐서 운영을 하였다.

### 3) 마을제사의 특징

원래 박 대감 제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비를 거둬서 지냈는데, 70년 대 후반부터 동네 사람들은 제비를 내지 않았다. 그 원인은 동네 사람들이 박 대감을 춘천 박 씨의 조상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서이다. 그래서 마을 공동의 신에서 씨족의 조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은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매를 지어놓고 빌고 간다.

옛날에는 인근에 사찰이나 교회도 없었고, 오로지 박 대감 사당에 의존했다. 박 대감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의 축제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남자들만 했고, 제물을 준비할 때는 여자들이 했다.

이곳에는 박대감제와 거릿제사가 있었다고 한다. 현리에서는 오직 수호신이 박 대감 뿐이었다. 박대감제를 다른 곳에서 지내지는 않았다. 한 곳뿐이다. 거릿제사는 일명 도깨비제사라고도 한다.

이곳에서는 가뭄이 심하면 박 대감 사당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근자에는 3,4년 전에 지냈다. 하도 가뭄이 심하니까 현리 노인회장이 주관을 해서 기린면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내자고 했던 것이다. 제관은 김은필 노인회장과 면장이 하고, 박주국 제보자가 축관이 되었다. 음식은 돼지머리, 편육, 주과포, 메, 떡(백설기), 정종을 해서 제물로 썼다. 기우제를 지내고 나니 비가 왔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감님이 참으로 영험하다.”고 하셨다.

### 4) 문헌자료

『인제군사』에는 〈하마로(下馬路)와 박대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박원평의 영험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려 말의 충신인 박원굉(朴元宏)은 임금을 받들고 섬겨왔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자 이성계(李成桂)가 개성(開城)으로부터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고 왕위에 오르자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끝내 이를 거부하자 왕명을 거역한 역적으로 몰려 그때 가장 험한 땅인 강원도(江原道)에 귀양 오게 됐다.

귀양에 오른 박원굉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결심하고 밭을 일구어 그곳에서 한 많은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다가 부부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체는 자손들에 의해 하마로(下馬路) 언덕에 합장되었다 한다.

그 후 세월이 흐르자 이 부부가 합장되어 있는 묘 주변에 영월 엄(寧越 嚴) 씨를 비롯한 많은 묘(墓)가 생겨서 이들의 후손들이 선조의 묘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러던 무렵 기린면(麒麟面) 현리(縣里) 하덕(下德)에 살고 있는 이들의 장손한 집안 사람의 꿈에 박원굉이 나타나 후손을 꾸짖고 “주변의 다른 묘는 옮기라.”고 말했다. 꿈에 선조를 만난 이 후손은 다른 묘를 전부 이장했으며 이때 박원굉의 묘와 망두석(望頭石)까지 전부 되찾아 냈다.

그 후 이 묘 부근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면 꼭 한 가지씩 없어졌는데 그 다음 날 볼 것 같으면 빨래에 “다음부터는 이곳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금기의 글이 쓰여져 묘 앞에 걸려 있는 것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근 사람들은 지금까지 묘 앞에는 빨래를 널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이 앞에는 길이 나 있는데 이 묘가 생긴 후부터는 가마, 영구, 말 같은 것이 지나면 꼭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평장사(平章事) 박원굉을 모시고 얼마 안 되어 이곳 인제 현감이 새로 부임할 때의 일이었다.

신임현감은 심산유곡 호젓한 벽지에 꺼릴 것이 무엇이랴 싶어서 나귀등에 높이 올라 앉아 오만하게 평장공 묘 앞을 지나려고 했더라. 그때 묘 앞까지 온 나귀의 발굽이 갑자기 땅에 못 박힌 듯 붙어서 도무지 꿈쩍을 못하게 되었다 한다. 놀란 현감은 금세 얼굴빛이 질렸다. 뒤 따르던 아전 구실아치 무리들도 눈이 휘둥그레지자 “이 어찌된 연고일고 뒤 까닭을 아는 자 없겠느냐?” 현감이 안타까이 주위를 돌아보며 물어 보았다. “예, 소인이 아는 바를 아뢰려고 하옵나이다.” 이 현아(縣衙)에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가 현감 앞으로 나와 읍하였다. “네 아는 바를 직고하라.” “예,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여기는 승마고좌(乘馬高座)하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간좌원(艮坐原)에 평장공이 현영(顯靈)하시옵기로 하마 보행하여야만 비로소 통과 보행할 수 있나이다.” 그제야 현감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얼른 나귀등에서 내렸다.

“웁도다. 평장공께서 예 계신 줄 미처 몰랐었노라.” 현감은 깊이 깨우치고 이곳을 걸어서 지나갔다.



현감은 다음 날 이곳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워 놓았다 한다.  
 이로부터 누구나 이 길을 지날 때는 반드시 나귀에서 내려 걷게 되었고 하마로  
 (下馬路)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sup>3</sup>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는 〈창말의 朴大監 서낭제와 거릿고사〉라고 제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縣1리는 기린면의 면 소재지로서 기린면의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들 창말 혹은 倉村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려시대 이곳에 큰 창고를 지어놓고 군인들이 먹을 쌀을 쌓아 놓았다고 한다. 마을의 이름이 縣里이고 보면 이곳이 예부터 군사와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현1리는 수백호에 이르는 큰 마을이지만 예전엔 3,40호의 가구가 모여 논농사와 밭농사, 화전을 부쳐 먹던 작은 산간 농촌마을이었다.

현1리의 면사무소 뒷산에 오르면 잘 꾸며진 묘와 문간이 달린 제각 한 채를 볼 수 있다. 제각으로 오르는 길목 역시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고려 말 이곳에 귀양왔던 생을 마감한 박대감을 기려 만든 것이다. 박대감은 고려 말엽의 인물로서 平章事를 지냈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홍천군 내면에서 기린으로 귀양을 와, 이곳에서 귀양살이 끝에 생을 마친 분이라 한다. 평장사라는 직책을 지낸 분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대감님으로 불려오고 있다. 春川 朴氏의 중시조이고 이름은 宏이라 알려져 있다. 제각으로 오르는 길목에 세워진 기념비는 이 분의 후손인 춘천 박씨 종친회에서 세운 것이고 능과 제각 역시 이들이 중수한 것이다.

현재 면사무소 뒷산에 있는 묘는 원래의 자리가 아니고 1970년대에 이장을 한 것이다. 원래 능이 있던 자리에 군단사령부가 들어서게 되자 종친회에서 예부터 제각이 있던 면사무소 뒷산 제각 옆으로 이장을 하게 되었다. 원래 묘가 있던 곳은 下馬路라 하는데, 이곳을 지날 때면 누구라도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했다고 한다. 말을 타고 지나면 말의 다리가 땅에 붙어 뗄 수 없었다 전한다. 이곳은 지금 군단사령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장을 할 때 관속에서 주걱 크기보다 큰 숟가락, 대접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장을 하면서 다시 묘에 안장하였다고 한다.

제당은 문간이 달린 단간 기와집이며, 문간에는 ‘수부’(혹은 ‘수배’라고도 한다)

3 『인제군사』(인제군, 1996), 953-4쪽.

가 있다고 한다. ‘수부’는 박대감을 수호하고 당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당 내부에는 촛대와 돛자리 등이 있고 오른편 벽에는 실타래와 한지가 걸려 있다. 위 패에는 ‘高麗大匡門下平章事 朴大監神位’라 적혀 있다. 얼마 전 누가 치성을 드리고 간 듯 술이 담긴 소주병이 제단에 놓여 있었다. 해마다 정월에 지내는 박대감 서낭제에서는 박대감이 사후 이곳의 수호신이 되었음을 기리고 주민들이 병나지 않게, 곡식이 잘되게 기원을 한다. 박대감 서낭의 정확한 신격이 서낭신인지 산신인지는 뚜렷하지가 않다. 서낭이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마을 뒷산이 ‘박대감산’이라 불리고, 또한 박대감이 그곳에 좌정하여 산과 마을을 관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산신과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예부터 그래왔던 대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책을 보고 祭日을 정한 다음, 생기복덕을 가져 도가를 선출한다. 도가는 제물을 장만하고 初獻을 올리는 이를 말한다. 부정을 타지 않고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서 부부의 생년월일시가 모두 그 해의 운과 맞는 이를 고른다. 생기복덕이 맞아 도가로 선정되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해야만 한다. 도가가 初獻官이 되고 면장, 지서주임 같은 마을의 유지가 亞獻官과 終獻官을 맡게 된다. 일단 제일이 결정되면 제당에 금줄을 친다. 박대감 서낭에는 개인적으로 근심이 있거나 축원할 일이 있는 이들이 밥과 떡 등의 간단한 음식과 술을 싸들고 와 정성을 드리곤 하는데, 제일이 잡히면 이를 금하고[원문대로] 부정한 이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도가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 제물을 마련한다. 특히 제수를 마련하는 아녀자는 여러 겹으로 겹은 한지로 입을 봉하고 그 끝을 비녀에 꽂고 일을 해야 했다. 행여 침이라도 튕가 거둬 조심하기 위한 것인데, 그만큼 부정을 타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대감님이 워낙 영험하시기 때문인데, 도가집에서 떡을 하기 위해 담가놓은 떡살을 쪼개 먹은 답이 없어지는 일도 허다했다고 전한다. 祭日 새벽에 제관들이 제당에 올라가 제물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초를 켜다. 제물은 술과 떡, 고기, 메 한 그릇, 과일 등이다. 형편이 좋을 때는 소나 돼지를 잡기도 하였다. 초헌, 아헌, 종헌의 순서로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해마다 새로 쓰는데 제를 지내고 난 후 보관하고 있던 축문은 아래와 같다.

維歲次丙子正月丙辰朔十五日庚子 獻官○○○虔告于  
土主山川守護之神 祝而奠靈 氣序流易 時惟孟春 致此誠施  
國泰民安 雨順風調 百穀豐登 百災不侵 官民和合 面內亨通  
謹以酒果 庶羞陳此 于神尚饗

축을 읽은 후에 ‘받자소지’를 올린다. 박대감께서 음식을 잘 받으셨는가를 여쭙는 소지이다. 만약 소지가 잘 오르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며칠 내로 다시 제물을 차려 놓고 간단히 제를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대감께 올린 고기와 떡, 밥의 일부를 떼어 ‘수부’가 있는 문간에 놓아두고 온다. 이것으로 수부를 대접하는 것이다. 박대감 서낭제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제가 끝나야 비로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대감을 증시조로 모시는 춘천 박씨 종친회에서는 햇곡이 날 때 쯤 따로 낱을 받아 제를 올리고 있다.

창말에서는 마을 전체가 정초에 박대감 서낭제를 지내고 가을에는 ‘거릿고사’를 지낸다. ‘거릿고사’는 ‘도깨비고사’라고도 하는데 형체가 없는 도깨비를 먹이는 것이라 한다. ‘거릿고사’는 마을 입구의 사거리에 나가 돼지나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로 들어오는 疫疾이나 액운을 막는다고 한다. 이 때에도 도가를 정해 제물을 마련하고 ‘거릿고사’를 지낼 주변과 도가집에 금줄을 친다.

‘거릿고사’에 대해 주민들은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개, 돼지를 잡고 떡, 술 등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친목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한다. 물론 친목을 도모하면서 마을의 액운을 쫓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는 축을 읽지 않고 동네 사람 모두가 모여 먹고 마시며 수확의 기쁨을 나눈다. 박대감 서낭제가 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박대감을 기리고 위하는 것이라면, ‘거릿고사’는 마을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도깨비를 풀어 먹고 동시에 마을 사람이 모여 잔치 분위기 속에 화합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sup>4</sup>

『민속지』에서는 〈朴大監祭(박대감제)〉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인제군 기린면 縣 2里 下馬路 인근 泰鳳에 박대감의 祭堂이 있는데, 매년 음력 10월 1일에 門中이 모여 朴大監祭享을 올린다. 혈연 위주의 행사를 갖고 있으나 박대감의 묘 앞을 지날 때는 下馬해야 한다는 설화가 있듯이 인근에서는 신격화된 인물이다.

박대감은 고려 말의 충신인 朴元宏이다. 그는, 登文科하여 門下省의 贊成事를 역임한 충신으로서 널리 알려진 春川朴氏의 시조인 朴 恒의 맏아들로 태어나 여말에 최고중앙의정기관인 內史門下省의 正二品(正二品)을 지냈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집권하자 이를 거부한 죄로 강원도로 축출되었다. 부인과

4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앞의 책, 93-5쪽.

함께 춘천을 거쳐 기린면 현 2리 下馬路에 이르자 그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결심하고 밭을 일구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부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손들이 下馬路 언덕에다가 합장하였다. 세월이 흐르자 그 묘 주위에 영월엄씨를 비롯한 많은 묘가 생겨 후손들이 대감의 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그 무렵 현리 下德에 사는 한 長孫의 꿈에 대감이 나타나 「주변의 다른 묘를 다 옮기라」고 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 후 이 묘지 부근에다가 빨래를 널면 꼭 한 가지씩 없어졌는데 다음날 보면 빨래가 묘 앞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부터는 이 근처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禁忌의 글이 써 있었다. 그 뒤로 빨래를 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앞을 지날 때는 말탄 사람이 반드시 내려서 가야 하는 풍습이 생겼다. 언젠가 현감이 대감의 묘 앞을 말타고 지나다가 말 발굽이 땅에 붙어가지 못하자 현감이 연유를 알고서 내려서 지나갔다. 다음날 현감이 下馬碑를 세우고 그 길을 下馬路라 하였다 한다.<sup>5</sup>

※이학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5 『민속지』(강원도, 1989), 268쪽.

## 9 기린면 권진사의 이상향놀이

### ■ 놀이의 원형

우리나라 3대 야담집의 하나인 『청구야담(靑邱野談)』에 전하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만든 놀이이다. 이야기의 원제목은 <방도원권생심진(訪桃源權生尋眞)>이다. 이를 번역하면 <무릉도원을 찾은 권 진사> 정도로 할 수 있다. 이야기 속에는 춘천 기린창이라고 하여 이야기의 소재지가 인제군 기린면임을 알 수 있다. 또 이야기 중에는 춘천 낭천(狼川)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낭천은 지금의 화천을 일컫는다. 인제군 기린면이 예전에 춘천의 속현이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신선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동경이 풍류와 여행을 즐기는 권 진사와 인제의 이상향을 연결시켰다. 그러나 이상향은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는 갈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안온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인간은 그런 이상향을 동경하면서 또 다른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설정이 <기린면 권 진사의 이상향놀이>에 담겼다.

### ■ 마을 소개

인제군 기린면은 인제읍과 상남면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방태산 등의 커다란 산이 배경으로 있고, 마을 앞으로는 내린천이 굽이굽이 흘러간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원형이었는데, 군단사령부가 들어오면서 군사지역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내린천 래프팅이 부각되면서 래프팅관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역시 면소재지를 빼고는 한적한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기린면 현리는 고려시대 평장사를 지낸 박원평 대감이 만 호를 하사 받아 살던 곳이다. 이곳에 살면서 왜구를 물리치고 선진문물을 전한 인물이기에 마을에서는 서낭신으로 좌정하여 모시고 있다. 지금도 면사무소 뒤에 사당이 있고, 묘소도 있다.

또 『조선무예도보통지』를 지은 조선후기의 인물 백동수가 바로 기린면 현리에 8년간 은거한 곳이다. 이곳에 은거하면서 『조선무예도보통지』를 집필했다.

기린면 자체도 정말 이상향처럼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이곳에서 내린천을 따라 미산쪽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이상향의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얼마든지 <무릉도원을 찾은 권 진사>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이다.

## ■ 놀이의 유래

이상향에 대한 동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이 놀이는 초시대적인 놀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이런 형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류 작품들이 수 없이 나왔다. 어쩌면 모든 사람의 이상 이면서 모든 예술 작품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노자와 장자가 꿈 꾸 세계도 이런 세계이고, 불교나 유교에서 꿈꾸는 세계도 궁극적으로 그들만의 이상세계였다. 속세의 비리와 불합리가 모두 씻어지고, 맑고 깨끗한 세계가 이뤄지기를 바란 것은 이처럼 초시대적이고 초인간적인 꿈이다.

이런 인간의 꿈을 『청구야담』에 나온 <무릉도원을 찾은 권 진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각색하여 연출하는 것이다.

## ■ 놀이의 특색

이 놀이는 민속분야 중 민속문학분야에 속한다. 구비문학을 민속놀이로 각색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 이야기가 기린면 사람들로부터 향유되고, 그렇게 향유되던 이야기가 『청구야담』이라는 야담집에 기록돼서 전승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놀이는 인제군의 특정 민속은 아니다. 다만 인제 기린면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제의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심성에 자리한 민속을 통해 민속놀이로 연출하였다. 그 때문에 더욱 특징적인 면이 있고 의미 있는 놀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행적을 따라서 놀이는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서사의 양식을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마치 마당극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 ■ 무대

성균관, 주막, 시골장날, 이상향, 사랑방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30명

소 품: 말, 약림, 장 풍경, 소, 고기잡이 도구, 도시락, 햇불, 책 등

## ■ 시나리오

- 〈기린면 권진사의 이상향놀이〉라는 깃발을 들고 마당놀이를 할 무대로 들어선다.
- 무대에 들어서서 곧 바로 무대설치를 하고 마당놀이 준비를 한다.

권 진사: (나그네 복장을 한 권 진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기린 장을 구경하고, 주막의 방에 들어와 앉는다.)

사람들: (장날 풍경을 연출한다.)

참지: (약림을 쓴 노인이 소를 타고 주막에 와서 내린다. 권 진사의 복장이 이곳 사람이 아님을 보고, 노인은 주모에게 묻는다.) “저 방 손님은 어떤 양반이요?”

주모: “저 분은 서울에 사시는 권진사님입지요. 전국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저희 집에도 3번이나 오셨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공부에 뜻이 없어 사마천처럼 유람을 한답디다.”

참지: “저 양반이 잘 아는 게 있소?”

주모: “풍수지리학에 꽤 통달하셨지요.”

참지: “그럼 내가 혹시 저 분을 좀 모셔갈 수는 없겠소?”

주모: “아마 괜찮을 겁니다.” (주모는 머뭇머뭇 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권 진사에게 말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참지가 진사님의 재주를 듣고 지금 진사님을 모셔가겠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진사님께서도 의심하지 마시고 잠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진사: “이곳에서 멀지만 않으면 한 번 놀고 오는 것을 내 어찌 마다하겠소?”

참지: (참지가 씨익 웃으면서 권 진사를 보고 말하였다.) “제가 진사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금 소를 타고 왔으니 잠시 누추한 제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떠실지요?”

권 진사: “참지의 집이 이곳에서 몇 리나 되오?”

참지: “이곳에서 30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소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참지는 고삐를 잡고 뒤에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정오 무렵이었다. 타고 있던 소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대략 3, 40리쯤 갔을 때 권진사는 참지에게 물었다.)

권 진사: “영감께서 사시는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려.”

참지: “제가 사는 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권 진사: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몇 리쯤 온 것이요?”



첨지: “80리 정도 왔습니다.”

권 진사: (몹시 이상히 여기며 권진 사는 말했다.) “지금 이곳까지 거의 100리를 왔는데도 마을이 아직도 멀리 있다니요? 그럼 어째서 처음에 30리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영감은 나를 속여 데려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첨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막 주인은 내가 30리쯤 되는 마을에 산다고만 알지, 내가 진짜 사는 곳은 알지 못합니다.”

(권 진사와 첨지는 계속해서 깊은 산의 골짜기로 들어갔다. 낙엽이 정강이까지 차 오르는데 길은 하나였다.)

첨지: (오후 서너 시쯤 되자 첨지가 소를 멈추며 말했다.) “잠시 내려서 요기나 하고 가시지요.”

(권진사와 첨지는 물가에 가서 앉아, 미리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물을 떠서 마신 뒤 다시 소를 타고 간다. 해는 이미 서산에 지고 시간은 황혼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시 뒤 멀고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났다.)

동네사람: “왔습니까?”

첨지: “왔네!”

(수십 명의 젊은이가 횃불을 들고 고개를 넘어와 권진사와 첨지 가는 길을 인도한다.)

권 진사: (갑자기 나타난 마을에 눈이 휘둥그래지며 묻는다.) “여기에 이렇게 큰 마을이 있었소.”

첨지: “여기서 오늘 밤은 쉬시지요.”

(사방에서 닭과 개 짖는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권 진사는 노인이 전해 준 집으로 들어간다.)

권 진사: “아이고, 잘 잤다.”

(이튿날 잠에서 깬 권 진사는 방에서 나와 마을을 둘러본다.)

첨지: “잘 주무셨습니까?”

권 진사: “아니, 여기에 이렇게 큰 마을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군요. 집이 200여 호에, 기름진 평야가 20여 리나 펼쳐져 있고, 주경야독을 하는 젊은이들까지,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닙니까?”

첨지: (그냥 상긋이 웃는다.)

권 진사: (갑자기 무릎을 꿇는다.) “주인께서는 신선이십니까, 귀신이십니까? 이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까?”

침지: (놀라서 말했다.) “진사님! 어째서 갑자기 존댓말을 하십니까! 나는 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대에는 경기도 고양에 살았는데, 우리 증조부께서 마침 이 곳을 찾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친가 외가 친척을 통틀어 따라오고 싶어 했던 30여 호가 따라왔지요. 일단 이곳에 온 후에는 세상과 연을 끊기로 하고 경서 몇 권과 소금, 양념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논을 만들어 먹을 것을 해결하였고, 결혼은 이 안에서 해결해서 우리끼리 살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이제 마을에 집만 200채 가까이 됩니다.”

권 진사: “먹고 입는 것이여 이 안에서 농사짓고 베 짜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도, 소금 같은 것은 어찌 하십니까?”

침지: “진사님께서 어제 타셨던 소는 하루에 200여 리를 갑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이곳에 오실 때 테러온 소가 새끼를 낳은 것인데, 이처럼 잘 걷는 소가 매년 한 마리씩 태어납니다. 이웃 마을에 다닐 때는 이 소를 타고 가서 소금을 사옵니다. 산에 노루, 사슴, 멧돼지, 산양이 있으니 그 고기를 먹고, 산 주변에 벌꿀 통 300여개를 치고 있는데 주인이 없이 서로 양보하며 쓰고 있습니다.”

(권 진사는 노인의 접대를 받으며 며칠을 그곳에서 지낸다. 흐느적흐느적 권 진사는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한다.)

침지: (하루는 침지가 소년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권 진사님을 모시고 물고기나 좀 잡아 오거라.”

소년들: “예, 알겠습니다.”(소년들은 권 진사를 데리고 물가에 가서 막대기를 들고 물을 내리치며 물고기를 잡는다. 물고기가 한 자나 되는 것들이 여러 마리 물 위로 떠올랐다.)

권 진사: “물고기 이름이 뭐고.”

소년들: “목역어예요.”

권 진사: “거 참 실하게도 생겼네. 그러.”

소년들: “맛이 참 좋아요.”

권진사: “제가 이 마을에 머문 지 벌써 한 달 가량 되었구려.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내 나갔다가 다시 오리다.”

침지: “이 마을은 춘천도, 또 낭천도 아닙니다. 이 너른 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몇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다 사람들이 이곳에 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사님이 이곳에 오셨던 것도 다 인연이니, 이 산을 나가신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마십시오.”

권진사: “나도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첨지: “쉽지 않을 것ियो. 쉽지 않을 것ियो.”

권진사: (산을 나오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를 한다.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다. 아이들이 힘들어 하자, 권 진사는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아이들: “아버지 집으로 가요. 배가 고파요.”

권 진사: (산을 나온 이후 늙도록 집에서 머물며 매일 탄식한다.) “내 평생에 한 번 진짜 무릉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 속세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까닭에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그 곳에 가지 못하였구나!”

- 무대는 내려지고, 마당극은 끝이 난다.

- 사람들 모두 퇴장한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권 진사, 첨지, 주모, 장날 사람들, 소년들, 가족들 등

##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무릉도원을 찾은 권진사(訪桃源權生尋眞)〉

▶ 설화의 위치: 이 설화는 인제군 기린면을 배경으로 전하고 있다. 인제 기린의 어느 지역을 무릉도원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제목 자체가 도원을 찾은 권진사로 되어 있다.

▶ 설화의 내용: 백문 밖에 사는 권진사는 어린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공부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놀러 다니기만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마천처럼 세상을 유람하는 풍취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는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안 가본 곳이 없었으며, 명산대천과 경치 좋고 조용한 곳은 모조리 찾아갔고 어떤 곳은 두세 번 가기도 하였다.

그가 어느 날 춘천 기린창에 갔는데, 그날은 마침 장날이었다. 권진사가 주막에 앉아 있는데 약림을 쓰고 소를 탄 어떤 사람이 주막에 오더니 그곳의 주모에게 물었다.

“저 방 손님은 어떤 양반이요?”

주모가 말하였다.

“저 분은 서울에 사시는 권진사님입지요. 전국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저희 집에도 3번이나 오셨기에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저 양반이 잘 아는 게 있소?”

“풍수지리학에 꽤 통달하셨지요.”

“그럼 내가 혹시 저 분을 좀 모셔갈 수는 없겠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잠시 뒤 주모가 방에 들어가 권진사에게 고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첩지가 진사님의 재주를 듣고 지금 진사님을 모셔가겠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진사님께서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잠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권진사는 주막에만 며칠을 있어 심심했기에 바로 대답했다.

“이곳에서 멀지만 앓으면 한 번 놀고 오는 것을 내 어찌 마다하겠소?”

이에 첩지라는 자가 와서 권진사를 뵈고 말하였다.

“제가 진사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금 소를 타고 왔으니 잠시 누추한 제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떠실지요?”

권진사가 물었다.

“첩지의 집이 이곳에서 몇 리나 되요?”

“이곳에서 30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소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첩지는 고삐를 잡고 뒤에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정오 무렵이었다. 타고 있던 소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대략 3, 4리쯤 갔을 때 권진사는 첩지에게 물었다.

“영감께서 사시는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려.”

“제가 사는 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몇 리쯤 온 것이요?”

“80리 정도 왔습니다.”

권진사는 몹시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지금 이곳까지 거의 100리를 왔는데도 마을이 아직도 멀리 있다니요? 그럼 어째서 처음에 30리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영감은 나를 속여 데려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막 주인은 내가 30리쯤 되는 마을에 산다고만 알지, 내가 진짜 사는 곳은 알지 못합니다.”

권진사는 마음속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와버린 터라 그냥 가기로 했

다. 마을로부터 30리 정도 나오자 그 후에는 계속 깊은 산과 골짜기였다. 낙엽은 사람 정강이까지 차올라 있는데, 그 사이에 단지 작은 길 하나만 나 있었다.

오후 서너 시쯤 되자 침지가 소를 멈추며 말했다.

“잠시 내려서 요기나 하고 가시지요.”

권진사는 소에서 내려 물가에 가서 앉았다. 미리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물을 떠서 마신 뒤 다시 소를 타고 갔다. 해는 이미 서산에 지고 시간은 황혼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시 뒤 멀고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나자 침지가

“왔네!”

라고 크게 소리쳐 대답했다.

권진사가 소의 등 위에서 보니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고개를 넘어오는데, 모두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이 횃불을 가지고 권진사와 침지 가는 길을 인도했다. 고개를 넘어 내려가자 어렴풋한 가운데 한 큰 마을이 있고, 닭과 개 짖는 소리, 다들이 방망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곧 어떤 집에 도착해 소에서 내려 문 안으로 들어가니, 방과 창이 정교하고 깨끗하였으며 용마루와 처마가 앞이 탁 트여 널찍하였으므로 산골 촌사람들이 사는 곳 같지 않았다.

그 다음날 마을을 두루 살펴보니, 인가는 200여 호 되는 것 같았고 앞에 펼쳐진 평야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모두가 기름진 땅이었다. 그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자 20여리라고 하였으니, 이곳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밖 무릉도원이었다. 또 벽을 사이에 둔 대여섯 간의 방에서는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려 물어보니, 마을의 젊은이들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며 놀지 않고 주경야독하며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이었다. 권진사가 팔도를 두루 유람하면서 소원이 무릉도원을 한 번 보는 것이었기에 너무 기쁜 나머지 침지에게 무릎을 꿇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신선이십니까, 귀신이십니까? 이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까?”

침지가 놀라서 말했다.

“진사님! 어찌서 갑자기 존댓말을 하십니까! 나는 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대에는 경기도 고양에 살았는데, 우리 증조부께서 마침 이 곳을 찾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친가 외가 친척을 통틀어 따라오고 싶어했던 30여 호가 따라왔지요. 일단 이곳에 온 후에는 세상과 연을 끊기로 하고 경서 몇 권과 소금, 양념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논을 만들어 먹을 것을 해결하였고, 결혼은 이 안에서 해결해서 우리끼리 살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이제 마을에 집만 200채 가까이 됩니다.”

“먹고 입는 것이여 이 안에서 농사짓고 베 짜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도, 소금 같은 것은 어찌 하십니까?”

“진사님께서 어제 타셨던 소는 하루에 200여 리를 갑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이곳에 오실 때 데려온 소가 새끼를 낳은 것인데, 이처럼 잘 걷는 소가 매년 한 마리씩 태어납니다. 이웃 마을에 다닐 때는 이 소를 타고 가서 소금을 사옵니다. 산에 노루, 사슴, 멧돼지, 산양이 있으니 그 고기를 먹고, 산 주변에 벌꿀 통 300여개를 치고 있는데 주인이 없이 서로 양보하며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침지가 소년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권진사님을 모시고 물고기나 좀 잡아 오거라.”

그 소년들 중 어떤 소년은 겨와 쭉정이를, 어떤 소년은 뽕죽하게 깎은 막대기를 가지고 일제히 한 연못에 모였다. 물속에 겨를 풀어 넣고 그것이 아래로 가라앉자, 소년들은 일시에 몽둥이를 가지고 수영하며 내리쳤다. 조금 지나니 한 자나 되는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무슨 고기냐고 묻자 “목먹어”라고 하였는데, 붕어와 비슷하였으나 흰 비늘이 있었다.

권진사는 한 달 가량 그 마을에 머물며 모든 것을 구경하였다. 그 마을을 떠날 때 침지는 거듭 부탁했다.

“이 마을은 춘천도, 또 낭천도 아닙니다. 이 너른 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몇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다 사람들이 이곳에 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사님이 이곳에 오셨던 것도 다 인연이니, 이 산을 나가신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마십시오.”

권진사가 말했다.

“나도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침지가 말했다.

“쉽지 않을 것이요. 쉽지 않을 것이요.”

권진사는 산을 나온 이후 늙도록 집에서 머물며 매일 탄식하였다.

“내 평생에 한 번 진짜 무릉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 속세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까닭에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그 곳에 가지 못하였구나!”(『청구야담』)

▶ 설화의 의미: 이 이야기는 중국의 <도화원기>와 같은 발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곳곳에 아주 많이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다. 그래서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도원사상이 깊게 뿌리내려서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현실이 살기 좋다면 굳이 이상향을 생각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런데 이런 <도화원기>류의 이상향을 설정한 설화는 모두 한 번 갔다 온 후에는 다시 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곳에 다녀 온 후 다시 가는 길을 잃게 되며, 그 때문에 영영 무릉도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고담으로만 옛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고담으로만 남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런 무릉도원을 만들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의 정치나 행정을 비롯해서 삶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무릉도원은 하나의 꿈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언젠가는 꼭 그런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희망은 저버리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 10 진동리 고기진상놀이

### ■ 놀이의 원형

인제군 진동리 고기진상놀이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제보자의 설화구술에 따른 고기잡이놀이이다. 『강원의 설화』에 의하면 <바로대고, 거꾸로 댕, 엄선달의 채치>라는 설화가 전한다. 이야기는 이렇다.

진동리에 살고 있는 엄 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인제현감은 매번 임금님께 진상을 한다고 해서 진동리 주민들에게 고기를 잡아 올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진동리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에 엄 씨는 임금을 만나서 이 사실을 고하고 개선해 줄 것을 아뢰기 위해서 서울로 갔다. 임금을 만나 그 사실을 이야기 해보니, 임금은 모르는 사실이었고, 진상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임금은 인제 현감에게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고기 종류나 말해 보라고 해서 엄 씨는 물고기 이름을 엄청 많이 대서 백성들이 힘든 사실을 알렸다. 임금은 엄 씨 때문에 사실을 알았으며, 엄 씨가 용기를 내서 한양까지 올라와 알린 사실을 칭찬하고 선달의 벼슬을 주어 고향을 돌보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탐관오리에 대항하여 불합리를 바로 잡는 백성의 의식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이 과정에 진동리의 고기잡이라는 생업민속이 개입된 것이다.

### ■ 마을 소개

인제군 진동리는 기린현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진동(眞東)이라 했는데, 나중에 진동(鎭東)이 되었다. 양양군 서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점봉산과 가칠봉을 끼고 있으며, 진동계곡에는 방태천이 흐르고 있다.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추대계곡과 아침가리계곡은 아름다움 때문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방태천은 내린천과 합수를 하여 소양강을 이루는 물길이다.

이 마을은 주변에 산이 많은 관계로 주 소득원은 약초재배이다. 그리고 밭농사가 많다. 화전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화전금지를 하고 주민 수가 줄었다. 마을이름도 신전리(薪田里), 치전리(雉田里), 문현리(文峴里)처럼 모두 산비탈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계곡이 깨끗하고 아름다울뿐더러 물길이 좋고 고기가 많아 야영객들이 펜션, 민박, 텐트를 이용해서 놀다가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 ■ 놀이의 유래

생업민속놀이는 오래 전부터 행해져 온 우리의 전통이다. 그 중에 고기잡이는 생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생업일 수도 있지만 천렵이라는 놀이의 형태로도 고기잡이는 유명하다.

특히 인제의 특산물 가운데는 물고기가 예부터 이름 나 있다. 『여지도서』와 『관동지』에 의하면 11개의 물산 가운데 3가지가 물고기이다. 곧, 놀어(訥魚)라 해서 누치, 여항어(餘項魚)라 해서 열목어, 금린어(錦鱗魚)라 해서 쏘가리가 그 항목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맛있는 고기가 많다보니, 지방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고기를 잡아 올리라고 했던 것이다. 이에 백성들은 관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관리가 요구하는 양만큼 고기를 잡다 보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이 같은 애환을 담아 낸 것이 <진동리 고기진상놀이>이다.

## ■ 놀이의 특색

이 놀이는 고기잡이놀이이지만 천렵과는 다르다. 자신들이 먹고 놀며 즐기기 위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탐관오리 때문에 억지로 고기를 잡아 말리고 진상을 해야 하는 힘든 노동이다. 그렇다고 노래를 동반한 노동도 아니다.

그저 인제현령의 독촉에 의해서 관리의 감독을 받으며 고기를 잡아야 하는 노동일 따름이다. 이 때문에 진동리 고기진상놀이는 상당히 삭막하면서 단조롭게 진행이 된다.

다만, 전통적인 고기잡이방법은 모두 동원된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므로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야 했다.

## ■ 무대

진동리 추대 및 아침가리 계곡, 방태천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40명

소 품: 고기잡이 도구, 말리는 도구, 운반도구, 고기썰음 등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진동리 고기진상놀이〉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한다.
- 입장을 할 때는 즐거운 표정을 짓지 말고, 고된 표정을 짓는다.

둘째마당 ⇒ 인제현령의 독촉 및 진동주민 형벌

- 인제현령이 동헌에서 형틀을 만들어 놓고 진동리사람을 불러 진상한 고기 양이 적다며 형벌을 가한다.
- 진동리 사람들은 가지고 온 고기를 가리키며 애로사항을 말한다.
- 인제현령은 사정을 보자주지 않고 오히려 고기 양을 더욱 많이 하라며 형벌을 가한다.
- 진동리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얘기하지만 소용이 없다.
- 인제현령은 고기를 더 잡아 올 것을 독촉하면서 진동리사람들을 놓아 준다.

셋째마당 ⇒ 고기잡아 말리고 옮기기

- 진동리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다.
- 도구도 다양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 잡은 물고기는 배를 따고 싸리나무에 꽂아서 엮어 말린다.
- 말린 고기를 묶어서 지계에 지고 인제동헌으로 옮긴다.

넷째마당 ⇒ 임금님께 알리고, 탐관오리 혼내기

- 보다 못한 진동리의 젊은이 엄 씨가 임금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한양으로 올라간다.
- 동네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엄 씨보고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한다.
- 한양에 당도한 엄 씨는 궁궐 앞에서 임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몇날 며칠을 농성을 한다.
- 드디어 임금님을 만난 엄 씨는 인제 진동리 고기잡이 진상에 대한 현실을 말한다.
- 엄 씨는 일이 잘 되어 금의환향하고, 다시는 고기를 잡아 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임금은 암행어사를 보내 인제현령을 혼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

다섯째마당 ⇒ 퇴장

- 진동리 마을사람들은 모두 일싸 좋아하며 퇴장을 한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임금, 현령, 아전, 암행어사, 엄 씨, 진동리 사람들 등

##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바로 대고, 거꾸로 댄, 엄선달의 채치〉

▶ 설화의 위치: 인제군 진동리 갈터 또는 추대리라고 하는 곳이다. 우리가 보통 아침가리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곳은 여름이면 피서 인파로 계곡을 가득 메우는 곳이다. 이곳에는 물고기가 많은데 오늘 이야기는 이 물고기에 얽힌 것이다.

▶ 설화의 내용: 진동리 추대리는 가을 추(秋)자에 터 대(垓)자를 써서 추대라 하는데, 가을 터라고 해서 줄여 갈터라 하기도 한다. 갈터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아침가리라는 곳으로 간다. 아침가리에서 넘어가면 홍천군 내면 명지거리가 된다.

그런데 이곳은 골물이 많지는 않지만 물고기가 많기로 아주 유명하다. 물고기 종류도 많지만 물이 맑고 깨끗해서 그 맛도 아주 일품이다.

옛날 어느 때는 잘 모르지만, 이곳의 물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진상을 했던 적이 있다. 진상은 임금님께 올리는 것을 말하는 데, 하여튼 이곳의 물고기를 진상하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짝 말려 진상을 했다. 그런데 진상을 하라는 양이 너무 많았다. 지금으로 치면 하루에 몇 톤 분량의 물고기를 진상하라는 것이었다. 진상을 하지 않으면 인제현에서 관리를 보내서 독촉을 일삼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곳 갈터 사람들은 모두 진상할 물고기를 잡아 말리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그렇게 매일 물고기를 잡다가 보니 이곳 사람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물고기 잡느라고 농사를 지을 시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터 사람들이 매일 잡아 진상하는 물고기는 사실 임금님께 올라가지 않았고, 중간에서 모두 갈취해 먹고 말았다. 말하자면 인제현감과 춘천부사와 강원감사가 중간에서 모두 먹어치우고 말았던 것이다. 진상이란 명목으로 임금의 물건을 갈취한 것인데, 그 때문에 점점 더 진상하라는 물고기의 양은 늘어가고, 농민들의 생활은 그에 비례해서 점점 더 궁핍해졌다.

그때 이곳 갈터에 엄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엄 씨는 말 주변이 탁월해서 갈터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다. 엄 씨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갈터 사람들이

모두 물고기 잡는데 지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엄 씨는 임금님께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개선해 줄 것을 아뢰기로 하였다.

엄 씨가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궁궐지기들이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 씨는 매일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였다. 계속 그러니 어느 덧 시골 선비가 매일 대궐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소문이 임금님한테까지 들렸다.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엄 씨를 들여보내라 했다. 임금님은 엄 씨를 보고 “그래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러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엄 씨는 고향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목조목 아뢰었다. “매일 임금님께 진상한다고 물고기를 몇 톤씩 잡아 올리라 하니,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어 갈터 백성들이 모두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상하는 물고기 양을 줄여주시든가. 아예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얼마 후 신하가 와서 아뢰었다. “엄 씨의 말이 사실입니다.” 임금님은 갈터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를 맛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도대체 그곳에 어떤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 이름이나 대보라고 했다.

엄 씨가 생각하기를 물고기 이름을 몇 개만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은 고기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막 읊기 시작했다. “క్క지, 덕지, 미유기, 미애기, 비애기, 옛미기, 덧미기, 탕가리, 통가리, 텅가리, 쉬리, 세리.....”하면서 비슷한 이름을 대고 또 거꾸로 대고 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읊었다.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농민들이 잡아 올리려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네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 사실을 알렸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너에게 선달의 벼슬을 줄 터이니, 고향에 돌아가서 폐단을 없애고 농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이 갈터에 가면 비석에 새겨져 있다.(『강원의 설화』)

▶ 설화의 의미: 아침가리의 강에 고기가 많다는 것을 말하면서 탐관오리들의 행패를 고발하는 설화이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을 때는 그냥 참지 말고 그 억울함을 알려야 한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 선달이 갈터의 실상을 임금님께 알리지 않았다면 탐관오리의 행패는 더욱 심했을 것이고, 억울하게 임금님만 욕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갈터의 주민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했을 것이 뻔하다. 이처럼 억울함과 비리와 불합리가 있을 때는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설화이다.

## 11 정자리 서낭굿

### ■ 놀이의 원형

정자리 서낭굿은 인제군 남면 정자리 셋말 서낭당 행사에 기원을 둔다. 셋말서낭당은 정자리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일 년에 두 번 음력 3월3일과 9월9일에 마을 제사를 지냈다. 그러다가 마을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 반 별로 제사를 지냈다. 각 반 별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이곳 서낭당에 모든 마을사람이 찾는 곳이었다. 새 곡식이 나뉘는, 새 옷을 사 입어도 먼저 서낭당에 바쳤다.

특히 9월9일에 지내는 서낭제는 그야말로 축제였다. 집집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낭당에 올렸다. 어떤 이는 술을 빚어서 가져오고, 어떤 이는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어떤 이는 부치기를 부쳐 가져오곤 하였다. 서낭당 앞에 온갖 음식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을 나눠먹으며 하루 종일 놀았다.

그렇게 마을제사는 매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참가하지 않자 마을제사는 점점 위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박 무당이 찾아왔다. 박 무당은 5월5일 단오에는 마을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베풀었고, 9월9일 중구날에는 서낭제를 지냈다. 돼지를 마리째로 제물로 올리고 굿을 하면서 제를 지냈다. 그리고 서낭굿이 끝나면 제물로 올렸던 마리와 떡 등 온갖 제물을 마을 경로당에 드려서 잔치를 열었다. 이제는 아예 서낭당에 당집을 짓고 돌담 등을 쌓아 언제든 와서 기거할 수 있게 하였다.

정자리 셋말 서낭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곧 마을사람들 주축으로 지내던 서낭제에서 무당이 굿을 함께 하는 서낭굿으로 바뀌었다. 축제의 현장이 마을제의에서 굿을 동반한 마을제의로 바뀌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 마을 소개

정자리는 인제군 남면에서 가장 오지 마을 중 하나였다. 정자리에는 옛날 정자막(亭子幕)이 있어서 정자리가 되었다. 정자막은 사람이 쉬어가는 주막이었다. 산에 산적이 많아서 혼자 가면 물건도 빼앗기고 목숨도 위험하므로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가기위해서였다.

정자리는 약 30여 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은 6.25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바로 마을 뒤로 난 산

으로 38선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자리에는 경찰서가 들어와 있었으며, 양조장이 운영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려들었다. 전쟁 중에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결사대 및 청방이 조직되어 중공군과 인민군을 상대로 싸워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38선이 지나가는 기령골 수리봉에 올라가면 얼마 전까지도 해골이 뒤엉켜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화전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백여 호가 넘는 주민이 살고 있을 정도로 꽤나 컸다. 마을의 중심점 역할을 하던 정자초등학교는 2016년에 완전히 헐렸다. 마을이 이렇게 변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을의 일부가 군부대지역으로 편입되면서부터이다. 마을사람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은 보류되었으나 마을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지는 불운을 낳았다. 고향을 지키겠다는 측과 땅을 팔아 목돈을 챙겨 도회지로 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뉜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주로 채소와 산나물, 그리고 약초 등을 경작한다. 정자리의 표고가 채소 농사를 하기에 적절한 탓이다.

마을길이 뚫리기 전에는 마을 인심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음식을 해서 서로 먹으러 오라고 했고, 뭐든 단합이 잘 되고 하였다. 도로가 뚫리고 자동차로 시내까지 땀땀 다닐 수 있게 되자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 비해서 아직도 옛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은 1개리 4개 반인데, 마을제사가 5곳에서 지내고 있다.

## ■ 놀이의 유래

서낭국은 굳이 어떤 문헌의 근거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이다. 마을 곳곳에서 제의를 지낼 때면 굳이 행해지고 마을사람들은 구경을 했다. 이러한 전통이 아직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강릉단오제이다. 강릉단오제는 굿놀이로 잔치를 여는 세시풍속이면서 민속신앙이다. 대관령에 있는 범일국사 서낭당에서부터 굿이 시작되어 대관령 옛길을 따라 학산서낭당 여서낭당 남대천 단오현장까지 이어지면서 굿은 진행된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굿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정자리서낭당에서 행해지는 서낭국도 우리의 전통을 이어주는 현상이다. 크게 특별할 것도 없지만, 서낭국이 없어지는 요즘 오히려 서낭국을 이어 진행하게 된 사례가 되어 푸근한 느낌이 든다.



## ■ 놀이의 특색

정자리 서낭굿은 경로잔치와 함께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 마을사람들이 서낭제를 지낼 때 함께 반겨주고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애초의 서낭제는 마을사람들이 각자 제물을 준비해서 제당에 바치고 제의를 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을에 도가를 선정하든가, 제비를 거두어서 제물을 마련하는 등의 일반적인 서낭제와 다른 모습을 띤다. 마을축제라는 원시적인 제의형태가 오랫동안 존속해 왔다는 증거이다. 이 때문에 제의를 지낼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노래하고 놀았다. 이는 제의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원시종합예술의 잔존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자리 서낭제는 특별한 의미를 띤다.

## ■ 무대

정자리 서낭당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50명

소 품: 서낭제단, 정자리 서낭굿 깃발, 각종 제물 등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정자리 서낭굿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입장을 한다.
- 사람들 마다 각자 제물 등을 들고 입장한다.

둘째마당 ⇒ 부정굿, 산신굿

- 제단에 제물을 차린다.
- 정자리 서낭제라는 글귀를 제단 앞에 내걸고, 부정굿을 진행한다.
- 부정굿을 할 때 수구신, 용왕신, 거리귀를 먹인다.
- 산신굿을 한다.

셋째마당 ⇒ 서낭굿

- 산신굿이 끝나면 정자리서낭제의 하이라이트인 서낭굿을 행한다.
- 굿을 하는 도중 사람들의 신수도 봐 준다.
- 작두를 타면서 서낭굿의 절정에 이른다.

넷째마당 ⇒ 한마당굿(뒤풀이)

- 뒤풀이굿을 하면서 함께 먹고 즐긴다.
- 뒤풀이굿을 하고는 퇴장을 한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무당, 마을사람들 등

##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 〈셋말서낭당〉

정자리는 4개 반인데 반마다 서낭당이 있다. 3반은 정자리의 중심 마을이라 할 수 있는데, 마을 중간 길 옆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길가에는 태극기와 무당의 신기(神旗)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 ‘정자리 서낭당’이라 쓴 나뭇조각으로 된 서낭당 팻말이 세워져 있



정자리 서낭당 안내판

다. 팻말은 다 뜯겨져 나가 초라하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다. 팻말 옆을 보면 울창하게 나무숲이 있다. 이 팻말이 있는 곳은 서낭제를 지낼 때 수문장이 머무는 곳이라 한다. 수문은 서낭당을 지키는 신이 머무는 곳이다. 서낭당으로 들어오는 입구로 수문장을 위해서 제물을 따로 놓아둔다. 이곳은 옛날 서낭당이 있던 곳이다. 도로가 나면서 지금 있는 곳으로 서낭을 옮겼다.

팻말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내려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나무에 걸

쳐 놓은 몇 개의 연등(燃燈)이다. 그리고 개울가에 있는 두 개의 초를 밝히는 집기류이다. 그 집기류 위에는 작은 돌부처와 소주와 막걸리와 향로가 놓여 있다. 이곳에는 커다란 돌배나무가 놓여 있어서 매년 돌배를 몇 킬로그램씩 수확을 하고 있다. 나무 아래는 이곳 서낭당에서 사용하는 식수가 앞산 금산골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 팔팔 흐르고 있다. 바로 이곳은 용신이 있는 용신당이다. 그래서 서낭제를 지낼 때는 각종 제물을 올려 용신을 위한다.

그리고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누군가 기거하고 있는 조립식 판넬로 만든 작은 집이 나온다. 그 집 앞에는 ‘정자리서낭당’이라고 한글로 간판을 달았다. 그러나 이 조립식 집은 일명 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곳의 산신각이라 했다. 산신각은 작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세 개의 탕화가 있어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집 옆에는 시멘트와 물들을 사용해서 만든 돌탑이 있는데, 수 돌탑이다. 돌탑이 사실상 서낭당이라고 하였다. 서낭신이 여신이라서 돌탑을 수돌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돌탑 앞 아래쪽에는 미단으로 만든 작은 창문을 만들어 놓았다. 창문 안에는 커다란 초가 두 자루 불이 켜 있는 상태로 타고 있었다. 돌탑의 크기는 높이가 약 5m 이고, 너비가 약 4m 정도 되어 보였다. 돌탑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나무에는 오색 천이 매어져 있는데 그 천은 굿을 할 때 부정을 가르는 것이다. 아울러 연등이 열 개 이상 매달려 있었다. 돌탑과 나무 앞에는 시멘트로 된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제단 위에는 술병과 음료수 병이 몇 개 놓여있고, 신령의 상을 한 인형이 네 개가



서낭제 장면(2016.9.9.)



셋말서낭제(2016.9.9.)

있으며, 조화 다발이 네 개 놓여 있었다.

산신당과 돌담 사이에는 반쯤 고목이 된 커다란 가래나무가 서 있다.

돌담 맞은 편 개울 쪽으로는 버드나무가 있고 그곳에는 네 개의 연등이 걸려 있으며, 나무 앞에는 둥그런 판이 있고 판 위에는 막걸리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는 둥그렇게 깎은 대리석이 놓여 있는데, 서낭제를 지낼 때 객귀밥을 주는 곳이다. 객귀는 제사를 지낼 때 서낭신의 영역이 신성구역이라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귀것들을 위한 음식을 놓아먹게 해 주는 곳이다.

제사는 9월 9일 중구날에 지낸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이다. 그전에는 3월 3일에도 지내고 음력으로 2월에 좋은 날을 받아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9월 9일만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산지당이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서낭당이라 일컫는다. 신은 여자라고 한다. 할머니라고 한다.

예전에는 제보자의 남편이 반장을 보면서 약 20년간 양 제사를 주관해 왔다. 이때는 3월 3일에 하고 9월 9일에 하고 두 번을 했다. 그런데 제보자가 정자리로 시집오기 전에 제보자의 집 자리서 살다가 갔다는 춘천에 사는 무당이 있다. 어느 날부터 이 무당의 꿈에 자꾸 이 서낭당이 나타나서 이곳에 와서 치성을 드리면서부터 마을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중구날 제사를 올릴 때 같이 지내면서 성의껏 제비를 모아 드린다. 그 무당은 제사음식을 한 것은 모두 이 마을에 두고 간다. 그러면 제보자가 음식을 모두 나눠준다. 무당은 나이가 환갑정도이다. 마을제사



수구신제



용신상



를 지내는 날이 아니더라도 무당은 자주 와서 치성을 드리고 간다.

제물은 마리(돼지 1마리)를 쓰는데, 삼지창에 꽂아 놓는다. 제사를 지내고는 마리를 나누어서 먹는다. 떡은 시루떡도 하고 가래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제상을 차리고는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들추면서 안녕과 다복을 빈다. 소지를 올리고, 축문은 따로 읊지 않는다.

마을제사를 지내고 나면 마을에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간다. 악성이라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이 잘 넘어간다. 아주 깨끗하다.

신수는 돌배나무인데 그 나무는 6.25전쟁 이전부터 있는 것으로 지금은 오래돼서 나무속이 비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아들이 지금 34살인데, 도로를 닦기 전에는 길 바로 옆에 있어 높이가 같았다. 세 살 먹던 해이다. 신정으로 하면 4살이고 구정으로 하면 세 살이었을 때다. 음력으로 따지면 8월인지 9월인지 그 달 수는 정확하지 않다. 그때 동갑짜리 둘 하고 한 살 덜 먹은 애하고 아무 이유 없이 서낭을 모두 부셨다. 그 당시 서낭당은 나무토막을 잘라서 만들어 놓은 서낭당이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남의 일을 가고 남편은 논두렁을 깎으러 갔다. 그래 여기 집짓기 전인데 마루가 있었어요. 그래 일 갔다가 오니까, 영감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아들이 서낭당을 다 부셨다는 겁니다. 그때 저 건너 아들만 칠 형제를 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너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보자가 얼른 가서 아이들 셋이서 서낭당을 다 부셔서 그 안에 초니 뭐 옷이니 실타래 등을 독방 아래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소리 말게 그게 6.25직전에 지었는데 그 산신 할머니



객귀상



마리 세우기

가 서낭당이 다 허물어지니까 애들을 불러들여서 허물고 다시 지어달라고 한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깥사람보고 잔을 가져다 부어놓고 내일 집을 잘 지어드린다고 하라 더라고요. 그래 와서 우리 영감에게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래 점방이 있었는데 포하고 술하고 사서 거기에 부어놓고 또 아기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일 잘 지어드린다고 그러고 나서는 그 이튿날 부셨던 아이들 세 명의



성황대제 위패

아빠들이 가서 다시 지어드렸지요. 그랬는데 아무 탈 없이 아이들도 잘 크고요. 우리 아들도 하루에 금메달을 두 개씩 타고요. 그래 서낭당을 부수고도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컸어요. 그래서 서낭당 꼭대기에 함석을 이어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웃 할아버지가 담배 사러 내려오는데 하도 후당당대서 술주정뱅이가 주정을 하는 줄 알고 저리로 돌아서 이 집으로 오니까 글썽 아이 셋이서 이리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하는 말이, 학천이 아들이 아이고 야 도끼를 안 가져왔다. 우리 아빠는 도끼를 놓았던 자리에 놓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되게 혼나. 그러면서 도끼를 가지러 간다면서 도끼를 가져다가 아버지 났던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걸 부셨냐고 하니깐. 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 부셨는지. 그래서 아이들 아버지 셋이서 서낭당을 잘 지어드렸어요. 그 후 메를 지어놓고 계속 우리가 하다가 그분이 꿈에 현몽을 하고 나서는 그분이 말아서 합니다. 그분은 박 씨라고 한다. 그래 그분한테 얘기 했더니 다시 지어달라고 한 것이 맞다 하더라고요. 일이 되려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지요.

돌탑은 춘천의 박 씨라는 무당이 쌓은 것이다. 신령이 여산신이라서 수탑을 쌓았다. 원래는 길가에서 보이게 세웠는데, 마을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길에서 내려 탑을 세웠다.

(제보자: 이금화(여, 72) 정자리 2016.7.21.)

10월 2일 춘천 소양로 봉의산 아래에 있는 소천암을 찾았다. 가을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날이었다. 소천암은 번개시장골목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택 1층을 신당

으로 꾸며놓았다. 문이 열려 있어서 헛기침을 하며 들어서니 단아한 모습의 노인이 나를 맞았다. 나는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내밀면서 내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정자리 서낭당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방문 목적을 알렸다. 인터뷰는 바로 진행 되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정자리 서낭당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태생이 정자리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물론 고향에서 계속 산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기에 정자리에서 태어났고, 크면서 갑둔초등학교, 사창초등학교 등을 거치면서 많은 이사를 했다. 그리고 시집을 가서 경남 밀양에 가서 살다가 무당을 하게 되었다.

무당으로 나서게 된 것은 7남매였는데 동생 세 명이 비명에 가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가 큰집에 갔을 때 보니 무당이 타는 작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형제자매들 중에 누군가 무당이 되어 계승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동생들이 단명을 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무당이 되고 안동에 와서 안동민속 곳에 가담하여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춘천으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춘천에서는 소양제 등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소양제 굿당에서는 작두 타는 무당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정자리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정자리서낭당이 있는 위쪽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낭당의 신이 개울가 아래로 내려와서 서낭당을 짓고 굿을 하며 자신을 모셔달라고 하였다. 이때는 이미 동네 아이들이 무단히 서낭당을 부순 사건이 있을 때였다. 아이들이 서낭당을 부순 것은 이미 서낭신이 알고 아이들을 시켜서 부수게 만든 것이라 했다.

그렇게 정자리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에 매년 단오와 중양절이 되면 정자리에 가서 서낭제를 지내고 마을 경로잔치를 열게 되었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서낭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마을 노인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하고 인순선 인제군수로부터도 감사패를 받았다.

단옷날 경로잔치를 할 때는 군수 내외가 모두 와서 함께 한다. 재작년에는 무려 60여 분이 와서 잔치를 빛내주었다. 그때는 그 다음 다음 날이 투표일이라 정자리 경로잔치가 디데이행사였다. 그래서 선거운동원들 먼저 대접하고 나중에 노인들 식사대접을 하였다. 그 때문에 남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자리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2016년에는 마을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서낭굿을 하게 되었다. 서낭굿은 박정숙(여, 65) 무당의 주관으로 행해진다.

2016년 10월 9일(음력 9월 9일) 아침 7시 30분에 춘천 집에서 출발해서 정자리로 향했다. 이날은 정자리에서 서낭제가 열리는 날이다.

나는 먼저 기령골에 갔다가 제사가 6시 30분에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한 마음에 셋말로 내려왔다. 행여나 이곳도 안심했다가 놓칠 수 있다는 기우 때문이었다. 그러나 셋말에 내려왔더니 아무도 없었다. 춘천의 날씨만 믿고 옷을 얇게 입고 간 것이 내내 후회 되었다. 얇은 여름 점퍼이지만 목까지 꼭 옷깃을 여미고 가까운 마을을 둘러보았다. 이미 여러 번 왔다가서 익숙한 마을이지만 아침 일찍 보는 마을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서낭당 아래에 있는 쉼터가 눈에 들어왔다. 울긋불긋 주변에 심은 나무들이 벌써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살이 살폈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등나무며 나무 의자가 얼른 눈에 들어왔다. 주변에는 산수유, 산사춘, 마가목 등의 나무 열매가 가을을 맞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족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터는 누가 가꾸었는지 풀 한 포기 없이 깨끗했다. 공터 아래 물 건너 다리 쪽에는 고추를 따서 상자에 담아 경운기에 싣고 오는 노인이 있었다. 나는 다가가 인사를 하고 오늘 서낭제를 보러왔다고 하였다. 노인은 고추를 따서 가락동시장에 보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을 했던 모양이다. 몇 가지 마을에 대해서 물었으나 잘 알지 못 한다고 하였다.

시간이 왜 이리 더디 가는지 나는 처음 느낀 듯했다. 아침 10시에 서낭제를 지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1시간 남짓 기다린 시간은 참 오래 걸렸다. 그렇게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대로 구경을 하며 보내다 보니, 가락동시장으로 가는 농산물 운반 트럭이 서낭당 앞에 와서 섰다. 웬지 먼저 몇 번 보았다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뜨문뜨문 마을사람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차에 싣고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을 보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으나 판로 때문에 애를 먹던 생각이 났다. 참 좋은 시스템이란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10시로 접어들었다. 나는 혹시나 잘못 날짜를 알지나 해서 박정숙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 15분 후면 도착한다고 했다. 이윽고 서낭당에 도착한 그들 일행은 차에 싣고 온 온갖 제물을 내렸다. 참 많이도 작은 차에 싣고 왔다. 3명이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제물을 차리기 시작했다. 제물은 산신당, 서낭당, 용왕당, 수

문장, 객귀까지 모두 5곳에 차렸다. 물론 주요 제단은 서낭당이라 돌탑 앞 야외에 마련된 큰 제단에 풍성하게 제물을 차렸다.

‘정자리서낭당’이라고 쓴 조립식 건물은 사실 산신당이라고 했다. 탕화가 세 개 걸려 있는데 모두 모양이 달랐다. 왼쪽에는 대감 모양이고, 가운데는 호랑이와 시녀를 데리고 있는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모양이고, 오른쪽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와 부채를 들고 갓을 쓴 역시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탕화 아래에는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옆에 끼고 산삼을 들고 담뱃대를 앞에 놓고 있는 상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두 명의 시녀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기가 작은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이 산삼을 들고 있는 모습의 인형이 놓였다. 그 주변에는 다양한 지화(紙花)가 꽂혀 있었다.

제단에는 갖가지 제물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고, 옆에는 갖가지 굿 도구가 있었다. 옷, 칼, 창 등이 주변에 있었다.

산신당 안에는 전기를 가설해 놓아서 냉장고며 밥솥이며 모두 전기로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전기장판을 깔아서 바닥을 금방 따뜻하게 데웠다.

산신당 옆 서낭당에는 정말 푸짐하게 제물이 차려졌다. 돌탑과 느티나무 신수가 있는 앞에는 커다란 시멘트로 만든 제단이 있다. 느티나무에는 오색천이 감겨져 있었다. 오색천은 예전에 걸쳐놓은 것도 있고 새로 걸쳐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를 놓을 수 있는 장롱구조물이 양쪽으로 있고, 초장(醋藏) 옆에는 돼지를 올리는 나무로 된 큰 제단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다. 세 여인은 정말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두 시간 여가 지나자 제물이 다 차려졌다. 제물은 산신당, 서낭당, 용신당, 수구당, 객귀 등으로 차린 제물이 모두 달랐다. 내용물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히 수구당에는 제물을 차리면서 막걸리를 따랐는데,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역시 막걸리를 마시니 좋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굿을 시작하였다.

굿은 부정을 가시는 부정굿을 먼저 하였다. 그리고 본 굿인 서낭굿을 하고 산신굿을 하였다. 서낭굿 중에는 굿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수를 내리기도 하였다. 서낭굿과 산신굿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서낭굿을 할 때는 삼지창으로 돼지를 마리째로 찢어 세우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 오홍인 씨도 함께 참여해서 돼지를 세우기도 하였다. 굿을 하는 중 마을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개울 건너편을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기도 하였다.

산신굿을 하는 동안에는 돼지를 손질하여 옮기기 좋도록 여러 개의 비닐에 담았다. 그리고 갈비 부분을 화로에 숯불을 피워 구워 함께 먹기도 하였다. 굿이 끝나면 이곳에 차렸던 제물은 모두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았는데, 노인들 몇 명만 참여를 해서 동네가 함께하는 마을제가 퇴색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어찌 되었던 정자리 마을굿은 마을의 서낭제와 굿이 함께하는 전통을 잇는 좋은 민속제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자리 마을 당산굿을 하면 서낭 할머니가 실려서 마을의 대소사를 비롯해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점괘를 준다.(2016.10.5.)

정자리 셋골서낭당에서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마을사람들이 집집이 음식을 가지고 왔다. 떡을 가져오는 사람, 막걸리를 가져오는 사람 등 9월 9일이면 이곳 제당에 먹을 것이 잔뜩 쌓였고 동네 아주 큰 잔치가 열렸다. 동네사람 모두가 와서 서낭제를 지내고 하루 종일 음식을 먹으면서 놀았다. 동네의 큰 축제였다.

그러던 것이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 둘 돈을 벌어서 버던(도회지)으로 나가면서 지금은 서낭제가 박정숙 무당의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다. 제보자의 조카딸로 이곳에 와서 정성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크게 지냈던 서낭제가 이제는 각 반별로 나뉘지고 지금은 여기 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몇 사람 온다고 했다. 여기 반 사람은 몇 안 돼서 참가자도 적다고 했다. 특히 요즘은 고추 따느라고 바빠서 마을 서낭제에 참가하는 사람이 적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지당님과 서낭님이 두 분 있었다. 지당은 산신님을 뜻한다. 그래서 지금도 산신당과 서낭당이 따로 모셔지고 있다.(제보자: 이옥녀(여, 84)2016.10.5.)

여기 서낭당은 옛날에 마을 축제의 장이었어요. 일 년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추수를 해 가지고 떡을 하든 밥을 하든 술을 하든 여기 서낭에 가져다 고했다. 누가 해왔다고 한 사람 고하면 또 한 사람 뭘 해왔다고 고하고 하였다. 그렇게 고하고는 그 음식을 내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먹으면서 하루 종일 놀았다. 그러다 보니 별 사람이 다 있었다. 술을 먹으니까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각 반으로 서낭제를 나누자고 해서 나누어 졌다.

그리고 여기는 한 십 년 전쯤에 간소화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군인 갔다 오고



강 건너에서 본 장면



셋말 산신당 내부

그랬으니까 한 40년 전쯤에는 여기 와서 구일놀이를 했다.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제일 먼저 음식을 해 와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떡을 해오고 찰떡,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술도 한 동이 해오고 해서 그렇게 여기 서낭당에서 하루 종일 먹고 놀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가니까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 이분 네가 아버지가 박영선인데, 원래 여기 살다가 선생님이라서 홍천으로 갔다. 그래 이 양반(박정숙)도 내가 여기서 난 걸 안다. 저기 저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 네가 여기 와서 고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일놀이 이런 것 계속하니까. 9일 때 우리 마을에 와서 정성을 들여 달라. 그래 이분 네가 와서 한 지가 몇 년 잘 된다. 그래 뭐 돼지도 갖다놓고 과일도 갖다놓고. 그러니 사실 이게 우리 반 대표로다 하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저거 뭐 무당이 와서 그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 전체 반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저 분이 고마운 게 뭐냐면 동네 경로잔치를 해준다. 경로잔치는 5월 단옷날 한다. 그날은 몇 백만 원어치의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한다. 음식 뿐 아니라, 수건까지 해 와서 저 경로당에서 경로잔치를 해주니 참 고맙다.

그러니 원래는 우리 반의 반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여기 와서 놀고 점심도 잡숫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또 이런데 잘 안 온다. 그래서 오는 분은 이렇게 몇 분이 오고 그런다.

이게 원래 <구월구일놀이>이다. 마을에서 역사가 깊다.

옛날에는 서낭당 옆 언덕에서 산삼을 캐다. 그런데 그걸 캔 사람은 마을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래 그 사람이 나중에 술과 음식을 해 와서 같이 먹고 그랬다. 그때는 마을제사를 지낼 때 몇 십 명이 아니라, 몇 백 명이 모였다. 그래 외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뭘 봤는데, 이걸 누가 본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

“그럼 내가 이 재물을 손을 대도 괜찮겠느냐.”

고 물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래 아무 일 없다.”

라고 했더니, 큰 산삼을 여기서 하나 캐어요. 그러니까 그 산삼이라는 것도 팔자가 있어야 보이지 아무나 안 보인다.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 옛날에는 산삼을 캐면, 큰 것 캐면 팔아가지고 돼지 같은 걸 잡아서 산에 정성을 드리고, 동네 분들 잡수라고 그렇게 하곤 하였다. 따로 뭐 하는 것은 없다.(제보자: 오홍인(남, 78) 2016.10.5.)

정자리(셋말)지역 마을제(祭)

인제군 남면 정자리(셋말)

조사기일:1996.8.24.

고증자:정자리 오홍인,박현균

| 항 목 |                  | 내 용     |             |
|-----|------------------|---------|-------------|
| 1   | 제 당 이 름          |         | 산지당         |
| 2   | 제 당 위 치          |         | 마을 북관       |
| 3   | 제<br>당<br>형<br>태 | 당 집 외 형 | 스레이트 지붕,나무벽 |
|     |                  | 당 집 내 부 | 예단걸이,소지걸이   |
|     |                  | 주위의나무명  |             |
|     |                  | 돌무더기제당  | 없음          |
|     |                  | 기 타 형 태 |             |

| 항 목 |                  |        | 내 용                                                                                                                                |
|-----|------------------|--------|------------------------------------------------------------------------------------------------------------------------------------|
| 4   | 제<br>신<br>제<br>신 | 믿는신(명) | 산신                                                                                                                                 |
|     |                  | 효험.전설  |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또한 재난을 막음. 이 마을에서는 음력2월과 8월에 택일을 하여 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낸후 곧바로 산제당에 짐승이 나타나면 택일을 잘못하여 제를 지냈다고 다시 날을 받아 제를 지냈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
| 5   | 제<br>관           | 제주명칭   | 도가(제주)                                                                                                                             |
|     |                  | 제주선출방법 |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는사람 1인 선출                                                                                                             |
|     |                  | 참석자    | 마을주민이 참석                                                                                                                           |
| 6   | 제<br>의<br>절<br>차 | 제례전    | 도가집 송침(청소등을한다).                                                                                                                    |
|     |                  | 제례절차   | 도가(제주),일반주민                                                                                                                        |
|     |                  | 제례후    | 음복과 음식을 나누어 먹음                                                                                                                     |
| 7   | 제례기일 및 시간        |        | 음력2월과 8월                                                                                                                           |
| 8   | 제수물(음식)          |        | 돼지를잡고, 떡, 메, 주, 과, 포.                                                                                                              |
| 9   | 제례경비내용           |        | 마을기금으로 거출.                                                                                                                         |
| 10  | 기타내용             |        |                                                                                                                                    |

## 12 현리 백동수의 무예도보통지

### ■ 놀이의 원형

백동수(白東脩, 1743~1816)는 조선후기의 인물이다. 이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인물들인 연암 박지원, 이덕무 등과 교유를 맺고 있던 인물인데, 무과에 급제는 했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가족을 이끌고 기린으로 찾아든다. 기린에 찾아든 백동수는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며 무예에 더욱 정진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무예 지인 『무예도보통지』를 집대성하는 쾌거를 남게 된다.

우리나라 무예지는 선조의 명으로 1598년 한교(韓嶠)가 편찬한 『무예제보(武藝諸譜)』이다. 이것을 보완하여 새롭게 선보인 것이 사도세자가 중심이 되어 1759년 편찬한 『무예신보(武藝新譜)』이고, 그것을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무예도보통지』이다. 특히 『무예신보』에는 이전부터 정리되어 오던 조선의 다양한 무술들이 집대성 되어 ‘18기’가 정리되고, 『무예도보통지』에서 여섯 가지 기술을 보완하여 ‘24기’가 완성되는 것이다.(김풍기, 「백동수(白東脩)의 생애와 그의 시대」) 백동수는 이덕무, 유득공 등과 함께 24기(技)의 무예를 완성하여 『무예도보통지』를 완성하는데, 그 지리적 중심이 인제의 기린이다.

무예(武藝)는 일찍이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연희에서도 그 재주를 보였던 예술의 일종이었다. 이 때문에 민속예술인 동시에 싸움의 기술로 볼 수 있다. 백동수가 기린에 찾아들어 무예를 익히고 사냥을 할 때 혼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무예의 기술과 자세 등을 연습하면서 기술을 바로 잡고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 ■ 마을 소개

기린면 현리는 기린면소재지이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기지군(基知郡)의 현(縣)이 있던 지역으로 현동(縣洞)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현리(縣里)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춘천의 속현으로 있다가 인제군으로 속하게 되었다. 조선조 때는 백동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조선무예도보통지』를 저술해서 유명하다.

현리는 기린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농업과 상업이 함께 발달했다. 특히 소양댐 건설 이후 이 지역에 남면 관대리에 주둔해 있던 3군단이 옮겨 와 군사 요충지가 되었다.



3군단 사령부가 들어오면서 이곳에 있던 박 대감 묘를 현 위치인 면사무소 뒤에 있는 태봉에 옮기게 되었다.

기린면 일대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내린천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많다. 이 지역은 내린천과 방동약수와 같은 천연자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손님이 찾아와도 어떻게 대접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곧, 내린천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방동약수를 떠서 밥을 해서 대접하면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라 한다.

이 마을에는 박원평을 모시는 것이 유일한 마을제사였다. 이를 박대감제라 했고, 박대감제를 지낼 때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다. 아이들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섰다. 이렇게 마을제사를 받은 것은 그가 생전에 평장사라는 높은 벼슬을 지내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왜구를 물리치다가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앞의 박대감제에서 따옴)

## ■ 놀이의 유래

우리가 무예라 하는 것은 싸움의 기술로만 언급되던 것은 아니었다. 무예는 무술(武術)이니 무도(武道)니 무기(武技)니 해서 그 용어도 많지만 싸울 때만 사용하지 않고, 사냥이나 일상의 심신단련 및 연희의 일종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것은 나아가 관 뿐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놀이의 일종으로 전승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무예 민속이란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요즘은 스포츠의 일종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올림픽에까지 겨루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나라의 전통을 이르면 서 스포츠 또는 예술로써 연희가 이뤄지는 종목인 것이다.

이로 보면 백동수·이덕무·유득공이 전대의 무예지를 이어 받아 24기의 무예기술을 책으로 낼 때 우리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민관에서 오랫동안 전승해 온 생활 속의 무예를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하면서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동수가 굳이 인제 기린까지 와서 이 책을 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무엇인가 기린의 풍속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인제에서 백동수의 『무예도보통지』를 바탕으로 민속놀이를 만들어 연희를 하는 까닭은 그동안 맥이 끊겼던 인제의 무예민속에 대한 전통계승이라 할 수 있다.

## ■ 놀이의 특색

백동수의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민속놀이는 무예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민속을 연행으로 꾸민 것이다. 24기 모두를 펼치는 무예시범이 아니다. 백

동수가 기린면에서 사냥을 하고 무예를 민중들에게 전수하면서 생활무예로 정착하는 과정을 민속놀이로 만들어본 것이다. 이에 기린의 생활상과 함께 일상생활에 무예가 접목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이미 고려시대 박원평이 기린에 기거하면서 왜구를 물리쳤다는 사실이 있으며, 고려 초 마의태자가 인제에서 구국활동을 벌인 사실도 있다. 이는 기린을 포함한 인제의 백성들은 무예가 일상적으로 필요했던 고장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예놀이는 일상생활인 농사와 사냥 등을 할 때 도적이 침입해 와서 퇴치하는 장면으로 연출한다.

## ■ 무대

기린면 현리 일대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30분

출연인원: 30명

소 품: 놀이 깃발, 지게, 사냥도구, 무예도구, 농기구 등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현리 무예도보통지라는 깃발을 들고 앞장선다.
- 출연자 모두 농기구, 사냥도구, 무예도구 등을 들고 입장을 한다.
- 복장은 특별히 무예복장을 할 필요는 없고, 일복과 사냥복장으로 한다.
- 산적은 산적 복장을 한다.

둘째마당 ⇒ 농사와 무예

- 평상 시 백동수가 주민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준다.
- 농사일을 하다가 산적이 침입해 와서 농기구로 막는 장면을 연출한다.
- 한가히 농사일을 하는데 산적이 마을로 침입해 온다.
- 마을사람들은 농사일을 하던 농기구 등을 무기로 사용하여 평소 배운 무예실력으로 산적을 퇴치한다.

- 산적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간다.
-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 셋째마당 ⇒ 사냥과 무예

- 산적이 침입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마을사람들은 더욱 무예연습을 한다.
- 아울러 무예고수인 백동수에게 사냥실력도 배운다.
- 사냥을 나가서 멧돼지와 노루 등을 잡는다.
- 마을사람들이 잡은 짐승을 산적들이 지켜보다가 뺏으려고 덤벼든다.
- 마을사람들은 평소 단련한 무예실력을 발휘해서 산적과 싸운다.
- 산적들은 또 다시 마을사람들의 무예실력을 당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 마을사람들은 사냥에도 성공하고 도적도 쫓아내서 즐겁게 짐승을 삶아지고 마을로 돌아온다.

#### 넷째마당 ⇒ 퇴장

- 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한 바탕 먹고 마시며 논다.
- 마을사람들에게 무예는 일상이 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중에도 무예를 익힌다.
- 그렇게 신나게 놀고 무예를 익히다가 퇴장을 한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마을사람, 무예 선생 백동수, 산적들 등

###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 〈백동수(白東脩, 1743~1816)의 생애〉

백동수를 대상으로 민속놀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동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에 백동수의 일생과 무예도보통지를 인제에서 작성하게 된 배경을 알아본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풍기 교수가 정리를 잘 해 놓아서 도움이 된다.<sup>1</sup> 여기서는 그 일부를 추려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sup>1</sup> 김풍기, 「백동수(白東脩)의 생애와 그의 시대: 강원도 인제(麟蹄) 은거 시기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30,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1, 1~25쪽.

백동수는 1743년 한양에서 출생했다. 그의 증조부는 백시구(白時壽, 1649~1722)인데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백시구가 안주(安州) 지역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로소(耆老所)에 공금을 잠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신임사화 당시 정적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당시 노론은 경종에게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요구하던 노론 4대신(김창집,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이 역모로 사형을 당했고 많은 노론들이 유배를 당하거나 쫓겨났다. 이 사건이 신임사화(辛壬士禍)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백시구 역시 감옥에 갇힌다. 경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백시구가 예전에 기로소에 돈을 빌려주었던 사건을 들면서, 당시에 김창집이 돈을 빌려달라고 편지를 보낸 것으로 진술하면 방면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러나 백시구는 사람을 팔아 위험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거절한다. 이 때문에 그는 1722년 9월에 옥사를 하고, 집안은 완전히 무너진다. 훗날 노론이 다시 집권했을 때 이 사건은 그의 집안을 절의가 뛰어난 명문 무인 집안으로 추송된다.

백상화(白尙華, 1691~1768)는 백시구의 서얼(둘째 아들)로, 1721년 무과에 급제한다. 이 인물이 바로 백동수의 조부다. 백동수는 백상화의 아들 사굉(師宏, 1721~1792)과 평산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백동수의 집안이 노론 시파에 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누나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 주변의 인물들과 교유하게 된다. 그의 스승이자 벗이라 할 수 있는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을 비롯하여 영재 유득공(柳得恭, 1749~1807), 청성 성대중(成大中, 1732~1812)과 그의 아들 연경재 성해응(成海應, 1760~1839), 단원 김홍도(金弘道, 1745~?) 등과 교분을 맺으며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한 시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연배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어울려 여행을 하거나 시문을 주고받는 등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한다.(…)

1771년 3월 무렵에는 박지원, 이덕무, 이경무(李敬懋), 이광섭(李光燮) 등과 함께 황주(黃州), 평양 등지를 여행한 기록이 이덕무의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이 여행은 1771년 백동수가 무과에 급제한 직후에 결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71년 3월 무과에 최종 합격을 했으나 실직(實職)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백동수 자신의 기분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세를 이어서 천하를 유람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1772년 선전관(宣傳官)에 추천되어 그의 삶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으로 그는 결국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만다. (…)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에 참여한 일이다. 한양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변 인물들과 어울리다가, 1788년 장용영(壯勇營) 초관(哨官)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789년 평안도 박천군수(博川郡守)를 지냈다. 그가 다시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1806년 장물(贓律)을 범한 죄로 1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고 금고(禁錮)하도록 한 사건에서이다. 무사로서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 사건은 뇌물을 받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왕조실록에 자세한 사건의 전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어라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은 백동수를 총애하던 정조가 승하한 뒤 새롭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정치적 공격 때문에 받은 죄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의 죄상이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되지만 실록에서의 표현은 “법을 왜곡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누군가의 뇌물을 받기는 했지만 뇌물 제공자를 위하여 법을 바꾸면서까지 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군수로서의 임기가 끝난 몇 년 뒤에 평안도 구석진 고을의 예전 군수가, 그것도 환갑이 지난 노인이 행한 뇌물죄를 들추어 낸 이면에는 정치적 함의가 스며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백동수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으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즉 그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동수가 장물에 걸려서 귀양을 간 것은 무언가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백동수와 『무예도보통지』〉

임병양란을 겪은 뒤 조선에서는 국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반성이 나타난다. 그러한 분위기는 이미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에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으로 그 성과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인위주의 사회인 조선에서 무사를 중시하는 분위기로의 전환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에 한족의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역사적 변화는 조선에 북벌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논의를 격렬하게 불러 일으켰다. 조선을 조와준 명나라를 위해 청나라를 물리쳐 복수를 하고 나아가 명나라의 복권을 꾀한다는 것이 북벌론의 주요 골자였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이 강한 군대와 전쟁 용품을 비축해야만 했고, 그것은 주자학이 제시하는 춘추의리(春秋義理)에 합당한 것이었다. 이념적으로도 정당하고 현실적으로도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이 북벌론은 17세기 후반부터 조선 전역을 휩쓸면서 새로

운 정치 구도를 만들었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벌론이 시작될 때는 실제 군대를 조련하지는 논의가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념적인 차원에서 논의 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백동수 시대에 오면 더욱 강화되어, 실제로 청나라를 치자고 하는 것보다는 북벌론을 이용하여 정파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났다.

그렇게 북벌론이 새로운 이념의 전환을 만들어가던 도중에 국방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예서를 편찬하게 된다. 물론 조선의 무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과나 개인의 무예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책이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사 조련 및 진법(陳法), 전쟁에 관한 다양한 정보 등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 이면에는 왜군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했던 조선 수뇌부의 고민이 깃들어 있다.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의 원군으로 온 명나라의 전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구하려다가 실패한다. 훗날 이 책을 구하여 조선의 특징을 가미한 새로운 무예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조의 명으로 1598년 한교(韓嶠)가 편찬한 『무예제보(武藝諸譜)』이다. 이것을 보완하여 새롭게 선보인 것이 사도세자가 중심이 되어 1759년 편찬한 『무예신보(武藝新譜)』이고, 그것을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무예도보통지』이다. 특히 『무예신보』에는 이전부터 정리되어 오던 조선의 다양한 무술들이 집대성 되어 ‘18기’가 정리되고, 『무예도보통지』에서 여섯 가지 기술을 보완하여 ‘24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무예도보통지』는 단병 무예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하다.

한교의 『무예신보』에서는 곤봉(棍棒) · 등패(藤牌) · 낭선(狼筈) · 장창(長槍) · 당과(鎗鈹) · 쌍수도(雙手刀) 등 6기(技)가 정리되었고, 사도세자가 여기에 죽장창(竹長槍) · 기창(旗槍) · 예도(銳刀) · 왜검(倭劍) · 교전(交戰) · 월도(月刀) · 협도(挾刀) · 쌍검(雙劍) · 제독검(提督劍) · 본국검(本國劍) · 권법(拳法) · 편곤(鞭棍) 등 12기를 더 첨가하고 도해(圖解)를 덧붙여서 정리를 한다. 거기에 다시 기창(騎槍) · 월도(月刀) · 쌍검(雙劍) · 편곤(鞭棍) · 격구(擊毬) · 원기(猿騎=마상재 馬上才) 등 6기를 더 넣어서 24기를 만든 『무예도보통지』가 완성된다. 이것이 현재 전하는 24기 형성 과정이다.

그렇다면 백동수는 어떤 무술에 뛰어났던 것일까. 우선 그의 공식적인 장기는 활쏘기이다. 유득공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뛰어난 활쏘기 덕분에 무과에 급제했다고 한다. 당시 무과의 과목이 지상무예든 마상무예든 활쏘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검술 역시 당대 최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예도보통지』는 24기 중의 하나로 일본의 검술인 왜검을 소개하면서 김체건(金體乾)이라는 인

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검술이 뛰어난 것을 알고 조선통신사 일행을 따라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검법을 익히고 돌아온 인물이다. 그의 검보(劍譜)가 남아있어서 『무예도보통지』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일까. 이는 유본학(柳本學)의 <김광택전(金光澤傳)>으로 미루어 보건대 김체건에서 그의 아들 김광택으로 검술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을 다시 백동수가 배웠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은 백동수와 절친한 관계에 있던 이덕무, 유득공 등이 참여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정조의 명에 의한 편찬이기도 했지만, 의기투합한 우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편찬과정에서 백동수는 24기를 실제로 연행하여 보임으로써 책 안에 실제 무예가 가장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도보(圖譜)’를 만들 때 무예 실연의 모델이 백동수였던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백동수야말로 서얼 출신의 무인이라는 가장 소외된 사회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무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가장 뛰어난 무인이었던 것이다.

### 〈백동수와 인제 기린〉

백동수의 생애에서 특이한 이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강원도 인제의 기린협(麒麟峽)으로 은거한 일이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온 가족들을 이끌고 궁벽한 곳으로 은거한 이유는 벼슬길에 막혔기 때문이다.

그는 이 때문에 궁벽한 산골 기린으로 찾아든다. 결국 백동수가 선택한 기린은 속세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심심산골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곳은 백동수라는 개인이 절망 끝에 선택한 땅이 아니라, 구속과 정쟁(政爭)으로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농사일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무예 수련을 통해서 최고의 무사가 되기 위한 능력을 쌓으며, 사냥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잊지 않는 등 백동수의 기린 생활은 조선 최고의 무사를 만들어낸 산실이었다. 그렇게 보면 백동수에게 있어서 기린은 희망의 땅이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실험해 보는 소중한 공간이었던 셈이다.

※김풍기, 「백동수(白東脩)의 생애와 그의 시대: 강원도 인제(麟蹄) 은거 시기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30,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1, 1~25쪽.



### 13 설악산 마장터 시장놀이

#### ■ 놀이의 원형

설악산 마장터 시장놀이는 영동과 영서의 물품을 교환하던 시장 풍속에 기인한다. 마장터는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계에 있는 산간마을이다. 옛날 교통로가 발달하기 전에 이곳에서 시장이 열렸다는 데서 놀이로 만들었다.

마장터로 가기 위해서는 대간령(大間嶺)과 소간령을 넘어야 한다. 고성 방면에서는 대간령을 넘고, 인제 방면에서는 소간령을 넘어야 마장터로 갈 수 있다. 설악산 북쪽의 신선봉(1,204m)과 마산(1,052m) 사이에 있는 령이라 하여 새이령이라 부르기도 하고,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에 있는 령이라 하여 또 새이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이령이라 한자로 사이 간(間)자를 써서 간령(間嶺)이라 불렀던 것이다. 대간령을 기점으로 작은 계곡의 물이 고여 흐르는데, 인제 방면으로는 북천을 이루고, 고성 방면으로는 문암천을 이룬다. 인제는 용대3리로 이어지고 고성은 문암리 쪽으로 이어진다. 진부령과 미시령의 국도가 뚫리기 전에는 동서 교통의 주요 통로였다.

장사하는 사람,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 생계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제에서 고성으로 고성에서 인제로 드나들던 길목이었다. 말 등에, 소 등에 물건을 싣고, 사람은 등에 물건을 힘껏 지고 다니다가 모이는 곳이었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은 터전을 잡고자 가족의 손을 잡고 넘기도 했으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장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끓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 때문에 이곳을 잘 아는 노인들은 물물교환을 했다고 말한다. 바로 동해안에서 지고 온 어염(魚鹽)과 인제에서 지고 온 잡곡을 바꾸어가기도 했단다. 그 증거로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에 있는 팽자나무거리의 역사를 들 수 있다. 팽자나무거리에서는 무곡보부상들의 검문소가 있었다 한다. 그곳에서는 동해바다에서 나는 저린 고기와 식염을 지고 인제로 가서 곡식과 바꾸어 오던 통과요로였다.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넘나들었으면 고을의 현에서 물건을 지고 가는 것을 검문할 정도였을까? 하기가 마장터 주막집에서 손님들 술을 대기 위해서 양조장을 운영했다고 하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처럼 마장터는 5,6만평의 넓은 평지로 된 산간마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놀이로 만들어서 연출하였다.

## ■ 마을 소개

마장터는 한국에서 몇 남지 않은 산간마을이다. 설악산 산속에 있는 마을로 현재 화전가옥으로 쓰던 집이 서너 채 있고, 별장처럼 쓰는 가옥이 1채 있다. 실제로 이곳에 사는 집은 두 채이다. 산간가옥에서 사는 사람은 노인 한 분이다.

이 마을은 애초에는 화전민촌으로 마을을 개간했다. 실제로 1975년 마장터의 화전정리를 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화전정리를 하고 나서도 용대리 사람들이 마장터 일원에서 무와 배추를 심었다. 다 가꾼 작물은 산으로 찾길을 뚫어 군용차량으로 실어 날랐다.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화전정리를 하자 대부분 사람은 용대리에 와서 터전을 잡았다. 지금도 용대리에 가면 그 당시 마장터에 살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분들은 마장터에 대한 기억을 아주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또 마을로 들어서는 소간령 정상에는 돌무더기가 놓여 있는데, 이 돌무더기는 이곳으로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안녕을 빌던 서낭당이다. 얼마나 많은 돌을 올려놓았는지, 아직도 엄청나다. 지금 그 돌무더기 바로 옆에는 산신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매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 ■ 놀이의 유래

물물교환을 하고 물건을 사고팔던 우리의 전통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보부상을 비롯해서 옹기장수, 소금장수, 황아장수 등 아주 많은 장돌뱅이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시장을 열었다. 시장이 열리면 어디든 활기를 띠었다. 이는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이 열리면 시장 특유의 생업활동이 생성되고, 경제활동이 활황을 누릴 수 있었는데, 시장은 또한 아무렇게나 열리지 않았으며, 시장이 열리는 곳마다 특성을 띠고 있었다. 그런 특성은 그곳에 어떤 산물이 나느냐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시장 산물의 특성에 따라 시장물건을 팔고 사고 먹고 마시는 종류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시장이 소간령 마장터에서도 열렸는데, 이를 시장민속놀이로 만든 것이다.

## ■ 놀이의 특색

소간령 마장터의 시장은 동서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곧 고성지방에서 나는 소금

과 바닷고기를 짚어지고 대간령을 넘고, 인제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짚어지고 소간령을 넘어 마장터로 사람들은 몰렸다. 마장터는 영동과 영서의 중간지점이었다. 비록 설악산 중턱에 있지만 꽤나 땅이 넓고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장을 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고성과 인제지역 사람들이 모여 장을 이루기에 자연스럽게 주막이 생겼다. 주막에서는 얼마나 술이 많이 소비되는지 양조장까지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마장터의 시장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물물교환이 많이 열렸다고 한다. 두 지역에서 각각 산물을 짚어지고 중간지점인 마장터까지 와서 서로 교환을 했다고 한다. 물론 돈으로 사고팔기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왕래를 했는지 대간령과 소간령 서낭당에는 커다란 돌무더기가 쌓여 있다. 산길을 오가면서 무사안녕을 빈 흔적이다.

## ■ 무대

마장터 시장, 주막

## ■ 구성 및 놀이마당

소요시간: 25분

출연인원: 50명

소 품: 물건을 진 지게와 다양한 물품, 주막의 풍경, 놀이 깃발 등

## ■ 시나리오

첫째마당 ⇒ 길놀이 입장

- 마장터 시장놀이 깃발을 들고 앞장선다.
- 출연진 모두 각자의 소품을 들고 입장한다.
- 음악을 울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 음성만 떠들썩하게 흥겨운 표정 힘든 표정을 짓는다.

둘째마당 ⇒ 물건을 지고 이동

- 고성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염을 지고 오고, 인제지역 사람들은 곡물과 약초

등을 지고 양쪽에서 시장으로 온다.

- 오는 도중 양쪽 지역 모두 서낭당에서 간단한 제물과 돌을 들어 얹으면서 무사안녕을 빈다. 제물은 따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떡이며 과일이며 과자 같은 것을 놓는다.
- 행렬은 떠들썩하게 하며, 가끔 지계를 고여 놓고 쉬는 장면도 연출한다.

#### 셋째마당 ⇒ 시장의 풍경

- 양쪽 행렬이 시장에 당도한다.
- 시장에서는 서로 아는 얼굴이 있어 인사를 건네 안부를 묻기도 한다.
- 물건을 내려놓고 흥정을 하며 물물교환을 하기도 한다.
- 한 편에서는 주막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
- 간혹 아이들도 어른을 따라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한다.
- 각설이는 없다.

#### 넷째마당 ⇒ 퇴장

- 장이 끝나면 양 지역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나중에 만나자고 한다.
- 각 지역의 사람들은 물건을 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 ■ 출연자 및 배역

단장 1인, 연출 1인, 소품 1인, 시장 사람들, 주모 등

### ■ 놀이의 연원 및 자료

#### 〈설악산 마장터, 화전민터〉

설악산 마장터에 가면 새로운 삶을 볼 수 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산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옛 모습 말이다. 어쩌면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을까? 말로만 듣던 산간가옥, 너무나 단출 했다. 아마도 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태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된 삶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이라. 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의 일부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누구나 그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산은 사람을 품고, 사람은 산에 안겨 있었던 것이다. 결코 산과 인간이 둘이 될 수 없는, 하나로 산 현장이다. 이곳엔 두 가지 형태의 산간가옥이 있었다.

하나는 작은 부엌에 달랑 방 한 칸이 전부인 집이다. 마당도 하나 없이 작은 집터에 동그라니 그렇게 놓여 있었다. 이런 데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것이다. 가구는 꿈도 못 꿔줄 것이다. 비바람만 막아주고, 짐승들로부터 방어만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때문에 가끔 옛 이야기에 보면 집에서 자고 있는데 호랑이가 방에 들어와서 사람을 물고 갔다는 사건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



단칸 산간가옥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부엌에는 아궁이 하나에 숯 하나가 걸려 있었고, 찬장도 없이 몇 개의 주방용기가 있을 따름이었다. 부엌문만 닫으면 온통 감감하고 겨우 한 사람 정도 앉아서 불을 땔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방도 그랬다.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길이에 달랑 창문 하나만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엌을 통해야 했으니, 그 창문마저 없다면 어찌 답답해 살았을까? 창문살에는 몇 번이나 덧바른 창호지가 찢어져서 까맣게 절어 있었다. 그렇게 설악산 마장터의 산간가옥은 산의 일부가 되어 동그라니 놓여 있었다.

또 하나는 단칸 방 보다 조금 큰 집이었다. 가운데 부엌이 있고 양쪽으로 방이 나 있고, 본체에 붙여 지은 마굿간이 있었다. 아무래도 식구가 더 많은 집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누가 썼는지, 집 앞에는 꽤나 오래된 빨래가 걸려 있었다. 빨래줄에 걸린 옷가지가 햇빛에 남아 컬러색이 변했다. 나무토막을 베어서 엇갈려 포개 지은 토막집이다. 나무토막 사이에는 진흙을 이개서 메웠다. 상당히 오래된 집이지만 아직도 멀쩡하였다. 지붕은 새를 베어서 이었다. 부엌을 열어보았더니, 양쪽으로 놓인 아궁이가 있고 그곳엔 가마솥 하나에 밥솥 하나가 걸려 있었다. 허름하지만 제법 주방그릇을 포개 올려놓은 찬장이 있는 것을 봐서 꽤나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산 집이었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이곳에는 새로운 산간가옥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 가옥 옆에만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다. 집으로 들어서자 그 노인은 싸리비를 땔 싸리를 단으로 묶고 있었다. 얼굴을 보니 설악산처럼 해맑은 모습이였다. 노인은 37년 전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정준기(72세) 씨였다. 필자에게 길 안내를 해 주신 박관신(77세) 씨와





새 토막집의 모습



정 노인의 집 앞에서



산간가옥의 부엌



일하는 정 노인



마장터 산간가옥 전경



버들치

는 잘 아는 사이였다. 박관신 씨는 “있는 줄 알았으면 소주라도 한 병 사들고 오는 건데 ….”라며 아쉬움을 말했다. 속초에 가족들이 있고, 정 노인 혼자서 이곳에 머문다고 했다. 얼음을 깨서 우물을 하고, 샘이 나오는 곳에 작은 토막으로 광을 만들어서 냉장고로 쓰고 있었다. 샘 옆에 나무토막으로 된 찬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 흐르는 물에 대충 그릇을 씻어 사용하는 것 같았다. 정 노인의 집 역시 옆에 있는 오래된 산간 가옥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기에 조금 다르게 느껴질 따름이었다. 부엌문을 열자 사람의 손이 간 흔적만 다를 뿐이었다. 집의 크기도 살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원래 있던 가옥 중 하나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성냥을 써서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넣었다. 정 노인의 집은 설악산을 찾았다가 날이 저물어 오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피 장소로도 쓰인다고 한다.

여기 있는 집들이 언제 지어졌느냐고 필자가 물었다. 정 노인은 수복 후에 지은 집이라고 말했다. 정 노인이 이곳에 들어오기 한 참 전부터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산 것이다. 그리고 보니 정 노인은 이곳에 화전 정리를 한 직후에 들어온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산간가옥은 6.25한국전쟁이 끝난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찾아든 사람들이 남긴 집이다. 하지만, 집의 모양새 등으로 보면 아주 오래 전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짓고 살아온 그 방식대로 지은 집이라. 설악산의 토막집은 잘 보전을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사 연구에 아주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여기 마장터에는 1975년 화전정리를 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바로 이곳이 동서를 잇는 교통로의 중간이었다. 게다가 넓은 화전터가 있어서 삶의 터전을 이루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화전을 일궈 농사를 지어 생산을 하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의 기점이 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 생계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제에서 고성으로 고성에서 인제로 드나들던 길목이었다. 말 등에, 소 등에 물건을 싣고, 사람은 등에 물건을 힘껏 지고 다니다가 모이는 곳이었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은 터전을 잡고자 가족의 손을 잡고 넘기도 했으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장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끓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 때문에 이곳을 잘 아는 노인들은 물물교환을 했다고 말한다. 바로 동해안에서 지고 온 어염(魚鹽)과 인제에서 지고 온 잡곡을 바꾸어가기도 했단다. 그 증거로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에 있는 팽자나무거리의 역사를 들 수 있



다. 팽자나무거리에서는 무곡보부상들의 검문소가 있었다 한다. 그곳에서는 동해바다에서 나는 저린 고기와 식염을 지고 인제로 가서 곡식과 바꾸어 오던 통과요로였다.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넘나들었으면 고을의 현에서 물건을 지고 가는 것을 검문할 정도였을까? 하기가 마장터 주막집에서 손님들 술을 대기 위해서 양조장을 운영했다고 하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처럼 마장터는 5,6만평의 넓은 평지로 된 산간마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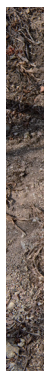
마장터로 가기 위해서는 대간령(大間嶺)과 소간령을 넘어야 한다. 고성 방면에서는 대간령을 넘고, 인제 방면에서는 소간령을 넘어야 마장터로 갈 수 있다. 설악산 북쪽의 신선봉(1,204m)과 마산(1,052m) 사이에 있는 령이라 하여 새이령이라 부르기도 하고,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에 있는 령이라 하여 또 새이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새이령이라 한자로 사이 간(間)자를 써서 간령(間嶺)이라 불렀던 것이다. 대간령을 기점으로 작은 계곡의 물이 고여 흐르는데, 인제 방면으로는 북천을 이루고, 고성 방면으로는 문암천을 이룬다. 인제는 용대3리로 이어지고 고성은 문암리 쪽으로 이어진다. 진부령과 미시령의 국도가 뚫리기 전에는 동서 교통의 주요 통로였다.

인제에서 마장터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지금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조만간 출입이 허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그 길을 따라 가보았다. 멋진 설악산 소개를 위해서였다. 눈으로 봐야 현장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제 용대3리에서 미시령 옛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얗게 우뚝 솟은 창바위를 볼 수 있다. 창바위는 바위 가운데 창모양의 네모진 구멍이 뚫려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군사지도에도 나올 정도라니 상당히 중요한 바위일 게다. 창바위를 오른쪽으로 끼고 개울을 건너면 시원하게 뚫린 산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 산길을 줄곧 따라가면 소간령을 지나서 마장터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 산길이 시원하게 뚫린 데는 이유가 있다. 약 20여 년 전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당근과 무를 마장터에 심어서 군용트럭으로 날라 팔았기 때문이다. 트럭이 마장터까지 다녔던 것이다. 설악산에 트럭이 다녔다고 하면 좀 의아하기도 하겠지만, 이곳 길은 평탄해서 길 폭만 넓히면 얼마든지 트럭이 다닐 수 있다. 농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 지금은 천연보호구역이면서 국립공원관리구역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길을 따라 가다가 보면 작은 계곡물에 버들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오밀조밀 모여 노니는 풍경을 구경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길옆으로 가득 우거진 수림이 눈을 압도



한다. 하늘을 볼 수 없이 나무가 우거져 있어 수풀 터널을 빠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길은 무엇보다도 아주 많은 계곡물을 건너야 한다. 하기가 길을 걷다가 잠시 신발을 벗고 물을 건너는 재미도 꽤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참을 단조롭게 걷다가 보면 소간령을 오르는 길을 만나게 된다. 소간령을 오르다 보면 길가에서 작은 돌무더기를 만나게 된다.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그 돌무더기 안에는 샘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 양은그릇을 바쳐놓아서 길손들이 물을 चु일 수 있었다. 아주 달콤한 물맛이 일품이었다. 세상에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살만하지 않은가?

샘터에서 물을 चु이고 힘을 내어 소간령 정상으로 올랐다. 소간령 정상에는 가운데 나무를 두고 빙 둘러 누군가 쌓아놓은 꽤나 큰 돌무더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돌무더기는 새이령을 지나던 길손들이 무탈과 소원을 바라면서 서낭신께 기원을 하던 흔적이었다. 돌을 집어 들고 가다가 서낭당 돌무더기에 올리면서 각자 소원을 빈 것이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큰 돌무더기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서낭당 돌무더기를 바라보다가 보면 왼쪽 큰 나무 밑에 새로운 당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토막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소반을 놓고 제물을 올려놓았다. 싱싱한 감귤이 있는 것을 봐서 이곳을 지나는 최근의 등산객이 올려놓고 기원을 한 것일 게다. 궁금해서 정 노인에게 소간령 당집에 대해서 물었다. 그 당집은 2014년 정 노인이 설악산 신령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 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새벽 동트기 전에 그곳에서 정성으로 제의를 지낸다. 제물이라야 소주 1병으로 제주를 삼고, 메(밥)를 한 그릇 올리는 것이 전부라 한다. 물론 비손 기원은 당연히



샘터



소간령 서낭당 돌무더기와 산신당

할 것이다. 정 노인의 수고로 설악산 마장터를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위로를 받는 것이다. 영마루를 넘으면서 산령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들 것이기도 하다. 정 노인이 등산객의 무사고와 안녕을 위해서 행한 배려라 봐야 할 것이다.

소간령을 지나면 마장터까지 다시 평평한 길이 이어진다. 우거진 숲이 하늘을 찌르듯 한데, 그곳에서 사람 사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드디어 오막살이 한 두 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장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았던 흔적을 마장터의 가옥들에서 찾고, 그리고 설악산 사람들이 사는 모습, 수림이 우거진 설악산의 또 다른 모습을 모두들 만끽하기를 빌어본다.(이학주 글)

## 14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

###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유래

하추리에서 마을청년들이 죽은 이들을 대신해 노부부를 도와 울릴 때 부르던 소리

하추리는 강원도의 전형적인 산촌이다. 산촌 하추리는 대대로 산에 의지해서 잡곡을 심어 먹고 살았다. 1970년대 화전정리 전까지는 화전이 마을의 유일한 생산터전이었다. 험악한 산중에 살다보니, 마을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해야 했다. 울력이 발달한 원인도 마을의 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추리 사람들은 산촌에서 힘든 일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 그에 어울리는 나름의 소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소리꾼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 중 근대에는 이미 작고한 소리꾼 조동빈(1950년대 작고) 씨가 있었고, 조동빈 씨를 이어 윤길용(1990년대 초 작고) 씨가 있었다. 이 분들은 마을의 모든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소리를 했다. 상여소리, 회다지소리와 같은 의식요, 도리깨질소리와 같은 노동요, 타령조의 유희요 등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이런 소리를 윤길용 씨는 당시 30대인 김군호(남, 59, 2017년) 씨에게 전수를 하였다.

그런데 도리깨질소리는 고 윤길용 씨가 이 소리를 전수하면서 선대부터 들었던 유래를 마을사람들에게 말했다. 유래의 요지는 이렇다. 하추리에 옛날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화전을 해놓고 거두지 못하고 석이를 따다가 죽었다. 노부부는 겨울이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데도 거두미를 못했다. 이를 본 마을 청년들이 울력으로 노부부의 추수를 해주었는데, 그때 젊은 아들의 영혼을 달래며 회다지조로 도리깨질소리를 하며 타작을 해 주었다.

이 노래가 지금까지 마을에 전승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마을축제인 ‘도리깨축제’ 때 공연하며, 자매결연 지역 서울 송파구에서도 출장 공연을 했다.

###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특색

의식요[회다지소리]와 노동요[타작소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애절한 곡조의 소리마당극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는 내설악 한계령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산중마을 하추리 일대에서 부르던 노동요(勞動謠)이다. 자식을 잃은 노부부를 도와 울력으로 곡식



을 털며 슬픔을 달래던 이 고장 특유의 소리와 절차이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회다지 곡조의 리듬으로 불리지다가 유희요조로 바뀌어 부른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는 화전민들의 애환과 울력의 마을공동체의식이 담긴 절차로 진행 된다. 노동력을 상실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도우며 마을축제적 성격의 노동 집약을 보여주는 소리의 형태를 취한다. 이 때문에 도리깨질소리는 도리깨로 곡식을 터는 소리를 시작으로, 턴 곡식을 키질하는 소리, 키질로 정제한 곡식을 절구로 찧는 소리, 이웃에서 떡을 해와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을 잃어 노동력을 상실한 노부부의 슬픔을 달래서 마을의 노동축제로 승화 시켜 나가는 소리로 이어진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 사설은 회다지곡조의 애절한 노동요로 자식을 잃은 노인을 위로하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참의미를 담고 있다.

## ■ 발굴 및 재연

원래 마을에서 불리어지던 소리를 마을사람들이 '도리깨축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리마당극

고중: 마을에서 전승되는 소리로 하추리의 소리꾼 고 윤길용의 구술

소리꾼: 고 윤길용 씨로부터 사사 받은 김군호(남, 59) 소리꾼

연출 및 감독: 박재균(하추리 구 이장), 최윤필(국민대통합아리랑)

시나리오 구성: 2012년 도리깨축제(하추리마을축제) 때 재연 시작. 박재균(하추리 구 이장), 김재노(이장), 김군호(하추리 소리꾼), 박봉수(하추리 정보사무장), 강성애(하추리 체험사무장)

시나리오 정리: 이학주(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 ■ 구성

시간: 25분

장소: 집 마당

출연인원: 57명(백의조와 홍의조, 키질, 빗질, 절구질, 떡메질, 도리깨질 등)

소리: 앞소리/뒷소리(선후창)

## ■ 놀이마당 시나리오

준비마당 ⇒ 도리깨질소리공연 준비

- 도리깨질소리 기본 소품을 소리마당극에 이어 먼저 설치한다.

첫째마당 ⇒ 노부부 타작, 마을 청년들 입장으로 울력 시작

- 노부부가 굵은 허리로 마당에 들어와서 작대기로 콩을 던다. 최대한 긴장감과 적막감을 준다.

- 노부부가 콩을 털고 조금 후, 선소리꾼(마을 청년대표)이 마을청년들을 모아 노부부 집의 울력을 하자고 사설을 한다.

(마을사람 여러분! 돌쇠가 지난여름에 매봉산에서 석이를 따다가 낙상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은 추워지는데 돌쇠 부모님이 힘이 없어 콩마당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돌쇠네 콩마당을 해주면 어땠겠습니까?)



- 마을청년들은 모두 좋다고 소리치고, 마당으로 들어간다.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라는 소리제목 깃발을 앞세워 입장을 한다.
- 〈농자천하지대본〉과 〈인제 도리깨마을 하추리〉 등의 깃발과 출연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소품을 들고 입장을 한다.
- 이때 선소리꾼이 돌쇠 부모님께 마을사람들이 콩마당을 한다고 사설을 한다.  
(돌쇠 부모님 돌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들이 올력으로 콩마당을 해드릴 테니, 이제 쉬세요.)
- 돌쇠 부모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당에서 퇴장을 한다.

둘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시작, 콩마당, 팔마당, 수수마당, 조마당

- 소리마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구성원은 크게 후렴을 외친다. 선소리꾼이 도리깨질소리를 하면서 각 마당에 대한 신호를 주므로 이를 잘 따른다.
- 콩마당을 시작하면, 홍의조와 백의조는 마주서서 도리깨질을 제자리에서 좌우로 이어간다. 콩마당이 끝났다는 선소리꾼의 신호에 따라 도리깨질을 하던 사람들 도리깨를 돌리며 환호한다. 콩마당이 끝나면 비질을 빨리 진행한다. 징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넘어간다.
-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팔마당, 수수마당, 조마당을 한다. 도리깨질은 좌우에서, 앞뒤로, 그리고 옆으로 치기를 한다.

셋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키질로 이어짐, 키질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서 도리깨로 툰 곡식을 키질로 까불어서 난알을 낸다.
-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은 도리깨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키질 장면을 돕는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넷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절구질로 이어짐, 절구질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서 절구질을 해서 곡식가루를 낸다.
-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은 역시 도리깨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절구질 장면



을 돕는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다섯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떡메질로 이어짐, 떡메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든다.

- 돌쇠 부모님은 떡을 마을사람들에게 돌리면서 고마움을 표한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마무리마당 ⇒ 길놀이 퇴장, 흥겨운 잔치마당

- 선소리꾼이 마을사람들에게 울력을 하느라 고생했음을 소리로 알린다.

- 참가자 모두 끝까지 후렴을 큰 소리로 한다.

- 농악을 신나게 울리면서 마을사람 모두 신나게 춤을 춘다.

- 퇴장을 하고, 이어서 흠어진 소품을 챙긴다.

## ■ 도리깨질소리 사설

소리사설이 도리깨질이 끝날 때까지 이어짐으로 상당히 길게 불러짐. 소리내용은 고정되어 있으나 내용 자체가 일꾼들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이 많이 적용된 상황임

에허어라 당쇠. 에허어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콩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가지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놓고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노당쇠님. 힘을 내어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김당쇠님. 좌우연계를 넘어가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콩을 까불어 물에 불려. 에루화라 당쇠.

삶은 콩을 메주 쑤어.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고추장 담가 먹어본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박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네 힘을 빌어 콩마당을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에 들어서면 저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저기 저 당쇠 무얼 하나.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조마당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네 힘을 내어. 조마당을 때려놓고.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이 여기 오서. 조마당을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조마당을 때린 뒤에 까불어 날려 씻은 조를 인절미를 빚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요 마당은 팔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팔마당을 때려날려. 에루화라 당쇠.  
 동지선달 기나긴 밤을.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팔죽을 쑤어 모아놓고 이웃사촌과 나눠보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어서 빨리 때리다가.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앞을 보고 들어가요.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정리마당.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때려 얹어 뒤집어 놓고.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저당쇠님. 좌우행렬을 뒤집어 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오늘 같이 좋은 날 언제 언제 또 있을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오늘 날이 또 있을 꺼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강원도라 인제군에 이다지도 깊은 산중에 오늘 같이 여러분이 고  
 이고이 살고 있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오늘 행렬을 보고 갈제.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대한민국 강원도에 인제군이 뚝 떨어졌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진행사가 어딜 갔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이번 마당은 키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심당쇠님. 고이 이쁘게 까불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경당쇠님. 고이 이쁘게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고이 이쁘게 까불어주소. 절구질로 넘어간다.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박당쇠님. 수수 방아를 찧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임당쇠님. 수수방아를 찧어 봅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당쇠님. 김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당쇠야. 저당쇠야. 우리 실컨 놀고 갑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김당쇠님. 떡을 쳐서 인절미를.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떡을 쳐요. 떡을 쳐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인절미를 떡을 쳐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에허야 당쇠야. 때리고 부수고 놀아보세.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여보시오. 박당쇠님. 소리로 놀아봅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후렴의 당쇠: 마당쇠의 준말로 사용한다. 원래는 회다지소리에서 불리지던 ‘에허  
 어라 달호’에서 도리깨질소리로 바뀌면서 ‘에루화라 당쇠’로 후렴이 변했다. 첫 소  
 리에서 나오는 후렴과 뒤의 후렴이 다른 원인이다.

(김군호(남, 59) 소리, 2016년.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길 42)

## ■ 참가자 명단

참가자 모두 하추리사람들로 구성 됨. 시나리오 구성, 연출, 조직 등이 모두 하추리사람들  
 에 의해 이뤄짐



## ■ 도리깨질소리에 얹힌 이야기

하추리 토박이 고 윤길용 소리꾼의 구술로 작성된 이야기 임

조선조 때였다. 하추리에는 마을 일이면 빠지지 않고 내 일처럼 하던 박 씨 부부가 열아홉 장성한 아들 돌쇠와 같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집이지만 늘 서로를 위한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은 누구 못지않았다. 자신이 굶는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 뭐든지 주었다.

돌쇠는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 때가 되자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빨리 돈을 모아 장가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서였다. 돌쇠는 집안이 가난해서 논밭이 없는 터라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남의 허드렛일을 해주며 살았다. 그러다가 마침 그해는 화전을 일구어서 콩과 메밀과 팔과 수수를 많이 심었다. 곡식이 자라는 모습에 늘 흡족해 하며 돌쇠는 밤낮을 모르고 일을 했다.

어느덧 하지가 지나고 비가 촉촉하게 내린 하추리 매봉산에는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석이버섯이 곱게 피어났다. 돌쇠는 크기도 크려니와 모양도 좋아서 절벽에 피어난 석이를 따면 꽤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매봉산에 올라서 석이버섯을 따올 게요.”

“애야, 조심 하거라.”

“매일 가던 곳인데요 뭐.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부모님에게 석이버섯을 따러 오겠다고 하고 매봉산으로 향했다. 돌쇠는 석이버섯을 많이 따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생각을 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장비를 챙겨들고 홍얼대며 매봉산으로 향했다. 매봉산 절벽에는 석이버섯이 새까맣게 붙어 있었다.

“빨리 따서 가야겠다.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돌쇠는 밧줄을 절벽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매고 망태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밧줄을 풀며 아래로 내려갔다. 생각보다 석이버섯은 많았다. 돌쇠는 신이 나서 밧줄을 잡고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석이버섯을 따다. 그때였다.

“툭!”

밧줄이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걸려 움직이면서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다. 석이버섯을 더 따려고 여러 곳에 옮겨 다닌 것이 화근이 되었다. 밧줄은 금방 터지고 말았다. 돌쇠는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박 씨 부부는 순식간에 다 키운 아들을 잃



고 말았다. 열아홉 젊은 청년은 장가도 들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찌나? 아이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하늘은 참 무심도 하 시지.”

줄지에 아들을 잃은 박 씨 부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하루 이틀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박 씨 부부는 사는 재미가 없이 매일 슬픔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덧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와서 추수를 할 시기가 되었다. 하추리 산골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싸늘한 가을이 다가왔다. 집집마다 논밭에 널려있던 곡식을 거 두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때였다. 돌쇠와 친구인 김수기가 동네사람들에게 의견을 내었다.

“내일 돌쇠네 화전밭 울력을 하면 어떻겠소?”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지계를 치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 심전심이였다고나 할까. 김수기의 말 한마디에 아침 이른 시간에 동네 젊은이들은 박 씨 부부의 아들 돌쇠가 심어놓은 화전에 오른 것이다. 울력을 할 참이었다.

“여보게들. 우리가 마음이 통했나 보네. 힘껏 베어서 지고 가세.”

마을의 젊은이들은 저마다 콩과 메밀과 팥과 수수를 베어서 지계에 짊어졌다. 돌

쇠의 부모가 살고 있는 마당에는 금방 나락으로 가득했다. 젊은이들은 콩을 넣어 놓고 도리깨질을 했다. 그 때였다. 동네에서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잘 하는 소리꾼 김 노인의 소리가 시작되었다.



“에허어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슬픈 노랫가락이 흥겨움을 더하여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도리깨질을 하던 사람들은 김 노인의 소리에 맞춰 후렴을 하면서 더욱 힘차게 콩을 털었다.

“이 마당은 콩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가지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놓고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

도리깨질에 맞추어서 소리는 이어졌다. 박 씨 부부는 슬픈 회다지곡조로 흘러나오는 도리깨질소리를 들으며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동네 아낙들은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울력을 하는 젊은이들과 박 씨 부부에게 주어 나누어 먹었다. 그 후 하추리에는 울력의 전통이 이어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공동체가 전승되고 있다.(<하추리의 울력전설>)





부 록

## 머슴날 놀이를 통해 본 민속놀이 발굴의 방법



# 머슴날의 의미와 철원군의 〈머슴날놀이〉

이 학 주

## Contents

- I. 서론
- II. 머슴날의 기록과 그 의미
- III. 철원군의 민속놀이 〈머슴날놀이〉
  - 1. 철원군 머슴날놀이의 현황
  - 2. 철원군 머슴날놀이의 분석 및 개선점
- IV. 결론

### I 서론

우리의 세시풍속은 그 의미에 따라 갖가지 의례(儀禮)를 행한다. 이런 세시풍속은 풍농(豐農)을 비롯해서 조상에 대한 의식(儀式) 및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 사람이 사는데 있어 가장 중심을 이루는 의식(衣食)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의식이 구비되어야 조상의 제사를 받들 수 있다는 조선조 후기 실학자들의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 때문에 세시풍속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경의례(農耕儀禮)이다. 농사는 최고의 식량자원이기 때문에 중요시 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대왕이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영실이라는 천민을 기용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은 농업의 발달에 있었다. 이밖에도 우리 현실에 맞는 각종 농서(農書)를 비롯해서 모내기 등의 농업기술을 향상시켰던 원인은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sup>1</sup> 이 때문에 24절기의 운영을 비롯해 농사와 관련한 세시풍속 및 의례가 많았던 것이다.

1 이학주, “세종대왕의 리더십”, 『여성지도자의 매너 리더십』, (사)강원예절문화교육원, 2011. 강의자료집, 98-9쪽.

무엇보다 힘든 농사를 하는 농민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또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儀式)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농사를 행할 수 있는 기본은 일손에 있었다. 일손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일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일반 소작농(小作農)과 농사를 지어주고 세정을 받는 머슴이었다. 그 때문에 우리 세시풍속에는 음력 2월 1일과 7월 15일을 머슴의 날로 규정해 놓고 그에 걸 맞는 의례를 행하였다. 머슴날은 머슴들만의 날은 아니었다. 물론 머슴이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술을 마시며 갖가지 행사를 했던 것이다. 이처럼 머슴날을 세시풍속에서 세시일(歲時日)로 지정할 정도이니 머슴이 얼마나 농사에 있어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머슴날의 의례는 전국적으로 같은 풍속도 있으나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도 주어져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런 머슴날의 기록과 그 의미를 찾아보고, 칠원군에서 행하는 〈머슴날놀이〉에 대해 분석한다.

## II 머슴날의 기록과 그 의미

머슴과 관련된 세시의 기록은 2월 1일(머슴날), 7월 15일(백중, 머슴날), 11월 22일(동지)에 있다. 이 중 머슴날로 기록돼 있는 날은 2월 1일과 7월 15일이다. 동짓날은 머슴들이 일 년의 마무리를 하고 세정을 받아가는 날이었다. 그러면서 팔죽을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을 하기도 했다.<sup>2</sup> 또한 7월에는 ‘호미씻이’라는 것이 있어서 행사를 했다.

7월이 되어 논과 밭의 김을 다 매게 되면 秋收때까지 농군은 閑暇하여져 어 정거리게 됨으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리만치 閑暇한 때이다. 이 農閑期를 利用하여 그 간의 勞苦를 慰勞한다는 뜻에서 「호미씻이」를 한다. 호미씻이는 호미를 다 썼으니 씻어 둔다는 뜻이다.

이날은 냇가나 나무 그늘에 모여 하루를 먹고 마시며 農樂까지 울리며 즐긴

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7, 648쪽.

다. 이날 飮食은 各戶別로 배당을 시켜 만들어 오게 한다.<sup>3</sup>

이처럼 호미씻이는 농촌에서 행하는 일종의 세시의례였다. 농사의 고된 일에 대한 노고를 위로한다는 의미와 냇가에서 음식을 먹으며 노는 모습은 천렵(川獵)과도 비슷하다. 이런 놀이는 화전놀이, 씨레씻이, 복(伏)놀이 등처럼 농촌에서 한가한 때를 틈타서 함께 공동체의 의식을 행하던 것이다. 이런 의식은 힘든 농사일을 함께 해야 했던 공동체의 단합대회이면서 농사로부터의 일시적인 공동의 일탈(逸脫)이면서 동시에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을 잠시 쉬면서 놀이를 통해 휴식을 즐기는 농촌문화의 일단인 것이다.

이런 의식 중에서 농사에 가장 필요한 머슴을 위로하는 날을 특별히 정해서 행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날은 머슴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일꾼이라고도 불렸던 소작농이나 ‘짜집’<sup>4</sup> 등의 일손까지 함께하는 날이었다. 그 때문에 사실 ‘머슴의 날’이라 하지만 광범위 하게 보면 농촌마을의 또 다른 축제(祝祭)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머슴날에는 몇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곧, 첫째는 농사일을 준비하는 농사의 시작준비, 둘째는 위로하고 사기 북돋기, 셋째는 성인식 및 품앗이 인정, 넷째는 풍년기원, 다섯째는 주술성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농사의 시작에 대한 준비 의미이다. 어떤 행위이든 시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짐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선조 정조 때 중화척(中和尺)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중화척(中和尺)을 재집(宰執, 宰相)과 시종신(侍從臣)에게 나누어 준다. 자는 반죽(斑竹)이나 적목(赤木, 이깔나무)으로 만든다. 건릉(健陵, 正祖) 병진년(1796)에 중국 당(唐)나라의 중화절(中和節)을 본뜬 것이다.

3 위의 책, 644쪽.

4 ‘짜집’은 농촌에서 일손의 수와 농사 양이 서로 비슷한 두 집 정도가 짝을 이루어 하루씩 번갈아 가며 농사를 행하던 농가의 한 제도이다. 이렇게 하여 힘든 농사일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하려 하였다.

생각건대 이필(李泌)의 「정월주(正月奏)」에 “정월 그믐날로 명절을 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청컨대 2월 초하루로 중화절(中和節)을 삼아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농서(農書)를 올리게 하고, 힘써야 할 근본을 나타내게 하십시오.”하였다. 자를 나누어 줌이 바로 이런 뜻이다.<sup>5</sup>

중화척이라는 자를 내려서 농사준비를 하고 힘쓰게 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농사짓는 데 참고할 책인 농서(農書)를 바치도록 했다. 이때 중화(中和)는 만물이 서로 화하여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중화절인 2월 1일이 되면 농사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임금님이 농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중화척을 내리고, 아울러 농서를 바쳐 농사에 힘을 쓸 것을 권장한 것이다. 이때 중화척(中和尺)은 곡식이 자라는 것을 재는 자이다. 곡식의 생육을 재면서 어느 때 얼마나 자랐는지를 살피고, 그에 맞춰 생육에 힘쓰도록 할 수 있는 도구였다. 농사준비를 하고 시작을 알리며 농사에 힘을 쓸 것을 권장하는 상징적인 물건인 것이다. 이런 의미는 김매순의 『열양세시기』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정조 병진년(1796) 중춘(二月) 초하루에 공경(公卿)과 근신(近臣) 등에게 자를 나누어 주었다. 이는 중화절(中和節)의 옛 일을 실행한 것이다. 정조가 친히 지은 시에

「자를 중화절에 나누어 주니  
홍니(紅泥)가 구중궁궐에서 내리는 것이다.  
오색선을 말라내어  
산룡(山龍)을 깎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였다.  
그런데 이 때의 자는 두루 쓰이는 바느질자보다 조금 짧았다.<sup>6</sup>

임금님이 옥새를 찍은 자를 나누어 주니, 임금님을 도와 농사에 힘써달라는 뜻이다. 정조의 농사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머슴날이라는 2월 1일에 자를 내린 것은 역시 농사의 시작을 알려 준비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더욱 확고해 진다.

5 홍석모 저,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 양우당, 1988, 59쪽.

6 김매순 저, 이석호 역, 『열양세시기』, 양우당, 1988, 124쪽.



農家에서 2月 1일을 <머슴날> 或은 <일군날>이라고 한다. 秋收가 끝난 뒤 오랫동안 일손을 놓았던 머슴이 2月부터는 農事準備를 해야 하고, 1年의 農事를 마치고 가을에 내보냈던 머슴을 이 때쯤이면 다시 드려오게 함으로, 이들을 위해 하루를 즐길 수 있게 準備하여 놀게 하는 날이다.<sup>7</sup>

이것을 종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인다. 그래서 속칭 이 날을 노비일(奴婢日, 하리아드랫날)이라고 한다. 농삿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이를 노비에게 먹이는 것이라 한다.<sup>8</sup>

나이 수대로 먹이므로 속칭 이날을 노비일(奴婢日)이라 한다. 농삿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족속에 먹이는 것이라 한다.<sup>9</sup>(『경도잡지』)

이처럼 농사가 시작 되는 때를 기려 농사준비를 했다. 그런 준비의식으로 떡을 해서 먹이며 그들만의 행사를 하는 것이다. 아무런 의식행위가 없이 그냥 일을 시키고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와 의식행위를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 같은 대가를 받더라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 효과는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곧,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에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계기를 의식행사를 통해서 일깨우는 것이다.

둘째, 머슴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 머슴날이라는 날을 정해 두고 그들에게 떡을 해주고, 돈을 주며, 놀이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위로와 사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머슴들이 더욱 농사일에 힘써 줄 것은 당연하다.

유득공의 『경도잡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정월 보름날 세웠던 화간(禾竿)을 내려 솔잎을 겹겹으로 깔아 떡을 만들어 노비(奴婢)들을 먹인다. 나이 수대로 먹이므로 속칭 이날을 노비일(奴婢日)이라 한다.<sup>10</sup>(『경도잡지』)

노비일에 떡을 해서 나이 수대로 먹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이 수대로 떡을 먹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국세시기』에서 “충청도 풍속

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앞의 책, 637쪽.

8 홍석모 저, 앞의 책, 60쪽.

9 유득공 저, 이석호 역, 『경도잡지』, 양우당, 1988, 174쪽.

10 위의 책, 174쪽.

에, 노소를 막론하고 15일에는 거리에 나가, 마시고 먹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sup>11</sup>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백중날(머슴날)의 기록인데, 분명히 ‘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 당시는 먹는 것이 귀했기 때문일 것인데, 나이 수대로 먹도록 했다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위로를 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기운은 빠지고 일은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로의 형태로 머슴들 뿐 아니라, 집안의 장정이나 아이들에게도 주는 ‘백중돈’이라는 것이 있었다. 떡을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쥐서 백중장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먹고, 옷을 사기도 하였다.

또 百種을 전후해서 서는 장[市場]은 ‘백중장’이라 한다. 이때는 여러 가지 놀이와 노름, 그리고 興行이 벌어지는 亂場이 서는 때이다. 이 백중장이 서면 주인들은 머슴들에게 새옷 한 벌과 장에 나가 먹고 쓰고 즐길 돈을 주니 이를 ‘백중돈’이라 한다. 이 백중돈은 농촌에서 머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壯丁과 아이들에게도 준다. 그러면 이들은 모두 새옷을 입고 신나게 장터로 나가 물건을 사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며 하루를 즐기게 된다. 이렇게 百種은 농부들과 머슴들의 名日이었으므로 이를 ‘머슴날’이라고도 한다.<sup>12</sup>

그런데 이런 위로는 머슴과 농부들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농촌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즐기는 동네잔치의 역할도 했음을 볼 수 있다.

2월 초하룻날은 ‘일꾼(머슴)의 명일’이라고 한다. 이날 메떡, 만둣국 등을 해서 마을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동네잔치를 한다. 또한 머슴을 부리는 집에 서는 머슴들에게 옷을 해주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머슴들은 2월 초하룻날에 와서 11월 동지에 나갔다.(상서면 구운리)

2월 초하룻날은 ‘일꾼의 명일’이라고 한다. 이날 떡과 음식을 준비해서 마을

11 홍석모, 앞의 책, 89쪽.

12 『한국민속대관』4(세시풍속·전승놀이),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235-6쪽. 비슷한 기록이 『충청남도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24쪽의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서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백중(百中)은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여름철 내내 힘들게 일한 머슴에게 용돈과 먹을 것을 넉넉히 주어 하루를 잘 먹고 즐겁게 놀게 한다. 대개 머슴들은 시장에 나가 개장국이나 떡 등을 사먹으며, 풍창도 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루를 즐겁게 지낸다. 저녁에 귀가할 때에는 주인에게 조그만 선물이나 음식을 마련하여 고마움에 보답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논다.(화천읍 신읍리)<sup>13</sup>

이렇게 동네잔치를 한 것으로 보면 머슴날 놀이는 머슴만 논 것이 아니라, 마을사람 모두가 머슴도 위로하고 스스로도 위로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논 것이다. 이는 농사일의 특성 때문인데, 농사일은 워낙 힘들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해야 할 일도 있다. 그리고 농촌공동체라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듯 농사일도 함께 한 경우가 많다. 위로의 차원이 머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머슴날의 행사는 동해안에서는 ‘질먹기’라는 형태로 전승하기도 하였다. ‘질먹기’가 굳이 머슴날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머슴날 행사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질’은 일종의 두레나 품앗이 일꾼들이 서로 일을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들은 세별 짐이 끝나면 질먹기를 하는데, 영서지방의 호미씻이와도 유사하다. 질먹기는 7월 중순경에 행해지는 것으로 집집마다 먹을 것을 장만해서 며칠 동안 놓고 마신다. 이때 머슴들에게는 특별히 통닭 등의 먹을 것을 제공한다.<sup>14</sup> 이처럼 ‘질먹기’도 머슴날에 행하는 것과 같은데, 이날은 특별히 머슴에게 잘해줬다<sup>15</sup>고 한다. 이렇게 머슴에게 특별히 잘한 것은 머슴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행위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성인식 및 품앗이 인정을 했다. 원래 우리의 성인식(成人式)으로 관례(冠禮)와 계례(笄禮)가 있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그런 의식을 따르는 사람도 있으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일손을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성인식을 치렀다. 그것이 머슴날 행하던 철원의 ‘진세’와 질먹기 때 행하던 동해안 지역의 ‘판례’라는 것이다. 진세와 판례는 관례와 계례와 같은 성인식은 아니지만, 둘 다 명칭만 다를 뿐 일종의 성인식으로 보면 된다. 곧 농사 일손이 모자라던 농촌에서 행하던 특별한 성인식이라 할 수 있다.

팔레시킨다고 해서 행사를 했다.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어른 신고식한다고 해서 술을 해서 내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품을 한 사람 몫으로 쳐

13 『화천민속지』, 화천군, 2004, 247쪽.

14 이학주, 『수동굴 사람들』, 한국학술정보(주), 2011, 241쪽.

15 위의 책, 40쪽.

주었다. 성인이 됐다는 신고식이었다.<sup>16</sup>

그리고 일을 새로 배워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술을 한 동이씩 해서 팔레라고 해서 신고식을 했다. 팔레를 하면 일을 잘 하든 못하든 품앗이 인정을 해줬다. 그럴 때는 술을 별도로 한 동이씩 해서 온다.<sup>17</sup>

위 인용문은 양양군 수동골에서 행하던 질먹기 때 판(판)례를 한 내용이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모두 성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신고식을 해야 했는데, 그 신고식은 술을 해서 동네사람들에게 내는 것이다. 그러면 성인으로 인정해서 품앗이를 어른과 같은 몫으로 했던 것이다. 드디어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신고식을 할 때 술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관례의식 절차의 하나인 초례(醺禮) 때 빈(賓)이 관자에게 술을 내려 마심으로써 성인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될 것이다. 술을 마실 나이가 됐으니 어른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가 깃든 것이다.

또한 머슴날은 ‘판례’나 ‘진세’를 뽑을 때 씨름을 하거나 돌을 들어 올려 이기는 사람을 선발하였다.<sup>18</sup> 이것은 단순하게 힘자랑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달리 보면 어른이 될 만한 힘을 소유했음을 측정하는 것이다.

넷째, 풍년기원을 했다. 농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먹을 것, 즉 곡식을 많이 생산해 내는 것이다. 머슴날이 만들어지고 또 그날 잔치를 해서 머슴 뿐 아니라, 동네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의례인 것이다. 영서지방에서 행하는 머슴날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날은 家族의 나이 수대로 숯까락으로 白米를 떠서 떡을 하고 마당에는 <보리낫가리>라는 것을 만든다. 이것은 今年農事가 豐年이 들기를 祈願하며 집가리에 수수깥 箒을 꽂아 장식을 하고 거름데미에는 옥수수 이삭이나 수수 이삭을 꽂아 아름답게 꾸며 놓고 飮食을 먹으며 農樂을 울리면서 하루를 즐긴다. 이 머슴날의 음식을 <말똥똥>이라고 하며 음식을 먹고 갈 때에는 <말똥똥>이 잘 먹었다고 한다.<sup>19</sup>

16 위의 책, 39-40쪽.

17 위의 책, 77-8쪽.

18 <망상질먹기놀이>땀플룻, 동해시, 1998, 참조.

1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앞의 책, 637쪽.

‘말뚥뚥’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보리난가리’ 등을 만들어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고 한다. 여기서 보리난가리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유사주술(類似呪術)형태로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쟁가리와 거름더미에 곡식 이삭으로 장식을 하는 행위도 풍년을 기원하는 유사주술성으로 보면 된다. 이것은 정월대보름에 화간(禾竿)을 하는 형태와 같다.

정월 보름날 세워 두었던 화간(禾竿, 벼가릿대)에서 벼이삭을 내려다가 흰떡을 만든다. 크개는 손바닥만하게, 작개는 계란만하게 만드는데 모두 반쪽의 둥근 옥모양 같다.<sup>20</sup>(『동국세시기』)

정월 보름날 세웠던 화간(禾竿)을 내려 솔잎을 겹겹으로 깔아 떡을 만들어 노비(奴婢)들을 먹인다.<sup>21</sup>(『경도잡지』)

머슴날에 행한 조선조의 풍습이다. 정월대보름에 풍요를 기원하면서 세웠던 화간(벼가릿대)에서 벼이삭을 내려 떡을 만들어 노비들에게 먹였다. 그때 만드는 떡은 반쪽의 둥근 옥모양 같다고 했다. 이것은 8월 추석에 먹는 송편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송편을 반달 또는 온달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달의 모양과 달의 차고 기우는 형태를 따라 만든 것이다. 이때 반달 모양의 송편은 달이 차듯이 온갖 곡식이 달처럼 차올라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 것이며, 온달 모양의 송편은 둥근 달처럼 역시 풍년이 들기를 바란 것이다. 화간 자체도 풍년을 기원한 것인데, 거기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또 다시 풍년을 기원한 것이다. 신라시대 때 백중절에 시작해서 추석날 길쌈을 끝내서 품평회를 열었던 가배일의 기원도 역시 풍요를 바라는 것이었다.<sup>22</sup>

섬을 만드는 날로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따로 행사는 없었다.<sup>23</sup> (대동리)  
또 밥 12그릇 먹고 나무 12짐을 해 오는 풍습도 있었다. 이 날을 일꾼의 날이라고

20 홍석모, 앞의 책, 60쪽.

21 유득공, 앞의 책, 174쪽.

22 김매순, 앞의 책, 7월 중원.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의 옛 풍속에 왕녀가 육부(六部)의 여자들을 데리고 7월 16일부터 대부(大部)의 뜰에 모여 베를 짜기 시작하여 8월 보름에 그 많고 적은 것을 심사해서 진 사람은 주식(酒食)을 갖추어 이긴 사람에게 사례하면서 서로 가무(歌舞)를 하며 온갖 놀이를 하다가 파하였으므로 7월 보름을 백중절(百種節)이라 하고 8월 보름을 가윗날(嘉俳日)이라고 했다.”(136쪽)

23 이학주 외, 『북산면 사람들』, 춘천문화원, 2010, 76쪽.

부르기도 한다.<sup>24</sup> (내평리)

춘천시 북산면에서 채록한 기록이다. 여기서는 ‘섬을 만드느 날’, ‘밥 12그릇 먹고 나무 12짐을 해오는 날’로 머슴날 또는 일꾼의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행위는 역시 모두 풍년 또는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이다.

다섯째, 주술적인 행위를 하였다. 앞서 본 풍년의 기원에서 ‘보리남가리’를 쌓거나 송편을 해 먹고, 거름에 장식을 해서 풍년을 기원한 것은 모두 주술의 형태이다. 사람의 행위는 모두 의미를 두고자 하는데, 이런 의미두기에는 언제나 기원이나 주술성이 깃들기 마련이다. 가령, 〈처용가〉에서 벽사진경(辟邪進慶)했다는 기록이나, 연초에 세화(歲畵)를 그려 문설주에 붙여 악귀를 쫓고자 한 풍속 등이 그렇다. 그렇듯이 머슴날에도 행사를 하면서 그 나름의 의미와 주술을 부여했던 것이다.

2월 1일은 찰밥을 해서 먹었다. 그렇지 않으면 논두렁 떨어진다고 했다. 또 밥 12그릇 먹고 나무 12짐을 해 오는 풍습도 있었다. 이 날을 일꾼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25</sup>(내평리)

이날은 취떡이나 송편을 해서 먹거나 콩을 많이 볶아 먹었다고 한다. 콩을 볶을 때 논밭에 벌레가 오지 말라고 말을 하며 볶았다.<sup>26</sup>(부귀리)

일꾼들을 집안에 들이는 날로 팔죽을 쑤어 일꾼들에게 먹였다.<sup>27</sup>(추곡리)

이처럼 논두렁 떨어지지 말라고 찰밥을 해서 먹든가, 벌레 생기지 말라고 콩을 볶아먹는 행위를 하였다. 게다가 팔죽을 쑤어서 부정을 막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술성도 궁극적으로는 풍요와 안녕을 바라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런 행위에 의미를 두었다. 이때 먹은 음식이 일반화됨으로써 시절음식이 되고, 그 행위는 세시풍속으로 고착화 되는 것이다.

24 위의 책, 28쪽.

25 위의 책, 같은 곳.

26 위의 책, 142쪽.

27 위의 책, 303쪽.

### III 철원군의 민속놀이 <머슴날놀이>

철원은 들이 넓고 강물이 풍부해서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했다. 농경문화가 발달한 덕에 먹을 것이 많았다. 비근한 예로, 먹을 것이 풍부한 원인으로 인해 궁예는 철원 땅에 태봉국의 도읍을 정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농경문화는 많은 민속놀이를 배출하였는데, 철원의 민속놀이 중 1984년의 <철원 거화대령>과 1986년의 <김화성황제>, 1998년의 <상노리 지경다지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사와 관련한 것이다.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대통령상을 받고 전수관까지 세워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 농사와 관련한 것으로 <철원머슴날놀이>는 1990년에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여 공로상을 받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머슴날과 관련하여 철원에서 민속놀이로 만든 <철원머슴날놀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1. 철원군 머슴날놀이의 현황

철원에서의 머슴날 행사에 관한 문헌기록은 많지가 않다. 그 중에 ‘술떡’과 ‘머슴날’이라는 명명으로 각각 전하고 있는 머슴날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술떡: 정월 15일 세웠던 벧가리를 2월 1일에 내려서 그 안에 넣었던 쌀로 떡을 만드는데 떡 사이사이에 술값을 넣어서 만들므로 이 떡을 술떡이라 부르고 이 떡은 머슴들에게 그 나이대로 나누어 준다. 그 이유는 농사일이 이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sup>28</sup>(『철원향토지』)

머슴날: 음력 2월 1일을 ‘일꾼의 날’ 혹은 ‘머슴의 날’이라고 하여 와수리에서는 일꾼이나 머슴을 위하여 이 날은 떡이나 술을 대접하고, 일꾼은 이날 나뭇가리를 가리는 습속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sup>29</sup>(『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여기서 보면 정월보름에 세웠던 벧가리를 헐어 술떡을 만들어 머슴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누어주고, 일꾼은 나뭇가리를 가리고 일꾼에게 술이나 떡을 대접한다고 했다.

또한 철원에서는 <철원 토성 풍년 난가리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난가

28 『철원향토지』3, 철원문화원, 2000, 44쪽.

29 김풍기, “철원군의 민속문화”,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학교박물관 · 강원도 · 철원군, 1995, 338쪽.



리를 쌓고, 장원머슴행차놀이 및 지게작대기치기 등을 했다고 한다.<sup>30</sup> 이런 행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보면 철원의 머슴날행사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머슴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곧,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머슴행사 대부분을 철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다. 조사를 더 해보면 현재 알려진 사실 말고도 더 많은 행사가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행해지는 머슴날 행사와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철원의 경우는 머슴날의 행사를 민속놀이로 만들어서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였다. 이것은 철원의 지역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머슴날에 대한 남다른 행사와 관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철원에서 행해지는 〈철원 머슴날놀이〉의 현황은 어떠한지 먼저 기록해 본다.

#### 〈철원의 머슴날 놀이〉

철원군은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강원 제일의 곡창지대로 일찍이 농경사회로 발전하여 왔다.

곡창 철원은 음력 2월이 되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예로부터 음력 2월 1일을 머슴날 또는 일꾼날이라 하여 주인은 ㉡음식을 장만하여 이들에게 대접하는 아름다운 농촌풍습이 있었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오랫동안 쉬던 머슴들이 농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그에 앞서 하루를 유쾌하게 놀리기 위한 것이다. 주인은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광주리나 짚으로 만든 음식꾸러미에 담아 집안에 있는 정자나무에 올려놓는데 이날만은 아무집이나 자유롭게 들어가 음식을 내다놓고 먹으면서 풍물을 울리고 춤과 노래로 하루를 즐긴다. 또한 이날은 ㉢20세가 된 청년 머슴들은 진세라는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데 들돌 들어 올리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성년임을 인정받는 민속이 있었다. 진세 후에는 ㉣씨름을 하여 가장 뛰어난 머슴을 뽑아 사또로 가장하여 해학적인 사또놀이를 즐기게 되는데 이날만은 아무도 이를 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풍악을 울리며 주인과 머슴이 한데 어우러져 한껏 흥을 돋우며 즐기게 되는데 이는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 달라는 일종의 부탁과 함께 ㉥협동과 화합을 다지는 조상들의 슬기와 멋이 담긴 민속놀이이다.<sup>31</sup>(밑줄 필자)

30 『철원향토지』, 앞의 책, 209-212쪽.

31 위의 책, 201-2쪽.; 제8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철원머슴날놀이〉팸플릿, 1990.

이 인용문은 철원의 머슴날놀이에 대한 설명부분이다. 이 인용문에서 보면 앞 장에서 보았던 머슴날행사에 대한 의미인 ①농사의 시작에 대한 준비, ②머슴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음, ③성인식 및 품앗이 인정, ④풍년기원, ⑤주술적 행위가 모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하나 더 첨부하여 사또놀이라는 해학적인 놀이가 첨부되어 있다.

이를 시나리오로 작성한 곳에는 “머슴날놀이는 지계를 지고 입장하여 등게타령을 부르는 모습, 진세식, 힘자랑(들들들어올리기), 씨름, 사또놀이, 한마당놀이를 구성되어 있다.”<sup>32</sup>라고 했다. 여기서는 머슴들의 전체적인 행사보다는 진세식이라고 하는 성인식과 사또놀이라는 대장 진세를 뽑아 양반과 관료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과장에는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민요가락을 넣어서 부른다. 민요 하나는 <등게타령>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를 한다. 원래는 ‘아이 어르는 소리’였는데, 기생을 거느리고 노는 노래도 있다. 다만 철원군의 <등게타령>은 내용이 달거리노래로 이어져서 일반적인 등게타령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놀이의 흥을 돋우는 데는 좋은 노래이다. 또 하나는 <손노래>라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선후창으로 부르는 <뚫다리밟기><sup>33</sup>라는 민요와 같다. <등게타령>과 <손노래>는 다음과 같다.

#### <등게타령>

정월이라 대보름엔 달구경하며 등게야  
 등게야 등게야 울어리소리에 등게야(후렴)  
 이월이라 한식절엔 북망산천에 등게야  
 삼월이라 삼짇날엔 제비가 떠서 등게야  
 사월이라 초파일엔 석가모니의 등게야  
 오월이라 단오일엔 그네를 뛰며 등게야  
 유월이라 보름엔 유두명절에 등게야  
 칠월이라 칠석날엔 견우와 직녀가 등게야  
 팔월이라 한가위엔 청춘남녀가 등게야

32 8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철원머슴날놀이>패플릿, 철원군, 1990.

33 “선창: 무스띠를 띠고왔네/ 후창: 관대띠를 띠고왔네/ 선창: 무스바지 입고왔네/ 후창: 진주바지 입고왔네/선창: 무스버선 신고왔네/ 후창: 타래버선 신고왔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6. 90-91쪽.

구월이라 구일날엔 기러기 떠서 등게야  
 시월이라 상달엔 무시루떡범벅이 등게야  
 동지달엔 동지팔죽 범벅을 보니 등게야  
 선달이라 흰떡범벅 가래떡 들고 등게야

〈손노래〉

청계상 냇다리에

게 어디서 손이 왔소 경상도의 손이 왔네

그 무엇하러 왔소 예계곡계 싸워왔네

몇 대간을 밟아왔소 쇤대간을 밟아왔네

무슨 갓을 쓰고 왔노 용당갓을 쓰고 왔네

무슨 망건 쓰고 왔노 외올망건 쓰고 왔네

무슨 띠를 띠고 왔노 광대띠를 띠고 왔네

무슨 바지 입고 왔노 진주바지 입고 왔네

무슨 버선 신고 왔노 달래버선 신고 왔네<sup>34</sup>(『철원향토지』)

## 2. 철원군 머슴날놀이의 분석 및 개선점

〈철원머슴날놀이〉는 머슴날의 행사 중 하나인 진세와 사또놀이를 민속놀이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를 공연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만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본 항목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지적하여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철원머슴날놀이〉 시나리오의 초점 ‘사또놀이’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를 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과장-입장

머슴들이 농악과 함께 입장하여 인사한 뒤 등계타령을 부르면서 정자나무로 모인다.

제2과장-진세

청년 머슴이된 사람한테 진세식을 갖는다. 애머슴을 둔 집에서는 이날 주인이 술, 안주, 음식 등을 장만하여 동네 어른들과 머슴들을 불러서 정자나무 주

34 『철원향토지』, 앞의 책, 202-3쪽.

위에서 잔치를 베푼다. 그리고 애머슴은 들들을 들어서 힘겨루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성인임을 인정받는다. 이때 상머슴들이 상투를 틀어주고 수건도 씌워준다.

#### 제3과장-씨름

진세식을 마친 다음 머슴들은 얼큰한 취기가 있고 다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로 씨름을 하여 힘센 자 한 사람을 뽑아 가마에 태워 정자나무와 마을을 한바퀴 돌고 사또를 시켜준다.

#### 제4과장-사또놀이

마을을 한바퀴 돈 다음 정자나무에 모여서 사또놀이를 시작한다. 양반중 샌님, 서방님, 도련님, 포졸이 장단에 맞추어 놀고 있고 머슴들에 뽑힌 사또가 이방에게 백성을 괴롭힌 양반을 잡아 오라고 명을 내리면 이방은 이를 알려 머슴들이 잡아다가 사또앞에 꿇어 앉혀놓고 이실직고 할때까지 두드리라고 한다.

이때 멍석을 뒤집어씌우고 두드리는 놀이는 머슴들이 즐겨 부르는 손노래를 부르면서 지게 작대기로 두드린다.

#### 제5과장-한마당놀이

참가자 모두 농악에 맞추어 풍년을 기원하고 주인과 머슴들이 어울려 정자나무 주위에서 화합의 소리로 한마당 놀이 춤을 춘다.<sup>35</sup>

이 시나리오에서는 형식적인 과장인 제1과장 입장과 마지막 제5과장 한마당놀이를 빼면 진세식과 사또놀이를 압축해서 볼 수 있다. 제3과장 씨름은 사또놀이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따로 과장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뒹직한 과장이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초점은 제4과장 사또놀이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철원 머슴날놀이〉는 서사구조에 따른 주제 의식이 모호함을 알 수 있다. 곧, 풍년의식이 아니라 양반 관료에 대한 항거와 비판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 시나리오에서 사또놀이는 머슴날의 원래 의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다. 머슴날은 앞항에서 봤듯이 양반관료에 대한 비판과 항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머슴날은 단순히 일 년 농사를 잘 지어 풍년이 오기를 기리는 행사이다. 그 와중에서 일손을 얻기 위해 성인식과 같은 행사를 하고, 행사 중에 상머슴을 뽑아서 축하를 하는 것이다. 이는 동해안에서 행하고 있는 ‘질먹기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36</sup>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5과장에서 “농악에 맞추어 풍년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35 제8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철원머슴날놀이〉팸플릿, 철원군, 1990.

36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망상질먹기놀이〉팸플릿, 동해시, 1998.

〈철원머슴날놀이〉의 제4과장은 강릉단오제 때 연희하는 〈관노가면극〉을 떠올릴 수 있다. 〈관노가면극〉의 인물은 양반,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장자마리라는 해학적인 인물을 등장시켰고, 서사구조도 갈등, 화해, 한풀이라는 세련된 구조를 갖고 있다.<sup>37</sup> 강릉의 〈관노가면극〉은 그 성격과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제의(祭儀)라는 신성시공(神聖時空)에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연희이다.

그런데 〈철원머슴날놀이〉는 〈관노가면극〉처럼 제의의 시공이 전혀 아니다. 다만, 농사가 시작되거나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머슴을 위로하고, 한 해 동안 일을 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인과의 화합 등을 다지는 세시행사일 따름이다. 이때는 동제(洞祭)를 따로 지내는 것도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신랑달기(동상례)와 같은 놀이에서 착상을 한 것 같은데, 신랑달기는 그 놀이의 성격이 분명하다. 왓달계, 사또 등의 인물이 설정되어 놀이를 하지만, 신부를 훔쳐간 도둑을 잡는다는 전제하에 친목(親睦)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과 술을 내어서 함께 마시며 노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필자가 당시 〈철원머슴날놀이〉에 참여했던 김응모(95) 옹을 방문하여 이 놀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때 김응모 옹도 사또놀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었다. 원래의 순수한 사또놀이가 아니라 과장이 너무 심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양반을 잡아서 멍석말이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 ‘사또놀이’는 상머슴을 뽑아서 가마를 태워 마을을 돌며 사물을 치며 흥겹게 노는 것이라 했다.<sup>38</sup>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오랫동안 심사했던 이기원은 월간 『태백』에서 ‘실제 전승놀이 민요 무용발굴 작품화 바람직’이라고 부제를 단 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먼저 습속을 재현하되 조작을 하지 말고 옛 모습 그대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연출할 때 각 마당 간의 연결이 매끄러워야 하고, 주연이 아닌 조연과 부수행위가 너무 두드러지지 말 것, 너무 일사불란한 동작 보다는 무질서가 오히려 나으며, 소품과 의상도 고증을 거쳐야 하며, 주제와 불필요한 각설이

37 정윤수, “강릉단오제 근원설화와 관노가면극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90.2. 참고.

38 철원군 서면 외소5리 김응모(95) 제보자의 집에서 필자 채록. 2013.5.14. 여기서 상머슴을 뽑아 가마를 태워 노는 것은 다른 머슴에게 상머슴처럼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머슴이 되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 거지의 출연은 피하라고 했다. 아울러 놀이에는 가락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민요는 구성지게 토속적인 것을 하라고 지적했다.<sup>39</sup> 이 지적은 우리가 민속놀이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원머슴날놀이>의 경우는 머슴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왜 머슴날 놀이를 하는 지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요의 선택에 대한 문제점이다. <철원머슴날놀이>에는 2곡의 노래가 등장한다. 앞항에서 본 <등계타령>과 <손노래>라는 것이다. 이때 <등계타령>은 전국적인 노래의 형태이다. 비록 철원에서 또 다른 형태로 전하고 있으나, 노래 제목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철원의 향토성을 느낄 수 없다. 가사에도 철원의 향토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놀이이기 때문에 굳이 향토성을 나타내지 않아도 상관없겠으나 철원에 살고 있는 머슴들과 일꾼들 그리고 농사꾼들이 향유하는 민요이다. 마치 정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한 마디 하세요.”라고 하면 바로 <정선아라리> 가락이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최소한 철원의 지명이나 철원 고유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야 정상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등계타령>은 흥을 돋우는 데는 적절하나 철원의 향토적인 면에서는 적절한 곡 선택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손노래>의 경우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손노래>는 경상도에서 불리지는 <놋다리밟기>와 같은 노래이다. 그 때문에 <손노래>의 서두에는 “경상도의 손이 왔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손’은 손님을 뜻하는데, 이 때문에 제목을 <손노래>라고 명명한 듯하다. 그러나 이 노래는 머슴날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머슴도 하나의 손님이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의미에서는 손님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머슴을 손님으로 보지는 않았다. 손님 보다는 일 년 단위로 세계를 받는 일꾼 또는 농사꾼의 의미가 더 크다. 주인과의 관계를 따지면 일종의 노사(勞使)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손노래>는 철원의 고유성과는 거리가 먼 노래이다.

그리고 이 노래는 <철원머슴날놀이>에서 상머슴인 사또를 뽑아서 놀이를 할 때 부른 노래이다. 놀이의 성격이 양반관료에 대한 비판과 항거이긴 하지만, 머슴놀이는 노조를 구성해서 주인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날이 아니다. 위로와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일 뿐이다. 원래 <놋다리밟기>는 풍년을 기원하든가, 상머슴(철원에서는 사또)을 뽑을 때 불렀던 민요가 아니다. 이로 보면 <철원머슴날놀이>에

39 이기원, “제11회 도민속경연대회를 마치고”, 『월간 태백』 77, 강원일보사, 1993.11. 86-89쪽.

서 〈손노래〉는 잘 어울리지 않는 노래이다. 차라리 흥겨운 노랫가락이 나올 듯하다.

철원 고유의 향토성을 띤 민요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머슴명절에 맞는 노래가 있을 것이다. 가령, 토속적인 면에서는 『강원의 민요』에 채록된 와수리 지역의 〈덩어리요〉나 〈골골타령〉도 괜찮을 듯하다.<sup>40</sup>

셋째, 시나리오작성의 내용문제이다. 〈철원머슴날놀이〉의 시나리오는 진세라는 머슴성인식과 상머슴인 머슴사또 뽑기에 치중해 있었다. 그것도 사또놀이가 순수한 위로와 화합의 놀이가 아닌 양반관료에 대한 비판과 항거가 주를 이루었다. 그 때문에 머슴날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면 머슴날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지, 일단 전국적으로 머슴날 행해졌던 행사의 단편들을 보기로 한다.

- ① 돈을 주어 쓰게 한다.
- ② 음식을 장만해서 배불리 먹고 취흥에 젖도록 한다.
- ③ 벗가릿대를 내려 떡을 해서 머슴의 나이 수대로 먹인다. - 솔떡(철원)
- ④ 머슴들끼리 풍물을 치며 노래와 춤으로 즐긴다.
- ⑤ 20살이 된 머슴은 성인식으로 술과 음식을 한 톱 낸다. - 진세(철원)
- ⑥ 보리난가리 만들기.
- ⑦ 중화척을 내린다.
- ⑧ 농書を 올린다.
- ⑨ 사또놀이를 한다. - (철원)
- ⑩ 나뭇가리를 만든다. - (철원)
- ⑪ 찰밥해 먹기.
- ⑫ 밥 12그릇 나무 12짐하기.
- ⑬ 취떡, 송편, 콩 볶아 먹기.
- ⑭ 천렵, 장작 뭉기.
- ⑮ 옷을 해준다.

이처럼 많은 행사가 머슴날에 치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언급된 행사 중 철원에서 행해지는 것은 네 가지이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놀이를 연행하도록 해

40 『강원의 민요』1, 강원도, 2001. 692-4쪽. 참조.



야 한다. 소품이나 행위도 이에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면 될 것인데, 철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독특하므로 굳이 다른 지역의 행사를 차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재목에서 ‘사또놀이’는 ‘머슴사또놀이’로 바꾸고, 사또놀이의 내용도 항거와 비판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흥겨운 화합의 놀이 자체로 바꾸면 좋을 듯하다. <철원머슴날놀이>에서 행해지는 사또놀이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연행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각색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그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다.

참고로 동해안지역에서는 ‘질먹기’를 7월 보름 경에 행한다. 이때 철원지방의 진세와 같이 ‘판례’라는 머슴성인식을 행한다. 그리고 판례 중에서 가장 힘이 센 판례를 대장판례라 하며, 대장판례가 뽑히면 가마에 태워 동네를 돌면서 논다. 이때 마을 어른들은 판례에 뽑힌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어른이 되었음을 축하해 준다. 대장판례를 태워 놀 때는 비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두꺼비놀이’를 하는데, 그 내용은 다르지만 철원의 ‘사또놀이’와 흡사하다.<sup>41</sup>

그렇다면 실제로 <철원머슴날놀이>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연행을 할 때는 철원에서 행해지던 고유의 세시풍속을 충분히 살리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풍년을 기원하며 세웠던 벧가릿대를 내려 떡을 해 먹는 장면을 한 과장으로 하고, 머슴성인식인 진세를 한 과장으로 하며, 머슴사또놀이를 한 과장으로 하면 될 것이다. 입장과 퇴장의식은 그대로 두면 된다. 그리고 나뭇가리와 나뭇단 묶기는 소품과 부수장치로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때 배경노래인 민요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의 세시풍속 중 하나인 머슴날의 의미와 <철원머슴날놀이>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머슴날은 농사를 주요 소득으로 하던 시절에 행해지던 세시의 식이며, 농경의례의 형태였다. 농사를 지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손이었고, 그 일손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일꾼으로서의 머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때

41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망상질먹기놀이>, 동해시, 1998.

문에 특정 날을 정해 놓고 그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했다.

머슴날의 행사를 분석해 본 결과 대략 다섯 가지의 의미를 추출해 볼 수 있었다. 그 중심은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것인데, 머슴날의 행사는 첫째로 농사시작에 대한 준비의 의미를 띠었고, 둘째는 머슴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날이었으며, 셋째는 성인식 및 품앗이 인정에 대한 것이고, 넷째는 가장 중요한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으며, 다섯째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다.

〈철원머슴날놀이〉는 철원의 현황과 분석 및 개선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현황으로는 많은 문헌에 그 내용이 전하지는 않지만, 위에서 살펴 본 머슴날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다. 게다가 특별한 행사놀이로 ‘사또놀이’를 행하고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시나리오의 초점이 풍년농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반관료에 대한 비판과 항거에 있었고, 둘째는 배경음악으로서의 민요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철원 고유의 향토성을 띤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특징 없는 민요를 부르고 있었다. 셋째는 시나리오작성의 문제점이었다. 양반관료에 대한 비판과 항거를 하는 사또놀이에만 치중하지 말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철원에서 행해지던 원래의 순수한 머슴날의 의미와 행사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의 민요』1, 강원도, 2001.
- 김매순 저, 이석호 역, 『열양세시기』, 양우당, 1988.
- 김풍기, 철원군의 민속문화,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학교박물관 · 강원도 · 철원군, 1995.
- 유득공 저, 이석호 역, 『경도잡지』, 양우당, 1988.
- 이기원, 제11회 도민속경연대회를 마치고, 『월간 태백』77, 강원일보사, 1993.11.
- 이학주 외, 『북산면 사람들』, 춘천문화원, 2010.
- 이학주, 세종대왕의 리더십, 『여성지도자의 매너 리더십』, (사)강원예절문화교육원, 2011. 강의자료집.
- 이학주, 『수동골 사람들』, 한국학술정보(주), 2011.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6.
- 정운수, 강릉단오제 근원설화와 관노가면극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석사논문, 1990.2.
-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망상지먹기놀이> 팸플릿, 동해시, 1998.
- 제8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철원머슴날놀이> 팸플릿, 철원군, 1990.
- 『철원향토지』3, 철원문화원, 2000.
- 『한국민속대관』4<세시풍속 · 전승놀이>,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7.
- 홍석모 저,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 양우당, 1988.
- \_\_\_\_\_, 『화천민속지』, 화천군, 2004.

※ 이학주, 「머슴날의 의미와 철원군의 <머슴날놀이>」, 『강원문화연구』32,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3.8.



## 저자소개

문래산인 文來山人 이학주 李學周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에서 출생했다. 현재 춘천시 후평동에서 살고 있다.

대학은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녔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연구>(2000.2)를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강의하고 있다. KBS춘천라디오에서 2010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강원로드> 800여회를 방송했다.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다.

저서는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문학세계』(2002), 『아들 낳은 이야기』(2004), 『강원인의 일생의례』(2005),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2009), 『북산면 사람들』(2010), 『사랑과 낭만의 도시 춘천』(2011), 『수동골 사람들』(2011), 『철원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북』(2012), 『고전 문학의 서사세계』(2012), 『한반도 배꼽이야기』(2013), 『홍천군 노천리 좌운리의 지명유래 스토리텔링』(2014), 『설화와 문화원형』(2014), 『38선의 기억』(2014), 『스토리텔링과 마을관광 박물관』(2015), 『내설악 그 명승에 빠지다』(2015), 『13도의군도총재 류인석』(2017), 『하추리 사람들』(2017) 등 수십 권이 있다.

논문은 『『오토기보코(伽婢子)』 <노래로 맺은 인연(歌を媒として契る)>에 나타난 생사관과 글쓰기: 글쓰기의 치유력(治癒力)을 중심으로』(2016), 「<崔致遠>을 통해 본 傳奇小說의 글쓰기론: 전기소설적인 판타지를 통한 주제부각 측면에서」(2016), 「동아시아 전기소설을 통해 본 글쓰기치유로서의 자산계승」(2016), 「류인석 전신영정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2016), 「류인석 의군도총재의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글쓰기 방식 新마인드맵의 원리를 활용한 선양 및 관광자원 발굴」(2016), 「解寃과 祈願의 상관관계를 통한 관광자원 원형 발굴 연구: 삼척 신남리 <애바위> 전설의 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2016), 「인제 마의태자설화의 문화적 의미와 관광문화콘텐츠 방안: 시공세계(時空世界)글쓰기와 고전의 현대적 활용」(2017), 「해당화서낭설화의 서사원형과 관광자원의 잠재성 분석」(2017), 「고려 팔관회와 춘천 외마귀수레짜옴의 축제적 상관성을 통한 관광문화콘텐츠 활용」(2017), 「<龍宮赴宴錄>의 치료관광스토리텔링 전통: 용궁을 통한 치료관광스토리텔링의 패러다임 구상」(2017), 「<東明王篇>을 통해 본 李奎報의 스토리텔링 전개」(2017) 등 수십 편이 있다.